

# 외규장각 의궤의

Bookbinding of the *Ogyujanggak Uigwe*:

Records of the State Rites of the Joseon Dynasty

## 장<sup>粧</sup> 황<sup>纘</sup>

외규장각 의궤  
학술총서

2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 외규장각의궤의

Bookbinding of the *Ogyujanggak Uigwe*:

Records of the State Rites of the Joseon Dynasty

## 장<sup>粧</sup> 황<sup>績</sup>

# 외규장각 의궤의

Bookbinding of the *Ogyujanggak Uigwe*:

Records of the State Rites of the Joseon Dynasty

## 장<sup>粧</sup> 황<sup>纘</sup>

외규장각 의궤  
학술총서

2

## 발간사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외규장각 의궤 학술총서 2 『외규장각 의궤의 장황粧纈』을 발간합니다. 이 학술총서는 지난 2011년 5월에 프랑스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의 중요성과 그 내용을 알리고 연구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기획의 일환입니다.

외규장각 의궤는 기존 국내 소장 의궤에서는 접하기 어려웠던 어람건 의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왕의 열람을 위해 제작된 어람건 의궤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장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책의 본문과 표지를 하나로 묶어서 장식하는 예술이자 기술인 장황은 서책의 가치와 개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형식입니다. 여기에는 당대의 미의식이 반영되어 있으며, 관련 장인의 솜씨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특히 외규장각 의궤는 왕의 열람을 위해 제작된 만큼 장황에 사용된 표지와 종이 등은 물론 글씨체나 그림 등에서도 당대 최고의 예술과 기술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람용 의궤가 국내에 많이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외규장각 의궤의 장황에 대한 충실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이 총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외규장각 의궤 장황의 형식적 특징을 조명하고, 장황에 사용된 비단과 금속, 종이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수록하여 외규장각 의궤의 가치를 새로운 관점에서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외규장각 의궤 전체를 대상으로, 장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형태적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다양한 측면에서 외규장각 의궤를 연구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2012년 1월부터 외규장각 의궤 홈페이지(<http://uigwe.museum.go.kr>)를 통하여 연차적으로 외규장각 의궤 원문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홈페이지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앞으로도 외규장각 의궤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의궤를 심층적으로 조명하는 연구총서를 연차적으로 발간하고자 합니다.

2014년 12월  
국립중앙박물관장  
김 영 나

## Foreword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s pleased to present *Bookbinding of the Oegyujanggak Uigwe* (Records of the State Rites of the Joseon Dynasty), the second installment in a series of anthologies of academic essays on these royal texts, which were returned from France to their homeland in May 2011. This series is designed to promote the use of the texts in further research and to make the content and significance of the *Oegyujanggak Uigwe* known to the public.

The *Oegyujanggak Uigwe* consist almost entirely of king's copies, copies of *Uigwe* that were created for exclusive use by the king. King's copies of *Uigwe* are differentiated from copies for general use by their binding, or *janghwang*. In addition to being the artistic technique by which the cover of the book is bound to the inner pages and finally embellished, this binding also provides the essential format for determining the value and characteristics of a given copy. The binding reflects the aesthetic values of the time and the exceptional skill of the artisans who created it. The king's copies of the *Oegyujanggak Uigwe* in particular showcase the finest artistic techniques of the age not only in the quality of the paper and cloth covers that were used as binding materials but also in the painting and calligraphy works by contemporary masters that were included in each copy.

With the intention of providing in-depth information on the binding of the *Oegyujanggak Uigwe*,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publishes this anthology, which illuminates the physical features of the bindings and offers scientific

analyses of the silk, metal, and paper that make up the binding materials. The results of thorough investigation into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binding details of each and every copy of the *Oegyujanggak Uigwe* are presented in a table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further research.

In January 2012,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opened a webpage (<http://uigwe.museum.go.kr>) to offer online services related to the *Oegyujanggak Uigwe*, including electronic images and versions of the original texts. The data are updated annually and will be completed in January 2016.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ntends to continue the annual publication of this anthology series in the future, offering multifaceted, in-depth examinations of the *Oegyujanggak Uigwe* in order to introduce the value of the texts to a wider public and to promote scholarly use of the research findings.

December 2014

Director, National Museum of Korea

Kim Youngna

논고 Essays

1. 봉안 서책과 외규장각 의궤의 상황 Comparative Analysis of the Binding of the <i>Oegyujanggak Uigwe</i> and the Binding of Other Royal Joseon Texts 조계영 Cho Gye-young	12
2. 외규장각 의궤 상황의 특징 Characteristics of Bindings of the <i>Oegyujanggak Uigwe</i> 유새롬 Yu Sae-rom	36
3. 외규장각 의궤 변철 조사 <i>Byeoncheol</i> of the <i>Oegyujanggak Uigwe</i> 박학수, 한나라 Park Hak-su · Han Na-ra	68
4. 외규장각 의궤 책의에 사용된 직물무늬 Textile Patterns on the Cloth Covers of the <i>Oegyujanggak Uigwe</i> 박승원 Park Seung-won	88
5. 외규장각 의궤 책지의 특성 Characteristics of Paper Used in the <i>Oegyujanggak Uigwe</i> 천주현 Cheon Ju-hyun	116

자료 Materials

1. 외규장각 의궤 상세 목록 Detailed List of the <i>Oegyujanggak Uigwe</i>	140
2. 외규장각 의궤 변철 도판 Plates of <i>Byeoncheol</i> of the <i>Oegyujanggak Uigwe</i>	204
3. 외규장각 의궤 책의 직물 도판 Plates of Cloth Covers of the <i>Oegyujanggak Uigwe</i>	254

일러두기

1. 이 책은 2011년 2월 7일 프랑스-한국 간 합의문 및 3월 16일 프랑스국립도서관과 한국 국립중앙박물관 간 체결된 약정에 의하여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의 연구 활용을 진작하기 위해 기획된 '외규장각 의궤 학술총서'의 두 번째 책이다.
2. 이 책은 외규장각 의궤의 '상황'을 주제로 한 논고편과 자료편으로 구성되었다. 자료편에는 외규장각 의궤 전체에 대한 실사 결과를 정리한 상세 목록 및 변철邊鐵과 책의冊衣 직물의 도판 자료를 수록하였다.
3. 외규장각 의궤 297책 중에는 의궤가 아닌 자료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를 지칭할 때는 '외규장각 의궤'로 통칭하였다.
4. 의궤의 서명은 내제內題를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성격의 의궤와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부 수정하였다. 주인공이 있는 행사를 기록한 의궤는 내제 앞에 주인공의 명칭을 붙여 표기하였다. 이때 주인공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명칭을 대표명으로 삼되, 의궤 서명 내에서 격을 맞추어야 할 경우에는 대표명 외에 다른 명칭을 사용하였다.
5. 의궤의 연도는 의궤에 기록된 행사 연도가 아닌 의궤 편찬이 완료된 연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6.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립국어원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랐다.

# 논 고 Essays

1. 봉안 서책과 외규장각 의궤의 상황  
Comparative Analysis of the Binding of the *Oegyujanggak Uigwe*  
and the Binding of Other Royal Joseon Texts  
조계영 Cho Gye-young
2. 외규장각 의궤 상황의 특징  
Characteristics of Bindings of the *Oegyujanggak Uigwe*  
유새롬 Yu Sae-rom
3. 외규장각 의궤 변철 조사  
*Byeoncheol* of the *Oegyujanggak Uigwe*  
박학수, 한나라 Park Hak-su · Han Na-ra
4. 외규장각 의궤 책지에 사용된 직물무늬  
Textile Patterns on the Cloth Covers of the *Oegyujanggak Uigwe*  
박승원 Park Seung-won
5. 외규장각 의궤 책지의 특성  
Characteristics of Paper Used in the *Oegyujanggak Uigwe*  
천주현 Cheon Ju-hyun

# 봉안 서책과 외규장각 의궤의 장황

## 01

Comparative Analysis of the Binding of the *Oegyujanggak Uigwe*  
and the Binding of Other Royal Joseon Texts

조계영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

Cho Gye-young  
HK Reserch Professo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 I. 머리말
- II. 어람 서책의 장황
- III. 봉안 서책의 장황
- IV. 외규장각 의궤의 장황
- V. 맺음말

### I. 머리말

책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지식 등을 글이나 그림으로 기록한 것으로 인쇄되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퍼져나간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로 묶어서 표지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정보를 보존하는 매체'로서의 책이 성립한다.

조선 시대에는 책의 완성을 거론할 때 '인출<sup>1</sup>印出'과 '장황<sup>2</sup>粧纒'의 두 과정으로 구분하였다. 인출은 책판<sup>3</sup>冊板이나 활자로 책을 찍어 내는 것이며, 장황은 인출한 종이와 표지를 하나로 묶어서 장식하는 것이다.<sup>4</sup> 책의 표지는 '책의冊衣'라고 부르는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옷을 입듯이 책의 몸체를 보호하기 위해 입힌 옷이라는 뜻이다. 책의가 온전하게 남아 있는 책은 그렇지 않은 책과는 보존 상태가 전혀 다르다.

책의는 책의 내용을 알려주는 정보를 담고 있거나, 사람의 눈길을 끄는 장식이 있기 때문에 그 책의 개성이 된다. 책의 본문에 사용된 종이를 '책지冊紙'라고 한다. 책을 책판이나 활자로 인출했다면 인출지<sup>5</sup>印出紙가 책지가 되며, 붓으로 서사<sup>6</sup>書寫했다면 정서지<sup>7</sup>正書紙가 책지인 것이다. 어떤 종이를 책지로 사용했는가 하는 점도 장황의 한 요소가 된다.

책을 인출하거나 서사하거나 수록하고 있는 정보(텍스트)가 동일하다면 책의 내용으로서의 가치는 동등하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의 책이라 하더라도 어떤 형태(물질)를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 책의 가치는 달라진다. 즉 책의를 종이 아닌 비단으로 제작하였거나 책지로 질이 좋은 종이를 사용한 책이라면, 책의 가치는 물질에 의해 좌우된다. 나아가 열람자에 따라 책의 형태를 이루는 물질이 차별되었다면 책의 위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책의 가치를 구명할 때에는 항상 책을 구성하는 내용과 형태, 이 두 가지 측면을 동등한 시각으로 고찰해야 한다.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관점을 추가해야 하는데 그것은 책의 용도이다. 책을 인출하는 것은 균정한 정보를 널리 전하여 읽혀지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오직 하나밖에 없고 특정한 사람 이외에는 읽히지 않는 것이 목적인 책이 있다. 또한 영구 보존을 목적으로 특별한 곳에 받들어 모시는 '봉안<sup>8</sup>奉安'을 위한 책도 존재한다.

외규장각 의궤는 국왕이 보는 어람건<sup>9</sup>御覽件으로 관서에 나누어 보관하는 반사건<sup>10</sup>頒賜件과는 차별되는 위상을 지닌다. 외규장각 의궤는 책의 용도가 어람이기 때문에 차별된 장황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국왕이 열람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었던 어람건 의궤가 외규장각에 봉안됨으로써 봉안

1. 장황의 뜻과 용례에 대해서는 趙啓榮, 『朝鮮王室 奉安 書冊의 粧纒과 保存 研究-『璿源系譜紀略』과 『國朝寶鑑』을 중심으로』(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10~24쪽.

건에 상응하는 위격位格을 지니게 된 것이다.

이 글은 『선원계보기략』과 『국조보감』을 중심으로 봉안건의 상황을 외규장각 의례의 상황과 비교함으로써, 외규장각 의례의 상황이 가지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II장에서 일반 서책의 어람건 상황에 대한 사례로서 진강進講 서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외규장각 의례의 상황과 대비되는 『선원계보기략』과 『국조보감』의 봉안건의 상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IV장은 의례의 편찬 과정을 고찰하여 외규장각 의례의 상황에서 발견되는 용어들을 밝히고자 한다.

## II. 어람 서책의 상황

한 권의 책을 구명하고자 할 때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책의 내용과 형태 그리고 용도이다. 특히 책의 형태와 용도는 긴밀한 관계를 지닌다. 용도에 따라 변화되는 책의 형태는 당시 사회의 '책문화(Book Culture)'를 읽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이 장에서는 경연經筵에 쓰인 어람책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연은 국왕이 학문을 배우고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로, 유학의 경전을 읽고 배웠으며 경연이 끝난 후에는 국가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경연에서 읽은 책은 왕실 의례와 관련되어 편찬된 책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봉안건을 마련하지 않았다. 따라서 진강 어람책御覽冊의 상황은 일반 서책의 어람건 상황을 보여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홍문관은 내부內府의 경연 서적을 맡은 관서로서 진강할 때에 국왕이 보는 어람책을 담당한다. 『홍문관지』에는 진강 서책進講書冊을 장황할 때의 규정이 있어 실제 사례와 비교할 수 있다. 진강 어람책 한 질을 장황하는데 들어가는 물품은 홍문관에서 해당 관서에 문서를 보내 가져왔다. 홍문관에는 장황을 담당하는 제책제원製冊諸員 1인이 있었다. 제책제원은 교서관의 장책제원粧冊諸員이나 서운관의 책장冊匠과 동일한 호칭으로 잡직雜職에 속한다.

어람책은 제목을 적고 홍사紅絲로 묶었으며, 황대록피黃大鹿皮로 끈을 갖춘 책갑도 새로 만들었다. 어람책은 책갑에 넣고 홍주紅紬 5폭 보자기로 정성껏 싸서 미리 대내에 들여 진강에 대비하였다. 만약 국홀國恤을 당하면 어람책을 다시 내주기를 청하여 책의를 고정지藥精紙로 바꾸고 책을 묶은 홍사를 청사靑絲로 개장하였다. 황대록피로 만들었던 책갑은 백록피白鹿皮로 고치고, 홍

주 보자기는 남주藍紬 5폭 보자기로 바꾸어 대내에 들었다.<sup>2</sup> 서책을 출납하고 수장을 검속하는 일은 홍문관의 책색서리冊色書吏가 담당하였다.<sup>3</sup>

1720년 6월에 숙종이 승하하였을 때 국홀시의 상황 규정을 따라 진강 서책을 개장하였다. 11월 3일 홍문관에서 전부터 국홀시의 경연 책자는 고정지와 남사藍絲로 장황하여 들이는 규정이 있었으니, 진강 서책인 『서전書傳』을 개장하도록 홍문관에 내려달라고 아뢰었다.<sup>4</sup>

1731년 5월 19일에는 소대召對에서 시강관侍講官 김상성金尙星이 진강 서책인 『예기禮記』에 토를 달고 책의를 고정지로 개장하여 들이는 것을 아뢰어 영조가 윤허하였다.<sup>5</sup> 이때는 1730년 6월에 경종의 비인 선의왕후宣懿王后(1705~1730)가 승하하고 혼전魂殿이 설치되어 있던 기간이었다.<sup>6</sup> 1724년에 경종이 승하하고 6년 뒤에 승하한 선의왕후는 대비로서 승하하였기 때문에 삼년상을 치렀다. 따라서 1731년은 선의왕후의 상중喪中이기 때문에 책의를 고정지로 개장한 것이다.

이와 반대의 사례는 국홀 기간 동안 고정지로 책의를 입혔던 진강 책자를 본래의 상황으로 개장한 것이다. 1802년 6월에 호조판서 조진관趙鎭寬은 정조의 담제禫祭 이후에 홍문관에 있는 책들을 '황지黃紙'로 다시 개장하는 것에 대해 건의하였다. 황지란 책의에 사용될 종이인 의지衣紙를 황염수黃染水로 물들인 것을 말한다. 이 작업은 책장이 담당하지 않고 제용감濟用監에서 의지를 가져가 염색하였다. 국왕에게 올리는 진상진進上件이나 왕세자에게 올리는 진헌진進獻件의 의지는 초염과 재염으로 두 차례에 걸쳐 황염수로 물들였다.

조진관은 3천 권에 이르는 책자를 개장할 때의 경비를 고려해 고정지의 책의는 그대로 두고 청사로 묶은 실만 홍사로 바꾸는 것을 제안하였다. 고정지로 장황한 책의는 황색과 백색 사이의 색으로 장황에서 항상 쓰는 색이니 개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어람책 이외는 책의를 그대로 두고 홍사만을 개장해도 무방하리라는 의견이었다.

이에 대해 정순왕후貞純王后(1745~1805)는 당초에 진강 어람책만을 조금씩 개장했다면 3천 권

2. 『홍문관지弘文館志』, 「進講第三」, 「進講書冊」, 「進講時所用 御覽冊一帙 裝綴所入物件 自本館移文該曹 取來裝綴 書題目(用紅絲) 新造冊匣一部(用黃大鹿皮具纓子) 及紅紬五幅袱一件 精裹本冊 豫爲內入(入番看品 冊吏領納) 以備進講 如值國恤 則御覽冊一帙 還爲請出 以藥精紙及靑絲 改裝以入 而白鹿皮冊匣 及藍紬五幅袱 改造以入」

3. 위의 책, 「職官第二」, 「差除」, 「冊色書吏(專掌書冊出納檢藏等事) 七人(啓下)」

4. 『승정원일기』 권527, 경종 즉위년 11월 병인. <http://sjw.history.go.kr/url.jsp?ID=SJW-E00110030-00900>

5. 위의 책, 권723, 영조 7년 5월 신사. <http://sjw.history.go.kr/url.jsp?ID=SJW-F07050190-00800>

6. 혼전은 국왕이나 왕비가 승하했을 때 그 신주를 봉안하는 전각을 말한다. 보통 국상이 생기면 시신을 안치하는 빈전殯殿이 설치되고 이어 능에 모시는 산릉山陵을 치르게 된다. 장례를 마친 후 신주를 모셔와 혼전에 봉안하며, 신주를 종묘에 모시는 부묘附廟를 할 때까지 혼전에서 상례와 관련된 모든 의례가 행해진다. 따라서 혼전은 상복 기간 동안 설치되었다. 윤정, 「조선시대 魂殿 운영에 대한 기초적 정리」, 『奎章閣』28(2005), 78쪽.

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니 당시에 절약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sup>7</sup> 또한 지금 책사冊絲만 바꾼다 해도 그 비용이 적지 않고, 게다가 책의가 고정지면 청사로 묶는 것이 장책의 격에 맞는 것이니 그대로 두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정순왕후의 견해대로 고정지의 책의는 청사로 묶는 것이 본래의 격식이었고, 내부에 소장된 서책에는 그와 같이 장황한 책이 많이 있어 결국 개장하지 않았다.<sup>8</sup>

1807년 1월에 호조판서 서영보徐榮輔는 홍문관의 서책을 개장할 때, 1802년에 고정지와 청사의 장황을 그대로 사용한 전례는 따르겠다고 아뢰었다. 이때는 정순왕후가 1805년 1월에 승하하여 삼년상을 끝내고 종묘에 신위를 모시는 부모를 앞두고 있던 시기여서 홍문관 서책 개장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교리 이우재李愚在는 국상을 마친 후에 진강 어람책에 소색素色(흰색)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는 직임을 맡은 자가 매번 경비가 어렵다고 편리함만 쫓아 힘쓴다면 어람책의 장황이라는 사체事體를 구차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홍문관의 모든 책을 개장하는 것은 어렵지만, 강관이 보는 책과 그 외에 불시의 예람睿覽 책자라도 호조에 분부해 개장하는 것이 좋겠다고 아뢰었다.

이우재의 의견에 대해 서영보는 고정지와 청사로 장황한 것은 황색과 백색 사이에 있는 것이니 온전한 소색은 아니라는 것이다. 순조는 홍문관의 책이 한두 질도 아니고 『강목綱目』과 같은 거질의 책들을 모두 개장하기는 어려우며 고정지는 서영보의 말처럼 소색이 아니라고 하였다. 좌의정 이시수李時秀는 진강 책자 이외는 개장해야 하는지 모르겠으며 개장한다 해도 황색 책의에 불과하니 고정지와 차별이 없다는 의견이었다. 즉 진강 어람책은 예전부터 빈번히 개장했지만 그 외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였다.<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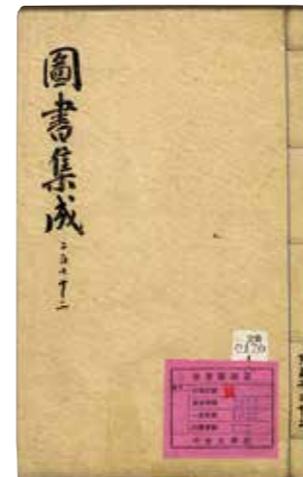
이상의 논의에서 요점은 책의에 사용된 고정지의 색에 있다. 국상 기간에는 소색을 써야 되기 때문에 책의의 재료 가운데 소색에 가까운 고정지를 사용했지만, 고정지의 색이 흰색이 아니고 담황색淡黃色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논의가 제기된 것이다. 이우재가 국상 후의 개장을 주장한 것은 의례 규정을 실천하는 것에서 개장의 본의를 찾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을 맡은 호조판서의 입장에서는 장황 규정을 완전하게 실현하지 못하는 개장이라면 본의가 아니라고 판단했기에 시의時宜에 따라 변통했던 것이다.

7. 정순왕후 김씨는 1800년에 순조가 11세로 즉위하자 대왕대비로서 수렴청정을 시작하여 사도세자를 동정했던 시파를 숙청하고 천주교를 탄압하였다. 1803년 12월에 수렴청정을 그쳤다.  
8. 『승정원일기』 권1854, 순조 2년 6월 기유. <http://sjw.history.go.kr/url.jsp?ID=SJW-H02060100-03200>  
9. 위의 책, 권1921, 순조 7년 1월 정미. <http://sjw.history.go.kr/url.jsp?ID=SJW-H07010050-01000>

책의에 고정지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사례는 『규장각지奎章閣志』의 ‘장서粧書’ 항목에서 볼 수 있다. 규장각은 책을 장황할 때에 교서관에서 솜씨 좋은 책장을 뽑아 내각으로 보내게 하여 장황하였다. 간혹 교서관으로 책을 보내어 장황하게 될 때는 호조에서 장황에 필요한 재료와 임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특히 중국 서책은 반드시 고정지로 책의를 입히라고 규정하였는데, 고정지는 평안감영에만 있기 때문에 내각에서 필요한 수량만큼 관문關文을 보내어 지정하였다.

중국 서책은 몸체의 앞뒤에 한 장의 종이나 견직물을 덧대어 책의를 만들기 때문에 찢어지고 훼손되기 쉽다. 따라서 정조는 중국 서책을 구입하면 반드시 고정지로 책의를 개장하도록 규정하였다.<sup>10</sup> 1777년 2월에 중국에서 구입해 온 『흠정고금도서집성欽定古今圖書集成』은 조선 서책의 장황으로 개장하여 5,022책을 502개의 책갑에 보관했는데,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현전본 『도서집성』의 책의를 보면 그 색은 베이지beige에 가까운 옅은 황색이어서 앞서 고정지의 소색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해할 수 있다.<sup>51</sup>

정조는 1780년 1월 9일에 개장을 마친 『도서집성』을 검서관인 이덕무·유득공·박제가·서이수에게 부목部目을 베껴내게 하였다. 이는 개장한 『도서집성』의 앞면지에 사자관들이 부목을 옮겨 쓸 때 참고하기 위해서이다.<sup>52</sup> 당대 명필인 조윤형趙允亨은 『도서집성』의 책의에 ‘圖書集成’ 네 글



도1. 『흠정고금도서집성』 책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2. 『흠정고금도서집성』 앞면지에 사자관이 쓴 부목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0. 중국 서책과 조선 서책의 장황에 대한 정조의 인식은 조계영, 「조선 후기 중국서책의 수용과 형태 인식」, 『동아시아의 문헌 교류』(소명출판, 2014), 15~16쪽.

자의 서명을 5,022번을 썼다.<sup>11</sup> 『도서집성』의 개장에 관한 기록과 현전하는 기록물은 조선에서 구입한 중국 서책의 상황에 대한 책문화의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이다.

서책의 상황에서 책의 못지않게 주목해야 하는 요소로 ‘면지面紙’와 ‘공격지空隔紙’가 있다. 면지는 책의 뒷면에 배접한 후배지後背紙가 보이지 않도록 한 장 덧댄 종이를 말한다. 면지는 책에 붙여진 쪽의 반대 면이 백지로 비어있기 때문에, 내사內賜 기록이나 서책의 소장자가 남긴 다양한 기록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어람건이나 봉안건 서책에는 면지 다음에 종이 한 장을 더 넣어 책의 격을 높였는데 그 종이를 공격지라고 부른다.

경연에서의 진강 어람책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책으로 보양청輔養廳에서 원자元子가 진강했던 서책이 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소학제가집주小學諸家集註』는 1736년 1월 21일에 첫돌을 맞은 사도세자에게 영조가 내려준 책이다. 이 책의 공격지 앞면에는 “대내에서 소학 한 건을 준다. 내가 즉위하고 열 두해인 병진년 정월 21일은 세자의 돌이다”라는 영조가 쓴 장서기가 있다.<sup>12</sup><sup>도4</sup> 이 책은 무늬가 없는 남색 비단인 ‘주紬’로 책의를 입히고, 서명을 적은 장제목長題目은 흰색의 주에 쓰고 그 둘레를 붉은 색의 주로 장황하였다.<sup>도5</sup> 원자의 진강 서책에 사용된 『소학제가집주』는 어람건과 비교해 볼 때 대등한 격으로 꾸며, 장차 국왕이 될 원자의 지위에 맞게 장황했음을 알 수 있다.

사도세자는 이 책을 1753년 9월 22일에 첫돌을 맞은 정조에게 다시 내려 주었다. 이 책의 공격지 뒷면에 사도세자는 “계유년 9월 22일에 태조께서 나의 첫돌에 주신 책을 원손의 첫돌에 전



도3. 『소학제가집주』 책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4. 『소학제가집주』 영조의 장서기와 사도세자의 칠언절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5. 『소학제가집주』 사도세자의 장서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1. 조계영, 「조선 후기 중국서책의 구입과 장황의 변화」, 『한국문화』48(2009), 29~33쪽.  
12. 『소학제가집주』(奎11680). '內與小學壹件 予卽卅十二年丙辰 正月二十一日 世子周年也'

해 준다. 영원히 후세에 전해지기를”이라고 적었다.<sup>13</sup><sup>도5</sup> 영조가 공격지의 앞면에 먼저 장서기를 기록했고 이어 뒷면에 사도세자가 장서기를 적었기 때문에 여백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사도세자는 앞면지로 돌아와 “소지小識”라 적고, 그 아래 “성상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원손에게 전하니, 나의 첫돌과 원손의 첫돌에 모두 이 책을 쓰네. 흘러온 그 세월이 18년이니, 오늘에야 이때를 술회하노라”는 칠언절구七言絕句를 기록하였다.<sup>14</sup><sup>도4</sup> 이 책은 사도세자가 18년 동안 지니고 있다가 정조에게 물려준 것이다.

원자 보양청이 설치되면 제일 먼저 원자와 사부의 상견례相見禮를 거행한다.<sup>15</sup> 1797년 4월 18일에 7세의 원자 순조는 상견례와 개강례開講禮를 연습하였다. 이 날 규장각 제학 정민시鄭民始가 진강 책자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아뢰자, 정조는 『소학小學』으로 정하고 세손 시절에 진강했던 『소학』을 순조에게 내렸다. 사부와 유선諭善에게는 홍문관에 있는 영조 연간에 경연에서 사용하던 책을 쓰게 하였다.

### III. 봉안 서책의 장황

국왕을 비롯한 왕실 구성원이 직접 생산하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책을 ‘왕실 서책’으로 지칭할 수 있다. 왕실 서책은 특별한 곳에 봉안되어 왕실을 상징하는 기록물로서 영구히 보존되기를 도모하였다. 이 장에서는 왕실 서책의 위상을 봉안건의 장황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왕에게 올리는 진상건과 신하와 관서 등에 하사하는 반사건의 장황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선의 관료제는 직무의 연속성과 업무 처리 능력을 중시하였고, 기록물 생산이 증가됨에 따라 기록물 보존 체계에 주목하게 되었다. 조선 전기부터 기록물 보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했고, 그에 관한 규정은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장문서藏文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시대에 기록물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 봉안했던 대표적인 곳은 사고의 사각史閣과 선원각璿源閣이다. 사각은 실록을 봉안한 곳이어서 ‘실록각實錄閣’ 혹은 ‘장사각藏史閣’으로도 불렸으며, 선원각은 ‘선원보각璿源寶閣’이나 ‘보각寶閣’으로 칭한다.

왕실 서책은 어떤 내용을 담은 책인가에 따라 봉안하는 곳이 달랐다. 『열성팔고조도列聖八高

13. 위의 책. ‘癸酉九月廿二日 太朝錫我初誕辰冊 傳于元孫初誕辰也 永垂于後’  
14. 위의 책. ‘聖上錫我我傳孫 我誕孫誕並用是 以來其間十八載 獲觀今日舒此時’  
15. 김문식·김정호, 『조선의 왕세자 교육』(김영사, 2003), 93~95쪽.

祖圖』와 『국조어첩國朝御牒』, 『선원계보기략』 등과 같은 왕실 족보는 중부시의 선원각과 경외京外에 위치한 네 곳의 선원각에 봉안하였다.<sup>16</sup> 따라서 선원록이 완성되면 봉안할 5건을 마련하였다. 이 장에서는 먼저 『선원계보기략』을 대상으로 봉안건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원계보기략』은 1679년(숙종 5)에 낭원군朗原君 이간李僞이 편찬하여 목판으로 간인하기 시작했는데, 국왕을 비롯한 왕실 구성원들의 의례가 거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수정하였다. 『선원계보기략』은 진상건과 함께 왕세자에게 올리는 진헌건이 있다. 선왕先王들이 지은 글을 모은 『열성어제列聖御製』의 경우, 왕세자에게 올리는 서책을 ‘동궁 휘람건東宮徽覽件’으로 칭하였다. 그 외에 ‘국용건國用件’이 있는데, 왕실 서책에 관한 기록에서 국용건과 반사건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였다.<sup>17</sup>

영조 연간(1725~1776)에 간인한 『선원계보기략』은 용도에 따라 장황 재료가 차별되었다. 보통 진상건과 진헌건은 비단과 종이 두 가지 형태로 책의를 만들어 장황하였다. 예를 들어 1727년에 진상한 『선원계보기략』 15건은 단의緞衣 5건과 지의紙衣 10건으로 구성하였다. 진헌건은 진상건보다 적은 수량으로 단의 3건과 지의 7건을 장황하였다. 봉안건은 진상건에 쓰인 가장 좋은 재료로 동일하게 장황했으며, 만약 『선원계보기략』을 지의로만 장황할 때에는 봉안건 역시 지의로 장황하였다.<sup>18</sup> 이에 비해 200건에서 300건에 이르는 반사건은 항상 지의로 장황하였다. 영조 연간에 『선원계보기략』을 장황할 때 들어간 재료는 [표 1]과 같다.

[표 1] 영조 연간 『선원계보기략』의 장황 재료

재료	진상건·진헌건		반사건	공급관서
	비단 책의	종이 책의	종이 책의	
책의	남대단: 길이 9촌, 너비 6촌	초주지 반장	저주지 반장	제용감, 풍저창, 장흥고
① 후배지	저주지 2장	저주지 2장	저주지 2장	장흥고
황염수	-	매10권 1병반	매10권 1병반	제용감
황밀	-	3푼	3푼	의영고
면지	초주지 1장	초주지 1장	저주지 1장	풍저창, 장흥고
② 공격지	초주지 1장	초주지 1장	-	풍저창
책지	초주지	초주지	저주지	풍저창, 장흥고

16. 선원록의 봉안에 대해서는 조계영, 「조선후기 선원각의 왕실 기록물 보존체계」, 『朝鮮時代史學報』55(2010), 188~196쪽.

17. 『경종대왕어제첨간시등록景宗大王御製添刊時謄錄』(奎14202), 三月初十日, “啓曰 列聖御製 御筆 璿源譜略 國用件爰問啓事 命下矣 取考謄錄 則國用件與頒賜件 自是一般 無可區別”

18. 『선원계보기략』의 장황 재료와 건수에 대해서는 조계영, 앞의 논문(2006), 44쪽.

③ 열성어휘부첩	홍방사주: 전장광 1촌5푼	홍방사주: 전장광 1촌5푼	홍방사주: 전장광 1촌5푼	제용감
장제목	백릉: 길이5촌, 너비1촌	-	-	제용감
장제목선	홍방사주: 길이 1척2촌, 너비 3푼	-	-	제용감
④ 횡제목	백릉: 길이 2촌5푼, 너비 5촌	-	-	제용감
횡제목선	홍방사주: 길이 1척5촌, 너비 3푼	-	-	제용감
배접	저주지	저주지	저주지	장흥고
⑤ 교말	2흙	2흙	1흙	예빈시
⑥ 책사	홍진사 4푼	홍진사 4푼	홍진사 4푼	제용감

①은 책의에 들어간 재료인데 남대단藍大緞으로 장황할 때는 황염수와 황밀이 들어가지 않는다. 지의로 장황할 때에는 책의에 사용될 종이를 황염수로 물들인 후 후배지로 배접하고 황밀로 ‘능화문菱花紋’을 밀어내면 지의가 완성된다. 능화문은 조선 서책의 장황에서 중요한 특징으로 은은한 아름다움과 책의를 견고하게 만드는 실용성을 겸비하였다.<sup>19</sup> 능화문은 평시서平市署에 속한 각 전포에서 차출한 일꾼들을 동원해 능화판菱花板 위에 책의를 올려놓고 밀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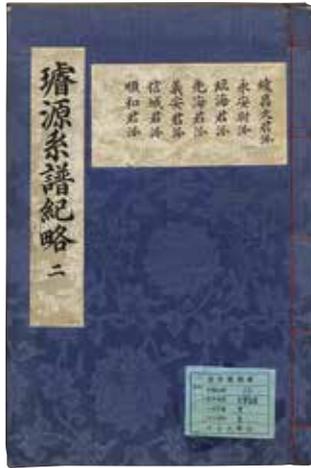
②에서 보듯이 진상건·진헌건은 책지와 면지에 초주지草注紙를 사용했고 반사건은 저주지楮注紙를 썼다. 왕실 서책의 봉안건과 어람건에 넣는 공격지 역시 초주지를 사용했는데, 진헌건에도 공격지를 넣었다. ③의 ‘열성어휘부첩列聖御諱符籤’은 열성列聖의 어휘御諱와 자字를 가리는 것으로, 홍방사주紅方絲紬의 뒷면을 저주지로 배접하여 뽀뽀함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모든 건에 동일하게 홍방사주를 사용하였다.

④는 비단 책의에만 별도의 비단을 붙여 기록한 정보이다. ‘장제목’은 서명이나 책차冊次를 먹으로 적어 좌측 상부에 세로로 붙인 것이다. ‘횡제목橫題目’은 책의 내용을 알기 쉽게 편목編目을 적어 우측 상부에 가로로 붙인 것이다. 책의가 남대단일 경우에는 장제목과 횡제목을 백릉白綾에 적고 홍화사주紅花絲紬로 선을 둘러 배색을 조화롭게 장황하였다.<sup>20</sup> 그 순서는 제목을 붙일 위치를 가늠해 먼저 선縮을 책의에 붙이고, 다음으로 장제목과 횡제목을 선의 안쪽에 알맞게 앉히는 것이다.<sup>20</sup> 지의에는 별도의 종이 없이 책의에 바로 제목을 서사하였다.

1746년에 영조는 「금문사목禁紋事目」을 반포하여 중국산 비단의 수입을 강력히 금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엄하게 처벌하였다. 「금문사목」이 내려지기 이전에 『선원계보기략』의 비단 책의는 남

19. 능화의 어원과 능화판에 대해서는 조계영, 앞의 책(2014), 44~51쪽.

20. 홍색의 비단으로 두르는 ‘선縮’을 ‘홍협紅挾’으로 부르기도 한다.



도6. 『선원계보기략』(1739) 남대단 책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7. 『선원계보기략』(1747) 진남표주 책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대단이었으나, 이후 1747년에는 진남표주眞藍表紬, 1751년에는 남무문화방주藍無紋花方紬, 1759년에는 남방사주藍方紗紬로 장황이 변화되었다. 진남표주의 책의에는 백표주白表紬에 제목을 쓰고 대홍표주大紅表紬로 선을 둘렀다.<sup>21</sup>

⑤의 책이나 열성어휘부침 등 모든 배접에는 저주지와 아교가루인 교말膠末을 사용하였다. ⑥의 책사는 『선원계보기략』을 엮은 실을 말하는데 상의원尙衣院의 다회장多繪匠이 만들었다. 즉 책사의 재료인 홍진사紅眞絲를 제용감에서 도감都監에 올리면, 다회장이 잘 만들어 기일 안에 들이겠다고 다짐[拷音]하고 상의원으로 가져가서 책사를 만들어 바쳤다. 책사는 모든 건에 동일하게 홍진사 4권이 들어갔다.<sup>21</sup>

종묘는 조선의 국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는 신실이 있는 곳이다. 『국조보감』은 정조 연간(1776~1780) 이전에는 종묘에 봉안되지 않았으며, 1782년에 이르러 처음으로 종묘 각 실에 봉안되었다. 정조는 종묘 각 실에 옥책玉冊과 금보金寶를 봉안하는 전례前例와 비교할 때, 『국조보감』의 사체가 종묘 신실에 봉안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였다. 『경국대전』을 완성한 후 세조가 이루고자했던 사업을 완성하였다하여 세조의 신실에 『경국대전』을 올린 것처럼, 정조는 책보冊寶를 올리는 의례에 따라 『국조보감』을 궤에 담아 책보장冊寶藏에 봉안하였다.<sup>22</sup>

21. 조계영, 「조선 후기 『列聖御製』의 編刊과 保存」, 『書誌學研究』44(2009), 471쪽.

22. 조계영, 앞의 논문(2006), 117~118쪽.

정조는 실록을 가리켜 '명산에 간직하여 만세 이후를 기다리는 역사서'라고 하였다. 실록은 영구보존을 목적으로 사각에 봉안하기 위한 책으로, 국왕을 포함한 사람들이 실록에 담긴 수많은 정보를 열람하기 위한 책이 아니다. 반면에 역대 선왕들의 덕업德業을 수록한 『국조보감』은 후계 왕에게는 절실한 기록이자 열람할 수 있는 역사서이다.

1781년에는 이미 간인된 3종의 보감이 있었는데, 1458년에 편찬한 『국조보감』은 태조·태종·세종·문종의 사실을 수록하였다. 이때부터 역대 국왕들은 여러 번 『국조보감』을 이어 편찬하려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후 1684년에 『선묘보감宣廟寶鑑』을 편찬했고, 1729년에 『숙묘보감肅廟寶鑑』을 편찬하였다. 역대 국왕 가운데 왕위에서 쫓겨난 연산군과 광해군을 제외하면, 정종·단종·세조·예종·성종·중종·인종·명종·인조·효종·현종·경종에 해당하는 12조朝 보감이 편찬되지 않았다. 따라서 선왕들의 덕업이 비록 실록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하더라도, '석실石室 금궤金櫃'인 사고에 봉안되어 있으니 국왕은 참고할 수가 없었다. 이에 정조는 영조를 포함한 13조 국왕의 보감을 편찬하게 되었다.

1782년에 『국조보감』을 편찬한 후 1848년에 정조·순조·익종의 보감이 완성되어 종묘에 봉안했고, 1909년에 헌종과 철종의 보감이 완성되어 종묘에 봉안하였다. 1909년에 종묘 각 실에 봉안했던 36책과 『헌종보감憲宗寶鑑』과 『철종보감哲宗寶鑑』 2책을 합한 38책을 대장지大壯紙로 인출하고 '황화화주黃禾花紬'로 장황하였다. 종묘 봉안된 『국조보감』은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1909년에 『국조보감』을 장황할 때 들어간 재료는 [표 2]와 같다.<sup>23</sup>

[표 2] 1909년 『국조보감』의 장황 재료

재료	종묘 봉안건	진상건·진현건	봉모당봉안건·소대건	사고봉안건·반사건
책의	황화화주	황염 장지	황염 장지	황염 저주지
① 후배지	저주지	저주지	저주지	후백지
황밀	-	2푼	2푼	2푼
면지	대장지	대장지	장지	백지
② 공격지	대장지	대장지	-	-
책지	대장지	대장지	장지	백지
③ 열성어휘 부침	홍화화주	홍화화주	홍화화주	홍화화주
장제목	백화화주	-	-	-
④ 장제목선	홍화화주	-	-	-

23. 1909년 이전 『국조보감』의 장황에 대해서는 조계영, 앞의 논문(2006), 59~75쪽.

⑤	교말	2홉	1홉5석	1홉5석	1홉5석
	편철	속동 8량	-	-	-
		함석 1량	-	-	-
⑥		탄 1두	-	-	-
		삼보 13타래	-	-	-
	책사	-	홍진사 4분	홍진사 4분	홍진사 4분

①은 이전에 종묘에 봉안했던 ‘남화화주藍禾花紬’의 『국조보감』을 황화화주로 개장한 것이다. 이것은 1897년에 고종이 황제에 등극하고 ‘대한大韓’이라는 국호를 선포하여, 황제를 상징하는 황색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1782년과 1848년의 진상건은 황염수로 물들인 초주지로 책의를 만들었는데, 1909년에는 황염한 장지壯紙를 책의로 사용하였다.<sup>24</sup> 사고 봉안건과 반사건은 이전과 동일하게 황염한 저주지 책의이다. 1909년에는 이전에 없던 봉모당奉謨堂 봉안건을 마련하여, 진상건과 동일한 책의를 했으나 공격지는 넣지 않았다.<sup>25</sup> 책의를 비교하면 봉모당 봉안건이 사고 봉안건보다 위격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②에서 이전의 상황과 구별되는 것은 ‘대장지’가 등장해 종묘 봉안건과 진상건에 쓰인 초주지를 대신한 점이다. 그러나 봉모당 봉안건과 소대건召對件은 장지로 인출하고, 사고 봉안건은 이전과 동일하게 백지로 인출하였다.<sup>26</sup> ③의 열성어휘부첩은 책의에 사용된 비단의 변화에 관계없이 ‘홍화화주紅禾花紬’를 사용하였다. 『선원계보기략』의 경우는 홍방사주로 만들었으니, 열성어휘부첩에는 항상 ‘주’가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④는 종묘 봉안건 『국조보감』에 서명을 적은 ‘백화화주白禾花紬’를 붙이고 홍화화주로 선을 두른 장제목이다. 황화화주로 만든 책의에 백화화주의 장제목과 선으로 두른 홍화화주는 색의 조화를 이루어 단아하면서도 화려한 상황으로 종묘 봉안건의 위상을 그대로 보여준다.<sup>58</sup> 『선원계보기략』의 봉안건은 황제목을 두었지만, 종묘 봉안건 『국조보감』에는 황제목이 없다. 이것은 궤에 담아 종묘 각 신실에 봉안하기 때문에 해당 묘호를 책의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점은 『국조보감』의 장제목을 목판에 판각해 백화화주에 찍어 냈다는 사실이다. 이는 서명

24. 1909년에는 이전에 없던 진현건을 추가해 진상건과 동일한 상황을 하였다.

25. 봉모당은 정조가 1776년에 규장각을 설립할 때 영조를 비롯한 선왕들의 모훈講訓을 봉안하기 위해 규장각의 서남쪽 언덕에 건립한 봉안처이다.

26. 『국조보감』은 완성하여 국왕에게 진상한 후에 소대에서 진강하는 것이 고례古例이다.

에 해당 묘호가 들어가지 않아 모든 책의 서명이 동일하므로 서사하는 것보다 인출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⑥의 ‘편철編鐵’은 다른 한자로 ‘편철片鐵’과 ‘변철邊鐵’로도 표기한다. 의례는 어람건과 반사건 모두 변철로 상황하지만, 『국조보감』은 종묘 봉안건만을 변철로 상황하였다. 변철로 상황한 『국조보감』은 열람을 위해 책의를 바로 넘기기조차 어렵다. 이는 『국조보감』의 경우는 변철 상황의 용도가 열람이 아닌 봉안임을 명확하게 알려준다. 변철에 들어간 재료는 이전과 변함없이 동일하다. 지의를 홍진사 4분으로 엮은 것은 이전의 『국조보감』이나 『선원계보기략』과 마찬가지로이다.

『국조보감』과 의례의 변철에서 보이는 가장 큰 차이점은 원환圓環의 유무이다. 의례는 변철의 다섯 곳을 박을정朴乙釘으로 고정시키고 중앙의 박을정에 원환을 달았다. 만약 변철에 원환을 갖추는 것이 상황의 위격을 높이는 것이라면 종묘에 봉안한 『국조보감』에도 원환을 구비했을 것이다. 그런데 원환을 두지 않은 것은 그 용도가 상황의 위격을 상징하기보다는 실용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도8. 선조 신실에 봉안했던 『국조보감』 국립고궁박물관

#### IV. 외규장각 의례의 상황

본 총서에 수록된 논고들은 외규장각 의례의 상황 요소인 책의와 변철, 그리고 책지에 대한 상세하고 과학적인 분석과 고찰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외규장각 의례의 상황이 여타의 상황과 구별되는 특수성에 보다 주목한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의례의 제작 과정과 어람건 의례의 형태에 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외규장각 의례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의례의 편찬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외규장각 의례의 상황이 지닌 보편성과 용어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왕실 의례를 맡은 도감은 의례를 거행한 후에 의례청儀軌廳을 설치하고 전례를 참고해 의례를 편찬하였다. 도감의 업무를 기록하기 위한 의례청은 보통 도감의 공간과 인원에서 일부를 이어받아 작업하였다. 「의례사무목儀軌事目」이나 「의례사례儀軌事例」에는 의례청의 설치와 소속 관리, 의례

제작에 필요한 물품, 의례 제작 건수 등이 기록되어 의례 제작에 관한 대략을 알 수 있다.<sup>27</sup>

의례청은 의례를 편찬할 때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당상堂上에게 결재 받은 후에 해당 관서에 ‘감결甘結’이라는 문서를 발급하여 마련하였다. 따라서 의례가 완성되기까지의 상세한 작업 과정은 주로 ‘품목稟目’과 ‘감결’을 분석하여 밝힐 수 있다. 의례는 ㉠출초出草 → ㉡정서 → ㉢도침搗砧 → ㉣장황의 4단계를 거쳐 완성된다.<sup>28</sup> 이하에서 의례 편찬과 장황의 4단계를 순서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 ㉠ 출초

의례 편찬의 첫 단계인 ‘출초’는 도감의 도청과 각방에서 발급하거나 수취한 문서를 베껴 낸 것을 말한다. 『효종국장도감의례孝宗國葬都監儀軌』의 「의례사무별단儀軌事日別單」을 보면 의례청에서 필요한 네 가지 종이를 명시하고 있다. 즉 ①‘성적초 백지成籍草白紙’, ②‘어람정서 초주지御覽正書草注紙’, ③‘분상정서 저주지分上正書楮注紙’, ④‘공사 하지公事下紙’이다.<sup>29</sup>

①성적초백지는 의례의 출초를 쓰는 종이를 말한다.<sup>30</sup> 보통 ‘성적成籍’이라고 할 때는 군정軍丁이나 호구戶口에 관한 장부를 만드는 것을 지칭하는데, 여기서는 의례 초안을 편찬하는 것을 뜻한다. 의례의 초안은 ‘초의례차草儀軌次’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주로 백지白紙에 썼다.<sup>31</sup> 따라서 성적초백지에서 ‘초 백지草白紙’는 ‘초의례차 백지草儀軌次白紙’와 같은 의미로 생각된다.

출초에 들어가는 백지 외에 ②어람정서 초주지는 국왕이 열람할 어람건 의례를 정서할 때의 종이며, ③분상정서 저주지는 관서에 나누어 보관할 의례를 정서할 때 쓰는 종이다. ④공사 하지는 의례청에서 다른 관서에 문서를 발급할 때 쓰는 종이를 말한다. 이와 같이 의례청에서 사용하는 종이는 의례 편찬 과정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효종국장도감의례』에서는 도감과 각방에서 사용하려고 했던 공사 하지가 수십 권이 남아, 의례 ‘출초지出草紙’로 가져다 쓰기도 하였다.<sup>32</sup>

‘초의례’는 ‘의례 초책儀軌草冊’으로도 부르는데 이를 쓰기 위해서는 인찰선印札線이 그려진 공책이 필요하다. 본래 인찰 공책을 찍어 내는 인찰판印札板은 교서관에서 공급한 자작판自作板으로 만들었다. 의례청은 인찰판의 목재인 자작판과, 인찰판을 만들 장인인 소목장과 조각장, 각수를 대령하라고 교서관에 감결을 내렸다.<sup>33</sup> 인찰판이 준비되면 초의례를 쓰기 위한 인찰 공책을 대절 상목大折常墨으로 찍어 낸다.<sup>34</sup>

서판書板 위에 놓고 인찰지에 출초를 베껴 낼 때 세로와 가로로 일정한 간격으로 맞추기 위해 정간井間이 그려진 종이를 뒷면에 대고 썼다. 이 종이를 ‘정간지井間紙’라고 하는데 보통 저주지를 사용하였다. 조선 시대에 의례를 등록과 혼용한 것처럼 초의례를 ‘초등록草謄錄’으로도 지칭하였다.<sup>35</sup> 의례청에서 초등록을 서사할 때 각 서사자書寫者에게 서판 한 개와 황필黃筆 한 자루, 그리고 정간에 쓸 저주지 한 장을 지급하였다.<sup>36</sup>

의례는 출초가 완성되면 자물쇠가 달린 긴 케에 보관하였다.<sup>37</sup> 의례 편찬에서 출초의 다음 단계는 정서이다. 그러나 보통 서책의 편찬 과정은 출초 다음으로 초초初草와 중초中草 과정이 있다.<sup>38</sup> 출초만으로 의례 편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까닭은 도감에서 왕래한 문서를 근거로 베껴 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일반 서책의 편찬 과정보다는 비교적 간단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다른 서책과 구별되는 의례 편찬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탁지준절度支準折』에 나타나는 종이의 크기와 가격은 [표 3]과 같다.

27. 「의례사무」를 분석하여 의례의 제작 과정을 고찰한 연구는 김문식, 「儀軌事目에 나타나는 의례의 제작 과정」, 『奎章閣』37(2010).  
 28. 이는 의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서책을 편찬할 때의 과정이다. 이 글에서는 의례의 편찬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용어에 주목하여 논지를 떠나가고자 한다.  
 29. 『효종국장도감의례』(하)(1659), 「의례사무별단」, “一 成籍草白紙 御覽正書草注紙 分上正書楮注紙 公事下紙 筆墨雜物乙良令該司量宜進排爲白齊”  
 30. 『선조목릉천장산릉도감의례』(1631), 『인조국장도감의례』(1650), 『효종국장도감의례』(하)(1659).  
 31. 『정종대왕실록청의례正宗大王實錄廳儀軌』(서울대학교규장각 영인본), 「儀軌廳謄錄」, 「同月初三日」, “右甘結爲…各房草儀軌次白紙五卷”, 243쪽.  
 32. 『효종국장도감의례』(하)(1659), 「稟目秩」, 「十一月初二日」, “都監及各房所用 公事下紙 通計餘數十卷是置 謄錄出草紙 以此用下 何如 堂上手決內 依”  
 33. 『정종대왕실록청의례』(서울대학교규장각 영인본), 「儀軌廳謄錄」, 「同日」, “右甘結爲 實錄儀軌草冊 印札次 自作板一立 小木匠金萬才 彫刻匠一名 刻手一名 待令事 校書館”, 248쪽.  
 34. 위의 책, 「儀軌廳謄錄」, 「同月十六日」, “右甘結爲 本廳草儀軌 印札所用 大折常墨五丁 黃蜜五錢 進排事 戶曹 義盈庫 工曹”, 247쪽.  
 35.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의례 편찬 과정에서 출초를 의미하는 ‘초등록’이 서명에 들어가는 책으로 『선원보락수정초등록濬源譜略修正草謄錄』(奎12986), 『어제초등록御製草謄錄』(奎12998), 『통신사초등록通信使草謄錄』(奎12870-3) 등이 현전한다.  
 36. 『정종대왕실록청의례』(서울대학교규장각 영인본), 「儀軌廳謄錄」, 「同月二十三日」, “右甘結爲 儀軌廳所用 書板三立 黃筆三柄 儀軌草謄錄 冊井間次 楮注紙三張 進排事 長興庫 繕工監”, 248쪽.  
 37. 『친의소감찬수정의례開義昭鑑纂修廳儀軌』(奎14206), 「甘結秩」, 「一同月日」, “日記及各樣文書謄出草冊 所盛次長櫃子三部具 鎖鑰 用還次 進排爲乎矣 萬一遲晚甘罪不辭”  
 38. 조계영, 「조선후기 『列聖御製』의 編刊과 保存」, 『書誌學研究』44(2009), 463쪽; 「조선후기 실록의 세초 기록물과 절차」, 『古文書研究』44(2014), 120~125쪽.

[표 3] 『택지준절』에 기록된 종이의 크기와 가격

종이	크기(尺-寸-分)		절가(兩-錢-分-里-戶)
	길이	너비	1장 가격
① 도련저주지	2척2촌	1척8촌	4전4푼
② 초주지	2척2촌	1척5촌	2전6푼6리
③ 저주지	2척2촌5분	1척7촌	6푼6리
④ 후백지	2척1촌5분	1척4촌	5푼
⑤ 백지	1척6촌5분	1척	2분2리

㉞ 정서

의례의 출초가 마련되면 다음 단계는 출초를 깨끗하게 옮겨 쓰는 정서이다. 국왕이 보는 어람건은 초주지에, 관서에 보관하는 분상건은 저주지에 의례를 정서하였다.<sup>39</sup> 의례청은 출초를 마치기 수일 전에 의례를 정서하는데 필요한 종이를 미리 마련하도록 해당 관서에 감결을 내렸다. 미리 책지를 마련하여 인찰을 해두어야 출초를 마치는 대로 정서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40</sup>

의례를 정서할 때 분상건과 구별되는 어람건의 위상을 확연히 보여주는 것은 인찰선이다. 분상건은 교서관에서 차출된 인출장印出匠이 인찰관으로 찍어 낸 인찰선이지만, 어람건은 인찰 화원이 한 줄 한 줄 그려낸 것이기 때문이다. 책지에 인찰선이 완성되면 의례 정서에 들어간다. 어람건은 사자관 중에서 글씨 잘 쓰는 이를 선발해 등서하는 것이 상례였다. 의례청은 승문원承文院에 감결을 내려 사자관 중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등서하게 하였다.<sup>41</sup> 보통 어람건은 사자관 한 두 명이 맡아 정서하고, 분상건은 서사書寫 한 명이 의례 한 건씩 정서하였다.<sup>42</sup>

어람건 의례의 책지인 초주지는 풍저창에서 바치고, 분상건의 책지인 저주지는 장흥고에서 올린다. 풍저창과 장흥고에서 의례청에 바치는 책지는 ‘전장全張’의 형태인데 이것을 반으로 자르면 두 장의 책지가 나온다. 어람건 의례의 초주지에 들어가는 수량은 ‘고저지향高低之行’으로 인해 분상건과

구별된다.<sup>43</sup> ‘고저지향’이란 왕과 왕비를 비롯한 왕실 구성원을 지칭하거나, 관련되는 용어가 나올 때 기록하는 위치에 따라 높고 낮은 줄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어람건은 해당 용어가 나오면 줄을 바꾸어 다른 줄보다 두 글자를 높게 올려 적는데 반해, 분상건은 줄을 바꾸지 않고 한 글자의 공간만을 띄우고 적어 나갔다.<sup>44</sup> 따라서 어람건의 책지는 분상건보다 한 권 정도의 종이가 더 들어갔다.

㉟ 도침

의례청은 정서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다음 단계인 도침을 준비하였다. 도침을 하려면 지침紙砧 또는 침가砧家라고 부르는 작업 공간과 침석砧石과 침목砧木 등의 도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의례의 도침 작업은 조지서造紙署로 책지를 신고 가서 작업하였다. 의례청은 조지서로 도침하러 나갈 때에 필요한 물품과 인력을 3~4일 전에 미리 해당 관서에 준비시켰다. 책지는 보통 가자架子에 신고 홍주 보자기로 덮은 후 조소條所로 묶고 가자군架子軍이 메었다. 어람건 정서를 도침할 때 격지隔紙로 백휴지를 주로 사용하였다.<sup>45</sup>

의례를 장황하기 전 단계에서 행하는 도침은 무엇인가. 도침은 종이를 두드려서 섬유 사이의 빈 공간을 없애주어 평활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온다.<sup>46</sup> 서명응徐命膺은 “우리나라의 종이는 가장 단단하고 질기기 때문에, 두드리는 작업을 하여 더욱 고르고 매끄럽게 만들 수 있는데 다른 나라의 종이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도침은 ‘다나무楮’라는 장피 섬유에 행하는 종이 가공법으로 조선의 기록문화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소이다.

도침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마른 종이 한 장과 젖은 종이 한 장을 교대로 쌓아 백 장을 한 무더기로 만들어 탁자 위에 올려놓은 후 판자를 그 위에 놓고 큰 돌로 누른다. 하루가 지난 후에 돌 위에서 이 삼백 번 두드려 마른 것과 젖은 것을 끼워 겹쳐 놓고, 다시 이 삼백 번을 두드리는 과정을 서너 차례 반복하면 기름종이처럼 광택이 있고 매끄럽게 된다.<sup>47</sup>

이와 같이 도침은 종이를 제조한 다음에 행해진 가공법으로 서사 재료로서 종이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책지를 인출하거나 정서한 후에도 도침한 것은 서책의 부

39. 『선조목릉친장산릉도감의례』(1631)와 『인조국장도감의례』(1650)는 어람건을 도련저주지搗鍊楮注紙에 분상건을 초주지에 정서하였다.  
 40. 『효종국장도감의례』(하)(1659), 「稟目秩」, ‘十一月十二日’.“都廳及各房文書出草 當畢於數日之內 謄錄正書紙地 必須預先磨鍊 印札然後 可以正書”  
 41. 위의 책, 「稟目秩」, ‘十一月初二日’.“御覽謄錄 不可以尋常書寫書之 寫字官中 擇其善書者謄書 乃是近例 今亦依此例 寫字官中 給價謄書何如 摠護使手決內依 承文院捧甘”  
 42. 어람건과 분상건 의례의 인찰과 정서에 들어간 재료에 대해서는 김문식, 앞의 논문(2010), 170~174쪽; 유세륜, 「외규장각 어람용 의례의 형태적 특징에 관한 기초적 연구」, 『朝鮮時代史學報』66(2013), 33~36쪽.

43. 『효종국장도감의례』(하)(1659), 「稟目秩」, ‘十一月十二日’.“御覽謄錄 則高低之行 與他冊有別叱分不喻”  
 44. ‘고저지향’의 사례를 통한 책지 수량의 상세한 검토는 유세륜, 앞의 논문(2013), 22~27쪽.  
 45. 『인현왕후명릉산릉도감의례』(하)(1702), 「壬午三月十四日」.“一 都監儀軌 幾盡正書爲有等以 搗砧次 今月十八日 出往造紙署 爲去乎 搗砧軍及架子軍 并以八名 架子二部 搗砧時所用 破油紙四張 結裏次 條所一良衣 御覽冊隔次 白休紙二十卷 用還次 進排爲旆 所盛函子一部 紅袖袱金錢紙具一件 精造進排事”  
 46. 도침의 뜻과 용례에 대해서는 조계영, 「조선후기 왕실서책 粧綴時의 搗砧에 관한 고찰」, 『古文書研究』31(2007), 261~268쪽.  
 47. 조계영, 앞의 논문(2007), 261~262쪽.

피를 줄이고 질기고 평활한 지면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책지의 도침은 종이를 제조한 뒤 가공 단계에서 행한 도침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책지 사이에 백후지를 넣고 물 뿌리는 빗자루로 적셔준 후 의례를 도침한 것은 다른 서책과 동일하다.<sup>48</sup>

### ㉞장황

도침을 마친 의례 책지는 마지막으로 장황을 하게 된다. 이 글의 III장에서 『선원계보기략』과 『국조보감』을 중심으로 봉안건의 장황을 살펴보았다. 외규장각 의례의 어람건은 왕실 서책의 봉안건과 비등하게 장황하였다. 이들은 비단으로 만든 책의에 어울리는 색과 재질의 제목을 붙이고, 면지를 비롯한 공격지와 책지에 초주지를 사용하였다는 점이 동일하다.

어람건 외규장각 의례가 왕실 서책의 봉안건과 구별되는 두 가지 장황 형태가 있다. 먼저 1747년 『목릉휘릉혜릉표석영건청의례穆陵徽陵惠陵表石營建廳儀軌』를 시작으로 다수의 의례가 ‘초록경광주草綠輕光紬’로 책의를 만들고 후배에 청염지靑染紙를 넣어 장황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문효세자책례도감의례文孝世子冊禮都監儀軌』의 외규장각건은 초록경광주로 책의를 만들고 백경광주白輕光紬에 제목을 적고 홍경광주紅輕光紬로 선을 들렀다. 이 의례는 책의의 후배지로 ‘옥색 청염지玉色靑染紙’ 한 장과 저주지 두 장을 사용하였다.<sup>49</sup> 이것은 1746년의 『금문사목』의 반포 이후 책의에 문단紋緞을 쓰지 않고 경광주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외규장각 의례 학술총서 1-조선왕조의례 현황과 전망』에서 책의에 쓰인 무문주無紋紬는 대부분 ‘남염지藍染紙’로 배접되었다고 언급된 바 있다.<sup>50</sup>

『국조보감』의 책의에 쓰인 ‘화화주禾花紬’나 『선원계보기략』에 쓰인 ‘방사주方紗紬’도 무늬 없는 ‘주’의 일종이지만 염지를 넣지 않았다. 그렇다면 ‘경광주輕光紬’만이 지니고 있는 특성으로 염지를 넣어 배접했을 수도 있다.<sup>51</sup> 『탁지준절』에 나타난 주는 이외에도 노주주潞州紬·개지주改只紬·화방주花方紬 등이 있다. 현재 ‘주’에 대한 세부 분류와 특성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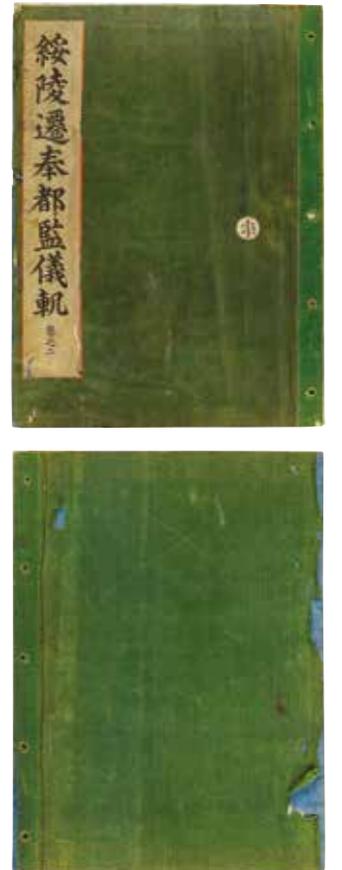
장각 의례의 책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sup>52-59</sup>

다음으로 의례 변철의 중앙에 있는 원환이다. 앞서 종묘 봉안건 『국조보감』의 장황을 살펴보았듯이 『국조보감』의 변철에는 원환이 없다. 그렇다면 의례에 달린 원환은 무슨 용도였을까. 의례처럼 크고 무거운 책은 누어 놓으면 바람이 통하지 않아 습기 제거가 어려우므로 벽에 걸고 사용하기 위해 원환을 달았다고 본 견해가 있다. 1미터 길이가 되는 호적과 양안量案에도 원환을 달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sup>53</sup> 의례의 크기와 무게로 볼 때 홍진사와 같은 책사로 장황하게 되면 의례의 중간이 접혀지는 현상 등 지탱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원환은 왕실 의례를 거행할 때 요여腰輿 등 여러 곳에 사용되었다. 『탁지정례도감의례支定例』에는 의례 원환의 용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록이 있다. 홍문관에 있는 다양한 물품 목록에 “옷걸이 2좌, 사모걸이 2좌, 책걸이 2좌衣巨里貳坐 紗帽巨里貳坐 冊巨里貳坐”가 수록되어 있다.<sup>54</sup> 옷걸이와 사모걸이의 형태에서 유추해보면 책을 걸 수 있게 책걸이를 만들고, 의례의 원환을 책걸이에 걸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책걸이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은 『천의소감闡義昭鑑』의 찬수청纂修廳에서 감인당상과 낭청의 방에 필요한 물품으로 “책걸이 장등상 2좌冊巨里長登牀二坐”를 요청한 것이다.<sup>55</sup>

장등상을 만드는 데에 들어가는 나무는 장송판長松板이며, 장등상은 소연목小椽木으로 만든 발이 달린 형태이다.<sup>56</sup> 의례에 보이는 상의 종류에는 장등상 외에 고족상高足床과 등상登床이 있다.<sup>57</sup>

의례의 원환은 책걸이에 거는 용도 외에 어디에 사용되었을까. 의례가 완성되면 어람건은 홍가



도9. 『익종수릉천봉도감의례』(1846) 책의 후배 옥색지

48. 『정조왕세손책례도감의례』(奎13113). “一 儀軌搗砧 今九月廿日爲之爲有置 御覽件隔張次 白休紙三斤 破油菴二番 破帳一浮 架子二部 筴具小索二良衣 灑水尾帚二柄 用還次進排爲旆 搗砧軍十名 架子軍四名 冊匠紙匠 以善手定送 而造紙署砧家段置 精掃以待事”  
 49. 『문효세자책례도감의례』(1784). “一 儀軌粧纈所入 外奎章閣件 衣次 草綠輕光紬二尺二寸 題目次 白輕光紬長七寸廣二寸一片 挾次 紅輕光紬長七寸廣五分一片 後襟次 玉色靑染紙一張 楮注紙二張 面紙及隔次 草注紙二張 豆錫邊鐵二箇召伊起畫圓環排目菊花童具一箇 廣頭朴乙釘四箇菊花童具”  
 50. 박승원, 『외규장각 의례 원표지 직물의 현황과 특징』, 『외규장각 의례 학술총서 1-조선왕조의례 현황과 전망』(국립중앙박물관, 2012), 193쪽; 김문식, 앞의 논문(2010), 174~175쪽.  
 51. 대한제국이 성립된 1897년 이후의 규장각건 의례는 황화화주로 책의를 만들고 후배에 황염지黃染紙를 넣었다.

52. 조효숙·이은진, 『『度支準折』에 기록된 조선 말기 平絹織物에 관한 研究』, 『服飾』 53(2003), 128쪽.  
 53. 한영우, 『조선왕조의례관 무엇인가』, 『조선왕조 기록문화의 꽃 의례』(문화재청, 2007), 60-61쪽.  
 54. 『탁지정례도감의례』(奎1), 弘文館, 都下秩, “衣巨里貳坐 紗帽巨里貳坐 冊巨里貳坐”  
 55. 『천의소감찬수청의례』(奎14206), 『同日』. “一 右甘結 本都監堂上郎廳房 扃鎖鑰排目具二介 冊巨里長登牀二坐 書吏文書所用 白紙二束 白休紙二斤 黃筆十柄 眞墨五丁 草冊次厚白紙十卷 進排爲乎矣 萬一遲晚 甘罪不辭 戶曹 工曹 長興庫 司瞻 繕工監”  
 56. 『장헌세자상시봉원도감의례莊獻世子諡封園都監儀軌』(奎13337). “長登床三部 每部長松板一立式 足次小椽木一介式”  
 57. 국립국어원의 『방언말뭉치』 자료에서 등상은 살강의 충청남도 홍성의 방언으로 제시하고 있다. 살강은 그릇 따위를 얹어 놓기 위하여 부엌의 벽 중턱에 드린 선반이다.

함(紅假函)에 담아 홍정주(紅鼎紬) 보자기로 덮어 진상했다. 그렇다면 분상건 의례를 관서로 보낼 때에 어떻게 운반했을까. 아마도 의례의 원환을 짚은 횡강(橫杠)(채어나 요여에 가로 댄 나무) 같은 나무에 끼워 운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 V. 맺음말

한 권의 책을 구명하고자 할 때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책의 내용과 형태 그리고 용도이다. 특히 책의 형태와 용도는 긴밀한 관계를 지니며, 용도에 따라 변화되는 책의 형태는 당시 사회의 '책문화'를 읽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어람건 외규장각 의례는 책의 형태와 용도가 여타의 책과는 다르기 때문에 주목을 받아왔다.

이 글은 『선원계보기략』과 『국조보감』을 중심으로 진상건과 봉안건의 상황을 외규장각 의례의 상황과 비교함으로써 외규장각 의례의 상황이 가지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조명하였다. 진상 어람책은 국상 기간에 소색인 고정지로 개장하는 것이 상례였다. 『선원계보기략』은 진상건과 봉안건의 비단 상황이 동등하며, 『국조보감』의 종묘 봉안건은 비단과 변철로 상황했으나 진상건은 초주지와 홍진사로 상황하여 차별을 두었다. 어람건 의례는 비단과 변철로 상황하여 왕실 서책의 봉안건에 해당하는 위상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외규장각 의례는 변철 중앙의 원환으로 『국조보감』의 봉안건과 구별된다. 의례의 원환은 책걸이에 거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의례는 보통 ㉠출초 → ㉡정서 → ㉢도침 → ㉣상황의 4단계를 거쳐 완성된다. 의례의 초안인 출초가 마련되면 인찰지에 정서한다. 정서를 마친 책지는 서책의 두께를 줄이고 질기고 평활한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도침한다. 도침한 책지를 어람건과 분상건에 따라 변철로 상황하면 의례가 완성된다.

어람건 외규장각 의례는 국왕의 열람이 본래 목적이었지만, 외규장각에 봉안됨으로써 봉안건에 상응하는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 이 글은 상황의 측면에서 어람건 외규장각 의례를 주목하여 당대의 책문화를 고찰하였다. 앞으로 어람건 외규장각 의례를 대상으로 연구의 소재를 확장하면 다양한 조선의 책문화가 그 모습을 드러내리라 기대한다.

### 국문초록

## 봉안 서책과 외규장각 의례의 상황

책의 가치를 구명할 때에는 항상 책을 구성하는 내용과 형태, 이 두 가지 측면을 동등한 시각으로 고찰해야 한다.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관점을 추가해야 하는데 그것은 책의 용도이다. 책을 인출(印出)하는 것은 균정한 정보를 널리 전하여 읽혀지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오직 하나밖에 없고 특정한 사람 이외에는 읽히지 않는 것이 목적인 책이 있다. 또한 영구 보존을 목적으로 특별한 곳에 받들어 모시는 봉안(奉安)을 위한 책도 존재한다.

외규장각 의례는 국왕이 보는 어람건(御覽件)으로 관서에 나누어 보관하는 반사건(頒賜件)과는 차별되는 위상을 지닌다. 외규장각 의례는 책의 용도가 어람이기 때문에 차별된 상황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국왕이 열람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었던 어람건 의례가 외규장각에 봉안됨으로써 왕실 서책의 봉안건에 상응하는 위격(位格)을 지니게 된 것이다.

본고는 『선원계보기략(壇源系譜紀略)』과 『국조보감(國朝寶鑑)』을 중심으로 진상건과 봉안건의 상황을 외규장각 의례의 상황과 비교함으로써 외규장각 의례의 상황이 가지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조명하였다. 『선원계보기략』의 봉안건은 비단 혹은 초주지로 상황할 때 진상건의 상황과 동일했다. 『국조보감』의 경우 종묘 봉안건은 비단과 변철로 상황했으나, 진상건은 초주지로 상황하여 차별을 두었다. 따라서 비단과 변철로 상황한 외규장각 의례는 『국조보감』의 봉안건에 해당하는 위상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외규장각 의례는 변철 중앙의 원환으로 인해 『국조보감』의 봉안건과 구별된다. 의례의 원환은 책걸이에 거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외규장각 의례는 보통 ㉠출초(出草) → ㉡정서(正書) → ㉢도침(搗砧) → ㉣상황(粧繕)의 4단계를 거쳐 완성된다. 의례의 초안인 ㉠출초가 마련되면 인찰지(印札紙)에 ㉡정서한다. 정서를 마친 책지(冊紙)는 서책의 두께를 줄이고 질기고 평활한 지면(紙面)을 만들기 위해 ㉢도침한다. 도침한 책지를 어람건과 분상건에 따라 변철로 ㉣상황하면 의례가 완성된다.

주제어 : 어람 서책, 봉안 서책, 진상 서책, 상황, 『선원계보기략』, 『국조보감』, 외규장각 의례

## Abstract

### Comparative Analysis of the Binding of the *Oegyujanggak Uigwe* and the Binding of Other Royal Joseon Texts

In estimating the value of a book, in addition to the physical object itself, one must also account for the content of the text and the purpose of the publication. Most books are published with the goal of being widely circulated and read, but some books are produced as unique, singular objects for a specific person, and others are intended to be enshrined for permanent preservation. Indeed, books from the Joseon Dynasty exemplify all three such cases: those published for general readership, those published for special individuals, and those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eservation. Moreover, the three types can often be differentiated by their binding.

King's copies of the *Oegyujanggak Uigwe* were produced exclusively for the king, and thus had a higher status than general *Uigwe* copies, which were distributed to vassals and government offices. In addition, being enshrined at *Oegyujanggak* (the *Ganghwado* branch of *Gyujanggak*, royal library of Joseon Dynasty), the king's copies of the *Uigwe* came to acquire an even higher status, equivalent to the status of the royal books that were produced for permanent enshrinement from the beginning.

This essay investigates the binding of *Seonwongyebogiryak* (official genealogy of the royal clan) and *Gukjobogam* (official record of the just rule of kings of the Joseon Dynasty), examples of royal books that were published in different editions, depending on the intended use and readership. Some editions of these royal books were intended for the king, while others were intended for enshrinement. A comparison of the binding of these two types with the binding of various copies of the *Oegyujanggak Uigwe* revealed both universal and anomalous features of the binding of the *Oegyujanggak Uigwe*, reflecting their intended use as both king's copies and for enshrinement.

In the case of *Gukjobogam*, copies for enshrinement at *Jongmyo* (royal ancestral temple) were bound with silk and featured brass *byeoncheol* (metal strips along the sides of the front and back covers), while king's copies were bound with *chojuji* paper and did not feature *byeoncheol*. This result indicates that *Oegyujanggak Uigwe* copies bound with silk and featuring brass *byeoncheol* strips likely had a status equal to that of the royal books for enshrinement. Notably, however, king's copies of *Uigwe* featured a ring in the center of the *byeoncheol*, a detail that does not appear on any of the *Gukjobogam* copies enshrined at *Jongmyo*.

Keywords: king's copies, copies for royal lectures, binding (*janghwang*), enshrinement, *Gukjobogam*, *Seonwongyebogiryak*, *Oegyujanggak Uigwe*

## abstrait

### Reliure des protocoles royaux et des autres manuscrits à l'usage exclusif du roi de la fin de la dynastie Joseon

Pour déterminer l'importance d'un livre, il est nécessaire d'envisager sa forme et les matériaux dont il est fait, ainsi que son contenu. À cela s'ajoute un autre aspect à prendre en compte : l'usage du livre. Le but de la publication réside ordinairement dans la diffusion la plus large possible d'informations ou de connaissances. Cependant il existe des ouvrages qui ne sont destinés qu'à un seul lecteur bien défini, ou encore qui ne sont faits que pour le « dépôt pérenne » en un lieu particulier, comme s'ils étaient l'objet d'un culte.

L'importance des ouvrages destinés au roi se manifeste notamment par les matériaux de leur couverture et la façon de leur reliure. Les protocoles (*uigwe*) de la bibliothèque royale de la dynastie Joseon (*Oekyujanggak*) de la dynastie Joseon étaient pour la plupart à l'usage exclusif du roi. Ils avaient donc un statut bien distinct des protocoles utilisés et conservés dans les bureaux de l'administration. Étant conservés dans la bibliothèque royale, les protocoles réservés au roi sont dotés d'un second statut, celui des ouvrages royaux destinés initialement au « dépôt pérenne ».

Cette recherche consiste à comparer la reliure et les matériaux de couverture des protocoles royaux de la bibliothèque royale et des autres manuscrits – notamment les *Archives sur les exploits des rois de la dynastie Joseon* (*Gukjobogam*) et la *Généalogie royale de la dynastie Joseon* (*Seonwongyebogiryag*) – à l'usage exclusif du roi ou destinés au dépôt pérenne, afin d'identifier leurs similitudes et leurs différences. Avant d'analyser de quelles manières et avec quelles matières les protocoles de la bibliothèque royale ont été reliés, nous examinons les matériaux des autres ouvrages, qu'ils soient réservés au roi ou qu'ils appartiennent simplement au dépôt pérenne. À titre d'illustration, les *Archives sur les exploits des rois de la dynastie Joseon* ont été reliées différemment selon leur usage : la version conservée dans le sanctuaire de *Jongmyo*, dédié aux ancêtres de la dynastie Joseon, est couverte de soie avec un mors en cuivre, alors que celle réservée à la lecture royale est habillée du papier de la meilleure qualité de l'époque, le *Chojuji*. Avec une couverture en soie et un mors en cuivre, les protocoles royaux de la bibliothèque royale ont le même statut que les *Archives sur les exploits des rois de la dynastie Joseon* du dépôt pérenne. En revanche, caractérisée par l'anneau sur les mors métalliques, la reliure des protocoles royaux destinés au roi se démarque de celle des *Archives* déposées.

Mots-clés : manuscrits destinés au roi, reliure, dépôt pérenne, ouvrages destinés à l'éducation du roi ou du dauphin, *Archives sur les exploits des rois de la dynastie Joseon* (*Gukjobogam*), *Généalogie royale de la dynastie Joseon* (*Seonwongyebogiryag*), *Oegyujanggak Uigwe*

# 외규장각 의궤 장황의 특징

02

Characteristics of Bindings of the *Oegyujanggak Uigwe*

유새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Yu Sae-rom  
Assistant Curator, National Museum of Korea

- I. 머리말
- II. 외규장각 의궤 장황 연구의 필요성
- III.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 IV. 외규장각 의궤 장황의 재료와 특징
  - 1. 책의
  - 2. 변철
  - 3. 책지
- V. 맺음말

## I. 머리말

의궤儀軌는 조선 왕조의 주요 의례와 행사에 대한 종합 기록으로서, 조선의 기록문화를 대표하는 자료 중 하나이다. 특히 의궤는 복본複本으로 제작하되 보관을 위한 분상건分上件과 왕의 열람을 위한 어람건御覽件을 차별하여 제작했다는 점에서 실록實錄이나 일성록日省錄과 같은 조선 왕조의 다른 국가기록물과 차이를 보인다. 그동안 의궤 연구는 대부분 개별 의궤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기존 국내에 소장된 의궤가 대부분 분상건이었기 때문에 의궤 자체에 대한 연구나 어람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다<sup>1</sup>.

어람건 의궤는 왕의 열람을 위해 제작된 만큼 장황粧纒에 사용된 책의冊衣, 변철邊鐵, 책지冊紙 등은 물론 쓰인 글씨체나 그림 등이 분상건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언급되었다. 그런데 기존 연구는 대부분 「의궤사무儀軌事目」과 같은 기록에 의존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록과 실물의 부합 여부나 실물 의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대부분이 어람건인 외규장각 의궤에 대한 연구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에 발간하는 외규장각 의궤 학술총서에 외규장각 의궤의 실사實査 결과를 정리한 상세 목록과 주요 의궤의 장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함께 수록하여 어람건 의궤의 재질과 제작 방식을 보다 실증적으로 밝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외규장각 의궤의 실사 및 장황 재료의 성분 분석 과정에서 파악된 외규장각 의궤 장황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외규장각 의궤의 전반적인 현황과 특징을 소개하는 논문은 『외규장각 의궤 학술총서 1-조선왕조의궤 현황과 전망』(이하 본문 『외규장각 의궤 학술총서 1』로 약칭)에서 발표된 바 있다.<sup>2</sup> 본고에서는 이전 연구에서 개략적으로 다루었던 외규장각 의궤의 장황에 대해 보다 구체화된 조사 결과를 수록하여 보완하고자 하였다. 먼저 II장에서는 외규장각 의궤 장황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III장에서는 성분 분석 대상에 대한 개관을 서술하고자 한다. 이어 IV장에서는 본 총서에 수록된 상세 목록과 과학적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책의, 변철, 책지 등 주요 재료별로 나누어 외규장각 의궤 장황의 재료와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1. 기존 의궤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 편, 『외규장각 의궤 학술총서 1-조선왕조의궤 현황과 전망』(국립중앙박물관, 2012) 참조.  
2. 유새롬, 「외규장각 의궤의 현황과 특징」, 『외규장각 의궤 학술총서 1-조선왕조의궤 현황과 전망』(국립중앙박물관, 2012), 142~181쪽.

## II. 외규장각 의궤 상황 연구의 필요성

의궤는 ‘의식儀式의 궤범軌範’이라는 뜻으로, 조선이 성리학적 이념에 기반한 예치禮治를 실천하는 문화 국가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록물이다. 조선은 왕실과 국가의 주요 행사를 치를 때 도감都監을 설치하여 진행했는데, 이와 같은 각종 의례나 의식은 행사 그 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예禮’에 맞게 착오 없이 진행하여 후대의 모범이 되는 것도 중요하게 여겨졌다. 행사가 끝나면 바로 의궤청儀軌廳을 설치하여 해당 의례의 전말顛末을 상세히 정리한 의궤를 편찬하였다.<sup>3</sup> 이는 곧 예치의 상징이자 국가와 왕실의 위상과 국정 운영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였다. 행사의 성격이나 중요도, 작성 시기에 따라 제작된 의궤의 부수가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의궤는 어람건을 포함하여 5~9부 정도가 제작되었다.<sup>4</sup> 조선 왕조는 건국 초부터 종묘와 경복궁 영건을 비롯하여 왕실의 상장례와 책례, 가례, 중국 사신의 접대 등 다양한 의례에 대해 의궤를 편찬하였는데, 의궤를 여러 건 제작하여 나누어 보관하는 전통은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 이어졌다.<sup>5</sup>

의궤가 실록과 같은 조선 시대의 국가기록물과 다른 점은 첫째, 복본으로 제작하되 어람건과 분상건을 구분하였다는 점이다. 실록도 각 왕대별로 4부씩 제작하여 사고史庫에 분산하여 보관했지만, 이는 왕조차 함부로 꺼내 볼 수 없는 당대의 엄정한 역사 기록으로서 사료적 가치가 있으며 각 복본별로 형태적 차이는 없다. 반면, 의궤는 관련 관청과 사고 등에 보관하여 필요할 때마다 참고할 수 있는 일종의 전거典據로 사용되었다. 특히 왕의 열람을 위한 어람건 의궤는 비단 책의와 변철로 장황하여 의궤 자체로도 일반 서책과 확연히 구분되는 특별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어람건 의궤의 장황은 대개 초주지草注紙에 인찰선印札線을 긋고 내용을 정서正書한 후, 비단을 책의로 삼고 앞뒤로 황동[豆錫] 변철을 대고 5개의 구멍을 뚫어 박을정으로 고정하고 원환圓環과 국화동菊花童으로 마감하였다. 제목題目은 별도로 하얀 비단에 써서 책의에 붙이고 그 가장자리는 0.1~0.2cm 폭의 가는 붉은 비단을 둘러 마무리하였다. 표지 안에 배접하는 후배지後背紙로는 저주지楮注紙나 후백지厚白紙를 사용했으며, 표지 안에는 본문이 시작되기 전 앞뒤로 초주지

한 장씩을 격지隔紙로 두었다. 분상건 의궤의 경우 저주지에 인찰판印札板을 이용해 인찰선을 찍은 후 내용을 정서한 후 홍포紅布로 책의를 두르고 앞뒤로 강철[正鐵]로 만든 변철을 대고 3개의 구멍을 뚫어 원환과 박을정으로 고정하여 마무리하였다. 배접지로는 휴지休紙, 격지로는 저주지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의궤가 일반 서책과 다른 형태의 장황을 한 점, 특히 어람건과 분상건을 구분하여 장황한 것은 예치를 강조한 왕조국가인 조선에서 의궤가 갖는 상징적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 시대에 생산된 책이나 문서 등의 기록물은 해당 기록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장황되었는데, 왕실에서 이루어지는 장황은 당대 최상의 재료로 최고의 장인匠人들이 만들어 낸 것이라 할 수 있다.<sup>6</sup> 따라서 장황은 그 기록물의 위상과 성격, 중요도를 파악하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의궤 연구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의궤 연구는 미술사, 복식사, 음악사, 건축사, 한국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대부분의 연구는 의궤가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이해에 주력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기존의 연구 방식만으로는 의궤의 역사성을 해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의궤가 당대를 대표하는 문화사적 기념비에 해당하는 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궤 자체에 대한 종합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즉, 의궤 제작에 사용된 책지, 비단, 변철과 같은 재료, 의궤에 쓰인 서체, 그림 등은 당대 문화의 산물이자 의궤가 생산된 당대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창으로서, 의궤 자체에 대한 연구는 의궤 연구에서 있어 새로운 전망을 제시할 수 있다.<sup>7</sup> 특히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하고 예를 실천 규범으로 삼아 국정을 운영한 조선 왕조에서는 각종 문서와 책 역시 열람자와 봉안처奉安處의 격에 따라 달리 제작하였다. 이러한 조선의 문화적 특성이 집약적으로 반영된 것이 바로 의궤, 그 중에서도 어람건 의궤의 장황이라고 할 수 있다. 어람건이 대부분의 외규장각 의궤의 장황 연구는 외규장각 의궤의 성격과 역사성을 규명하는 중요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

외규장각 의궤의 장황 연구에 있어 의궤 실물을 안전하게 다루고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장비의 보유는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관내에 종이, 직물, 금속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과학적 분석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조사 연구가 가능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11년 프랑스국립도서관으로부터 외규장각 의궤를 이관 받은 후 꾸준한

3. 김문식·신병주, 『조선왕실 기록문화의 꽃 의궤』(돌베개, 2005) 참조.

4. 실록청의궤와 같이 간인 관련 의궤는 어람건이 제작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5. 조선 후기 의궤의 주요 분상처에 관해서는 강문식, 「규장각 소장 의궤의 현황과 특징」, 『외규장각 의궤 학술총서 1-조선왕조의궤 현황과 전망』(국립중앙박물관, 2012), 40~73쪽 참조. 기존 연구에서는 조선 전기에는 어람건 의궤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최근 연구에서 실록 기사와 광해군 대에 제작된 어람건 의궤의 기록, 외규장각 의궤의 어람건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조선 전기에도 어람건 의궤가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조선 전기의 의궤 분상처와 어람용 의궤의 연원에 관해서는 유세롬, 「외규장각 어람용 의궤의 형태적 특징에 관한 기초적 연구」, 『朝鮮時代史學報』66(2013) 참조.

6. 조계영, 『朝鮮王室 奉安 書冊의 粧潢과 保存 研究-『瑤源系譜記略』과 『國朝寶鑑』을 중심으로』(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25쪽.

7. 정재훈, 「한국사 분야의 의궤 연구 성과와 전망」, 『외규장각의궤 학술총서 1-조선왕조의궤 현황과 전망』(국립중앙박물관, 2012), 352~353쪽.

조사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학술총서를 발간하고 외규장각 의궤 원문 열람 서비스를 점차 확대하여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외규장각 의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노력해왔다.<sup>8</sup>

외규장각 의궤 상황 연구는 조선 시대 어람건 의궤의 원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외규장각 의궤는 297책 중 289책이 어람건 의궤이고, 의궤가 아닌 『숙종인경왕후인현왕후인원왕후가상존호도감책보도식肅宗仁敬王后仁顯王后仁元王后加上尊號都監冊寶圖式』(이하 『책보도식』으로 약칭) 1책도 어람건 의궤와 같은 형식을 하고 있으므로 총 290책이 어람건 의궤의 상황에 해당된다.<sup>9</sup> 외규장각 의궤는 시기적으로도 17세기 전반에서 19세기 중반까지 끌고루 분포되어 있으므로 조선 시대 전반에 걸친 어람건 의궤 상황의 추이推移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 11책을 제외한 나머지는 책의가 모두 개장된 상태이지만, 개장되기 전의 원래 책의가 따로 보관되었다가 의궤와 함께 돌아왔으므로 외규장각 의궤 전체의 상황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외규장각 의궤를 통해 조선 시대 어람건 의궤의 원형을 추정하는 데에는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외규장각 의궤는 1866년 병인양요 때 약탈되어 1970년대 박병선 박사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발견하기까지 오랫동안 방치되어 상당 부분 훼손되어 있었다. 이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당시 훼손된 표

지를 개장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보존처리가 이루어지면서 대부분의 의궤가 변철이 해체되었다 다시 장정되었다.<sup>9</sup> 이후 외규장각 의궤는 2011년 국내로 이관되기 전 프랑스 국립도서관측에서 의궤 전체의 디지털 이미지 파일을 만들면서 한 차례 더 변철을 해체했다가 재장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책지의 순서가 바뀌거나 책지가 가지런하지 않게 장정된 것, 변철이 바뀌거나 거꾸로

8. 국립중앙박물관은 2012년 『외규장각 의궤 학술총서 1-조선왕조의궤 현황과 전망』을 발간하고, 2012년부터 박물관 외규장각 의궤 홈페이지(<http://uigwe.museum.go.kr/>)를 통해 원문과 이미지(2015년 1월까지 222책 DB 구축)뿐만 아니라 해설과 반차도를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를 점진적으로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9. 국내에 돌아온 297책의 의궤 중 책의와 변철 등 원래의 상황을 유지한 의궤는 11책이며, 이외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남아 있는 『헌종국장도감의궤憲宗國葬都監儀軌』(2) 1책도 원래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도1. 『숙종인경왕후인현왕후인원왕후가상존호도감책보도식』(1735)

이 책은 의궤의 내용 중 도설 부분만 별도 편집한 책으로 내용상 의궤의 체계를 온전히 갖추지는 못했으나 상황은 어람건 의궤와 동일하다.

다시 장정된 것, 국화동 등의 부속품이 바뀌거나 빠지는 등 일부 의궤의 상황이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관 과정 중 디지털 이미지 파일과 실물 의궤를 대조·검수하면서 이미지 파일과 실제 의궤의 상태가 다른 점을 확인하면서 파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외규장각 의궤의 형태가 잘 보존되어 조선 시대 어람건 의궤의 원형을 파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부분을 정리하여 밝히는 것이 향후 외규장각 의궤 보존 및 활용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 III.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본 학술총서의 연구 대상이 된 외규장각 의궤는 2011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된 297책이다.<sup>10</sup> 이 중에는 의궤가 아닌 자료가 3종 3건 3책이 있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외규장각 의궤 297책’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하지만 이관 도서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294책이 의궤이며 기존의 보고서와 목록, 공식 문서에 모두 ‘외규장각 의궤’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므로, 본 외규장각 의궤 학술총서에서도 이관 도서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외규장각 의궤’를 사용하였다.<sup>11</sup>

외규장각 의궤 297책과 함께 연구 대상이 된 자료는 의궤와 함께 이관된 자료인 책의<sup>12</sup> 직물 296건이다. 이것은 1970년대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훼손된 의궤의 책의를 개장한 후 원래의 책의를 별도로 보관해오던 것이다. 이 중 분류 번호가 부여된 281건은 원래 어느 의궤의 표지인지 확인이 가능한데, 그 중 어람건이 277건, 분상건이 4건이다. 『풍정도감의궤豊亨都監儀軌』(1630), 『현종

10. 병인양요 때 참전한 프랑스군 로즈 제독의 보고서에 기록된 약탈품 목록에 기록된 300책이 약탈된 외규장각 의궤로 추정되는데, 나머지 3책은 영국도서관 소장 『기사진표리진찬의궤』 1책, 반환에서 제외된 『인열왕후부묘도감의궤』(coreen2434-bis), 『헌종국장도감의궤』(2)(coreen2493-bis)이 유력해 보인다. 유세룡, 앞의 글(2012), 151~152쪽.

11. 단, 의궤와 여타의 자료를 구분할 필요가 있거나 의궤가 아닌 자료 3종 3책만을 가리킬 때는 ‘외규장각 도서’로 표기하였다. 『외규장각 의궤 학술총서 1』(국립중앙박물관, 2012)에서는 ‘의궤’의 왕대별, 주제별 분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의궤가 아닌 도서 3종 3책을 제외한 294책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따라서 본 총서의 통계와 일부 숫자가 다를 수 있음을 미리 밝힌다. 외규장각 의궤 중 『문화묘영건정등록』은 제목만 등록일 뿐 체재와 내용이 의궤와 같고 다른 의궤에서도 ‘의궤’와 ‘등록’이 혼용된 점을 감안하여 문화재청의 국내의 의궤 조사와 『외규장각 의궤 학술총서 1』에서 모두 의궤에 포함하였다. 의궤의 수량 표기는 동일 행사 내용의 의궤는 1종, 1종의 의궤가 여러 질 있는 것은 ‘건’, 각 건의 총 책수는 ‘책’으로 하였다.

12. 기존의 외규장각 의궤 관련 목록이나 연구성과에서는 개장된 표지와 구분하여 이를 ‘원표지’라고 표기하였으나, 의궤사목을 비롯한 여러 사료에서 서책의 상황에서 표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의衣’ 또는 ‘책의冊衣’로 표현하므로 본 총서에서도 ‘책의’로 통일하여 표기하였다.

왕세자책례도감의궤顯宗王世子冊禮都監儀軌』(1651), 『현종명성왕후가례도감의궤顯宗明聖王后嘉禮都監儀軌』(1652), 『인현왕후명릉산릉도감의궤仁顯王后明陵山陵都監儀軌』(하)(1702), 『효의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孝懿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상)(1821) 등 5책의 책의 직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나머지 15건은 제목 불명으로 분류 번호 없이 무번으로 분류되었다.

이상의 외규장각 의궤 297책과 책의 직물 296건에 대해서는 2012년에 1차로 실측과 육안肉眼 실사가 이루어졌으며, 책의 직물에 대해서는 추가로 현미경 조사가 실시되었다. 실사 결과는 『외규장각 의궤 학술총서 1』(국립중앙박물관, 2012)에 수록된 「외규장각 의궤의 현황과 특징」, 「외규장각 의궤 원표지 직물의 현황과 특징」 등 두 편의 논문에 반영되었다.

본 학술총서에는 실사 내용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대표 서명, 제작 시기, 장수, 분상처, 표제, 내제, 크기, 변철, 장황 재료뿐만 아니라 책의 직물의 직조 방법, 무늬의 종류 등에 대한 의궤의 서지 사항과 장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상세 목록을 작성하여 수록하였다. 또 의궤 전체의 규격뿐만 아니라 기존 목록집에 없었던 변철, 원환, 국화동 등 세부 규격을 실측하여 반영하였으며, 각 의궤의 장수, 반차도 면수 등을 일일이 재확인하여 기존 목록집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이 목록은 외규장각 의궤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추후 관련 장황 연구뿐만 아니라 외규장각 의궤 연구의 기초적인 자료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또 전수 조사가 완료된 책의에 대해서는 직물무늬의 흐름을 중심으로 조사 결과를 보완 정리한 글을, 책지와 변철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본 총서에 함께 수록하였다. 책지는 현미경 조사와 원료 섬유의 염색 반응 조사를 통해 종이의 구조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고, 변철은 X선 촬영과 현미경 조사를 통해 성분을 확인하고 무늬를 새긴 방법과 도구를 밝히고자 하였다. 책지와 변철은 여건상 책의와 같이 전수 조사가 어려워 40책의 견본을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중 『강화부외규장각봉안책보보략어제어필급장치서적형지안江華府外奎章閣奉安冊寶譜略御製御筆及藏置書籍形止案』(1856, 이하 『외규장각형지안』으로 약칭)은 유일하게 철장鐵裝이 아닌 선장線裝의 형태로 되어 있어 종이 분석은 40책, 변철 분석은 『외규장각형지안』을 제외한 39책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어람건과 분상건의 비교를 위해 동일종으로 양자가 함께 있는 『장렬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莊烈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1689)와 『효장세자책례도감의궤孝章世子冊禮都監儀軌』(1725), 『효순현빈묘소도감의궤孝純賢嬪墓所都監儀軌』(1752) 등 3종의 어람건과 분상건, 그리고 분상건인 『풍정도감의궤』(1630)와 『공혜왕후순릉수개도감의궤恭惠王后順陵修改都監儀軌』(1648)를 포함하였다. 그 외에는 육안 실사 내용을 참고하여 가능한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의궤가 고루 포함되도록 선정하였다. 그 중 17세기 의궤가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된 것은 18세기 의궤의 종이가 두

께나 색깔 등에 있어 비교적 고른 질을 유지하는데 비하여 17세기에 제작된 의궤들은 전반과 중반, 후반별로 육안으로 보기에 차이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변철은 무늬에 따라 민무늬[無紋], 연꽃닝쿨문[蓮花唐草紋], 보배문[寶紋], 닝쿨문[唐草紋]에 해당하는 의궤가 골고루 포함되도록 선정하였다. 그 외에 특이하게 5침 장정이 아닌 7침 장정을 한 『민회빈봉묘도감의궤閔懷嬪封墓都監儀軌』(1719) 2책과 의궤는 아니지만 함께 외규장각에 봉안되었던 『외규장각형지안』(1856)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조건이 비슷한 의궤의 경우 가능하면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다루기 안전한 것을 선택하였으며, 여러 책으로 구성된 1종의 의궤는 해당 의궤 전체를 모두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sup>13</sup>

[표 1] 과학적 분석 대상 의궤(책지, 변철)

유물번호	서명	제작 시기(년)	분상처
외규001	풍정도감의궤 豊呈都監儀軌	1630	분상
외규002	선조목릉천장산릉도감의궤 宣祖穆陵遷葬山陵都監儀軌	1631	분상
외규003	종묘수리도감의궤 宗廟修理都監儀軌	1637	어람
외규004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 仁祖莊烈王后嘉禮都監儀軌	1638	어람
외규005	소현세자예장도감의궤 昭顯世子禮葬都監儀軌	1645	어람
외규009	공혜왕후순릉수개도감의궤 恭惠王后順陵修改都監儀軌	1648	분상
외규011	인조국장도감의궤 仁祖國葬都監儀軌	1650	어람
외규016	현종명성왕후가례도감의궤 顯宗明聖王后嘉禮都監儀軌	1652	어람
외규020	효종국장도감의궤(하) 孝宗國葬都監儀軌(下)	1659	어람
외규030	숙종인경왕후가례도감의궤 肅宗仁敬王后嘉禮都監儀軌	1671	어람
외규035	인선왕후국장도감의궤(1) 仁宣王后國葬都監儀軌(一)	1674	어람
외규036	인선왕후국장도감의궤(2) 仁宣王后國葬都監儀軌(二)	1674	어람

13. 분석 대상이 된 의궤 중 『헌경혜빈양례도감의궤』는 총 4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3권은 미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조선미술대전」(필라델피아 박물관 등 미국 내 3개 기관)에 출품 중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외규037	인선왕후국장도감의궤 (3) 仁宣王后國葬都監儀軌 (三)	1674	어람
외규067	장렬왕후빈전도감의궤 莊烈王后殯殿都監儀軌	1689	어람
외규068	장렬왕후흔전도감의궤 莊烈王后魂殿都監儀軌	1689	어람
외규069	장렬왕후빈전흔전도감의궤 莊烈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1689	어람
외규070	장렬왕후국장도감의궤 (상) 莊烈王后國葬都監儀軌 (上)	1689	분상
외규071	장렬왕후국장도감의궤 (하) 莊烈王后國葬都監儀軌 (下)	1689	어람
외규082	인현왕후명릉산릉도감의궤 (상) 仁顯王后明陵山陵都監儀軌 (上)	1702	어람
외규083	인현왕후명릉산릉도감의궤 (하) 仁顯王后明陵山陵都監儀軌 (下)	1702	어람
외규093	숙종어용도사도감의궤 肅宗御容圖寫都監儀軌	1713	어람
외규095	단의빈빈궁도감의궤 端懿嬪殯宮都監儀軌	1718	어람
외규096	단의빈훈궁도감의궤 端懿嬪魂宮都監儀軌	1718	어람
외규100	민회빈봉묘도감의궤 (상) 愍懷嬪封墓都監儀軌 (上)	1719	어람
외규101	민회빈봉묘도감의궤 (하) 愍懷嬪封墓都監儀軌 (下)	1719	어람
외규120	효장세자책례도감의궤 (상) 孝章世子冊禮都監儀軌 (上)	1725	어람
외규121	효장세자책례도감의궤 (하) 孝章世子冊禮都監儀軌 (下)	1725	어람
외규122	효장세자책례도감의궤 孝章世子冊禮都監儀軌	1725	분상
외규168	효순현빈묘소도감의궤 (상) 孝純賢嬪墓所都監儀軌 (上)	1752	어람
외규169	효순현빈묘소도감의궤 (하) 孝純賢嬪墓所都監儀軌 (下)	1752	어람
외규170	효순현빈묘소도감의궤 (하) 孝純賢嬪墓所都監儀軌 (下)	1752	분상
외규211	문효세자책례도감의궤 文孝世子冊禮都監儀軌	1784	어람

외규227	헌경혜빈빈궁훈궁도감의궤 (상) 獻敬惠嬪殯宮魂宮都監儀軌 (上)	1816	어람
외규228	헌경혜빈빈궁훈궁도감의궤 (중) 獻敬惠嬪殯宮魂宮都監儀軌 (中)	1816	어람
외규229	헌경혜빈빈궁훈궁도감의궤 (하) 獻敬惠嬪殯宮魂宮都監儀軌 (下)	1816	어람
외규230	헌경혜빈양례도감의궤 (1) 獻敬惠嬪襄禮都監儀軌 (一)	1816	어람
외규231	헌경혜빈양례도감의궤 (2) 獻敬惠嬪襄禮都監儀軌 (二)	1816	어람
외규233	헌경혜빈양례도감의궤 (4) 獻敬惠嬪襄禮都監儀軌 (四)	1816	어람
외규234	헌경혜빈부궁도감의궤 獻敬惠嬪附宮都監儀軌	1818	어람
외규296	강화부외규장각봉안책보보략 어제어필급장치서적형지안 江華府外奎章閣奉安冊寶譜略 御製御筆及藏置書籍形止案	1856	

## IV. 외규장각 의궤 상황의 재료와 특징

### 1. 책의

외규장각 의궤 297책 중 원래의 책의가 그대로 장황된 책은 11책이고 나머지 286책은 프랑스에서 개장된 상태이다. 외규장각 의궤의 책의 직물을 현재 상태에 따라 구분하면 개장 후 분리 보관된 원래의 책의가 296건, 개장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의궤에 장황되어 있는 책의가 11건, 책의는 개장되었으나 제목을 묵서한 별도의 직물을 분리하여 개장 책의에 덧붙인 것이 45건이다. 분리 보관된 책의 296건 중 281건은 직물에 붙어 있는 스티커 형태의 개별 분류 번호를 통해 해당 의궤의 제목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15건은 분류 번호가 없어 제목을 알 수 없다. 그런데 제목을 확인한 281건의 책의 중 『선조목릉천장산릉도감의궤宣祖穆陵遷葬山陵都監儀軌』(1631)와 동일한 번호가 부여된 1건은 초록색 양지洋紙로 확인되었다. 즉, 이 1건은 해당 의궤의 원래 책의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분리 보관된 책의 중 제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80건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개장되지 않은 의궤의 책의가 11건이므로 양자를 더하면 외규장각 의궤 297책 중 총 291책의 책의를

확인할 수 있다. 원래의 책의가 확인되지 않은 의례는 『풍정도감의례』(1630), 『선조목릉천장산릉도감의례』(1631), 『현종왕세자책례도감의례』(1651), 『현종명성왕후가례도감의례』(1652), 『인현왕후명릉산릉도감의례』(하)(1702), 『효의왕후빈전혼전도감의례』(상)(1821) 등 5책이다.<sup>14</sup>

외규장각 의례의 책의에 사용된 직물은 크게 견직물 絹織物과 마직물 麻織物로 나눌 수 있다. 마직물은 4건으로 모두 분상건 의례의 책의에 사용되었고 견직물은 총 287책의 어람건 의례의 책의에 사용되었는데,<sup>15</sup> 흰색 견직물 3건, 푸른색 견직물 3건, 붉은색 견직물 2건 등 다른 색이 사용된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은 초록색 견직물을 사용하였다.<sup>16</sup> 어람건 의례의 책의에 사용된 견직물은 직물 종류와 무늬가 시기에 따라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례 책의에 관한 의례의 기록으로는 『선조목릉천장산릉도감의례』(1631)의 「의례사목」에서 초록필단 草綠匹緞과 홍목면 紅木綿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현종왕세자책례도감의례』(1651)에서 초록문단 草綠紋緞과 홍목면이 명시된 바 있다. 즉, 어람건 의례의 책의는 조선 전기부터 초록색 비단을 사용하는 것이 상례 常例였던 것으로 보인다.<sup>17</sup> 그러나 17세기 전반에 제작된 어람건 의례의 경우 실제로는 초록색 견직물이라는 원칙 외에는 직물의 종류나 무늬가 아직 정형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표 2 참조). 어람건 의례의 책의로 문단 紋緞의 사용이 일반화된 것은 17세기 후반 효종의 국장 國葬(1659)이 기점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외규장각 의례 중 효종 국장 전에 제작된 의례 17책 가운데 원 책의가 확인되는 어람건 의례는 12책인데, 모두 문주 紋綉나 무문주 無紋綉, 문릉 紋綾 등 문단이 아닌 다른 종류의 견직물이 책의로 사용되었다. 그 중에는 심지어 초록색이 아닌 흰색 견직물을 책의로 사용한 의례도 있었다.<sup>18</sup>

14. 외규장각 의례 책의 직물 전반에 관해서는 박승원, 「외규장각 의례 원표지 직물의 현황과 특징」, 『외규장각 의례 학술총서 1-조선왕조의례 현황과 전망』(국립중앙박물관, 2012) 참조.
15. 박승원, 위의 논문(2012)에서 기술한 '어람용 표지 277건'은 분리 보관된 296건의 책의 중 제목불명 15건과 분상건 4건을 제외한 건수이다. 여기에 개장되지 않은 의례에 남아 있는 책의 직물 11건을 더하면 확인 가능한 어람건의 책의 직물은 총 288건이다. 이 중 원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초록색 양지가 1건을 제외하면 직물이 사용된 어람건 책의는 총 287건이 된다. 본고에서는 분리 보관된 책의뿐만 아니라 개장되지 않은 의례의 책의까지 포함하였으므로 『외규장각 의례 학술총서 1』에 수록된 통계 수치와 구분해야 한다. 어람건 책의 287건 중에는 의례가 아닌 자료인 『책보도식』과 『외규장각형지안』 2책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람건의 상황과 유사한 형식이며 외규장각 의례 297책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본 총서에서는 어람건 상황에 포함하였다. 단, 이 3건은 『외규장각 의례 학술총서 1』의 주제별, 왕대별 의례 현황 집계에는 포함하지 않고 '의례가 아닌 자료'로 별도 기술하였다.
16. 흰색 견직물은 『인조빈전혼전도감의례』(1649)와 『인조국장도감의례』(1650), 『효종빈전혼전도감의례』(1659)의 책의로 사용되었으며, 푸른색 견직물은 『인선왕후빈전도감의례』(1674), 『인선왕후혼전도감의례』(1674), 『효의왕후부묘도감의례』(1823)에 사용되었다. 붉은색 견직물은 『외규장각형지안』 2종 2책에 사용되었다. 원 책의와 현재 개장된 의례를 비교해본 결과, 1970년대 프랑스국립도서관측이 의례를 개장할 때에 대체로 원래의 책의와 유사한 재질과 색상으로 맞추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많은 의례의 앞면 책의가 황갈색 혹은 황색 등의 색깔을 띠는 것은 뒷면이 대부분 녹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변색된 것으로 추정되며, 개장된 책의가 흰색, 푸른색, 붉은색인 의례도 원래 책의의 색에 맞추어 개장된 것으로 보인다.
17. 유세롬, 앞의 논문(2013), 14~20쪽.
18. 『인조빈전혼전도감의례』(1649)과 『인조국장도감의례』(1649)의 책의는 흰색 무문주에 능화판으로 귀갑문을 찍어 무늬를 냈

[표 2] 외규장각 의례 책의 직물의 무늬별 분류 1(1630~1652)

무늬	직물 종류		단	능	주	포	유실	합계
	단	능						
꽃무늬	화문			4				4
기타	기하문				1			1
	여의천도문			1				1
무문					6	1		7
-							4	4
합계			0	5	7	1	4	17

한편, 1659년(현종 즉위)에 제작된 효종의 국장 관련 의례 중 『효종빈전혼전도감의례』(孝宗殯殿魂殿都監儀軌)는 흰색 만자문지화문단 卍字紋地花紋緞을, 『효종국장도감의례』(孝宗國葬都監儀軌)(상)·(하) 2책은 초록운보문단 草綠雲寶紋緞을 책의로 사용하였는데, 이때부터 문단, 특히 초록운문단 草綠雲紋緞의 사용이 정례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와 함께 현종 연간에는 책의에 관한 규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기 시작하였다. 『효종부묘도감의례』(孝宗附廟都監儀軌)(1661)에는 어람건 의례 책의로 길이 2척 2촌, 너비 8촌의 초록대단 草綠大緞과 제목으로 길이 7촌 너비 2촌의 백릉 白綾을 마련하라는 직물의 종류와 규격이 명시되었고, 이어 『신덕왕후부묘도감의례』(神德王后附廟都監儀軌)(1670)에 이르러서는 「의례사목」에 '초록운문대단 草綠雲紋大緞'이라는 무늬와 직물의 종류를 명시한 기록이 처음 등장하였다.<sup>19</sup> 현종 연간은 효종의 국장을 거치며 국장도감의례와 빈전혼전도감의례 등 의례의 편집 체제가 자리 잡기 시작한 시기였는데,<sup>19</sup> 상황에 있어서도 어람건 의례의 책의로 초록운문단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으로 수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어람건 의례의 책의로 대체로 초록운문단을 사용하는 경향은 18세기 중반 『세종영릉표석영건청의례』(1745)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도2. 의례에 기록된 책의에 관한 규정 『신덕왕후부묘도감의례』(1669)

- 다. 『인조빈전혼전도감의례』의 책의는 거의 붉은 색으로 변색된 상태이나 현미경 관찰 결과 흰색 무문주임이 확인되었다. 박승원, 앞의 논문(2012), 186~188쪽 참조. 현재 개장된 의례의 책의도 흰색이다.
19. 유세롬, 「1659년 孝宗의 昇遐와 『孝宗國葬都監儀軌』」, 『규장각 소장 의례 해제집 3』(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267~268쪽; 이경구, 「국왕 및 왕비의 昇遐와 殯殿魂殿都監儀軌」, 『규장각 소장 분류별 의례 해설집』(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70~73쪽.



도3. 초록운보문단 책의  
상: 『효종국장도감의례』(하)(1659)  
하: 『숙종인경왕후인현왕후인원왕후존  
숭도감의례』(하)(1713)

이 시기에 제작된 어람건 의례 142책의 책의를 무늬별로 살펴보면 운보문단 87건, 운문단 9건, 운문릉雲紋綾 1건으로 규정에 나온 대로 구름무늬 계열의 비단이 68%에 달하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표 3) 참조.<sup>20</sup> 도3 「의례사목」에 초록운문 대단이라고 표기된 경우에도 실제 상황은 구름무늬 사이에 각종 보배무늬가 들어간 운보문단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당대에 운보문과 운문을 굳이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았고 구름무늬 단독으로 직조된 운문단보다는 화려한 운보문단을 선호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연꽃무늬 계열의 비단으로, 연꽃무늬 단독으로 직조된 연화문단蓮花紋緞 34건이 있고, 천화봉문단天花鳳紋緞, 연화보문단蓮花寶紋緞, 연화모란단蓮花牡丹緞과 같이 연꽃과 함께 2가지 이상의 다른 무늬가 혼합된 비단도 각각 2건씩 있다.<sup>24</sup> 그 중 천화봉문단, 연화보문단, 연화모란단은 모두 17세기 후반에만 나타났으며,<sup>21</sup> 연화문단은 『보사녹훈도감의례保社錄勳都監儀軌』(1682), 『장렬왕후휘릉산릉도감의례莊烈王后徽陵山陵都監儀軌』(상·하)(1689)에 사용된 3건을 제외하면 27건이 18세기 전반인 1718년(숙종 44)~1731년(영조 7) 사이에 집중 분포한 양상을 보인다. 『민회빈봉묘도감의례』(1719) 2책, 숙종의 국장(1721) 관련 의례 3종 6책, 『단의왕후혜릉석물추배도감의례端懿王后惠陵石物追排都監儀軌』(1722),

『경종혼전도감의례景宗魂殿都監儀軌』(1725), 『분무녹훈도감의례奮武錄勳都監儀軌』(1729) 2책, 선의왕후 국장(1731) 관련 의례 3종 6책, 『인조장릉천봉산릉도감의례仁祖長陵遷奉山陵都監儀軌』(1732) 2책, 『인조장릉천릉도감의례仁祖長陵遷陵都監儀軌』(1732) 7책에 사용된 책의가 이에 해당된다. 이후

20. 대부분 의례의 책의는 앞뒷면의 무늬가 동일하므로 책의의 무늬별 건수는 의례의 책수와 같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숙종빈전도감』의 경우 분리 보관된 직물이 앞면은 초록연화문단, 뒷면은 초록운보문단으로 서로 다른 상황이다. 이 경우 본고에서는 표제가 있는 앞 책의의 무늬를 기준으로 건수를 세었다. 운보문단 87건 중 2건은 푸른색 운보문단이고 나머지는 모두 초록운보문단이다.

21. 천화봉문단은 『집상전수개도감의례集祥殿修改都監儀軌』(1668)와 『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의례定宗定安王后諡號都監儀軌』(1681)에, 연화모란문단은 『인선왕후영릉산릉도감의례仁宣王后寧陵山陵都監儀軌』(상·하)(1674), 연화보문단은 『현종승릉산릉도감의례顯宗崇陵山陵都監儀軌』(상)(1674)과 『인현왕후명릉산릉도감의례仁顯王后明陵山陵都監儀軌』(상)(1702)에 사용되었다.



도4. 초록연화문단 책의  
좌: 『민회빈봉묘도감의례』(하)(1719)  
우: 『숙종국장도감의례』(하)(1721)

연화문단은 『친경의례親耕儀軌』(1739)와 1744년에 제작된 『숙종인현왕후명릉개수도감의례肅宗仁顯王后明陵改修都監儀軌』, 『신의왕후제릉신도비영건청의례神懿王后齊陵神道碑營建廳儀軌』, 『세종영릉표석영건청의례世宗英陵表石營建廳儀軌』 등 4책에 더 사용되었다. 요컨대,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전반까지 어람건 의례의 책의는 초록운보문단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18세기 전반의 10여 년 가량의 특정 시기에 연화문단이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3] 외규장각 의례 책의 직물의 무늬별 분류 2(1659-1744)

무늬	직물 종류	단	능	주	포	유실	합계
구름무늬	운보문	87					86
	운문	9	1				11
꽃무늬	연화문	34					34
	연화모란문	2					2
	연화보문	2					2
	천화봉문	2					2
	화문		2				2
기타	만자문지화문	1					1
무문					2		2
합계		137	3	0	2	1	143



도5. 초록색 무문주 책의 『현종국장도감의궤』(1) (1850)

어렵건 의궤의 책의에 전면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은 1746년(영조 22)이었다. 이 해 4월 사치를 금하고 신분간의 등분을 바르게 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문단의 수입을 금지하고 사용처를 제한하는 영조의 전교, 이른바 「금문사목禁紋事目」이 반포되었다. 영조의 문단 금지 조치는 같은 해 『목릉휘릉혜릉표석영건청의궤穆陵徽陵惠陵表石營建廳儀軌』를 만들 때 바로 반영되어 이후 제작된 어렵건 의궤의 책의에는 모두 무늬가 없는 초록색 무문주를 사용하게 되었다.<sup>22</sup><sup>도5</sup> 1746년부터 1849년까지 제작된 외규장각 의궤 중 133책의 어렵건에 초록색 무문주가, 분상건에는 붉은색 삼베가 사용되었다. 1856년, 1857년 2차례 제작된 『외규장각형지안』 2책의 책의는 모두 붉은색 무문주가 사용되었다. 사고에 보관되었던 실록형지안의 책의가 대개 종이인 것을 감안하면 어렵건 의궤와 주요 왕실 자료를 보관했던 외규장각의 형지안은 비록 의궤는 아니지만 어렵건에 준하여 그만큼 격을 높여 제작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의궤의 서명書名은 분상건은 책의에 먹으로 직접 쓰지만 어렵건은 별도의 흰색 비단에 써서 붉은 비단으로 가늘게 테두리를 둘러 초록색 비단 책의 위에 붙였다. 이렇게 따로 종이나 비단 등에 서명을 써서 책의에 붙이는 것을 제첩題籤이라고 하는데, 의궤 기록에는 ‘제목題目’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붉은 테두리를 두른 비단을 홍협紅挾이라 한다.<sup>23</sup> 분상건은 책의에 직접 먹으로 서명을 쓰기 때문에 제첩과 홍협은 어렵건에만 나타난다. 제첩 역시 1746년을 기점으로 직물의 종류가 구분된다.

1630년부터 1744년까지 제작된 160책의 의궤 중 제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모두 137건인데, 이 중 문단이 129건, 문주가 6건, 무문주가 2건 사용되었다. 그런데 『의궤사목』에는 제목을 쓴 직물이 대개 백릉으로 기록되어 있어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실록 등에서 무늬가



도6. 『숙종빈전도감의궤』(1721)의 책의 크기와 무늬가 서로 다른 두 장의 비단이 같은 의궤의 책의로 분류되어 함께 보관되고 있다.

의 앞뒤 책의가 서로 다른 무늬인 경우가 일례이다. 『숙종빈전도감의궤肅宗殯殿都監儀軌』(1721)의 경우 크기가 다른 초록연화문단(48.7×36.5cm)과 초록운보문단(48.0×34.5cm)이 해당 의궤의 앞뒤 책의로 분류되어 함께 보관되어 있다.<sup>도6</sup> 빈전도감의궤와 혼전도감의궤는 내용이나 체재상 서로 같은 질로 보아야 하는데,<sup>24</sup> 『숙종혼전도감의궤』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함께 제작된 『숙종국장도감의궤肅宗國葬都監儀軌』와 『숙종산릉도감의궤肅宗山陵都監儀軌』도 모두 책의가 초록연화문단

있는 비단을 통상 ‘능단綾緞’이라 함께 칭한 것으로 보아 능단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했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된다.<sup>24</sup> 무늬는 만자문 바탕에 꽃무늬가 있는 만자문지화문단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화문단花紋緞 순이었다. 화문단은 주로 1720~1740년대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1746년 이후에 제작된 의궤 137책에는 책의와 마찬가지로 제첩도 무늬가 없는 비단이 사용되었다. 그 중 제첩 직물이 확인되는 것은 108건으로 무문주가 98건, 무문단이 20건이었다. 대체로 「의궤사목」의 기록과 일치하는 ‘백주白綱’가 사용되었지만 일부는 무늬가 없는 문단이 사용되기도 했다.

한편, 홍협의 직물이 확인되는 것은 총 165건으로, 시기적으로는 18세기 중반 이후에 제작된 의궤에 많이 남아 있다. 홍협에 사용된 직물은 무문주가 138건으로 대부분이고, 그 외에는 문주 23건, 문단 3건, 무문단 1건 순이다. 『목릉휘릉혜릉표석영건청의궤』(1747) 이후의 의궤에는 모두 무문주가 사용되었고 그 이전에 제작된 의궤에도 대개 무문주가 사용되었는데, 문주는 주로 1720~1740년대를 중심으로 사용된 경향을 보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어렵건 의궤의 책의는 시기에 따라 직물의 종류와 무늬가 뚜렷한 경향성을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과 확연히 구분되는 몇 가지 사례가 확인되었다. 같은 책

22. 어렵건 의궤의 책의는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되면서 황제에게 올리는 어렵건은 황색 비단으로, 황태자에게 올리는 예랍건은 홍색 비단으로 바뀌었다. 단, 대한제국 선포 이전 고종 친정기에는 1873년(고종 10)에 만들어진 『문조신정왕후현종효정왕후철인왕후고종상조노도감의궤文祖神貞王后憲宗孝定王后哲仁王后高宗上尊號都監儀軌』 이후 만들어진 의궤들의 경우 대부분 녹색 비단 책의의 어렵건과 동일한 장황을 한 예랍건이 1부 더 제작되었다. 강문식, 앞의 논문(2012), 63~65쪽.

23. 의궤 기록에는 통상 ‘題目次白綾...’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본고에서는 의궤의 서명을 뜻하는 ‘제목’과 혼동의 우려가 있어 일반적인 서지학적 명칭인 ‘제첩’으로 기술하였다.

24. 조선 초에는 어람 홀기의 책의가 원래는 홍릉紅綾이었다는 실록의 기록이 있고(『태종실록』 권28, 12월 1일 경오), 세종대에 진상 서책의 책의를 모두 흰 능화지를 사용하고 별도의 전지가 있을 때만 능단을 사용하라고 한 점(『세종실록』 권29, 윤 7월 17일 갑인)을 보아 주綱과 능단綾緞은 구분하되 능과 단은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5. 유새롬, 앞의 논문(2012), 155쪽.

이라는 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초록운보문단은 개장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추정된다.<sup>26</sup> 또 2책 이상으로 구성된 동일종의 의례의 책의가 각각 다른 무늬를 한 경우도 있다. 『현종승릉산릉도감의례』(1674)은 상·하책 각각 초록연화보문단과 초록운보문단이, 『효장세자가례도감의례孝章世子嘉禮都監儀軌』(1727)은 상·하책 각각 초록화문릉草綠花紋綾과 초록운보문단이 원래 책의로 분류되어 있다. 특히 『효장세자가례도감의례』의 경우 제목의 서체가 확연히 다르고 상권의 책의가 하권의 책의 및 개장된 의례 자체 크기에 비해 1cm 가량 작으며, 『의례사목』에 초록운문대단이 책의로 기록된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상권의 책의로 분류된 초록화문릉은 다른 의례의 책의였는데 1970년대에 개장하여 분리 보관할 때 착오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종승릉산릉도감의례』는 『효장세자가례도감의례』와 같은 명시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상·하책의 책의가 다른 배경에 대해서는 추후 재검토가 필요하다.

## 2. 변철

변철은 일반 서책과 가장 크게 구분되는 의례 장황의 특징 중 하나이다. 변철은 『국조보감國朝寶鑑』의 종묘 봉안건과 같은 특별한 사례<sup>27</sup> 외에는 왕실 봉안 서적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의례의 독특한 장황 방식이다. 변철은 의례의 장황을 마무리하여 고정하는 금속판으로, 대부분의 어람건은 초록 비단 책의의 오른쪽 변 앞뒤로 책 길이의 황동으로 만든 변철을 대고 5개의 구멍을 뚫어 박을정으로 고정한 후 원환과 국화동으로 마감하였다. 분상건은 붉은 삼베 표지 오른쪽 변의 앞뒤에 강철로 만든 변철을 대고 3개의 구멍을 뚫어 박을정으로 고정한 뒤 가운데에 원환을 달았다.<sup>28</sup> 외규장각 의례 변철의 너비는 앞쪽 변철을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1.9cm~3.7cm 사이에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 너비는 약 2.8cm이다. 원환은 외지름을 기준으로 2.4cm~7.5cm까지 크기와 굵기가 다양하다. 어람건의 변철은 대체로 앞쪽은 거무스름하게 변색되고 뒤쪽은 노란 광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상대적으로 의례의 뒷면이 공기와의 접촉이 적어 산화가 더디게 진행던 것으로 추측된다. 황동으로 만든 어람건의 변철이 큰 부식 없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강철로 만든 분상건의 변철은 대부분 부식이 심한 편이다. 기존의 국내 소장 의례 중 상당 부분의 변철이 개장된 것을 감안하면, 제작 당시의 변철을 유지하고 있는 외규장각 의례의 변철은 자료적 가치가 크다.

26. 박승원, 앞의 논문(2012), 193쪽.

27. 조계영, 앞의 논문(2006), 177쪽.

28. 변철, 국화동, 원환 등의 크기 및 무늬에 대한 상세 정보는 본 책의 자료편 I 「외규장각 의례 상세 목록」 참조.

변철의 재료는 『선조목릉천장산릉도감의례』(1631)에 두석豆錫과 정철正鐵이라고 재료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조선 후기 내내 의례의 어람건은 두석, 분상건은 정철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기존 연구에서는 두석을 놋쇠로 통칭하였는데, 엄밀히 말하면 놋쇠는 구리에 주석을 합금한 청동靑銅이다. 구리합금은 합금한 금속의 종류에 따라 청동, 황동黃銅, 백동白銅으로 구분된다. 청동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으로 유기鑄器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고, 황동은 구리와 아연을 주된 재료로 하는 합금으로 촛대나 향로 등의 생활용구의 제작에 많이 이용되었으며 백동은 구리와 비소의 합금이다. 이번에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에서는 X선 조사를 통해 의례 39책의 변철 성분을 분석한 결과, 어람건의 변철은 모두 구리와 아연을 주성분으로 하고 납과 주석이 소량 섞인 황동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29</sup> 한편 분상건 5책의 변철은 모두 강철로 확인되었다. 즉, 금속의 성분으로 볼 때 『의례사목』에 기록된 두석은 황동, 정철은 강철을 의미한다.

이번 현미경 조사를 통해 변철 무늬의 세부 형상과 제작 기법을 확인한 것도 하나의 성과이다. 어람건 변철 중 무늬가 있는 것은 변철 전체를 다듬고 테두리 선을 그린 후 선각線刻으로 무늬의 도안을 그리고 그 위에 도안을 따라 켜기형 정으로 무늬를 새기고 빈 공간은 원형 정으로 채웠다. 이러한 변철 가공 방식은 조선 후기 내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sup>30</sup>

의례의 변철은 의례의 제작 시기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변철은 무늬가 없는 민무늬, 연꽃넙쿨문, 넙쿨문, 보배문 등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시기에 따라 비교적 명확한 특징이 드러난다.<sup>31</sup> 18세기 초까지 어람건 의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민무늬 변철이다. 민무늬 변철은 분상건 5책을 포함한 총 104책의 의례에 나타난다. 민무늬 변철로 장황된 어람건 의례는 총 99책으로, 그 중 90책이 『선조목릉천장산릉도감의례』(1631)부터 『숙종어용도사도감의례肅宗御容圖寫都監儀軌』(1713) 사이에 분포되어 있어 18세기 초까지는 어람건 의례의 변철에도 특별한 무늬를 새기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9책의 어람건 의례는 19세기 전반에 나타나는데, 『효명세자가례도감의례孝明世子册禮都監儀軌』(1812), 『효명세자가례도감의례孝明世子嘉禮都監儀軌』(상)(1819),

29. 실록 등에서도 유철鑄鐵과 두석을 서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두 금속이 서로 다른 성분으로 만들어졌다는 언급이 있으나 (『영조실록』 권52, 영조 5년 12월 9일 을사; 『만기요람』, 「戶曹各掌事例」, 版籍司), 실제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성분을 확인한 것은 이번 조사가 처음이다. 그동안 대부분 국역에서 두석을 놋쇠로 번역해 왔는데, 앞으로는 놋쇠와 두석을 구분한 표기가 필요하다. 변철 분석의 상세한 결과는 본 책의 박학수, 「외규장각 의례 변철 조사」 참조.

30. 박학수, 위의 논문(2014), 75쪽.

31. 『파리 국립도서관 소장 외규장각 의례 조사연구』(외교통상부, 2003)에서는 조사자에 따라 변철 무늬의 종류를 누락하거나 동일한 종류의 무늬를 각각 당초문과 화초문, 연화당초문으로 달리 기록하기도 하였다. 실사를 통해 변철의 무늬를 재확인하고 상세 목록을 작성하여 오류를 바로잡았다. 전체 변철의 모양과 무늬는 본 책의 자료편 I 「외규장각 의례 상세 목록」, II 「외규장각 의례 변철 도판」 참조.



도7. 연꽃넝쿨문 변철

7-1 『단의빈묘소도감의궤』(하)(1718)  
7-2 『효장세자책례도감의궤』(상)(1725)  
7-3 『단경왕후은릉봉릉도감의궤』(상)(1739)

7-4 『정조왕세손책례도감의궤』(1759)  
7-5 『태조건원릉정자각중수도감의궤』(1764)  
7-6 『효명세자입묘도감의궤』(1832)



도8. 보배문 변철

8-1 『효순현빈묘소도감의궤』(상)(1752)  
8-2 『효순현빈예장도감의궤』(상)(1752)

도9. 넝쿨문 변철

9-1 『문효세자책례도감의궤』(1784)  
9-2 『헌경혜빈현릉원릉소도감의궤』(상)(1816)  
9-3 『효의왕후국장도감의궤』(1)(1821)  
9-4 『헌종빈전훈전도감의궤』(중)(1849)

『헌경혜빈양례도감의궤』(1816) 4책, 『헌경혜빈부궁도감의궤』(1818), 『헌종효현왕후가례도감의궤』(1837) 2책 등 9책이 이에 해당된다.

이후 18세기 중반까지 어람건 의궤에 가장 많이 사용된 변철은 연꽃넝쿨문으로 총 106책에서 확인된다.<sup>32</sup> 『단의빈묘소도감의궤』(1718)부터 『태조건원릉정자각중수도감의궤』(1764)에 이르기까지 주로 18세기 전반기의 어람건 의궤 100책에 집중되어 있다. 이후 연꽃넝쿨문 변철은 19세기 순조 대에 제작된 일부 의궤에서만 다시 나타났다.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궤』(1802) 2책, 『효명세자입묘도감의궤』(1832), 『순조인릉산릉도감의궤』(상)(1835), 『순조국장도감의궤』(1835) 2책 등 모두 6책이 이에 해당된다. 그 중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궤』의 변철은 18세기의 연꽃넝쿨문에 비해 매우 간략화되고 여백이 많은 특징을 보인다.

한편, 특정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난 변철도 있는데, 바로 보배문 변철이다.<sup>33</sup> 보배문 변철은 1752년(영조 28)에 제작된 어람건 의궤에만 나타나는데, 『효순현빈묘소도감의궤』를 비롯한 14책이 여기에 해당된다.

18세기 후반 정조 대 이후에는 넝쿨문 변철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총 71책에 나타난다.<sup>34</sup> 넝쿨문 변철은 1784년(정조 8) 제작된 『영조정성왕후정순왕후장헌세자혜빈존호도감의궤』(상)과 『문효세자책례도감의궤』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이 시기에는 앞서 언급한 민무늬 변철로 장황된 9책, 연꽃넝쿨문 변철로 장황된 6책의 예외를 제외하고 모두 넝쿨문 변철이 사용되었다.

어람건 의궤의 장황은 변철과 책지에 구멍을 내 못을 박고 그 양쪽 끝을 꽃잎 모양의 국화동으로 마감하되, 앞쪽 변철의 중간 구멍은 국화동 대신 원환을 달아 마무리한다.<sup>33</sup> 국화동은 의궤의 변철을 고정하는 장치인 동시에 화려하게 꾸며 장황의 격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꽃잎의 양쪽 끝 부분을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국화동의 크기는 1.6~3.5cm 내에 분포하는데, 18세기 이전에는 2cm 내외이다가 18세기 이후에는 2.5cm 내외로 약간 커지는 경향을 보이며 3cm 이상의 큰 국화동도 나타난다.

국화동은 의궤의 책지와 책의에 뚫은 침안針眼을 통해 고정하는 못과 못의 양쪽 끝을 마감하는 꽃잎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체로 18세기 초, 19세기 초를 기점으로 양식의 변화를 보인다.<sup>34</sup> 18세기 초까지 어람건 의궤의 국화동은 대개 8엽으로 된 꽃잎과 원판으로 구성되었다. 이 시기

32. 『외규장각 의궤 학술총서 1』(국립중앙박물관, 2012)의 통계에서 제외한 『책보도식』(1753)의 변철 1건을 포함하였으며, 이번 조사 과정에서 변철 무늬를 면밀히 판독하여 기존에 당초문으로 파악했던 4건이 연꽃넝쿨문임을 확인한 결과, 연꽃넝쿨문 변철은 총 106책이다.

33. 3개의 박을정만 사용한 『선조목릉천장산릉도감의궤』(1631), 7개를 사용한 『민회빈묘소도감의궤』(상·하)(1719)와 『문회묘영건청등록』(1790)은 예외적인 사례며, 통상 어람건 의궤의 변철은 5개의 박을정으로 고정하였다.



도10. 다양한 형태의 국화동

- |                            |                               |
|----------------------------|-------------------------------|
| 10-1 『창덕궁수리도감의궤』(1647)     | 10-6 『효명세자입묘도감의궤』(1832)       |
| 10-2 『장렬왕후국장도감의궤』(상)(1689) | 10-7 『헌경혜빈빈궁훈궁도감의궤』(상)(1816)  |
| 10-3 『효장세자책례도감의궤』(하)(1725) | 10-8 『순원왕후상호도감의궤』(1841)       |
| 10-4 『효순현빈묘소도감의궤』(상)(1752) | 10-9 『정순왕후가상존호도감의궤』(1787)     |
| 10-5 『효명세자책례도감의궤』(1812)    | 10-10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궤』(상)(1802) |

국화동은 각 꽃잎의 끝은 작은 돌기점이 도드라지게 만들어졌으며, 그 위에 방사형으로 누비주름이 선각된 원판이 있는 형태이다. 18세기 초 『단의빈묘소도감의궤』(1718)부터는 꽃잎의 크기가 조금 더 커지고 꽃잎의 끝마다 도드라졌던 돌기점 대신 꽃잎의 끝을 입체감 있는 형태로 부드럽게 곡선으로 표현하였으며, 원판이 없어지고 못머리가 크고 볼록해졌다. 꽃잎의 돌기점이 없어진 대신 선각으로 무늬를 새기기도 하였다. 19세기에 들어서는 2겹의 꽃잎이 겹쳐진 형태의 이중 국화동이 나타났다. 이중 국화동은 『효명세자책례도감의궤』(1812)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이후 1820년대~1840년대까지 33책의 의궤에 사용되었다.<sup>34</sup> 이중 국화동은 『고종대례의궤高宗大禮儀軌』(1897),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明成皇后國葬都監儀軌』(1898), 『의왕영왕책봉의궤義王英王冊封儀軌』(1900) 등 대한제국기의 어람건과 예람건 의궤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sup>35</sup>

국화동은 대부분 꽃잎이 아래를 향해 엮드린 복화伏花 형태로 되어 있으나 이와 반대로 꽃잎

34. 『헌종국장도감의궤憲宗國葬都監儀軌』(1850)의 경우 복화 형태의 이중 국화동 위에 원판이 더 결합된 형태인데, 같은 시기에 제작된 헌종의 국장 관련 의궤와는 다른 양식이므로, 이 원판이 다른 의궤에서 혼입된 것인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 2011년 이관 당시 변철을 재장정하며 국화동이 바뀐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있는데, 바로 『인현왕후명릉산릉도감의궤』(하)(1702)이다. 프랑스국립도서관 측으로부터 받은 사진 자료에는 상권과 같은 형태의 원판+복화 형태의 국화동인데, 현재 이 의궤는 이중 국화동으로 마감된 상태이다. 이 경우 교란된 것이 거의 확실하므로 이중 국화동이 최초로 나타난 것은 본문에 언급한 대로 『효명세자책례도감의궤』(1812)로 보았다.

35. 『규장각 소장 국보·보물 및 세계기록유산』(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1), 124~129쪽. 언급한 대한제국기의 의궤는 모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도11. 앞뒤의 무늬가 다른 변철

- 11-1 『의소묘영건청의궤』(1753)의 앞뒤 변철  
 11-2 『영조정성왕후정순왕후장헌세자혜빈존호도감의궤』(상)(1784)의 앞뒤 변철

이 들린 양화仰花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양화 형태의 국화동은 『정순왕후가상존호도감의궤貞純王后加上尊號都監儀軌』(1787)에서 처음 보이고 이후 『헌경혜빈빈궁훈궁도감의궤獻敬惠嬪嬪宮魂宮都監儀軌』(1816) 이후 다수 나타나는데,<sup>36</sup> 그 중 홑겹의 양화는 1820~1830년대에 주로 분포되어 있고, 겹겹의 이중 국화동 형태의 양화는 『효현왕후국장도감의궤孝顯王后國葬都監儀軌』(1844) 이후 12건이 확인된다. 양화 형태의 국화동은 국내의 다른 기관에 소장된 어람건 의궤에서도 나타난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의 『영조묘호도감의궤英祖廟號都監儀軌』(1890)는 초록비단 표지에 황동 변철을 5개의 국화동으로 고정한 어람건 의궤의 장황을 갖추고 있다. 개장 기록이 없고 변철의 상태로 보아 보수의 흔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겹 양화 형태로 되어 있다.<sup>37</sup> 따라서 외규장각 의궤 중 양화 형태의 국화동이 모두 개장할 때 변형된 형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sup>38</sup> 또 양화 형태의 국화동은 19세기 이후 여러 건의 의궤에서 확인되므로 제작 당시의 단순한 착오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형태가 주로 1820년대 이후에 집중되는 것으로 보아 양화 형태의 국화동은 특정 시기의 양식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 외에 전형적인 양식에서 벗어난 국화동도 있었다. 『정순왕후가상존호도감의궤』(1787)의 경우 꽃잎이 위로 들린 양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각 꽃잎 사이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다.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궤』(1802) 2책의 국화동은 가장자리에 돌기점이 촘촘히 있는 반원형 위에 역시

36. 이 시기 대부분의 의궤에서는 원판이 확인되지 않는데 이 의궤에서는 원판이 나타난다. 혼입 여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37. 『규장각 소장 국보·보물 및 세계기록유산』(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1), 120~121쪽.  
 38. 다만, 『정순왕후가상존호도감의궤』(1787)는 일반적으로 양화 형태의 국화동이 나타나는 시기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개장 시 변형되었을 가능성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가장자리를 돌기점으로 돌린 원판이 있는 형태이다.

한편, 개장을 거치며 교란된 것으로 추정되는 변철도 있는데, 바로 앞뒤의 무늬가 현저하게 다른 경우이다.<sup>41</sup> 『의소묘영건청의궤(昭廟營建廳儀軌)』(1753)의 경우 앞면은 연꽃넙쿨문이고 뒷면은 넙쿨문으로 변철의 무늬가 서로 다르다. 『영조정성왕후정순왕후장헌세자혜민존호도감의궤』(상) (1784)는 앞뒷면 모두 넙쿨문이기도 하나 표현 양식과 크기가 다르며, 특히 뒷면의 변철은 의궤 책지와 침안이 맞지 않는다. 이 외에도 일부 변철의 앞뒤 무늬의 양식이 다른 것, 동일 의궤 중 여러 종류의 국화동이 혼입된 경우 등 개장으로 인한 오류는 추가적인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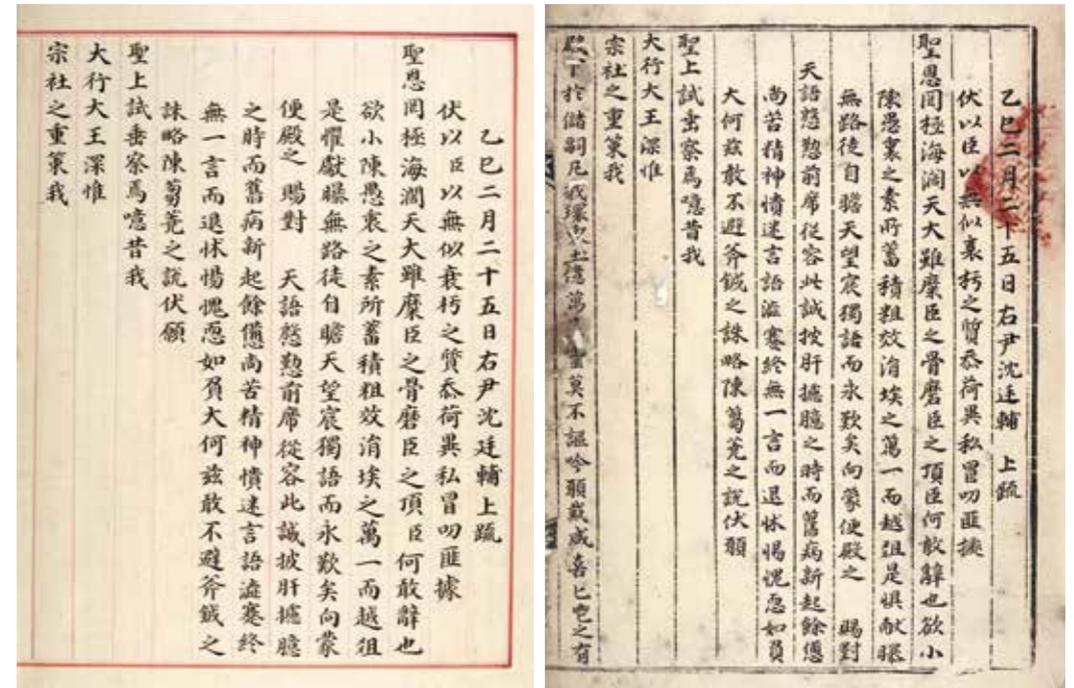
### 3. 책지

의궤를 제작할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재료는 바로 종이이다. 의궤 1책에 들어가는 책지는 외규장각 의궤의 경우 평균 180여 장인데, 어람건과 분상건을 합하여 통상 한 번에 5건을 제작하니 완성된 의궤에 들어가는 책지만 해도 900여 장에 달한다. 이 외에도 의궤청에서 각종 문서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데 필요한 공사하지(公事下紙), 의궤의 초안을 잡는 출초(出草)에 사용되는 백지(白紙), 배접에 사용하는 후백지와 휴지 등 많은 종이 소용된다. 「의궤사목」에도 가장 중요하게 기록된 부분이 각종 종이와 정서에 필요한 물품의 수량과 조달 방법이었다.

의궤의 어람건과 분상건은 책지와 변철뿐만 아니라 책지의 종류와 정서 방법에도 차이를 두었다. 어람건의 책지는 초주지, 분상건의 책지는 저주지를 사용하는데, 초주지는 저주지의 4배 이상 가격이 높은 고급 품질의 종이였다.<sup>39</sup> 즉, 열람자나 발급 주체에 따라 종이부터 차등을 두어 어람건의 격을 높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정서할 때에는 분상건의 경우 인찰판을 사용하여 책지에 인찰선을 찍은 후 서사(書寫)가 정서하였는데, 서사는 1명당 매월 황필(黃筆) 2자루와 진묵(眞墨) 1정을 지급받았다. 한편, 어람건의 경우 인찰 화원이 책지에 장척(長尺)을 대고 일일이 화필(畫筆)로 인찰선을 그렸는데, 안료는 당주홍(唐朱紅)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연지(臘脂)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인찰선을 그릴 때는 먼저 테두리인 광곽(光郭)을 긋고 각 행의 세로선은 약 2cm 간격으로 매우 가늘고 연하게 그었다. 어람건의 정서는 글씨를 잘 쓰는 별도의 사자관(寫字官)이 선출되어 담당하였으며, 사자관에게는 매월 황필 3자루와 진묵 2정이 지급되었다. 정서가 끝나면 분상건은 어람건과 달리 반주홍(礬朱紅)을 사용하여 각 면마다

39. 초주지와 저주지의 가격에 관해서는 손계영, 「古文書에 사용된 종이 연구 : 『度支準折』을 중심으로」, 『고문서연구』25(200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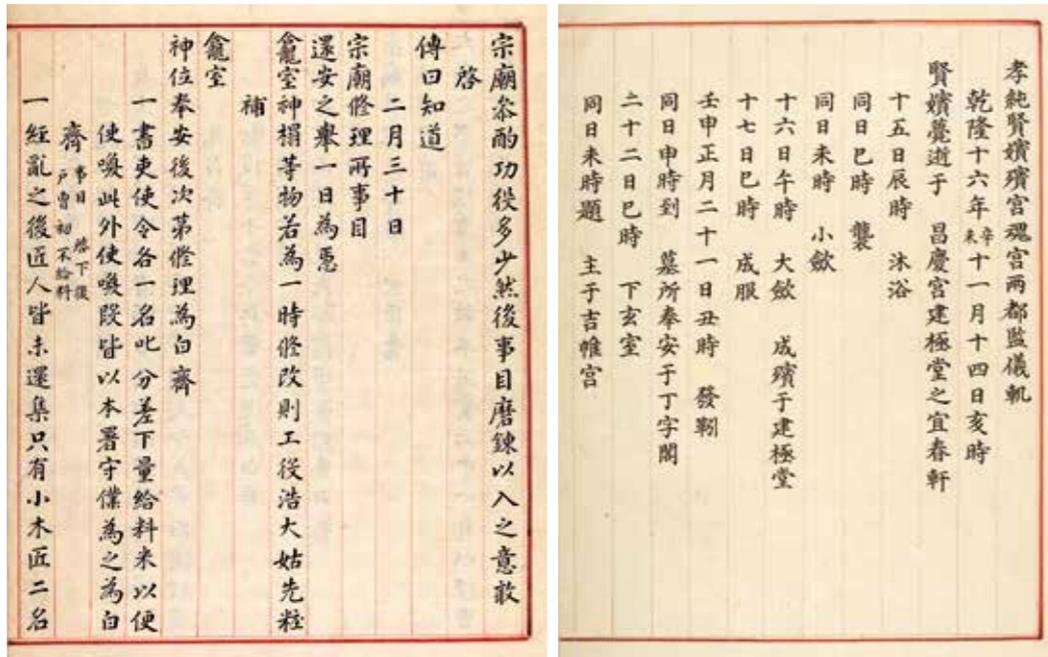
도12. 어람건과 분상건 의궤의 책지 비교 『효장세자책례도감의궤』(1725) (좌: 어람건, 우: 분상건)

관인을 찍는 성첩(成貼)을 하였다. 이처럼 어람건 의궤는 책지와 정서 방법, 심지어 사자관에게 지급되는 물품까지 분상건과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sup>40</sup>

한편, 초주지의 제작 과정과 특징에 대해서는 대상 자료가 대개 귀중본 고문서이기 때문에 연구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외규장각 의궤 책지의 성분 분석 조사를 통하여 제작 방법과 시기별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41</sup>

어람건 의궤와 분상건 의궤의 책지는 육안으로도 확연히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종이의 품질이 달랐다. 어람건에 사용된 초주지는 분상건의 저주지에 비해 밀도가 높고 표면이 매끄러우며 변색이 적은 편이었다.<sup>42</sup> 초주지와 저주지는 모두 닥나무 섬유를 원료로 만든 종이이지만, 표면의 도침(搗帖) 가공 정도에 따라 그 품질이 결정되었다. 도침은 종이를 적신 상태에서 두드려 섬유 간 결합을 치밀하게 하고 표면을 매끄럽게 만드는 가공법으로, 도침을 많이 한 종이일수록 먹이 잘

40. 정서에 사용되는 물품의 기준은 『장렬왕후국장도감의궤』(상)의 「의궤사목」 참조; 유새림, 앞의 논문(2012), 161~165쪽.  
41. 외규장각 의궤 책지의 분석 결과와 제작 기법, 특징에 대해서는 본 책의 천주현, 「외규장각 의궤 책지의 특성」 참조. 본문에 기술한 책지의 밀도·두께 등의 분석 결과는 모두 본 책에 수록된 천주현의 논문에 따른 것임.



도 13. 시기별 어람건 의례의 책지 비교 (좌: 『종묘수리도감의례』(1637), 우: 『호순현빈반궁훈공도감의례』(상)(1752))

받고 붓의 움직임이 좋게 하므로 서사에 유리하여 상품上品으로 분류되었다.<sup>42</sup>

그런데 초주지도 시기에 따라 두께, 도침 정도, 색깔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sup>513</sup> 분석 결과를 보면 외규장각 의례 책지의 두께는 0.13mm, 밀도는 0.72g/cm<sup>3</sup> 정도로 보통 종이보다 두껍고 밀도가 높은 편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숙종~영조 연간에 제작된 어람건 의례의 책지가 가장 밀도가 높고 치밀하게 제작되었다. 육안 실사 결과를 보았을 때에도 17세기에 제작된 의례의 책지는 뒷면의 글씨가 비칠 정도로 얇거나 혹은 두껍기는 하나 표면에 종이 섬유가 느껴질 정도로 표면이 매끄럽지 않은 경우가 있는 등 책지의 질이 일정하지 않은 면이 있는데 비하여, 18세기 전반에 제작된 의례의 책지는 두께, 표면의 평활도, 색깔 등에서 모두 우수하고 품질이 일정한 편이다. 한편, 19세기에 제작된 의례의 책지는 두께는 비슷하나 18세기의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면이 덜 매끄러운 편이다.

한편, 숙종~영조 연간에 해당하는 18세기 전반은 종이의 품질뿐만 아니라 책이나 변철 등 장황의 양식이 세련되고 안정된 양상을 보이는 시기이다. 또한 의례의 내용 면에서도 체제가 정비되

고 기록이 상세해지며, 반차도의 구성과 묘사가 치밀해지고 서체 또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 준다. 이를 볼 때 의례, 특히 어람건 의례는 당대를 대표하는 문화의 산물이자 의례가 생산된 당대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V. 맺음말

이상 외규장각 의례의 실사와 과학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규장각 의례 장황의 특징을 책의 변철, 책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론을 요약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의례는 조선 왕조의 주요 의례에 관한 기록으로, 외규장각 의례는 대부분 왕의 열람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어람건 의례이다. 어람건 의례는 책의, 책지, 변철 등의 장황을 분상건에 비해 격을 높여 제작하였는데 이는 예에 따라, 열람자와 봉안처의 격에 따라 장황을 달리하는 조선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어람건 의례의 장황은 일반적으로 초주지에 내용을 정서하고 초록 비단을 책의로 삼아 황동 금속판으로 만든 변철을 앞뒤로 대고 다섯 개의 구멍을 뚫어 박을정을 박은 후 꽃잎 모양의 국화동과 원환으로 마감하였다. 분상건은 붉은색 삼베를 책의로 삼고 강철 변철을 대고 3개의 못으로 고정하고 원환을 달아 마무리하였다.

어람건 의례의 장황은 시기에 따라 책의, 변철, 책지에 변화가 나타난다. 책의는 대개 18세기 중반까지는 운보문단, 연화문단 등 초록색의 무늬가 있는 비단[紋緞]이 사용되다가, 1746년 영조의 문단 금지 조치 이후 무늬가 없는 비단[無紋緞]로 바뀌었다.

변철은 무늬에 따라 시기를 구분할 수 있는데, 18세기 초까지는 민무늬가, 이후 18세기 중엽까지는 연꽃넙쿨문이, 18세기 후반 이후에는 넝쿨문이 주류를 이루었다. 특이하게 1752년(영조 28)에 제작된 의례 14책은 보배문 변철을 사용하였다. 변철을 고정하는 장치인 국화동도 시기에 따라 양식이 구분되는데, 18세기 초까지는 8엽의 꽃잎과 누비주름원판이 결합된 형태가, 이후 19세기 초까지는 꽃잎이 아래로 향한 복화 형태의 단독 국화동이,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꽃잎이 2겹으로 이루어진 이중 국화동이 주된 형태로 나타난다.

책지는 어람건은 초주지, 분상건은 저주지를 사용하였는데, 성분 분석 결과 모두 닥섬유를 원료로 제작된 종이인데 밀도와 도침 정도에서 품질의 차이가 드러났다. 초주지의 분석 결과 종이 밭이 시기가 내려올수록 조밀해지는 특징을 보이며, 숙종~영조 연간인 17세기 후반~18세기 중반

42. 조계영, 「조선 후기 왕실서책 粧緘時의 搗砵에 관한 고찰」, 『古文書研究』31(2007), 261~262쪽.

에 제작된 어람건 의뢰의 초주지가 밀도가 높고 치밀하게 제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외규장각 의뢰의 장황 연구를 통하여 조선 시대 어람건 의뢰 장황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총서에 수록된 외규장각 의뢰 장황 연구와 관련 자료가 향후 조선 시대 외규장각 의뢰, 어람건 의뢰가 갖는 역사성을 규명하는 단서가 되리라 기대한다.

## 국문초록

### 외규장각 의뢰 장황의 특징

이 논문은 2011년 프랑스로부터 이관된 외규장각 의뢰 297책의 실측과 과학적 조사 과정을 통해 파악한 외규장각 의뢰 장황粧綴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본고는 외규장각 의뢰 장황의 특징을 책의冊衣, 변철邊鐵, 책지冊紙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의뢰儀軌는 조선 왕조의 주요 의례에 관한 기록으로, 외규장각 의뢰는 대부분 왕의 열람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어람건 의뢰이다. 어람건 의뢰는 책의, 책지, 변철 등의 장황을 분상건에 비해 격을 높여 제작하였는데 이는 예禮에 따라, 열람자와 봉안처의 격에 따라 장황을 달리 하는 조선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어람건 의뢰의 장황은 일반적으로 초주지草注紙에 내용을 정서正書하고 초록 비단을 책의로 삼아 황동 금속판으로 만든 변철을 앞뒤로 대고 다섯 개의 구멍을 뚫어 박을정을 박은 후 꽃잎 모양의 국화동과 원환으로 마감하였다. 분상건은 저주지著注紙에 정서한 후 붉은색 삼베를 책의로 삼고 강철 변철을 대고 3개의 못으로 고정하고 원환을 달아 마무리하였다.

외규장각 의뢰 어람건 의뢰의 장황은 시기에 따라 책의, 변철, 책지에 변화가 나타난다. 책의는 대개 18세기 중반까지는 운보문단, 연화문단 등 초록색의 무늬가 있는 비단[紋緞]이 사용되다가, 1746년 영조의 문단 금지 조치 이후 무늬가 없는 비단[無紋緞]로 바뀌었다. 변철은 무늬에 따라 시기를 구분할 수 있는데, 18세기 초까지는 민무늬가, 이후 18세기 중엽까지는 연꽃넙쿨문[蓮花唐草紋]이, 18세기 후반 이후에는 넙쿨문[唐草紋]이 주류를 이루었다. 특이하게 1752년(영조 28)년에 제작된 의뢰 14책은 보배문[寶紋] 변철을 사용하였다. 변철을 고정하는 장치인 국화동菊花童도 시기에 따라 양식이 구분되는데, 18세기 초까지는 8엽의 꽃잎과 누비 주름원판이 결합된 형태가, 이후부터 19세기 초까지는 복화伏花 형태의 단독 국화동이, 19세기 중반부터는 이중 국화동이 주된 형태로 나타났다.

책지는 어람건은 초주지, 분상건은 저주지를 사용하였는데, 모두 닥섬유를 원료로 제작된 종이이다. 초주지의 분석 결과 종이 발이 시기가 내려올수록 조밀해지는 특징을 보이며, 17세기 후반~18세기 중반(숙종, 영조 연간)에 제작된 어람 의뢰의 초주지가 밀도가 높고 치밀하게 제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외규장각 의뢰의 장황 연구를 통하여 조선 시대 어람건 의뢰 장황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었다. 향후 조선 시대 외규장각 의뢰, 어람건 의뢰가 갖는 역사성을 규명하는 단서가 되리라 기대한다.

주제어: 외규장각 의뢰, 어람건, 분상건, 장황, 책의, 변철, 국화동, 책지, 초주지, 저주지

---

**Abstract**

**Characteristics of Bindings of the *Oegyujanggak Uigwe***

This essa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bindings of the 297 volumes of the *Oegyujanggak Uigwe* that were returned from France in 2011.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details of important royal or state rituals were recorded in unique texts called *Uigwe*. The *Uigwe* can be largely divided between king's copies, produced exclusively for the king, and general copies, which were distributed to government offices for general use; most of the *Oegyujanggak Uigwe* are king's copies. King's copies were differentiated from general copies by the binding materials and techniques, including the use of superior materials for the covers, inner pages, and *byeoncheol* (metal strips along the sides of the front and back covers). This practice reflected the overall publishing culture of Joseon, wherein, following Neo-Confucian principles, titles were often published in several editions with different bindings according to the status of the readers and institutions where the texts would be housed.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nvestigated the bindings of the *Oegyujanggak Uigwe*, focusing on the covers, papers for inner pages, and *byeoncheol*; the investigations included measurement, microscopy, and X-ray inspection. This anthology presents the results of that research in order to provide the foundation for further research on *Uigwe*.

Generally, king's copies of *Uigwe* were made by the following procedure. First, the draft was written on *chojuji* paper, and the papers were bound with green silk and brass *byeoncheol* on the front and back covers. The *byeoncheol* were pierced with five holes, through which nails called *bakeuljeong* were driven; the *bakeuljeong* were then encircled by chrysanthemum-shaped ornaments. Finally, a ring was attached to the center of the *byeoncheol* on the front cover. By contrast, the binding of general copies consisted of red hemp cloth (rather than green silk), steel *byeoncheol* (rather than brass), three *bakeuljeong* nails, and a ring.

The binding elements of king's copies of *Uigwe* (i.e., the covers, *byeoncheol*, and papers for the inner pages) changed over time. Until the mid-eighteenth century, the covers were primarily made with green *mundan* (紋緞, premium silk with patterns), and the most common designs were clouds and jewels or lotus flowers. After King Yeongjo banned the use of *mundan* in 1746, however, the covers of king's copies of *Uigwe* were made with unpatterned green silk of lesser quality, called *ju* (絹). The *byeoncheol* can be chronologically organized based on the patterns that they were inscribed with. Until the early eighteenth century, most *byeoncheol* had no patterns; from the early to the

mid-eighteenth century, the lotus scroll was the most popular design, and from the late eighteenth century, the scroll was the dominant design. Exceptionally, however, fourteen volumes of king's copies of *Uigwe* produced in 1752 feature designs of auspicious treasures on the *byeoncheol*. As for the inner pages, *chojuji* paper was used for king's copies, while lesser quality *jeojuji* paper was used for general copies; both paper types were made from paper mulberry. Analysis of the *chojuji* paper revealed that the bamboo papermaking molds used in the later period were denser than those used in the early period, and that the density of *chojuji* paper was highest in *Uigwe* copies produced from the late seventeenth to the mid-eighteenth century (during the reigns of King Sukjong and Yeongjo).

Keywords: *Oegyujanggak Uigwe*, king's copies, general copies, cloth cover (*chaekui*), *byeoncheol*, inner pages (*chaekji*), *chojuji*, *jeojuji*

abstrait

## Caractéristiques de la reliure des protocoles de la bibliothèque royale de la dynastie Joseon

Cette étude a pour objectif de déterminer les caractéristiques de la reliure de 297 protocoles royaux (*uigwe*) de la bibliothèque royale de la dynastie Joseon (*Oekyujanggak*), qui sont retournés de France en Corée en 2011. Les protocoles royaux sont des archives détaillant les rituels de cérémonies importantes de la dynastie Joseon ; ceux de la bibliothèque royale sont pour la plupart destinés au roi. Les protocoles à l'usage exclusif du roi ont été reliés d'une façon plus noble que ceux à l'usage de l'administration : couvertures, mors et papier sont de meilleure qualité. Dans la culture de la dynastie Joseon, la façon de la reliure varie en fonction des règles de la vertu et de la bienséance, c'est-à-dire du rang du destinataire et du lieu de conservation. Le Musée national de Corée a examiné les manuscrits protocolaires : prises de mesures et examens des matériaux au microscope et aux rayons X, afin d'identifier les spécificités des principaux éléments de reliure comme les couvertures, les mors et les papiers. À partir de ces analyses, un rapport et un catalogue ont été rédigés et attachés à la collection en vue de servir de base de données pour des recherches à venir.

Les protocoles destinés au roi ont généralement été copiés sur le papier de la plus haute qualité, dit *Chojuji* ; puis, les couvertures ont été faites d'une soie verte ; ensuite, des mors en laiton ont été placés sur les couvertures et percés de cinq trous pour y placer les vis de reliure ; enfin un petit cache à motif de chrysanthème a été fixé sur la tête de chaque vis, et un anneau au milieu du mors. Les protocoles à l'usage de l'administration sont reliés d'une manière moins raffinée et plus simple : les couvertures sont en lin rouge, les mors en acier avec seulement trois vis et un anneau. Les trois éléments servant à relier les protocoles destinés au roi diffèrent en fonction de l'époque. La couverture était faite d'une soie verte à motif de nuages ou de lotus avant le milieu du XVIII<sup>e</sup> siècle. Cependant le roi Yeongjo a interdit d'utiliser les tissus à motifs en 1746 : depuis lors, de la soie unie a été utilisée. Sur les mors les motifs gravés changent selon les époques. Deux changements sont observables au XVIII<sup>e</sup> siècle : alors qu'il n'y avait d'abord aucune gravure, au début du siècle apparaît le motif de lotus avec feuilles et tige, et il est remplacé par la mauresque coréenne au milieu du siècle. Les 14 protocoles qui ont été réalisés en 1752 portent exceptionnellement un mors orné de motifs de trésors. Pour les papiers, les protocoles à l'usage exclusif du roi emploient le papier de haute qualité, *Chojuji* et ceux destinés à l'administration le papier plus rugueux, *Jeojuji* ; ces deux papiers sont issus de la même fibre de mûrier.

L'examen du *Chojuji* des protocoles destinés au roi permet d'affirmer que la toile composant la forme (la matrice de la feuille de papier) s'est de plus en plus resserrée au fil du temps : le papier le plus serré et le plus dense a été employé sous les règnes des rois Sukjong à Yeongjo, c'est-à-dire pendant le dernier quart du XVII<sup>e</sup> siècle et les trois premiers quarts du XVIII<sup>e</sup>.

Mots-clés : protocoles royaux (*uigwe*) de la bibliothèque royale de la dynastie Joseon (*Oekyujanggak*), protocoles à l'usage exclusif du roi/protocoles destinés au roi, protocoles à l'usage de l'administration, couverture, mors, papier, *Chojuji*, *Jeojuji*.

# 외규장각 의궤 변철 조사

03

*Byeoncheol of the Ogyujanggak Uigwe*

박학수, 한나라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박물관 연구보조원

Park Hak-su, Han Na-ra  
Metal Conservator, National Museum of Korea  
Curatorial Assistant, National Museum of Korea

- I. 머리말
- II. 조사 방법
- III. 조사 결과
  - 1. 성분
  - 2. 무늬
- IV. 맺음말

## I. 머리말

의궤를 구성하는 책의冊衣와 책지冊紙를 하나로 묶어주는 변철邊鐵은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의궤의 물목物目에는 제작에 사용한 금속의 명칭이 나오기 때문에 변철의 성분을 조사하면 의궤 제작에 사용한 금속과 그 당시 금속의 명칭을 알 수 있다. 또한 변철에 무늬가 존재하는 경우는 무늬의 조각 방법과 도구 등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금속 공예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가 의궤를 구성하고 있는 책지, 책의 직물 등 다른 재질의 연구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된다면, 의궤 제작 기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I. 조사 방법

조사 대상은 39책의 변철이며, 분석 대상을 [표 1]에 나타내었다(이하 유물번호로 표기). 성분 분석은 휴대형 X선 형광 분석기(portable 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 Oxford, X-MET 5100)를 이용하였으며 39책의 변철 모두를 분석하였다. 분석 시간은 20초이며, 성분을 정량화한 방법은 표준시료가 없는 Metal FP법(Fundamental Parameter Method)을 이용하였다. X선빔의 크기는 직경이 9mm이고 X선관의 가속전압은 45kV, 전류는 40 $\mu$ A였다. 변철은 앞면과 뒷면을 3회씩 분석하여 평균을 냈으며, 원환은 외규1에서 외규211까지는 1회, 외규227부터 외규234까지는 3회를 분석하였다.

변철 부위에 무늬가 존재하는 12점에 대하여 무늬의 형상과 시문 도구를 확인하기 위해 실체 현미경(Stereo Microscope, Leica M205A)으로 관찰하고, 화상분석 소프트웨어(Image Analyzer, ImageJ)로 무늬의 크기를 측정하였다.<sup>1)</sup>

[표 1] 분석 대상 의궤 목록 및 성분·무늬

유물번호	서명	제작 시기(년)	분상처	성분	무늬
외규001	풍정도감의궤	1630	분상	강철	-
외규002	선조목릉천장산릉도감의궤	1631	어람	황동	-
외규003	종묘수리도감의궤	1637	어람	황동	-
외규004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	1638	어람	황동	-

1. Rasband WS. ImageJ, U.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Bethesda, Maryland, USA, (1997-2012), <http://imagej.nih.gov/i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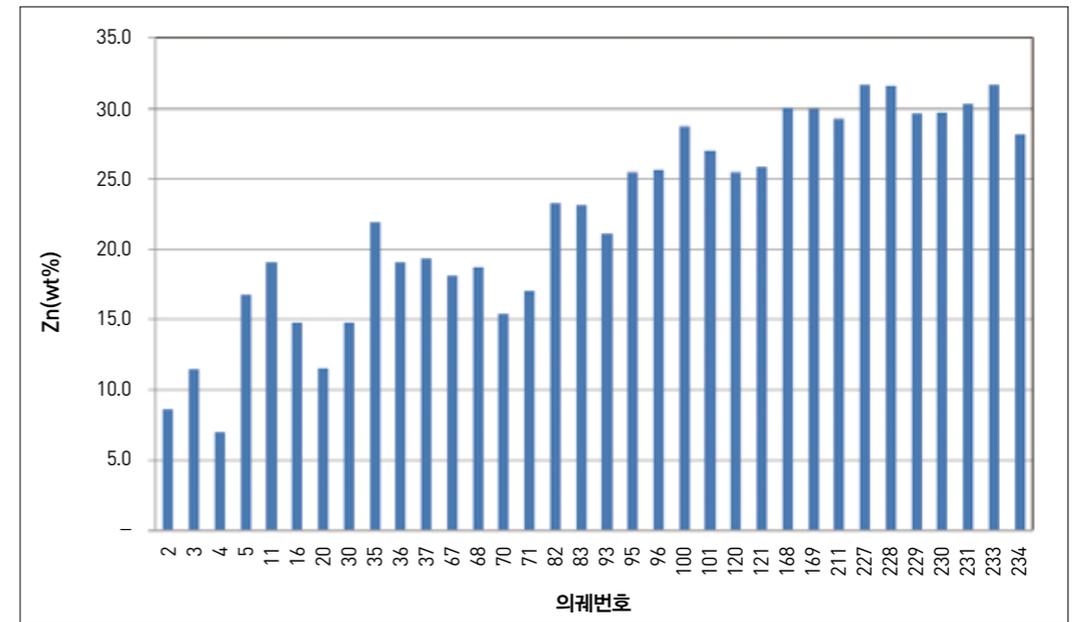
유물번호	서명	제작 시기(년)	분상처	성분	무늬
외규005	소현세자예장도감의궤	1645	어람	황동	-
외규009	공혜왕후순릉수개도감의궤	1648	분상	강철	-
외규011	인조국장도감의궤	1650	어람	황동	-
외규016	현종명성왕후가례도감의궤	1652	어람	황동	-
외규020	효종국장도감의궤 (하)	1659	어람	황동	-
외규030	숙종인경왕후가례도감의궤	1671	어람	황동	-
외규035	인선왕후국장도감의궤 (1)	1674	어람	황동	-
외규036	인선왕후국장도감의궤 (2)	1674	어람	황동	-
외규037	인선왕후국장도감의궤 (3)	1674	어람	황동	-
외규067	장렬왕후빈전도감의궤	1689	어람	황동	-
외규068	장렬왕후훈전도감의궤	1689	어람	황동	-
외규069	장렬왕후빈전훈전도감의궤	1689	분상	강철	-
외규070	장렬왕후국장도감의궤 (상)	1689	어람	황동	-
외규071	장렬왕후국장도감의궤 (하)	1689	어람	황동	-
외규082	인현왕후명릉산릉도감의궤 (상)	1702	어람	황동	-
외규083	인현왕후명릉산릉도감의궤 (하)	1702	어람	황동	-
외규093	숙종어용도사도감의궤	1713	어람	황동	-
외규095	단의빈빈궁도감의궤	1718	어람	황동	연꽃넙쿨문
외규096	단의빈훈궁도감의궤	1718	어람	황동	연꽃넙쿨문
외규100	민회빈봉묘도감의궤 (상)	1719	어람	황동	연꽃넙쿨문
외규101	민회빈봉묘도감의궤 (하)	1719	어람	황동	연꽃넙쿨문
외규120	효장세자책례도감의궤 (상)	1725	어람	황동	연꽃넙쿨문
외규121	효장세자책례도감의궤 (하)	1725	어람	황동	연꽃넙쿨문
외규122	효장세자책례도감의궤	1725	분상	강철	-
외규168	효순현빈묘소도감의궤 (상)	1752	어람	황동	보배문
외규169	효순현빈묘소도감의궤 (하)	1752	어람	황동	보배문
외규170	효순현빈묘소도감의궤 (하)	1752	분상	강철	-
외규211	문효세자책례도감의궤	1784	어람	황동	넙쿨문
외규227	헌경혜빈빈궁훈궁도감의궤 (상)	1816	어람	황동	넙쿨문
외규228	헌경혜빈빈궁훈궁도감의궤 (중)	1816	어람	황동	넙쿨문
외규229	헌경혜빈빈궁훈궁도감의궤 (하)	1816	어람	황동	넙쿨문
외규230	헌경혜빈양례도감의궤 (1)	1816	어람	황동	-
외규231	헌경혜빈양례도감의궤 (2)	1816	어람	황동	-
외규233	헌경혜빈양례도감의궤 (4)	1816	어람	황동	-
외규234	헌경혜빈부궁도감의궤	1818	어람	황동	-

### III. 조사 결과

#### 1. 성분

변철과 원환의 성분 분석 결과를 [표 2]에 나타내었다. 39책의 의궤 중에서 분상건인 외규 1·9·69·122·170의 변철은 강철로 만들어졌으며, 어람건인 나머지 34책의 변철은 모두 황동으로 만들어졌다. 황동은 구리와 아연이 주성분이며 소량의 주석과 납이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성분들의 함량은 미미하다. 원환은 앞판·뒷판의 성분과 거의 대부분이 유사하지만 일부 주석과 납의 함량이 높은 경우가 있다. 한편 『종묘수리도감의궤宗廟修理都監儀軌』(1637)는 앞판과 뒷판의 성분 차이가 크다.

변철의 아연 함량의 시대적 추이를 보기 위해 비교한 것이 도 1로, 초기에는 아연의 함량이 10wt% 내외였던 것이 후대로 내려오며 아연의 함량이 점차 증가하여 30wt%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은 아연이 30wt% 내외일 때 연성이 가장 좋아서 변철과 같은 얇은 형상으로 펴서 만들기 용이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sup>2</sup>



도1. 의궤 변철(앞면)의 아연(Zn) 성분

2. Olin Brass, Understanding Copper Alloys(East Alton, Olin Corporation, 1977), p.53-67.

[표 2] 의궤 변철과 원환의 성분 분석 결과

(단위: wt%)

의궤 번호 (외규)	분석 부위	Cu	Zn	Sn	Fe	Pb	Ag	As	Au	Br	Cd	Co	Hg	Ir	Mn	Nb	Ni	Pd	Sb	Sr	Ti
1	앞판	0.5	-	-	99.3	-	-	-	-	-	-	0.1	-	-	-	-	-	-	-	-	-
	뒷판	0.3	-	-	99.6	-	-	-	-	-	-	0.2	-	-	-	-	-	-	-	-	-
2	앞판	80.4	8.6	2.8	2.0	2.5	-	-	1.6	0.3	-	-	-	-	-	-	1.7	-	0.2	-	-
	뒷판	88.3	6.2	2.5	-	2.9	-	-	0.1	-	-	-	-	-	-	-	-	-	-	-	-
3	앞판	86.7	11.5	0.5	-	1.0	0.1	0.1	-	-	-	-	-	-	-	-	-	-	-	-	-
	뒷판	79.1	19.9	0.2	-	0.8	-	-	-	-	-	-	-	-	0.1	-	-	-	-	-	-
4	앞판	89.8	7.0	0.9	0.3	1.1	0.1	0.3	-	0.0	-	-	-	-	-	-	0.5	-	0.1	-	-
	뒷판	90.2	7.0	0.9	-	1.5	0.1	0.3	-	-	-	-	-	-	-	-	-	-	-	-	-
	원환	83.3	1.4	7.2	0.3	6.6	0.2	0.9	-	-	-	-	-	-	-	-	0.2	0.1	-	-	-
5	앞판	81.7	16.7	0.1	0.3	0.7	-	-	0.4	0.1	-	-	-	-	0.1	-	-	-	-	-	-
	뒷판	82.3	16.5	0.1	-	1.0	-	-	-	-	-	-	-	-	0.1	-	-	-	-	-	-
	원환	82.2	16.6	0.1	-	1.0	-	-	-	-	-	-	-	-	-	-	0.1	-	-	-	-
9	앞판	0.3	0.1	0.5	93.5	2.9	-	0.1	1.3	0.7	-	0.2	-	-	-	-	-	-	0.4	-	-
9	뒷판	0.1	-	-	99.7	-	-	-	-	-	-	0.2	-	-	-	-	-	-	-	-	-
11	앞판	80.0	19.0	0.1	-	0.7	-	-	-	-	-	-	-	-	0.1	-	-	-	-	-	-
	뒷판	82.0	15.6	0.6	-	1.7	0.1	-	-	-	-	-	-	-	0.1	-	-	-	-	-	-
	원환	80.3	16.3	0.2	0.9	0.7	-	-	-	-	-	-	-	0.1	0.1	0.1	1.2	-	0.2	-	-
16	앞판	84.1	14.8	0.1	-	0.7	-	-	-	-	-	-	-	-	0.1	0.1	-	-	-	-	-
	뒷판	84.1	14.9	0.1	-	0.7	-	-	-	-	-	-	-	-	0.1	0.1	-	-	-	-	-
	원환	73.2	17.0	3.3	0.6	5.1	0.1	0.5	-	-	-	-	-	-	-	-	0.1	-	-	-	-
20	앞판	85.9	11.6	1.2	-	1.3	-	-	-	-	-	-	-	-	-	-	-	-	-	-	-
	뒷판	86.0	11.4	1.2	-	1.3	-	-	-	-	-	-	-	-	-	-	-	-	-	-	-
	원환	67.8	22.5	2.4	0.7	6.1	-	-	-	-	-	-	-	-	0.1	-	-	0.5	-	-	-
30	앞판	83.9	14.8	0.1	-	1.1	-	-	-	-	-	-	-	-	-	-	-	-	-	-	-
	뒷판	83.8	14.8	0.1	-	1.2	-	-	-	-	-	-	-	-	0.0	-	-	-	-	-	-
	원환	79.9	13.4	-	1.0	0.7	-	-	1.7	0.2	-	-	-	0.4	-	0.1	0.1	2.4	-	0.2	-
35	앞판	77.3	21.9	0.1	-	0.7	-	-	-	-	-	-	-	-	-	-	-	-	-	-	-
	뒷판	74.4	23.6	0.5	-	1.3	0.1	-	-	-	-	-	-	-	0.1	-	-	-	-	-	-
	원환	79.8	19.5	0.1	-	0.7	-	-	-	-	-	-	-	-	-	-	-	-	-	-	-
36	앞판	80.2	19.0	-	-	0.7	-	-	-	-	-	-	-	-	0.1	-	-	-	-	-	-
	뒷판	80.9	18.3	-	-	0.7	-	-	-	-	-	-	-	-	0.1	-	-	-	-	-	-
	원환	80.1	17.8	1.4	-	0.7	-	-	-	-	-	-	-	-	-	-	-	-	-	-	-
37	앞판	79.6	19.3	0.2	-	0.9	-	-	-	-	-	-	-	-	0.1	-	-	-	-	-	-
	뒷판	79.8	19.1	0.2	-	0.9	-	-	-	-	-	-	-	-	0.1	-	-	-	-	-	-
	원환	80.3	15.6	3.5	-	0.6	0.1	-	-	-	-	-	-	-	-	-	-	-	-	-	-
67	앞판	80.4	18.1	0.3	-	1.0	-	0.0	-	-	-	-	-	-	0.1	-	-	-	-	-	-
	뒷판	80.2	18.3	0.2	-	1.2	-	-	-	-	-	-	-	-	0.1	-	-	-	-	-	-

(단위: wt%)

의궤 번호 (외규)	분석 부위	Cu	Zn	Sn	Fe	Pb	Ag	As	Au	Br	Cd	Co	Hg	Ir	Mn	Nb	Ni	Pd	Sb	Sr	Ti
68	앞판	80.4	18.7	0.1	-	0.7	-	-	-	-	-	-	-	-	-	0.1	-	-	-	-	-
	뒷판	80.2	19.0	0.1	-	0.6	-	-	-	-	-	-	-	-	-	0.1	-	-	-	-	-
	원환	80.1	19.2	0.2	-	0.5	-	-	-	0.1	-	-	-	-	-	-	-	-	-	-	-
69	앞판	-	-	-	99.7	-	-	-	-	-	0.2	-	-	-	-	-	-	-	-	-	-
	원환	-	-	-	99.6	0.1	-	-	-	-	0.2	-	-	-	-	-	-	-	-	-	-
70	앞판	83.0	15.4	0.1	-	1.4	-	-	-	-	-	-	-	-	-	0.0	-	-	-	-	-
	뒷판	80.2	19.0	0.1	-	0.6	-	-	-	-	-	-	-	-	-	0.1	-	-	-	-	-
	원환	82.4	16.5	0.1	-	0.9	-	-	-	-	-	-	-	-	-	0.1	-	-	-	-	-
71	앞판	82.2	17.0	-	-	0.7	-	-	-	-	-	-	-	-	-	0.1	-	-	-	-	-
	뒷판	80.1	18.3	0.2	-	1.2	-	-	-	-	-	-	-	-	-	0.1	-	-	-	-	-
	원환	82.2	17.1	-	-	0.6	-	-	-	-	-	-	-	-	-	0.1	-	-	-	-	-
82	앞판	76.1	23.2	-	-	0.4	-	0.0	-	-	-	-	-	-	-	0.1	0.1	-	-	-	-
	뒷판	76.4	23.2	-	-	0.3	-	-	-	-	-	-	-	-	-	0.1	0.1	-	-	-	-
	원환	76.4	23.1	-	-	0.3	-	-	-	-	-	-	-	-	-	0.1	-	-	-	-	-
83	앞판	76.4	23.1	-	-	0.4	-	-	-	-	-	-	-	-	-	0.1	0.1	-	-	-	-
	뒷판	76.2	23.3	-	-	0.4	-	-	-	-	-	-	-	-	-	0.1	0.1	-	-	-	-
	원환	69.8	29.4	0.3	-	0.4	-	-	-	-	-	-	-	-	-	0.1	-	-	-	-	-
93	앞판	78.3	21.1	0.1	-	0.6	-	-	-	-	-	-	-	-	-	-	-	-	-	-	-
	뒷판	78.4	20.9	0.1	-	0.5	-	-	-	-	-	-	-	-	-	0.0	-	-	-	-	-
	원환	76.7	22.1	0.1	-	1.0	-	-	-	-	-	-	-	-	-	0.1	-	-	0.1	-	-
95	앞판	73.8	25.5	0.5	-	0.2	-	-	-	-	-	-	-	-	-	0.1	-	-	-	-	-
	뒷판	71.3	28.4	0.1	-	0.2	-	-	-	-	-	-	-	-	-	0.1	-	-	-	-	-
	원환	71.8	21.0	2.1	0.6	4.5	-	-	-	-	-	-	-	-	-	-	-	-	-	-	-
96	앞판	73.5	25.6	0.5	-	0.2	-	-	-	-	-	-	-	-	-	0.1	-	-	-	-	-
	뒷판	71.8	27.9	0.1	-	0.2	-	-	-	-	-	-	-	-	-	0.1	-	-	-	-	-
	원환	69.5	19.8	2.2	0.5	5.5	-	0.4	-	0.2	-	-	1.8	-	-	-	-	-	0.1	-	-
100	앞판	69.5	28.7	0.6	-	0.9	-	0.1	-	-	-	-	-	-	-	0.1	-	0.1	-	-	-
	뒷판	73.7	24.3	1.0	-	0.8	-	-	-	-	-	-	-	-	-	0.1	-	-	-	-	-
	원환	74.9	19.1	2.8	-	3.1	-	-	-	-	-	-	-	-	-	-	-	-	0.1	-	-
101	앞판	71.3	27.0	0.9	-	0.8	-	-	-	-	-	-	-	-	-	0.1	-	-	-	-	-
	뒷판	74.0	24.0	1.0	-	0.8	-	-	-	-	-	-	-	-	-	0.1	-	-	-	-	-
	원환	74.3	19.4	2.8	0.5	2.6	-	0.2	-	-	-	-	-	-	-	0.1	-	-	-	-	-
120	앞판	74.3	25.4	0.1	-	0.1	-	-	-	-	-	-	-	-	-	0.1	-	-	-	-	-
120	뒷판	74.7	24.9	0.1	-	0.1	-	-	-	-	-	-	-	-	-	0.1	-	-	-	-	-
	원환	73.0	15.9	3.4	-	7.6	0.1	-	-	-	-	-	-	-	-	-	-	-	0.1	-	-
121	앞판	73.8	25.8	0.1	-	0.1	-	-	-	-	-	-	-	-	-	0.1	-	-	-	-	-
	뒷판	73.9	25.7	0.1	-	0.2	-	-	-	-	-	-	-	-	-	0.1	-	-	-	-	-
	원환	72.2	16.2	3.4	-	7.8	0.1	0.3	-	-	-	-	-	-	-	-	-	-	0.1	-	-

(단위: wt%)

의뢰 번호 (외규)	분석 부위	Cu	Zn	Sn	Fe	Pb	Ag	As	Au	Br	Cd	Co	Hg	Ir	Mn	Nb	Ni	Pd	Sb	Sr	Ti
122	앞판	0.1	-	-	99.7	0.1	-	-	-	-	-	0.1	-	-	-	-	-	-	-	-	0.0
	뒷판	0.1	0.0	-	99.7	-	-	-	-	-	-	0.2	-	-	-	-	-	-	-	-	-
168	앞판	68.8	30.0	0.1	0.6	0.4	-	-	-	-	-	-	-	-	-	0.1	-	-	-	-	-
	뒷판	69.4	29.6	0.1	0.5	0.3	-	-	-	-	-	-	-	-	-	0.1	-	-	-	-	-
	원환	72.0	25.0	0.3	-	1.7	-	0.8	-	-	-	-	-	-	-	-	-	-	0.2	-	-
169	앞판	69.0	29.9	0.1	0.6	0.4	-	-	-	-	-	-	-	-	-	0.1	-	-	-	-	-
	뒷판	68.6	30.3	0.1	0.6	0.4	-	-	-	-	-	-	-	-	-	0.1	-	-	-	-	-
	원환	72.7	24.1	0.8	-	2.2	-	0.2	-	-	-	-	-	-	-	0.1	-	-	0.1	-	-
170	앞판	-	-	-	99.6	0.1	-	-	-	-	-	0.3	-	-	-	-	-	-	-	-	0.1
	뒷판	-	-	-	99.7	-	-	-	-	-	-	0.3	-	-	-	-	-	-	-	-	-
211	앞판	69.5	29.3	0.3	-	0.7	0.1	-	-	-	0.1	-	-	-	-	0.1	-	-	-	-	-
	뒷판	69.6	29.3	0.2	-	0.7	0.1	-	-	-	-	-	-	-	-	0.1	-	-	-	-	-
	원환	72.4	27.3	-	-	0.1	-	-	-	-	-	-	-	-	-	0.1	-	-	-	-	-
227	앞판	67.5	31.6	0.3	-	0.5	-	0.0	-	-	-	-	-	-	-	-	-	-	-	-	-
	뒷판	67.7	31.4	0.3	-	0.5	-	-	-	-	-	-	-	-	-	0.1	-	-	-	-	-
	원환	73.7	22.3	1.8	0.5	1.6	-	0.1	-	-	-	-	-	-	-	-	-	-	-	-	-
228	앞판	67.5	31.6	0.3	-	0.5	-	0.0	-	-	-	-	-	-	-	0.1	-	-	-	-	-
	뒷판	72.8	24.0	1.1	0.5	1.4	-	0.1	-	-	-	-	-	-	-	0.1	-	-	-	-	-
	원환	73.2	23.0	1.8	0.3	1.6	-	0.1	-	-	-	-	-	-	-	0.0	-	-	-	-	-
229	앞판	68.2	29.6	0.7	-	1.4	-	-	-	-	-	-	-	-	-	0.1	-	-	-	-	-
	뒷판	68.1	29.7	0.7	-	1.4	-	0.0	-	-	-	-	-	-	-	0.1	-	-	-	-	-
	원환	73.8	22.6	1.8	0.2	1.5	0.1	-	-	-	-	-	-	-	-	-	-	-	-	-	-
230	앞판	68.4	29.7	0.5	-	1.1	-	0.0	-	-	-	-	-	-	-	0.1	-	-	-	-	-
230	뒷판	68.2	29.8	0.6	-	1.3	-	-	-	-	-	-	-	-	-	0.1	-	-	-	-	-
	원환	68.5	29.7	0.6	-	1.0	-	0.0	-	-	-	-	-	-	-	0.1	-	-	-	-	-
231	앞판	67.9	30.3	0.4	-	1.2	-	-	-	-	-	-	-	-	-	0.1	-	-	-	-	0.0
	뒷판	66.4	31.8	0.6	-	1.1	-	-	-	-	-	-	-	-	-	0.1	-	-	-	-	-
	원환	68.7	29.5	0.6	-	1.0	-	-	-	-	-	-	-	-	-	0.1	-	-	-	-	-
233	앞판	65.8	31.7	0.7	0.2	1.1	-	-	-	0.1	-	-	-	-	-	0.1	-	0.3	-	0.0	-
	뒷판	68.2	30.1	0.4	-	1.2	-	-	-	-	-	-	-	-	-	0.1	-	-	-	-	-
	원환	69.1	28.7	1.0	-	1.0	-	-	-	-	-	-	-	-	-	0.1	-	0.1	-	-	-
234	앞판	69.9	28.1	0.7	-	0.7	0.1	0.4	-	-	-	-	-	-	-	0.1	-	-	-	-	-
	뒷판	70.1	28.0	0.7	-	0.6	0.1	0.3	-	-	-	-	-	-	-	0.1	-	-	-	-	-
	원환	69.9	28.1	0.7	-	0.6	0.1	0.3	-	-	-	-	-	-	-	0.1	-	-	-	-	-

## 2. 무늬

조사 대상 의뢰 중에서 변철에 무늬가 있는 것은 1718년(숙종 44)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변철 전체를 세로로 다듬고 테두리 선을 그린 후 그 안에 무늬를 새겼다. 무늬는 연꽃넙쿨문, 넙쿨문, 보배문 등이 있으며 췌기형의 정 자국으로 무늬를 전진하며 새기고, 무늬 사이의 여백에 해당하는 공간은 공금정을 이용해서 작은 동그라미로 채웠다. 각 의뢰를 제작 시기별로 묶어서 무늬의 형상과 조각에 사용한 도구 및 각각의 연관성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에 서술하였다.

외규95는 앞면과 뒷면의 변철 폭이 다르며, 무늬를 이루고 있는 정 자국도 다르다.<sup>도2a-d</sup> 앞면의 원 무늬는 뚫린 곳이 없고 직경은 1mm이지만, 뒷면의 원 무늬는 앞면의 것에 비해 더 크고(직경 약 1.3mm) 한쪽이 뚫려 있다. 췌기 무늬도 앞면은 이등변 삼각형이지만 뒷면은 뒷부분이 곡면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사용한 공구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앞면의 췌기 모양 정 자국 사이에 선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가는 선으로 도안을 하고 그 위에 췌기 모양으로 무늬를 새겼음을 보여주는 것이다.<sup>도2b</sup>

외규96도 앞면과 뒷면의 변철 폭이 다르며, 원 무늬의 직경도 앞면은 1.0mm, 뒷면은 1.3mm로 서로 다르다.<sup>도2e-h</sup> 그리고 앞면의 원 무늬를 끊어진 곳이 없는 반면, 뒷면의 것은 두 곳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공금정을 사용해서 원 무늬를 새겼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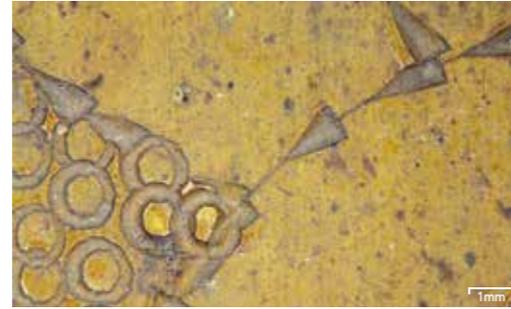
외규100은 앞면의 원 무늬는 직경이 0.9mm이고 끊어진 부분이 없고, 뒷면의 원 무늬는 직경이 1.0mm이고 끊어진 부분이 존재한다.<sup>도2i-n</sup> 췌기형의 무늬가 모이는 꽃잎의 끝부분을 보면 길이와 굵기가 다양한데, 이것은 조각도의 기울기와 들어간 깊이에 따라 무늬가 새겨진 형상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외규101은 앞면의 원 무늬는 직경이 1.0mm이고 공금정을 기울여 무늬를 새겨서 원을 이루지 못한 것이 다수 존재하고, 뒷면의 원 무늬는 직경이 0.9mm이며 끊어진 부위가 없는 공금정을 사용하였다.<sup>도2m-p</sup> 앞의 의뢰와 마찬가지로 췌기형 무늬의 길이와 폭이 다양하다.

도2. 외규95, 외규96, 외규100, 외규101의 변철 무늬



a. 외규95의 앞면



b. 외규95 앞면의 확대



c. 외규95의 뒷면



d. 외규95 뒷면의 확대



e. 외규96의 앞면



f. 외규96 앞면의 확대



g. 외규96의 뒷면



h. 외규96 뒷면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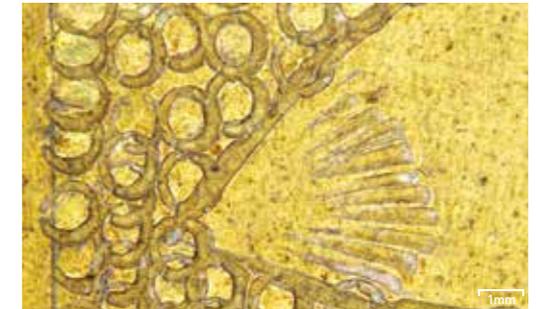
i. 외규100의 앞면



j. 외규100 앞면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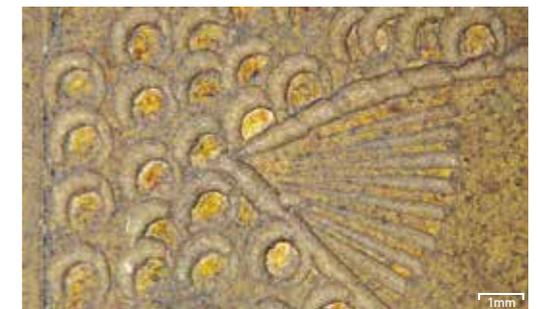
k. 외규100의 뒷면



l. 외규100 뒷면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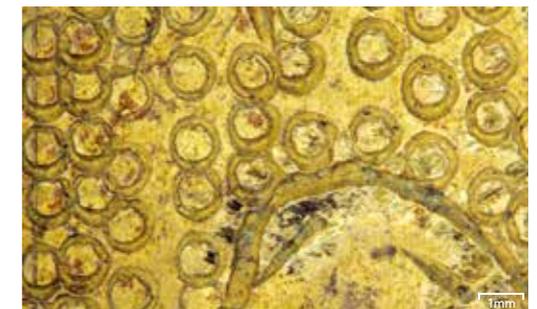
m. 외규101의 앞면



n. 외규101 앞면의 확대



o. 외규101의 뒷면



p. 외규101 뒷면의 확대

외규120은 앞면 원 무늬의 직경이 1.0mm이고 끊어진 부분이 없으며 한쪽으로 몰려 찍혔고, 꽃잎의 끝부분을 이루고 있는 긴 췌기형의 정 자국 중에는 사각형으로 찍힌 것이 존재하며 그 길이는 2.1mm이다.<sup>㉔3a·b</sup> 뒷면은 원 무늬의 직경이 1.0mm인데 V형으로 들어간 부분이 한 곳 존재하고, 췌기형의 무늬는 길이, 폭, 깊이가 앞면과 같이 다양하다.<sup>㉔3c·d</sup>

외규121은 앞면 원 무늬의 직경이 1.0mm이고 끊어진 부분이 없다. 췌기형의 정 자국 중에 꽃잎의 끝부분에는 긴 사각형으로 찍힌 것이 있으며, 그 길이는 2.1mm 이다.<sup>㉔3e·f</sup> 뒷면의 원 무늬는 직경이 1.0mm이며 V형으로 들어간 부위가 존재하며, 외규120의 뒷면에 있는 것과 같은 형상이다.<sup>㉔3g·h</sup>

외규168은 앞면 원 무늬의 직경은 1.2mm이며 안쪽의 원에 바깥쪽으로 돌출한 부위가 존재하고, 앞에 해당하는 부위에는 췌기형 무늬 중에 볼록렌즈처럼 가운데 부분이 볼록하게 된 것이 있다.<sup>㉔3i·j</sup> 이것은 정을 거의 수직으로 세웠을 때 앞부분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길이는 2.6mm이다. 뒷면의 원 무늬는 직경이 1.1mm이며 앞면과 같이 안쪽에 돌출한 부위가 존재하고, 췌기형 무늬도 앞면과 같이 가늘고 길면서 가운데가 볼록한 형상을 가진 것이 있으며 길이는 2.6mm이다.<sup>㉔3k·l</sup> 앞면과 뒷면 하단에 '大吉'이 췌기형 무늬로 새겨져 있다.

외규169는 앞면 원 무늬의 직경은 원 무늬의 직경은 1.1mm이며 외규168과 같이 안쪽에 돌출한 부위가 존재한다.<sup>㉔3m·n</sup> 앞에 해당하는 부위의 췌기형 무늬 중에 가늘고 길며 볼록한 형상을 가진 무늬와 더 깊게 새겨져서 정이 측면이 새겨진 것이 존재하며 그 길이는 2.6mm이다.<sup>㉔3o</sup> 한편 하단에는 '大吉'이 췌기형 무늬로 새겨져 있다.<sup>㉔3p</sup> 뒷면의 원 무늬는 직경이 1.1mm이고 앞면 및 외규168과 같이 안쪽에 돌출한 부위가 존재한다.<sup>㉔3q·r</sup> 췌기형 무늬 중에는 앞면과 같이 긴 볼록렌즈처럼 생긴 것이 존재하고 그 길이는 2.7mm이다.<sup>㉔3s</sup> 하단에 새겨진 '大吉'은 앞면과 달리 뒤집힌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변철을 분리하고 재결합하는 과정에서 뒤집혀서 결합된 것으로 추정된다.<sup>㉔3t</sup>

외규168과 외규169의 원 무늬와 췌기형 무늬의 특징을 보았을 때, 두 의궤는 동일한 정을 사용하여 무늬를 새겼다.

도3. 외규120, 외규121, 외규168, 외규169의 변철 무늬



a. 외규120의 앞면



b. 외규120 앞면의 확대



c. 외규120의 뒷면



d. 외규120 뒷면의 확대



e. 외규121의 앞면



f. 외규121 앞면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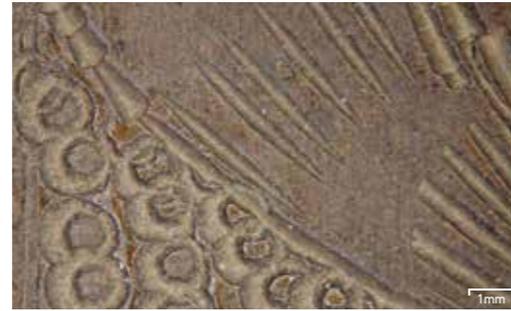
g. 외규121의 뒷면



h. 외규121 뒷면의 확대



i. 외규168의 앞면



j. 외규168 앞면의 확대



k. 외규168의 뒷면



l. 외규168 뒷면의 확대



m. 외규169의 앞면



n. 외규169 앞면의 확대



o. 외규169 앞면의 평정 확대



p. 외규169 앞면 하단의 '大吉'



q. 외규169의 뒷면



r. 외규169 뒷면의 확대



s. 외규169 뒷면의 평정 확대



t. 외규169 뒷면상단의 뒤집힌 '大吉'

외규211은 앞면 원 무늬의 직경이 1.0mm이고 끊어진 부분이 없으며, 뒷면의 원 무늬도 직경이 같고 끊어진 부분이 없다. 췌기형 무늬도 앞, 뒷면이 유사하여 앞, 뒷면을 같은 공구로 조각했음을 알 수 있다.<sup>도4a-d</sup>

외규227은 앞면 원 무늬의 깊이가 깊지 않으며 직경이 1.9mm이고 끊어진 부분이 없다. 내부는 타원을 이루고 있으며 장축의 길이는 0.9mm이다.<sup>도4e-f</sup> 뒷면의 원 무늬도 깊이가 깊지 않으며 직경이 1.9mm이고 끊어진 부분이 없다.<sup>도4g-h</sup> 내부가 앞면과 같이 타원을 이루고 있으며 장축의 길이는 1.0mm이다. 또한 췌기형 무늬가 빠진 곳에는 가는 선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리 도안을 하고 무늬를 새긴 것을 알 수 있다. 앞면과 뒷면의 췌기형 무늬는 모두 정의 각도와 깊이에 따라 그 형상의 변화 양상이 동일하다. 또한 원 무늬의 형상도 동일하기 때문에 앞면과 뒷면을 동일한 공구로 조각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외규228은 앞면 원 무늬의 직경은 2.0mm이며 끊어진 부분이 없다. 췌기형 무늬 중에서 앞부분의 뾰족한 부분이 사라지고 각진 형상인 것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평정을 거의 수직으로 세워 조각했을 때 나타나는 형상이며 그 길이는 3.5~3.7mm이다.<sup>도4i-j</sup> 뒷면의 원 무늬는 직경이 1.8mm이며, 췌기형 무늬는 앞면과 같이 앞부분의 뾰족한 부분이 사라진 것이 존재하는데 그 길이는 3.5mm이다.<sup>도4k-l</sup> 무늬의 형상으로 보아 앞면과 뒷면을 같은 공구로 조각했음을 알 수 있다.

도4. 외규211, 외규227, 외규228, 외규229의 변철 무늬



a. 외규211의 앞면



b. 외규211 앞면의 확대



c. 외규211의 뒷면



d. 외규211 뒷면의 확대



e. 외규227의 앞면



f. 외규227 앞면의 확대



g. 외규227의 뒷면



h. 외규227 뒷면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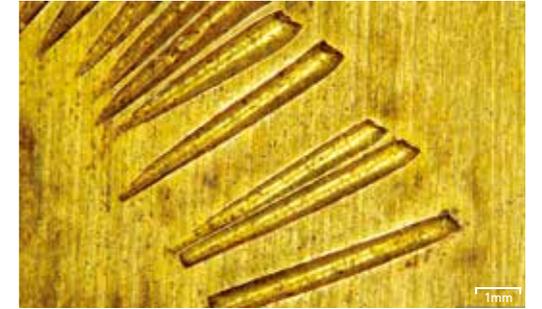
i. 외규228의 앞면



j. 외규228 앞면의 확대



k. 외규228의 뒷면



l. 외규228 뒷면의 확대



m. 외규229의 앞면



n. 외규229 앞면의 확대



o. 외규229의 뒷면



p. 외규229 뒷면의 확대

외규229는 앞면 원 무늬의 직경은 2.0mm이며 끊어진 부분이 없다. 썰기형 무늬는 외규228과 같이 뾰족한 부분이 사라지고 각진 형상을 이루고 있으며 그 길이는 3.6mm이다.<sup>54m·n</sup> 뒷면의 원 무늬는 직경이 1.8mm이고 썰기형 무늬도 앞면과 같은 형상이며, 그 길이는 2.7mm이다.<sup>54o·p</sup> 썰기형 무늬 사이에 도안을 그린 선각을 관찰할 수 있다. 무늬의 형상을 보았을 때 외규228과 외규229는 동일한 공구를 사용하여 무늬를 새긴 것을 알 수 있다.

#### IV. 맺음말

의궤 변철의 성분과 무늬를 조사한 결과 성분은 강철로 된 분상건 5책을 제외하고 어람건 34책의 변철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인 황동이고, 무늬는 썰기형과 원형의 정 자국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의궤에 기록된 금속과 관련된 물목 중 『선조목릉천장산릉도감의궤』(1631)에는 두석豆錫과 정철正鐵이 나오며, 『장렬왕후빈전도감의궤』(1689)에는 두석대원환豆錫大圓環, 두석소원환豆錫小圓環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후대의 의궤에도 이런 기록이 존재하는데, 두석을 분석 결과와 비교해 보면 구리와 아연의 합금인 황동인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의 이규경李圭景이 저술한 『오주서중박물고변五州書種博物考辨』에는 노감석이나 아연을 구리에 넣고 녹인 것을 황동이라 했고 옛 사람은 유석鑪石이라 불렀으며 속명은 두석豆錫이라는 기록도 있기 때문에, 황동의 사용이 조선 중기에는 이미 보편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3</sup> 그리고 아연의 함량이 점차 증가하여 후대에 30wt% 정도가 된 것은 아연의 함량에 따라 황동의 기계적 성질이 변화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연을 보다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도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무늬를 이루고 있는 썰기형과 원형의 정 자국은 동일한 시기에 제작된 의궤 중에서 서로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었다. 서로 같은 경우라 해도 동일 시기에 제작된 의궤를 모두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일한 제작 도구를 사용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조사 범위를 보다 넓힌다면 제작에 참여한 장인의 규모와 제작 기술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로로 변철을 가공하고 패선을 그린 후, 그 속에 선각으로 그린 무늬의 도안을 따라 썰기형으로 무늬를 새기고 빈 공간은 원형의 정 자국으로 채운 것은 시기가 변해도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조선 후기 내내 의궤 제작 기술이 전승된 것을 알 수 있다.

3. 李圭景 지음, 崔柱 주역, 『五州書種博物考辨』(학연문화사, 2008), 77~78쪽.

#### 국문초록

### 외규장각 의궤 변철 조사

외규장각 의궤 39책을 대상으로 변철 부분에 대한 성분 분석과 무늬의 형상을 조사하였다. 성분 분석에는 X선 형광 분석법(X-ray Fluorescence Spectrometry)을 이용하여 구성 원소의 종류와 함량을 조사하였는데, 강철로 만들어진 5건을 제외하고 모두 구리와 아연의 합금인 황동이었다. 황동에 존재하는 아연의 함량은 10wt% 내외에서 시기가 내려올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후기에는 약 30wt% 정도에 이르렀다.

연꽃넙쿨문과 넙쿨문, 보배문 등의 무늬를 새기기 위해서 세로로 변철을 가공하고, 패선을 그린 후, 그 속에 선각으로 그린 무늬의 도안을 따라 썰기형으로 무늬를 새기고 빈 공간은 원형의 정 자국으로 채웠다. 공금정을 사용하여 원형의 정 자국을 만들었으며, 공금정 중에는 테두리가 끊어진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존재하였다. 썰기형 정 자국은 썰기가 전진하는 방향으로 미리 그려 놓은 도안을 따라 새겼는데 정이 기울어진 정도와 들어간 깊이에 따라 길이, 넓이와 각도 등에 변화가 있었다. 썰기형 무늬 중에서 긴 직사각형 같은 것이 존재하여 평정을 기울여 썰기형 무늬를 새긴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일 시대에 제작된 의궤에 사용한 정 의 형상이 다른 경우와 같은 경우가 존재하였는데, 형상이 같다고 하여도 조사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단일한 정을 사용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제작에 참여한 장인의 규모와 제작 기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사 범위를 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변철, X선 형광 분석법(X-ray Fluorescence Spectrometry), 황동, 원환, 무늬, 공금정, 평정, 썰기형, 원형

## Abstract

### **Byeoncheol of the Oegyujanggak Uigwe**

Thirty-nine volumes of the *Oegyujanggak Uigwe* (thirty-five king's copies and four general copies) were analyzed in terms of the composition and design of the *byeoncheol*, the brass (or steel) strips along the sides of the front and back covers. X-ray fluorescence spectrometry was employed to determine the elemental composition of the *byeoncheol*. The analysis showed that all thirty-five of the king's copies specimens had *byeoncheol* made from brass, an alloy of copper and zinc. The four general *Uigwe* volumes (made for general use, rather than for the royal court) had *byeoncheol* made from steel. In the volumes from an earlier time period, the zinc content in the brass was observed to be around 10wt%; the zinc content increased in volumes of the later period, rising to around 30wt%.

The *byeoncheol* were incised with lotus scroll or scroll designs, made by the following procedure. After the brass (or steel) was processed into vertical strips to make the *byeoncheol*, border lines were drawn on the *byeoncheol*. Sketches of the designs were incised inside the border lines, and then a wedged chisel was used to engrave the designs based on the sketches. Next, in some areas, the empty background space was filled with circular designs, made by pressing a round-nose chisel (*gonggeumjeong*); some of the round-nose chisels had complete circular edges, while others had broken circular edges. The marks made by the wedged chisels over the sketches varied in terms of length, width, and angle, depending on the angle of inclination and depth of penetration of the chisels. In particular, oblong wedge-shaped patterns were made with inclined plain chisels. In some cases, volumes produced around the same time period had chisel marks that were virtually identical in shape, but in other cases, the marks on contemporaneous copies were different. Due to the limited scope of the investigation, it is difficult to conclude whether the designs with similar shapes were made with a single type of chisel.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needs to be widened in order to reveal more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production method, including the number of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production of the *Uigwe* volumes.

Keywords : *byeoncheol*, X-ray Fluorescence Spectrometry, brass, ring, design, round-nose chisel, plain chisel, wedge pattern, circular pattern

## abstrait

### **Étude sur les métaux employés pour le mors des protocoles royaux de la bibliothèque royale de la dynastie Joseon**

Cette analyse porte sur les métaux utilisés pour les mors de 39 protocoles royaux (*uigwe*) et sur les motifs qui y sont engravés. C'est au moyen de la spectrométrie de fluorescence X (XRF) que l'on a déterminé les composants élémentaires des mors et leurs masses respectives : 34 d'entre eux sont en laiton, alliage de cuivre et de zinc, et les autres en acier. Pour les premiers protocoles, le laiton contient environ 10% de zinc, mais la part de celui-ci augmente au fil du temps, jusqu'à atteindre 30% à la fin de la dynastie Joseon. Les motifs sur les mors sont un lotus avec ses tiges et feuilles, ou une mauresque coréenne. Pour les graver, il faut façonner des plaques de métal de forme rectangulaire étroite, y tracer un cadre, buriner les motifs sur le métal et reproduire ceux-ci en gravure avec des ciseaux qui inscrivent des creux en V. L'espace non gravé entre les motifs est travaillé avec un ciseau à bout rond (une gouge) : on remplit cet espace d'annelets qui sont des marques frappées. Il y a des annelets rompus et d'autres sans rupture.

La pointe des creux en forme de coin est orientée dans la direction selon laquelle a été frappé le ciseau avec le maillet. C'est le degré d'inclinaison du ciseau et la profondeur de son enfoncement qui déterminent la longueur, la largeur et l'angle des motifs en creux. Certains motifs en forme de coin ressemblent plutôt à des rectangles allongés, ce qui laisse supposer qu'ils ont été réalisés avec un ciseau plat.

Pour les protocoles royaux d'une même époque, on constate que leurs motifs n'ont pas été formés avec un seul type de ciseau. Même pour des motifs semblables, il est difficile d'affirmer qu'ils aient été produits avec une seule sorte d'outil à graver, à cause du nombre très réduit des protocoles qui ont été analysés. Il faudrait d'élargir l'étendue de la recherche afin de déterminer le nombre d'artisans et d'identifier des techniques de fabrication.

Mots-clés : mors, spectrométrie de fluorescence X, laiton, anneau, motif, ciseau à bout rond (gouge), ciseau plat, forme de coin, anneaulet

# 외규장각 의궤 책의에 사용된 직물무늬

04

Textile Patterns on the Cloth Covers  
of the *Ogyujanggak Uigwe*

박승원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Park Seung-won  
Textile Conservator, National Museum of Korea

## I. 머리말

## II. 직물무늬의 분류 방법

## III. 외규장각 의궤 책의 직물무늬의 분류 결과

1. 주무늬가 단독으로 구성된 유형
2. 두 종류의 무늬로 구성된 유형
3. 세 종류 이상의 무늬로 구성된 유형

## IV. 맺음말

## I. 머리말

무늬는 아름다움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시대 정신과 유행, 나아가 정치적 인 이념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외규장각 의궤 책의에 사용된 직물은 시기적으로는 17세기 (1630년)에서 19세기(1857년)로 한정되어 있지만, 다양한 무늬를 활용한 예로서 조선 시대 직물무늬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만하다.

외규장각 의궤 장황에 사용된 직물의 제작 방법과 무늬 구성에 따른 특징은 『외규장각 의궤 학술총서 1-조선왕조의궤 현황과 전망』에서 개괄하였다. 이 글에서는 앞의 논고에서 소개했던 의궤 책의에 사용된 무늬를 상세하게 분류 고찰하여, 의궤 장황의 특징과 아울러 조선 시대 직물무늬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직물무늬의 분류 방법

직물에 표현된 무늬는 무늬의 형태, 무늬의 구성 방식 등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무늬의 형태에 따라 식물, 동물, 자연산수, 기물, 문자, 인물, 기하무늬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시대에 따라 표현하는 방법에는 차이를 보인다. 식물무늬는 연꽃과 모란이 대표적이고, 사계절을 대표하는 동백, 연꽃, 월계, 모란, 국화가 함께 표현되거나, 사군자인 매화, 국화, 난초, 대나무가 어울려 표현되기도 한다. 또 작고 단순하게 도안한 작은 꽃무늬도 있다. 동물무늬는 상상동물, 날짐승, 길짐승, 곤충 등으로 구별하여 표현되며, 자연산수무늬는 구름, 물결, 산경산수로 표현된다. 기물무늬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보배무늬이며, 왕의 곤복(袞服)에 그려진 장무늬(章紋)도 기물무늬에 속한다. 인물무늬는 자수나 회화에서 많이 사용되는 무늬인데 직물에서는 동자가 포도넝쿨이나 연꽃과 함께 어우러진 구성으로 표현되며, 기하무늬는 마름모형이나 귀갑(龜甲, 만자(卍)字)로 표현된다.<sup>2</sup>

다음으로 구성 방식에 따라 직물무늬를 분류하면, 규칙적인 전개법과 불규칙적인 전개법

1. 박승원, 「외규장각 의궤 원표지 직물의 현황과 특징」, 『외규장각 의궤 학술총서 1-조선왕조의궤 현황과 전망』(국립중앙박물관, 2012), 183~205쪽.
2. 국립문화재연구소, 『우리나라 전통무늬1-직물』(놀와, 2006), 26~33쪽.

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규칙적인 전개법은 계단형(階段形, Half-Drop Network), 벽돌형(벽돌형, Brick Network), 능형(菱形, Diamond Network), 격자형(格子形, Checkerboard Network), 육각형(六角形, Hexagon Network), 복합형(複合形, Mixed Arrangement)으로 세분된다.

계단형은 수평선과 수직선에 의해 정확하게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으로 분할되도록 하고 앞 줄의 단위무늬<sup>3</sup>가 1/2만큼 엇갈리게 배열하는 방법으로, 조선 시대에는 거의 보이지 않고 고려 시대 이전 능직물에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다. 벽돌형은 정방형에서 가로 방향으로 한 줄씩 교대로 반복되면서 윗줄의 단위무늬와 1/2만큼 엇갈리게 배열하는 방법이다. 능형은 마름모꼴로 배열하여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강하고 힘이 있어 보이는 유형이다. 격자형은 서양의 장기판처럼 배열하여 규칙적이기는 하지만 벽돌형보다 여백과 공간의 맛을 더 느낄 수 있다. 육각형은 주로 귀갑문 같은 기하무늬의 표현에 사용되는 유형이고, 복합형은 주무늬와 종속무늬로 혼합되면서 표현되는데, 특히 조선 시대 이후 책의로 사용된 능화판의 대표적인 전개법으로 정착되었다.

불규칙적인 전개법은 충전형(充填形, Allover Arrangement, 일반적인 복합무늬), 산재형(散在形, Scattered Arrangement), 혼합형(混合形, Combination Arrangement)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4</sup>

무늬의 구성 방식에 따른 또 다른 분류 방법은 사용되는 무늬의 비율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먼저 하나의 무늬를 화면 전체에 단독으로 배열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적절한 여백으로 무늬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준다. 둘째는 두 가지 무늬를 화면 전체에 규칙적으로 배열하는 방법이다. 이때 두 무늬의 비율을 1:1로 동등하게 할 수도 있고, 주무늬를 배치한 후 보조무늬로 여백을 충전하여 화면을 가득 채우는 효과를 줄 수도 있다. 마지막은 여러 종류의 무늬를 복합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세 종류 이상의 무늬를 동등한 비율로 규칙적으로 배열하거나, 화면 전체에 바다무늬를 두고 두 종류의 주무늬를 규칙적으로 배열하는 방법, 여러 가지의 무늬를 불규칙적으로 혼합하여 배열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활용이 가능하다. 이 방법에서는 화면 전체를 여백 없이 무늬로 가득 채운다.

본고에서는 이상과 같은 무늬의 종류와 구성 방법을 바탕으로 외규장각 의궤 책의 직물에 사용된 무늬를 분류하고 조사하였다. 본 논고에서 조사 대상으로 한 외규장각 의궤 책의 직물은 총 155건이다. 이 가운데 제작 시기를 알 수 있는 152건은 『종묘수리도감의궤宗廟修理都監儀軌』(1637)부터 『세종영릉표석영건청의궤世宗英陵表石營建廳儀軌』(1745)까지 약 100년 동안에 집중

3. 단위무늬는 직물 전체에 무늬가 반복되는데 필요한 기본 무늬 구성이다.  
4. 이상의 분류법은 조효숙, 『한국 견직물 연구-고려시대를 중심으로』(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129~133쪽에 의한다.

되어 있다. 나머지 3건은 제작 시기를 알 수 없다. [표 1]에서 조사 대상 직물무늬의 분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sup>5</sup>

[표 1] 외규장각 의궤 책의 재질별, 시대별 분류

\*진하게 표기된 부분이 조사대상임

재질	직물 종류	시대			소계	비고
		1630-1744	1746-1857	시대불명		
직물	문단	138(+1)	-	3	141(+1)	(+1)은 『숙종빈전도감의궤』 앞, 뒤 책의 2건으로 조사
	문능	8	-	-	8	
	주	6(2)	134(3)	10	150(5)	( )는 능화판으로 찍은 무늬
	마	3	1	-	4	
종이	종이	2	1	2	5	양지 1건 포함
계		157	136	15	308	

### III. 외규장각 의궤 책의 직물무늬의 분류 결과

조사 대상 책의 직물 155건을 무늬의 종류별로 구분하면 구름무늬와 꽃무늬가 대부분이다. 그 외에 봉황, 보배, 과일, 만자, 기하무늬가 확인된다. 구름무늬는 구름꼬리의 표현에 따라 세분되며, 꽃무늬에는 연꽃, 모란, 다양한 종류의 작은 꽃무늬 등이 있다. 무늬의 전개 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각각의 무늬는 격자형과 복합형 등 대부분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었고, 능화판으로 무늬를 표현한 5건 중 3건은 규칙적, 2건은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었다. 무늬의 비율에 따라 분류하면 하나의 무늬만을 단독으로 사용한 것과 두 종류 이상을 혼합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하에서는 외규장각 의궤 책의 직물의 무늬를 무늬의 비율과 종류에 따라 분류하여 상세한

5. 박승원, 앞의 논문에서는 외규장각 의궤 책의 총수를 307건(분리보관된 296건+개장되지 않은 11건)으로 집계하였으나, [표 1]에서는 『풍경도감의궤』(1630) 첫 면의 종이 표지 1건을 포함하여 308건으로 집계하였다. 이 중 무늬가 확인되는 직물은 154건인데, 『숙종빈전도감의궤肅宗殯殿都監儀軌』(1721)의 책의 직물은 앞면과 뒷면에 사용된 직물의 크기와 무늬가 다르므로 2건으로 분리하여 조사하였다. 따라서 전체 조사 대상은 155건이다.

내용을 서술하고자 한다.<sup>6</sup>

## 1. 주무늬가 단독으로 구성된 유형

### 1) 구름무늬만 단독으로 구성된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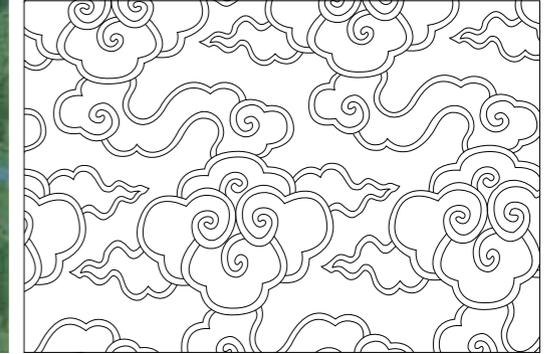
구름무늬만 단독으로 화면 전체를 구성한 유형이다. 조사 대상 155건 중 구름무늬가 사용된 것이 100건으로 가장 많은데, 이 중 구름만 단독으로 사용된 것은 10건<sup>7</sup>이다. 구름무늬는 구름머리 부분이 여의가 네 덩어리로 어우러진 사합여의형<sup>8</sup>四合如意形으로 매우 정형화되었으며, 이는 조선 시대 전 시기에 걸쳐 보이는 대표적인 유형이다.<sup>8</sup> 구름무늬는 구름꼬리의 모양에 따라 ㄷ자형<sup>9</sup>, 사선형<sup>10</sup>斜線形, 만자형<sup>11</sup>卍字形 등으로 세분할 수 있으며, 책의 직물에 사용된 구름꼬리의 모양은 도1의 사선형과 도2의 만자형 두 가지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은 수량이 적고, 사용된 시기도 산재되어 있어 사용 시기를 한정하기는 어렵다.

구름꼬리가 사선형인 유형은 전체 4건이며, 2건은 좌상향의 사선형꼬리이고, 나머지 2건은 우상향의 사선형꼬리이다. 이러한 구성에서 보이는 구름머리는 화면을 채울 정도로 큰 것이 특징이다. 도1은 좌상향과 우상향의 사례를 하나씩 제시한 것이다.

도1. 구름무늬(사선으로 연결된 구름꼬리)만 단독으로 구성된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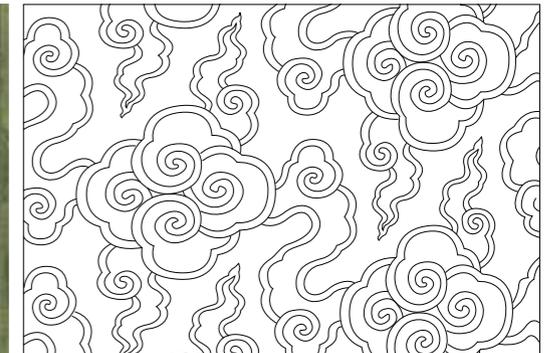
A. 『영녕전수개도감의궤』(1667) 책의



A-1. 도식화



B. 『금보개조도감의궤』(1705)<sup>11</sup> 책의



B-1. 도식화

도1·A는 『영녕전수개도감의궤永寧殿修改都監儀軌』(1667) 책의 직물의 무늬이다. 구름머리는 사합여의형이고 구름꼬리는 좌상향의 사선형이다. 구름머리<sup>12</sup>의 크기는 13.3×10.1cm(가로×세로cm, 이하 치수 표기 방법 동일), 전체가 동일한 모양이다. 구름머리를 상하로 연결하는 구름꼬리의 크기는 16.2×5.9cm, 강한 곡선을 그리는 ‘ㄷ’모양이고 좌우는 짧게 달려있다. 단위무늬의 크기는 33.8×32.1cm이다.

도1·B는 『금보개조도감의궤金寶改造都監儀軌』(1705) 책의 직물의 무늬이다. 구름머리는 사합여의형이고 구름꼬리는 우상향의 사선형이다. 도1·A와 도1·B는 동일한 구성에 구름꼬리만 서로 반대 방향이다. 구름머리의 크기는 12.0×13.6cm, 전체가 동일한 모양이다. 구름머리를 상하로 연결하는 구름꼬리의 크기는 15.5×6.7cm, 강한 곡선을 그리는 ‘ㄷ’모양이고 좌우는 짧게 달려있지만

11. 의궤 장황시 직물의 식서방향이 90° 회전되어 사용되었다.

12. 무늬의 크기는 직물의 식서방향에서 상하좌우 끝점을 기준으로 가상의 사각형을 그리고 좌~우를 가로길이, 상~하를 세로 길이로 측정하였다. 이하 모든 무늬의 측정 방법은 동일하다.

6. 각 유형에 해당하는 의궤 책의 본 책의 자료편 I「외규장각 의궤 상세 목록」 참조.

7. 구름만 단독으로 사용된 10건은 1661년(현종 2) 4건, 1667년(현종 8) 3건, 1694년(숙종 20)년 1건, 1705년(숙종 31) 2건이다.

8. 고려 시대까지는 자유롭고 다양한 구성의 구름무늬가 주류를 이루지만, 조선 시대에 들어오면 매우 정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구름무늬가 양반 관료 사회의 신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무늬로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2006), 353~35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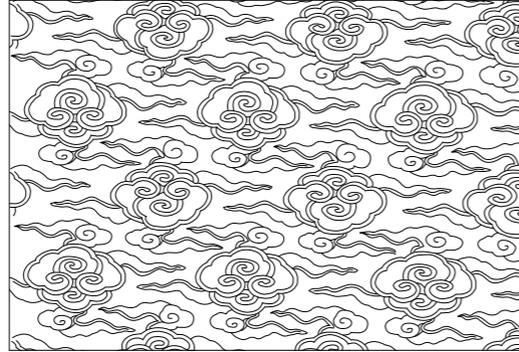
9. 구름머리를 연결하는 구름꼬리가 ㄷ자 모양으로 이어지는 구성이다. 주로 1500년대의 유물에 많이 보이는데, 파평윤씨(?~1566)묘 출토 저고리, 흑석사 목조아미타불복장(1458) 사리함 보자기, 이용해 장군(1547~1626)묘 출토 철릭[天翼]의 구름무늬는 ㄷ자형꼬리를 하고 있다.

10. 심연옥은 이러한 구름꼬리로 구성된 무늬를 ‘부리구름문[骨朵連雲紋]’이라 하였다. 심연옥, 『한국직물문양 이천년』(고대직물연구회 출판부, 2006), 336쪽.

도2. 구름무늬(만자형으로 퍼지는 구름꼬리)만 단독으로 구성된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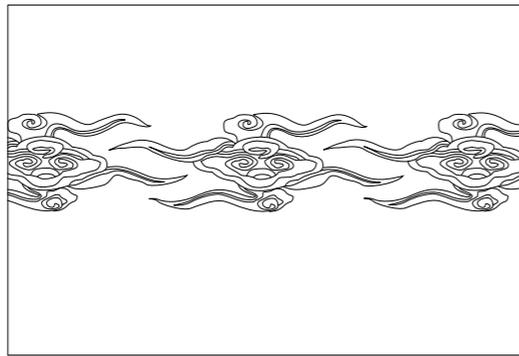
A. 『정종후릉수개도감의궤』(1667) 책의



A-1. 도식화



B. 『숙종왕세자책례도감의궤』(1667) 책의



B-1. 도식화

도1·A보다 변화를 주었다. 구름무늬가 커서 의궤 표지에 단위무늬가 모두 표현되지 않아 크기는 측정할 수 없었다.

구름꼬리가 만자형인 것은 전체 6건이며 1건은 능조직綾組織, 5건은 주자조직朱子組織으로 제작되었는데 무늬 구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도2·A는 『정종후릉수개도감의궤定宗厚陵修改都監儀軌』(1667) 책의 직물의 무늬이다. 구름머리는 사합여의형이고 구름머리를 중심으로 상하좌우 4방향(卍자형)으로 구름꼬리가 전개되는 구성이다. 전체적으로 격자형 전개이고 사합여의형의 구름머리는 각 층마다 시계방향으로 180° 회전된 모양으로 번갈아 배치되었다. 구름꼬리의 모양은 구름머리의 모양과 상관없이 동일하다. 상하좌우 4개의 꼬리 모두 좌우 양방향으로 동일하게 흘러가며, 상하좌우에 있는 다른 구름들과 연결되는 듯 여백없이 화면 전체에 충전되어 있다. 구름머리 크기는 6.7×4.5cm, 구름꼬리와 연결된 하나의 개체 크기는 14.2×7.9cm이고 단위무늬의 크기는 22.1×21.7cm이다.

도2·B는 『숙종왕세자책례도감의궤肅宗王世子冊禮都監儀軌』(1667) 책의 직물의 무늬이다. 구름머리는 사합여의형이고 구름머리를 중심으로 상하좌우 4방향(卍자형)으로 구름꼬리가 전개되는 구성이다. 전체적으로 가늘고 긴 구름꼬리가 좌우로 길게 뻗어 서로 닿을 듯 수평으로 연속되는 구성이다. 구름머리의 크기는 5.0×2.0cm, 구름꼬리와 연결된 하나의 개체 크기는 11.2×4.2cm이다. 하나의 완성된 구름모양이 같은 층에서는 동일한 방향으로 이어지다가 다음 층에서는 전체가 시계방향으로 180° 회전된 모양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각 층의 무늬는 서로 1/2씩 엇갈리게 배치하여 물결처럼 울동감을 주었다. 각 층 사이에 15.1~15.8cm의 여백이 있으며, 단위무늬의 크기는 16.8×30.8cm이다.

도1·A와 도2·A,B는 모두 동일한 시기(1667년, 현종 8)에 제작된 의궤에 사용된 것으로 구름무늬의 다양한 구성을 보여주는 예이다.

한편 무늬가 있는 155건 중 141건은 무늬와 바닥조직 모두 주자직으로 제작되었으며 8건은 능직, 5건은 평직, 나머지 1건은 바닥조직은 평직, 무늬조직은 능직으로 제작된 문주紋紬이다. 도2,B와 같은 무늬의 배열은 능직에서만 보이는 특징으로 이후 소개할 7건을 포함하여 8건 모두 무늬 배열이 동일하다.

2) 연꽃넙쿨무늬가 단독으로 구성된 유형

연꽃넙쿨무늬만 단독으로 화면 전체를 구성한 유형이다. 연꽃넙쿨무늬는 꽃무늬 중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연꽃넙쿨만 단독으로 사용된 것은 35건이다. 연꽃을 중심으로 넙쿨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연꽃넙쿨무늬는 조선 시대 직물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구성이며, 16세기에서 17세기까지 출토된 여자 복식의 다수에 사용되었다. 연꽃의 전개 방식은 동일한 연꽃을 반복해서 전개하는 방식과 보상화형의 연꽃과 한 층씩 번갈아 전개하는 구성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28건으로 주로 영조 대(1744년, 영조 20 이진)에 제작된 의궤에서 확인되며, 후자는 7건으로 주로 숙종 대에 제작된 의궤에서 확인된다.

도3·A는 『숙종명릉산릉도감의궤肅宗明陵山陵都監儀軌』(상)(1721) 책의 직물의 무늬이다. 연꽃은 45° 사선으로 배치하고 연꽃넙쿨은 봉오리의 오른쪽을 둥글게 감싸고 있다. 넙쿨 주변에는 연잎과 팔메트잎사귀로 여백없이 충전하였다. 다음 층에서는 연꽃을 시계방향으로 90° 회전된 모양으로 배치한 후 마찬가지로 넙쿨이 봉오리의 오른쪽을 둥글게 감싸도록 하여 단위무늬를 구성하였다. 연잎은 두 종류이다. 연꽃의 크기는 6.3×6.8cm, 단위무늬의 크기는 19.7×10.2cm이다.

도3·B는 『보사녹훈도감의궤保社錄勳都監儀軌』(1682) 책의 직물의 무늬이다. 한 층에는 도3·A

**도3. 연꽃넝쿨무늬만 단독으로 구성된 유형**



A. 『속중명릉산릉도감의궤』(상)(1721) 책의

A-1. 도식화



B. 『보사녹훈도감의궤』(1682) 책의

B-1.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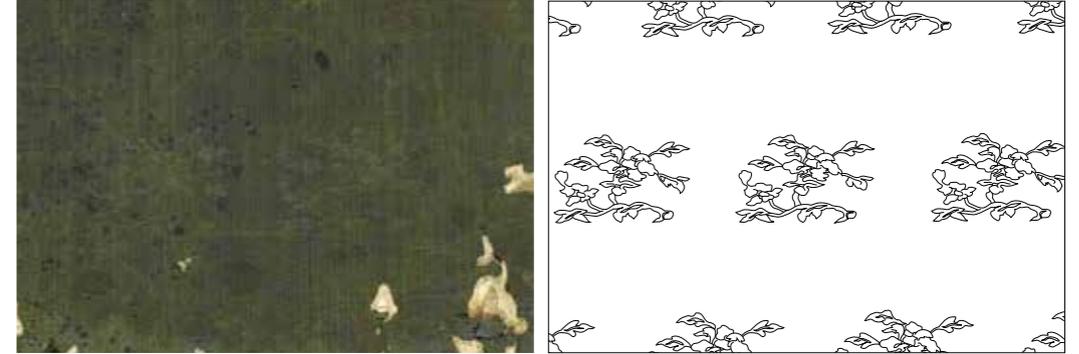
와 같은 연꽃을, 다음 층에는 연밥이 있는 보상화형의 연꽃을 번갈아 배치하였다. 넝쿨은 봉오리의 오른쪽을 둥글게 감싸고 있고 여백을 채우는 보조무늬인 연잎과 팔메트잎사귀, 연밥은 연꽃을 감싸는 줄기를 따라 규칙적으로 전개되어 있다. 연꽃의 크기는 6.0×4.6cm, 보상화형 연꽃의 크기는 6.4×5.2cm, 단위무늬의 크기는 11.1×14.3cm이다.

**3) 한 종류의 작은 꽃무늬가 단독으로 구성된 유형**

한 종류의 작은 꽃무늬가 일정한 여백을 두고 규칙적으로 배치되면서 화면 전체를 구성한 유형으로 전체적인 구성은 도2·B와 같다. 꽃, 줄기, 잎사귀가 어우러진 꽃무늬가 수평으로 일정한 여백을 두고 반복된다. 각 층의 무늬는 서로 1/2씩 엇갈리게 배치하여 물결처럼 울동감을 주었다. 조사 대상 155건 중 2건이 여기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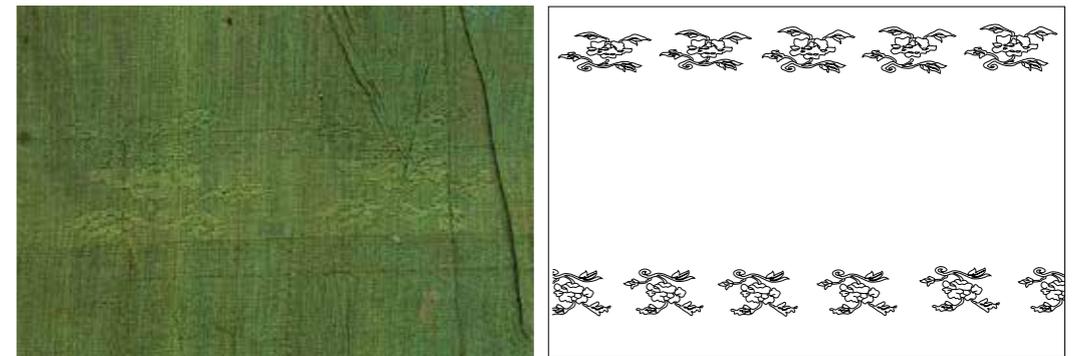
도4·A는 『인조인열왕후부묘도감의궤』(2)(1651) 책의 직물의 무늬이다.

**도4. 한 종류의 작은 꽃무늬가 단독으로 구성된 유형**



A. 『인조인열왕후부묘도감의궤』(2)(1651) 책의

A-1. 도식화



B. 『효장세자가례도감의궤』(상)(1727) 책의

B-1.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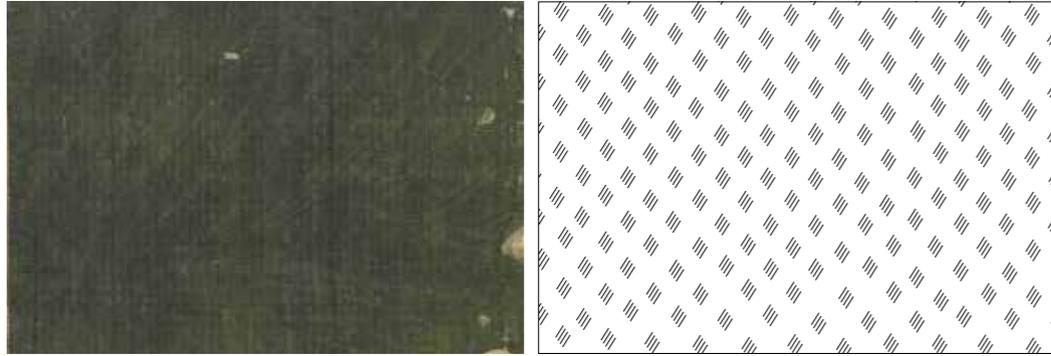
작은 꽃무늬를 중심으로 줄기와 잎사귀가 사방으로 뻗어가는 모양이다. 한 종류가 약간의 간격을 두고 수평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각 층마다 동일한 구성이 반복되었다. 꽃무늬의 크기는 6.4×4.3cm, 단위무늬의 크기는 8.2×4.3cm, 각 층 사이에 4.8~5.8cm의 여백이 있다.

도4·B는 『효장세자가례도감의궤』(상)(1727) 책의 직물의 무늬이다. 작은 꽃을 중심으로 4개의 잎사귀가 사방으로 뻗어가는 모양이다. 한 종류가 약간의 간격을 두고 수평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다음 층에서는 상하방향으로 180° 회전된 모양이다. 각 무늬의 크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동일한 모양이며, 각 층마다 이와 같은 구성이 번갈아 반복되고 있다. 꽃무늬의 크기는 5.3×2.1~5.6×2.8cm, 단위무늬의 크기는 5.7×2.1~5.9×2.8cm, 무늬가 구성되는 각 층 사이에 9.4~11.3cm의 여백이 있다.

**4) 기하무늬가 단독으로 구성된 유형**

작은 기하무늬가 단독으로 배열되면서 화면 전체를 구성한 유형이다. 일반적으로 기하무늬는

도5. 기하무늬가 단독으로 사용된 유형



A. 『종묘수리도감의궤』(1637) 책의

A-1. 도식화

독립적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주무늬가 따로 있고 화면 전체에 바닥무늬로 사용되는데,<sup>13</sup> 여기서는 주무늬로 단독 사용되었다. 조사 대상 155건 중 1건만 확인되었다.

도5·A는 『종묘수리도감의궤宗廟修理都監儀軌』(1637) 책의 직물의 무늬이다. 사선 4줄을 연속으로 배열하여 전체 모양이 마름모형이 되도록 하였다. 사선의 길이는 0.28cm, 4줄이 합쳐진 마름모 모양의 크기는 0.4×0.4cm이고, 단위무늬는 1.1×1.3cm이다.

2. 두 종류의 무늬로 구성된 유형

1) 주무늬와 보조무늬로 구성된 유형

하나의 무늬가 단독으로 사용되면 비교적 단순해 보이지만 무늬가 강조되는 효과가 있는데 반해, 주무늬와 함께 보조무늬가 주변의 여백을 충전하면 복잡해 보이지만 매우 밀도가 있으면서 화려한 느낌을 준다. 이런 유형에서 주무늬는 구름과 연꽃이, 보조무늬는 모두 보배무늬가 사용되었다.

도6은 구름을 주무늬로 하고 여백을 보배무늬로 충전하여 화면 전체를 구성한 유형으로 운보문雲寶紋이라고 한다. 구름이 사용된 100건 중 구름만 단독으로 사용된 10건을 제외한 90건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운보문은 조선 시대 남자 복식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된 대표무늬이며, 조사

13. 이러한 마름모형무늬는 고대로부터 조선 시대 말기까지 널리 사용되었는데, 조선 시대 중기까지는 이전 시기에 비해 사용이 줄었다가 17세기에 단순한 도안의 능직물이 부활하면서 단독무늬로 사용되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2006), 457~458쪽.

대상 책의 무늬에서도 전 시기에 분포되어 있다. 운보문에 사용된 구름머리는 사합여의형이고 구름꼬리는 모두 사선형이다. 꼬리의 방향은 전체 90건 중 48건이 좌상향이고, 나머지 42건은 우상향이다. 또한 사용된 보배무늬도 4보에서 10보까지 시기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서 꼬리의 방향이나 보문의 종류, 수량으로 시기를 특징짓기는 어렵다.

도6·A는 『별삼방의궤別三房儀軌』(1677) 책의 직물의 무늬이다. 구름머리는 사합여의형이고 구름꼬리는 우상향의 사선형이다. 구름을 전면에 배치하고 주변에는 전보錢寶, 방승方勝, 화주火珠, 서보書寶, 여의如意, 서각犀角, 산호珊瑚, 보鬪의 8보를 채웠다. 구름머리의 크기는 6.6×6.2cm, 전체가 동일한 모양이다. 구름머리를 상하로 연결하는 구름꼬리의 크기는 8.6×3.5cm, 계단형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배무늬의 크기는 전보 2.8×2.4cm, 방승 2.0×2.2cm, 화주 2.1×2.7cm, 단서보 2.5×1.6cm, 여의 2.0×2.0cm, 단서각 2.6×1.9cm, 산호 2.3×2.3cm, 보 2.9×1.7cm이다. 단위무늬의 크기는 22.5×16.6cm이다.

도6·B는 『종묘개수도감의궤宗廟改修都監儀軌』(상)(1726) 책의 직물의 무늬이다. 구름머리는 사합

도6. 구름과 보배무늬가 결합된 유형



A. 『별삼방의궤』(1677) 책의

A-1. 도식화



B. 『종묘개수도감의궤』(상)(1726) 책의

B-1. 도식화

여의형이고 구름꼬리는 좌상향의 사선형이다. 구름을 전면에 배치하고 주변에는 전보, 방승, 서각, 서보의 4보를 채웠다. 구름머리의 크기는 4.3×3.4cm, 전체가 동일한 모양이다. 구름머리를 상하로 연결하는 구름꼬리의 크기는 8.6×2.7cm, 계단형으로 연결되고 있다. 보배무늬의 크기는 전보 2.7×1.3cm, 방승 2.7×1.3cm, 쌍서각 1.7×1.4cm, 서보 1.7×1.2cm이다. 단위무늬의 크기는 11.6×16.5cm이다.

도7은 연꽃넙쿨무늬를 주무늬로 하고 주변에 보배무늬를 충전하여 화면 전체를 구성한 유형이다. 도3의 단독 구성에서 넙쿨을 따라 보배무늬가 더해져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이다. 조사 대상 155건 중 2건이 여기에 해당되며 주무늬는 연꽃과 보상화형의 연꽃을 한 층씩 번갈아 배열하였다.

도7·A는 『현종승릉산릉도감의궤顯宗崇陵山陵都監儀軌』(상)(1674) 책의 직물의 무늬이다. 연꽃과 보상화형의 연꽃을 사선으로 번갈아 배치하고 넙쿨은 봉오리를 둥글게 감싸고 있다. 여백을 채우는 보조무늬인 연잎과 팔메트잎사귀, 연밥은 연꽃을 감싸는 줄기를 따라 규칙적으로 전개되어 있다. 주변에는 전보, 여의, 방승, 산호, 보, 서각, 서보의 7보를 채웠다. 연꽃의 크기는 5.2×5.0cm, 보상화형 연꽃의 크기는 5.3×4.5cm이다. 보배무늬의 크기는 전보 2.3×2.7cm, 여의 2.8×2.9cm, 방승 2.3×2.5cm, 산호 2.2×4.3cm, 보 2.5×2.2cm, 단서각 1.8×3.4cm, 단서보 1.8×2.8cm이다. 단위무늬의 크기는 14.8×10.8cm이다.

도7. 연꽃넙쿨과 보배무늬가 결합된 유형



A. 『현종승릉산릉도감의궤』(상)(1674)<sup>14</sup> 책의

A-1. 도식화

14. 의궤 장황시 직물의 식서방향이 90° 회전되어 사용됨.

## 2) 두 종류의 주무늬가 1:1 비율로 구성된 유형

두 종류의 주무늬가 1:1 비율로 구성된 유형이다. 이 유형에서는 두 종류의 무늬를 한 층씩 번갈아가며 배열하였으며, 화면 전체를 충전하듯 채우거나 도2·B와 같이 일정한 여백을 두고 전개하였다. 두 종류의 꽃무늬를 사용하거나 여의무늬와 복숭아무늬를 함께 사용하기도 하였다. 조사 대상 155건 중 7건이 여기에 해당된다.

도8은 연꽃넙쿨과 모란넙쿨무늬를 1:1 비율로 화면 전체를 구성한 유형으로 2건이 여기에 해당된다.

도8·A는 『인선왕후영릉산릉도감의궤仁宣王后寧陵山陵都監儀軌』(하)(1674) 책의 직물의 무늬이다. 연밥이 있는 연꽃과 모란을 사선으로 번갈아 배치하고 넙쿨은 봉오리를 둥글게 감싸고 있다. 넙쿨 주변에는 꽃잎사귀와 팔메트잎사귀가 규칙적으로 전개되어 있다. 연꽃의 크기는 4.7×6.9cm, 모란의 크기는 5.3×5.8cm, 단위무늬의 크기는 10.7×12.7cm이다.

도8. 연꽃넙쿨과 모란넙쿨무늬가 1:1 비율로 구성된 유형



A. 『인선왕후영릉산릉도감의궤』(하)(1674) 책의

A-1.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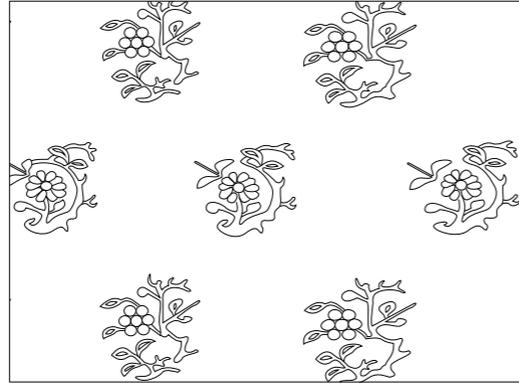
도9는 두 종류의 작은 꽃무늬가 일정한 여백을 두고 규칙적으로 배치되면서 화면 전체를 구성한 유형이다. 이 유형은 총 4건이다. 꽃, 줄기, 잎사귀가 어우러진 꽃무늬가 수평으로 반복되고, 일정한 여백을 둔 후 다른 꽃무늬가 구성되며 이러한 배열이 한 층씩 반복되고 있다. 각 층의 무늬는 서로 1/2씩 엇갈리게 배치하여 율동감을 주었다. 전체적인 구성은 도2·B와 같다.

도9·A는 『인선왕후책례도감의궤仁宣王后册禮都監儀軌』(1651) 책의 직물의 무늬이다. 두 종류의 꽃무늬를 각각 한 층씩 수평으로 배열하였는데, 한 층은 오른쪽에 있는 나뭇가지를 수직축으로 하고 왼쪽에 꽃과 잎사귀를 어우러지게 배치하여 전체적으로 둥근 모양의 꽃무늬를 이루고 있다.

도9. 두 종류의 작은 꽃무늬가 1:1 비율로 구성된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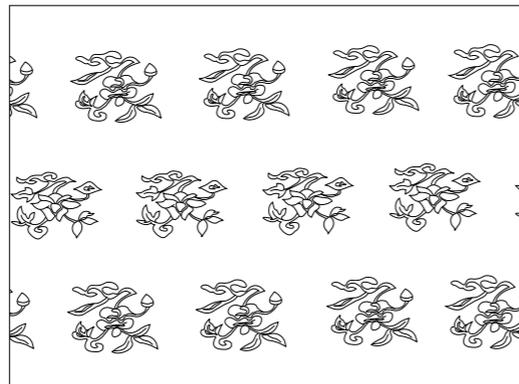
A. 『인선왕후책례도감의궤』(1651) 책의



A-1. 도식화



B. 『창덕궁창경궁수리도감의궤』(1652) 책의



B-1. 도식화

다른 층에도 꽃의 종류만 다르고 구성은 같은 무늬가 번갈아 전개된다. 꽃무늬의 크기는 전자가 4.0×4.3cm, 후자가 4.1×4.2cm이고 단위무늬의 크기는 전자가 7.4×4.3cm, 후자가 7.4×4.2cm이다. 층 사이에 1.6~2.2cm의 여백이 있다.

도9·B는 『창덕궁창경궁수리도감의궤昌德宮昌慶宮修理都監儀軌』(1652) 책의 직물의 무늬이다. 두 종류의 꽃무늬가 사용되었는데, 모두 작은 꽃을 중심으로 4개의 잎사귀가 사방으로 뻗어가는 모양이다. 꽃무늬는 약간의 간격을 두고 수평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2개의 층은 꽃의 종류만 다르고 구성 방식은 동일하다. 꽃무늬의 크기는 각각 4.3×3.4cm, 4.4×3.3cm이고 단위무늬의 크기는 각각 5.9×3.4cm, 5.8×3.3cm이다. 층 사이에 1.9~2.3cm의 여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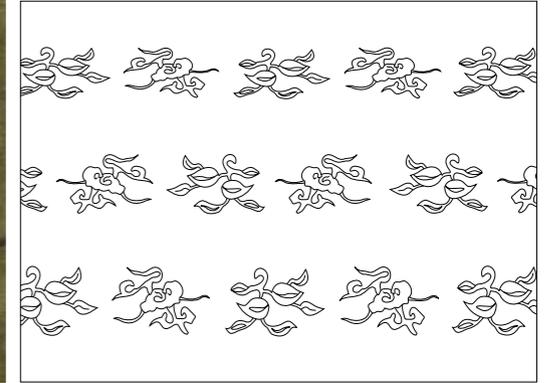
도10은 여의무늬와 복숭아무늬가 1:1 비율로 전개되는 유형으로 1건이 여기에 해당된다.

도10·A는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仁祖莊烈王后嘉禮都監儀軌』(1638) 책의 직물의 무늬이다.

도10. 여의와 복숭아무늬가 1:1 비율로 구성된 유형



A.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1638) 책의



A-1. 도식화

한 층에 여의와 복숭아무늬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번갈아 배치하고, 다음 층에는 이와 같은 구성이 좌우방향으로 180° 회전되게 배치하였다. 각 층의 무늬는 서로 1/2씩 엇갈리게 구성되었다. 여의무늬의 크기는 3.4×2.0cm, 복숭아무늬는 3.5×1.9cm이고 단위무늬의 크기는 7.7×2.0cm이다. 층 사이에 1.5~2.9cm의 여백이 있다.

3. 세 종류 이상의 무늬로 구성된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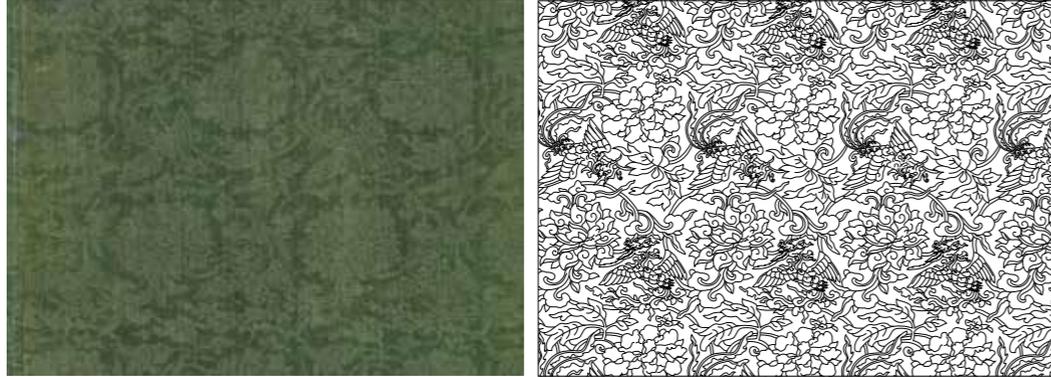
1) 연꽃넙쿨, 모란넙쿨, 봉황무늬가 동일한 비율로 결합된 유형

도11은 연꽃넙쿨, 모란넙쿨, 봉황무늬가 1:1:1 비율로 전체를 구성한 유형이다. 이와 같은 천화 봉황<sup>15</sup>무늬의 직물은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두루 사용되었다. 조사 대상 유물 155건 중 2건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1건은 개장되지 않은 원장 그대로이고, 다른 1건은 개장 후 따로 보관된 것이다.

도11·A는 『집상전수개도감의궤集祥殿修改都監儀軌』(1668) 책의 직물의 무늬이다. 연꽃, 모란, 봉황무늬가 화면 가득 밀도있게 어우러진 구성이다. 연밥이 없는 보상화형 연꽃이 모란과 한 층씩 번갈아 배치되어 있다. 두 꽃의 주변에는 꽃잎사귀와 팔메트잎사귀가 등글게 감싸고 있으며, 둥근 선을 따라 봉황이 위아래로 날고 있는 모습이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있다. 연꽃의 크기는 6.3×5.2cm, 모란의 크기는 6.4×5.2cm, 봉황의 크기는 각각 6.5×7.1cm, 6.4×5.6cm이다. 단위무늬의 크기는 11.3×18.5cm이다.

15. 『노걸대老乞大』에는 꽃 속에 봉황이 나는 무늬를 '천화봉황天鳳'이라 하고, '천화봉문'이라고 언해되었다. 『역어유해譯語類解』에는 '봉이 꽃에 나드는 무늬'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심연옥, 앞의 책(2006), 322쪽 개인용.

도11. 연꽃넙쿨, 모란넙쿨, 봉황무늬가 동일한 비율로 결합된 유형



A. 『집상전수개도감의궤』(1668) 책의

A-1. 도식화

## 2) 만자를 전체에 두고 두 종류의 작은 꽃무늬가 1:1 비율로 구성된 유형

도12는 화면 전체에 만자무늬를 배치한 후 그 사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두 종류의 작은 꽃무늬를 1:1 비율로 구성한 유형이다. 만자무늬는 만과자를 상하좌우로 연속되게 연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방형보다는 사선으로 배치한 것이 많다.<sup>16</sup> 조사 대상 중 4건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1건은 무늬와 함께 제작된 문단紋緞이며, 나머지 3건은 평직에 능화판으로 무늬를 찍어서 표현한 것이다.

도12·A는 『효종빈전혼전도감의궤孝宗殯殿魂殿都監儀軌』(1659) 책의 직물의 무늬이다. 화면 전체에 만자를 두고, 한 층에 작은 꽃무늬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하고 다음 층에는 다른 모양의 작은 꽃무늬를 같은 방법으로 배치하였다. 각 층의 무늬는 서로 1/2씩 엇갈리게 구성되었다. 작은 꽃무늬의 크기는 각각 3.4×3.2cm, 3.1×3.2cm이고 단위무늬의 크기는 6.5×8.0cm이다.

도12·B는 『헌경혜빈빈궁훈궁도감의궤獻敬惠嬪嬪宮魂宮都監儀軌』(상)(1816) 책의 직물의 무늬이다. 능화판으로 무늬를 찍어 표현한 5건 중 3건이 여기에 해당된다. 화면 전체에 만자를 두고 두 종류의 작은 꽃무늬를 번갈아 배치하였는데 비교적 규칙적으로 구성하였다. 각 층의 무늬는 서로 1/2씩 엇갈리게 구성되었다. 작은 꽃무늬의 크기는 1.3×1.5cm이며, 꽃무늬 간의 좌우간격은 5.4cm, 상하간격은 8.3cm이다. 단위무늬는 13.2×19.5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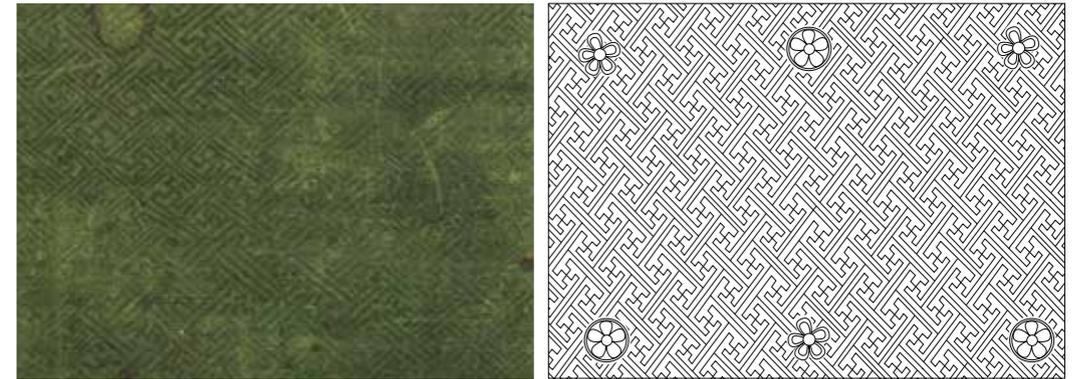
16. '완자문' 혹은 '사격자문'이라고도 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2006), 458쪽.

도12. 만자를 전체에 두고 두 종류의 작은 꽃무늬가 1:1 비율로 구성된 유형



A. 『효종빈전혼전도감의궤』(1659) 책의

A-1. 도식화



B. 『헌경혜빈빈궁훈궁도감의궤』(상)(1816) 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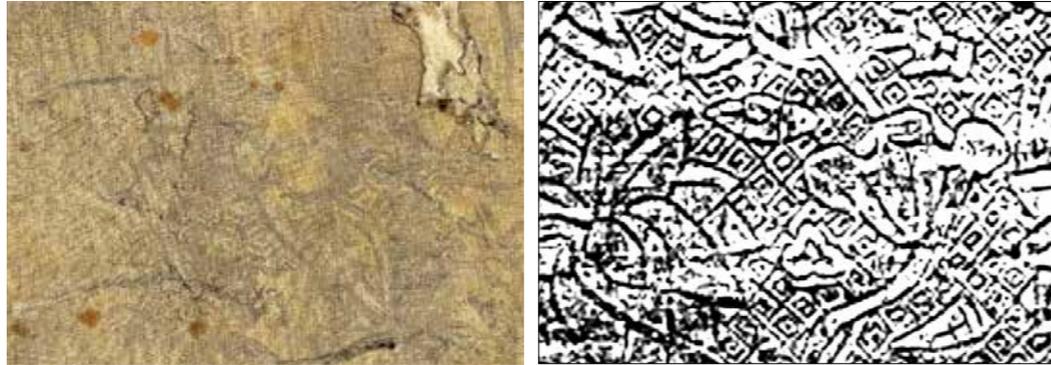
B-1. 도식화

## 3) 귀갑무늬를 중심으로 복합된 무늬로 구성된 유형

도13 『인조국장도감의궤仁祖國葬都監儀軌』(1650)의 책의 직물은 복합형의 전개방법이 사용된 예이다. 이처럼 평직의 직물에 능화판으로 무늬를 찍어서 표현한 복합형의 예는 2건이 해당된다. 유물의 손상이 심해서 전체적인 무늬의 종류는 확인할 수 없으나 귀갑문을 중심으로 꽃무늬 등 여러 무늬가 복합되어 화면 전체를 채우는 방법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개별무늬와 단위무늬의 크기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책의 직물의 무늬 구성은 2건을 제외하고 모두 규칙적인 전개법이며 주무늬가 격자형이거나 전체가 복합형으로 구성되었다. 규칙적이되 무늬의 종류가 단독 전개인지 복합 전개인지의 차이, 무늬가 화면 전체에 배치되어 있는지 여백을 두고 배치했는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문릉으로 제작된 8건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물이 화면 전체를 무늬로 채우는 구성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도13. 귀갑무늬 중심으로 복합된 무늬로 구성된 유형



A. 『인조국장도감의궤』(1650) 책의

A-1. 도식화(추정)<sup>17</sup>

외규장각 의궤 책의에 사용된 직물은 시기는 한정되어 있지만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된 직물을 통해 무늬를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사용된 무늬를 통해 각각의 무늬가 갖는 유행, 시대적인 흐름의 조화와 변화를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보조 자료로서의 의의가 크다.

#### IV.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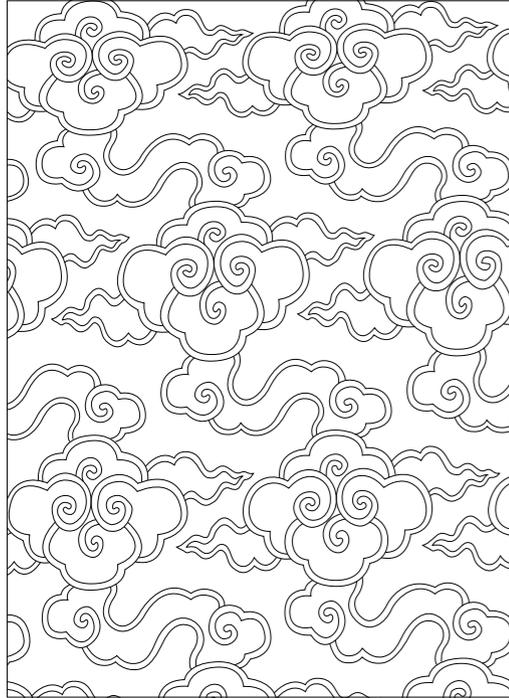
이상에서 외규장각 의궤 책의에 사용된 직물 중 무늬가 있는 직물 155건을 특징별로 구분해 보았다. 무늬의 종류별로 구분해볼 때 구름과 연꽃넙쿨무늬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구름무늬가 100건으로 가장 많은데, 구름이 단독으로 사용된 것은 10건이고, 나머지 90건은 구름과 보배무늬가 결합되어 구성된 운보무늬이다. 따라서 의궤 책의 직물로는 운보무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꽃무늬가 단독 또는 복합되어 사용된 것이 53건이고 이 중 41건이 연꽃넙쿨무늬를 포함하고 있어서 꽃무늬 중에서는 연꽃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무늬의 구성면에서는 두 종류 이상을 복합하여 구성한 것이 104건으로 독립적인 구성보다는 두 종류 이상이 결합된 구성으로 화면을 채우는 방법을 선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 종류를 단독으로 구성한 48건 중 35건이 연꽃넙쿨무늬이므로 단독 사용 무늬로 연꽃을 선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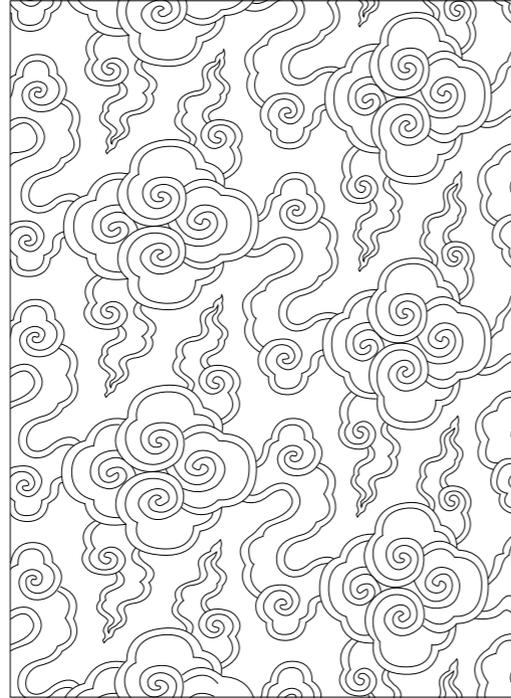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무늬가 있는 직물은 무늬의 종류와 구성 방법이 무엇이든 화면 전체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무늬를 배치하였으며, 화면의 여백을 충분히 활용하는 구성으로 전개된 8건은 모두 제직 방법이 능직이라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7. 『불조삼경佛祖三經』(1361)의 책판무늬. 박선희, 『菱花板 紋樣에 關한 研究-朝鮮時代 紋樣을 中心으로』(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66쪽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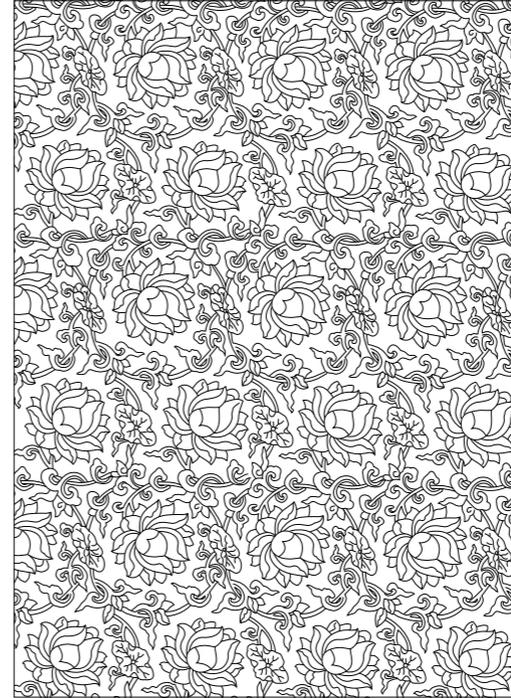
참고 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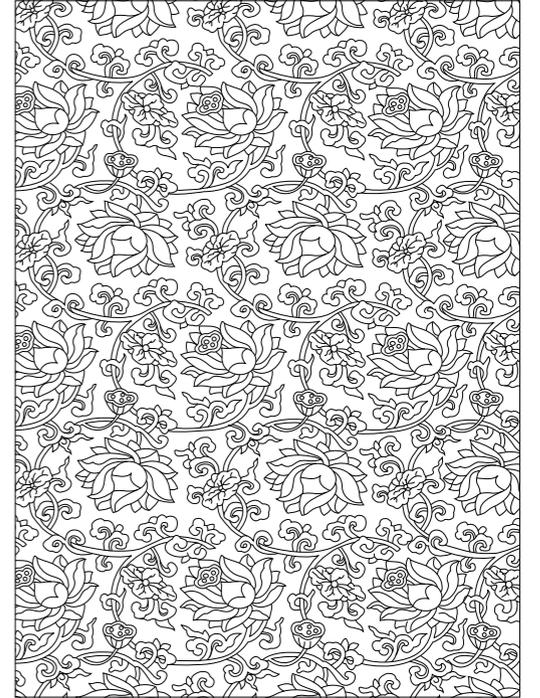
『영녕전수개도감의궤』(1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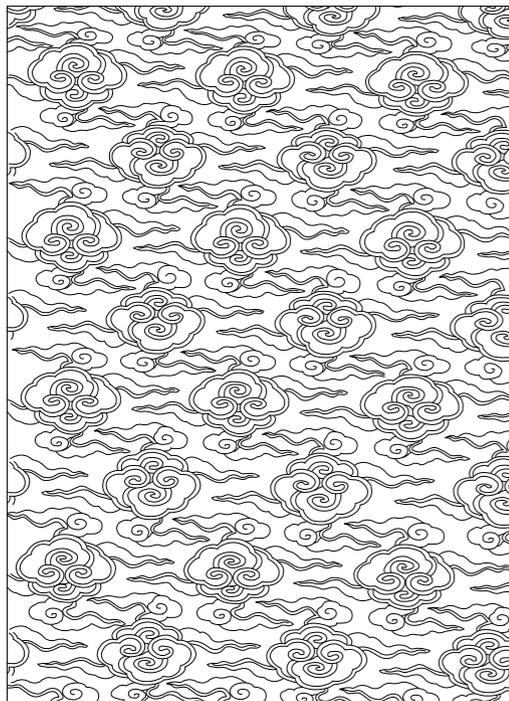
『금보개조도감의궤』(17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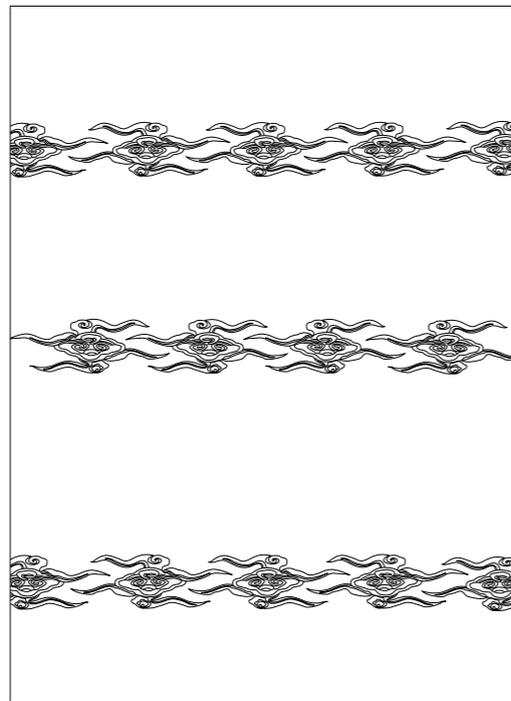
『숙종명릉산릉도감의궤』(상)(1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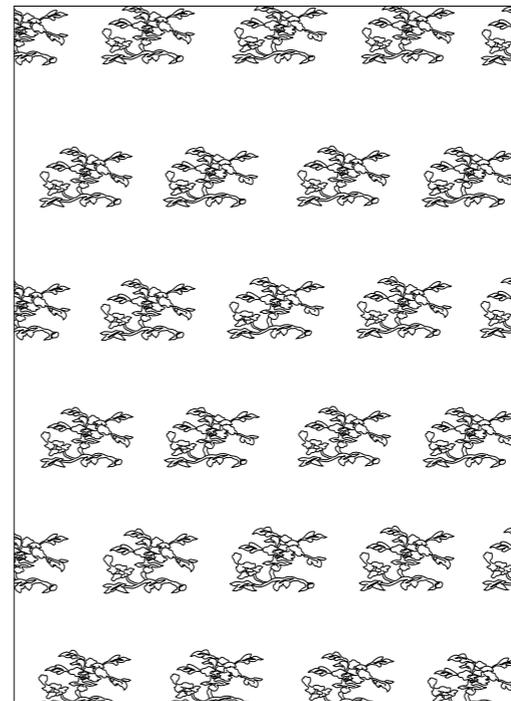
『보사복훈도감의궤』(16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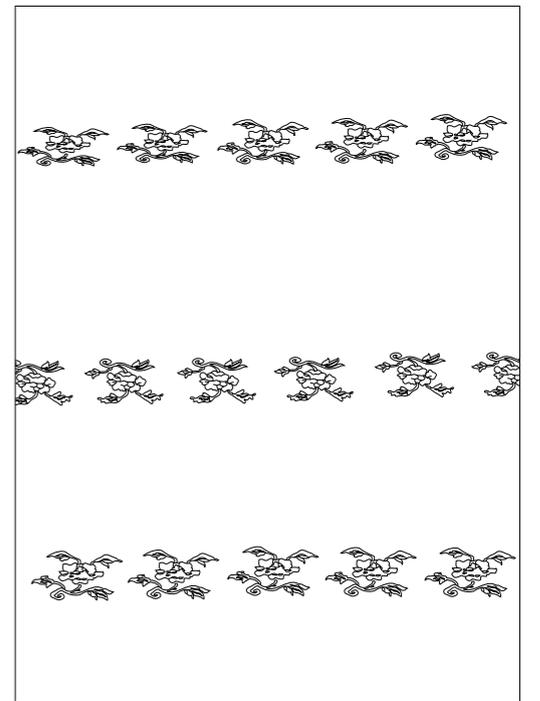
『정종후릉수개도감의궤』(1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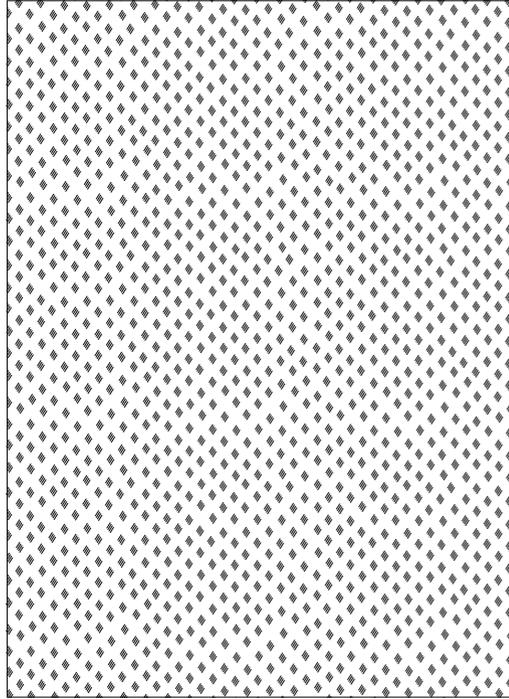
『숙종왕세자책례도감의궤』(1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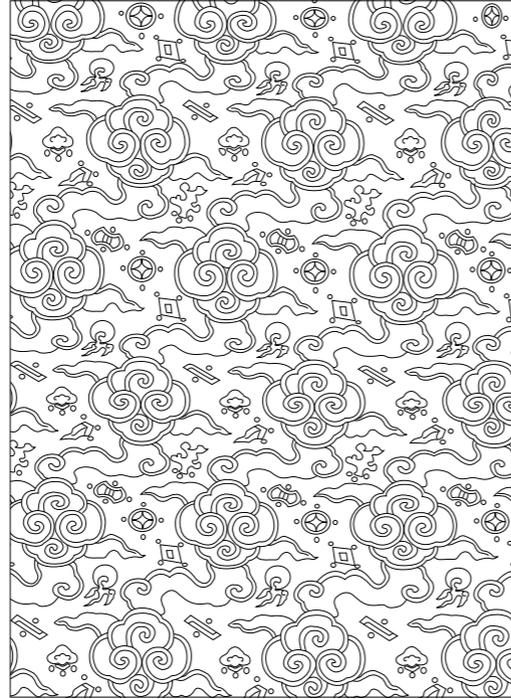
『인조인열왕후부묘도감의궤』(2)(16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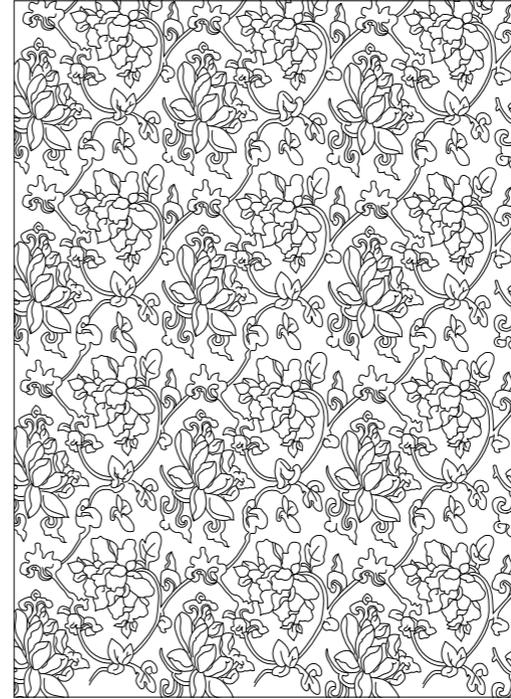
『효장세자가례도감의궤』(상)(1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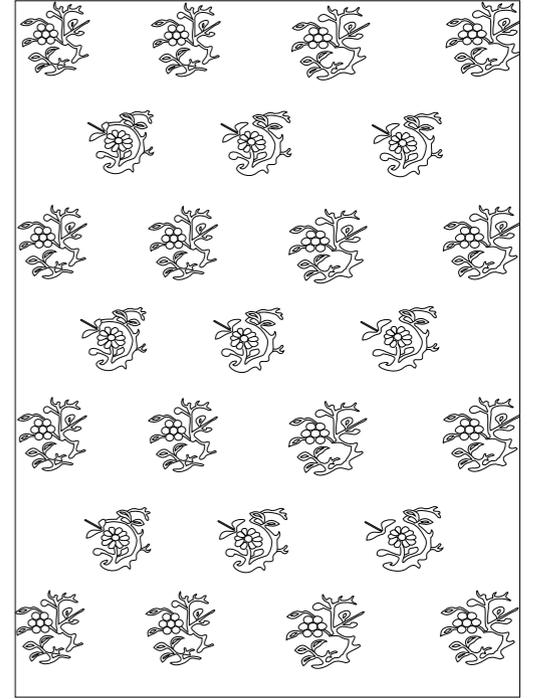
『종묘수리도감의궤』(16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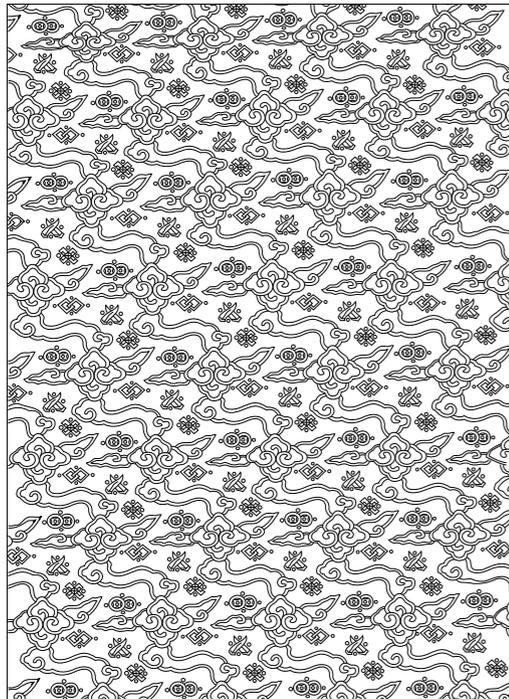
『별삼방의궤』(16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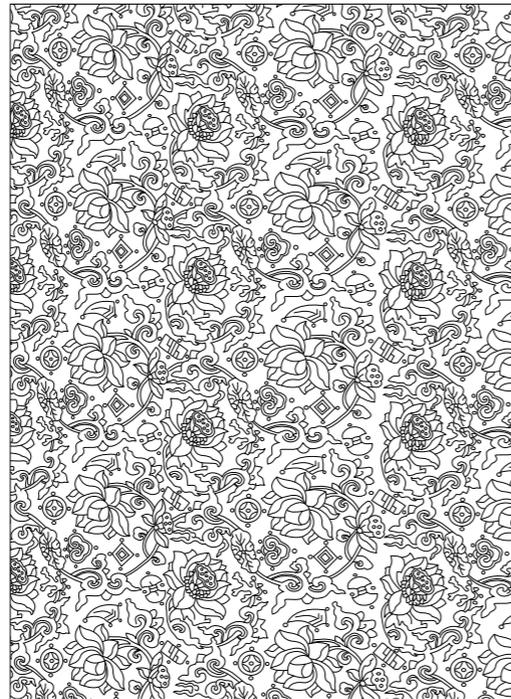
『인선왕후영릉산릉도감의궤』(하)(16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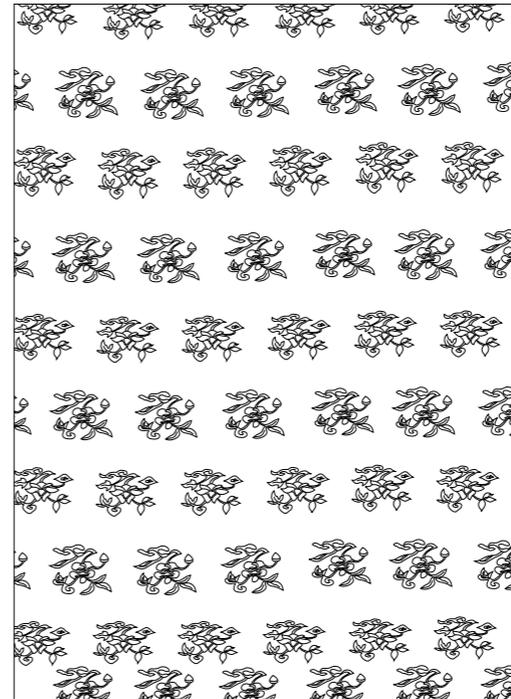
『인선왕후책례도감의궤』(16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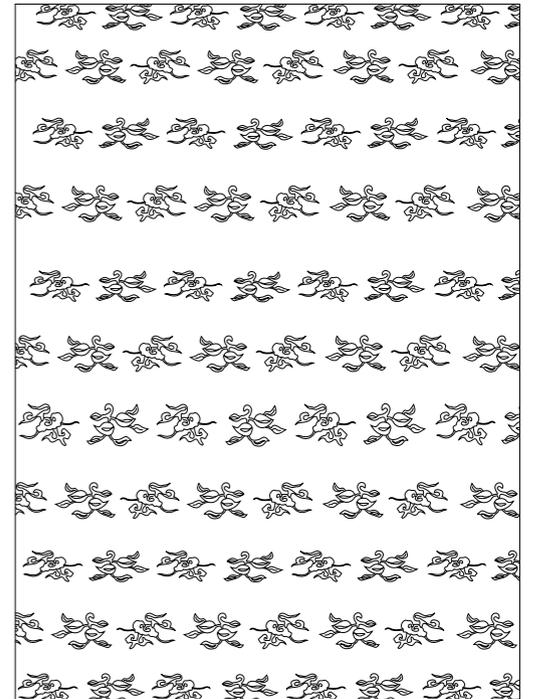
『종묘개수도감의궤』(상)(17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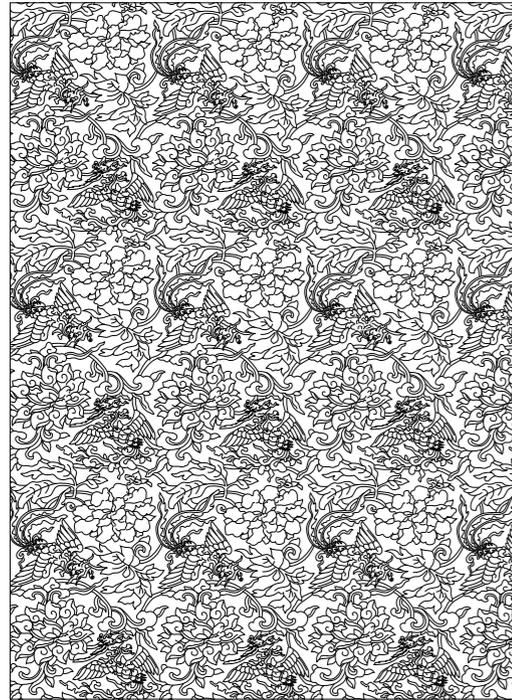
『헌종승릉산릉도감의궤』(상)(16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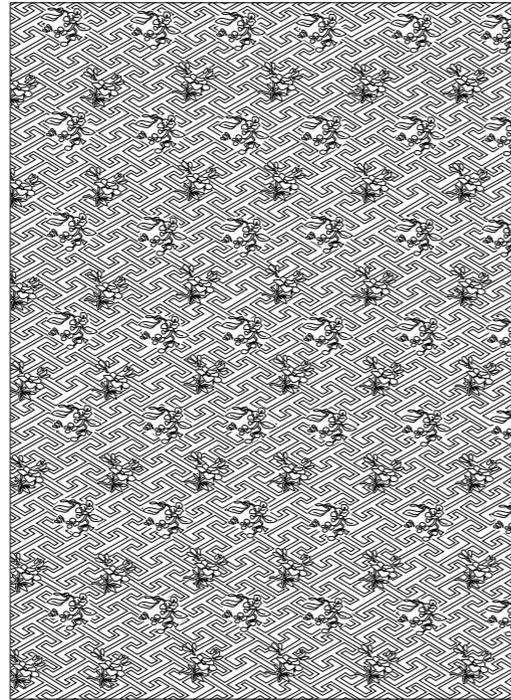
『창덕궁창경궁수리도감의궤』(16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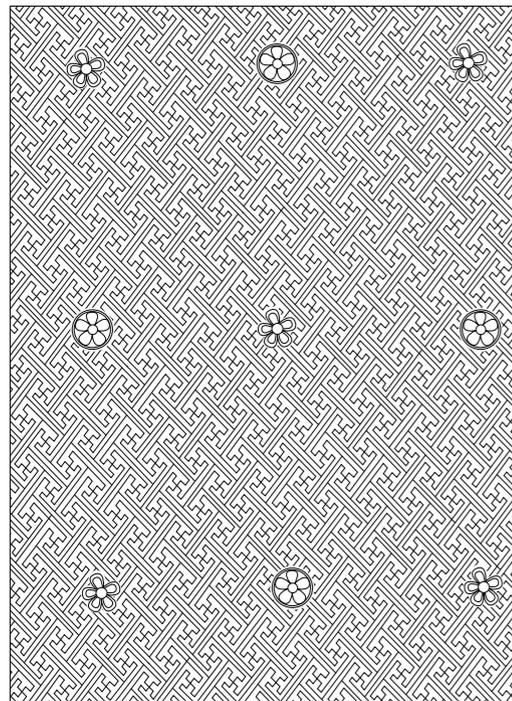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1638)



『집상전수개도감의궤』(1668)



『효종빈전훈전도감의궤』(1659)



『헌경해빈빈궁훈궁도감의궤』(상)(1816)

## 국문초록

### 외규장각 의궤 책의 사용된 직물무늬

무늬는 아름다움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시대의 정신과 유행, 나아가 정치적인 이념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외규장각 의궤 책의 사용된 직물은 시기적으로는 한정되어 있지만, 다양한 무늬를 활용한 예로서 조선 시대 직물무늬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만하다.

본 글에서는 외규장각 의궤 책의 장황에 사용된 직물 중 무늬가 있는 직물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은 무늬와 함께 제작된 직물과 능화판으로 무늬를 표현한 직물로 총 155건이다. 직물에 사용된 무늬는 구름과 꽃무늬가 대표적이고 봉황, 보배, 과실, 만자, 귀갑, 기하무늬 등이 있다. 책의 직물 중 가장 많이 것은 구름무늬이다. 구름머리의 크기나 구름꼬리 모양에 변화를 주어 다양한 구성을 만들어냈고, 구름을 단독 또는 복합하여 배열하였다. 또한 구름과 보배무늬와 결합되어 구성된 운보무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보배무늬의 사용 수량은 다양하여 시기적으로 한정할 수는 없었다. 꽃무늬에는 연꽃넙쿨이 주를 이룬다. 연꽃넙쿨과 함께 모란이나 다양한 종류의 작은 꽃무늬를 사용하여 단독 또는 두 종류 이상을 복합하여 배열하였다. 연꽃의 구성 방식은 ① 둥근 꽃봉오리 모양에 넙쿨이 있고 주변에 연잎사귀와 팔메트잎사귀가 있는 구성, ② ① 형태의 연꽃과 연밥이 있는 보상화형의 연꽃을 번갈아 배치한 구성, ③은 ②의 구성에 보배무늬를 더해 여백을 충전한 구성, ④ ① 형태의 연꽃과 모란넙쿨을 번갈아 배치한 구성, ⑤ 연꽃넙쿨, 모란넙쿨, 봉황무늬를 1:1:1로 배치한 구성이다. 그 외에 화면 전체에 두 종류의 꽃무늬를 번갈아 배열하고 여백을 만자무늬로 채우거나 마름모형의 작은 기하무늬를 화면 전체에 사용한 예를 확인하였다.

무늬의 구성면에서는 단독 구성보다는 두 종류 이상을 복합하여 화면 전체를 채우는 구성방법을 선호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하나의 무늬를 단독으로 사용하면 비교적 단순해 보이지만 무늬가 강조되는 효과가 있는데 반해, 주무늬와 함께 보조무늬가 주변의 여백을 충전하면 복잡해 보이지만 매우 밀도가 있으며 화려한 느낌을 준다. 단독 구성의 경우에는 연꽃넙쿨무늬를 선호하였다.

마지막으로 무늬가 있는 직물은 모두 무늬의 종류와 구성방법에 차이가 없이 화면 전체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면의 여백을 충분히 활용하는 구성으로 전개된 8건은 모두 제작방법이 능직이라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외규장각 의궤, 책의 직물, 구름무늬, 연꽃무늬, 보배무늬

---

## Abstract

### Textile Patterns on the Cloth Covers of the *Oegyujanggak* *Uigwe*

Decorative patterns are used to enhance the aesthetic value of various types of works, and they can represent the spirit, style, and even political ideology of a specific period. The cloth covers of the *Oegyujanggak Uigwe* have great historical significance, as the shapes and compositions of the patterns demonstrate trends and changes of each pattern over time, as well as the thoughts and culture of the people of the mid-Joseon Dynasty.

This paper examines the patterns of the textiles that were used to make the cloth covers of the *Oegyujanggak Uigwe*. The most common motifs that appear in the patterns are clouds and flowers (e.g., lotus, peony, and various other small flowers). Other motifs include birds, treasures, fruits, Buddhist swastikas, and geometric patterns. Some cloth covers have only one pattern, while others feature a combination of two or more patterns. A variety of cloud patterns appear, with cloud motifs of different sizes and shapes, in terms of both the body and the tail of the clouds. In some cases, the empty spaces between the cloud motifs were filled with four to nine different treasure motifs. There does not seem to have been any rule specifying the number of treasure types that could be used in a single combination of patterns. A lotus pattern consists of lotus bud and leaves, scrolls and palmette leaves. In some patterns, the lotus flowers are expressed realistically, while in others, the motifs take the form of the mythical *bosanghwa* flower with lotus seed. The lotus pattern was used both by itself and in combination with other patterns, including treasure, peony, and phoenix patterns. In addition to the different lotus patterns, several other small floral patterns were identified. These small floral patterns tend to have a very orderly arrangement, with ample space between the motifs. Cloud patterns, *cintamani* patterns, and peach patterns showed similar arrangement (respectively). Lastly, a geometric pattern was created from diamond-shaped motifs, each formed by four diagonal lines.

Keywords: *Oegyujanggak Uigwe*, textile patterns on the cloth covers, cloud designs, lotus designs, treasure designs

---

## abstrait

### Motifs sur les couvertures des protocoles royaux de la Bibliothèque royale de la dynastie Joseon

Les motifs sont imposés comme un moyen efficace pour une représentation artistique. Ils véhiculent l'esprit du temps, la mode et parfois des idées politiques. Les types et les compositions des motifs ornant les couvertures des protocoles royaux de la bibliothèque royale laissent découvrir quels étaient les graphismes en vogue, et témoignent de l'évolution de la société, ainsi que la mentalité et de la culture des Coréens au milieu de la dynastie Joseon.

Cette recherche a pour objectif d'identifier les caractéristiques des étoffes à motifs, utilisées pour la reliure des protocoles royaux de la bibliothèque royale. Les motifs les plus courants sont les nuages et les fleurs. À cela s'ajoutent les oiseaux, les trésors, les fruits, la croix gammée bouddhiste et quelques formes géométriques. Pour les motifs floraux, on retrouve le lotus, la pivoine, ainsi que diverses petites fleurs ; les tissus sont ornés d'une ou de plusieurs sortes de fleurs.

Les motifs de nuages varient dans la taille de la partie frontale et la forme de la queue. Les motifs de trésors viennent remplir l'espace vide entre les nuages, ce qui donne l'impression de comblement. Les compositions comprennent de quatre à neuf sortes de trésors ; il semble qu'il n'y avait aucune règle fixant le nombre de motifs utilisés.

Parmi les motifs floraux, le lotus avec ses boutons, tiges et feuilles est combiné avec des feuilles de palmette. Cette fleur est représentée soit de façon réaliste, soit de manière imaginaire avec un fruit de lotus, comme le montre la peinture bouddhiste au motif de feuilles florales. Il arrive que d'autres motifs viennent s'associer à celui de lotus. À titre d'illustration, le motif de trésor vient remplir le vide laissé, ce qui donne l'impression de plénitude ; le mariage entre le motif de lotus et celui de pivoine ou de phénix produit un effet de somptuosité.

On trouve également une grande diversité de compositions à petites fleurs. Ces motifs floraux sont assez espacés les uns des autres et s'agencent de façon régulière. La composition comporte parfois un seul type de motif floral, parfois un assemblage de deux motifs différents ou plus. Il en va de même pour les motifs de nuages, de pêche et de *chintamani*. Les motifs géométriques sont des losanges formés par quatre lignes obliques qui s'agencent régulièrement.

Mots-clés : protocoles royaux (*uigwe*) de la bibliothèque royale de la dynastie Joseon (*Oekyujanggak*), tissu de couverture, motif de nuages, motif de lotus, motif de trésor.

# 외규장각 의궤 책지의 특성

Characteristics of Paper Used  
in the *Oegyujanggak Uigwe*

천주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Cheon Ju-Hyun  
Paper Conservator, National Museum of Korea

05

## I. 머리말

### II. 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

1. 조사 대상
2. 조사 방법

### III. 조사 결과

1. 초지 발의 특징
2. 의궤 책지의 기본 특성
3. 초지 방법과 가공 특성
4. 정색 반응에 의한 원료 섬유 관찰

## IV. 맺음말

## I. 머리말

옛 문헌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옛 종이는 대략적으로 100여 종 이상에 이르고 있다.<sup>1</sup> 옛 종이의 명칭은 기본적으로 종이 제작에 사용된 원료, 가공 방법, 용도, 크기와 두께 그리고 생산지 등에 따라 명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옛 종이의 품질과 특징 등에 대한 현대적인 분석 연구가 부족하여 그 전반적인 실체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2000년대 이후 전통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서 한지韓紙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옛 종이의 실체에 대한 규명 노력<sup>2</sup>도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규명을 위해서는 실물 연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과 방법을 설정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

특히 조선 왕실의 종이에 대한 기록과 실물은 자료가 많아 비교 연구하기에 적합하지만, 대부분 귀중 자료이기 때문에 조사 연구에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조선 후기 왕실에 사용되었던 종이의 종류와 특성 등에 대한 연구<sup>3</sup>가 이루어지긴 하였지만, 아직까지 당시 사용된 종이의 전반적인 실체를 규명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조선 후기 왕실 종이는 그 용도와 사용 주체 등에 따라 종이의 품질과 지가紙價 등에 차이가 있었다.<sup>4</sup> 그리고 왕실 서책 장황에서도 그 용도에 따라 책의冊衣의 배접지로 사용된 청염지靑染紙, 옥색지玉色紙, 백휴지白休紙, 그리고 격지隔紙, 공격지空隔紙, 내지內紙로 사용된 초주지草注紙와 저주지楮注紙 등이 있다.<sup>5</sup>

또한 조선 시대 왕실이나 국가의 주요 행사의 내용을 정리한 의궤儀軌 제작에 있어서도 어렵건御覽件 의궤는 초주지, 사고분상건史庫分上件 의궤는 저주지를 사용하는 것<sup>6</sup>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에서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는 분상건 의궤 5종 5책과 의궤가 아닌 자료 3종 3책을 제

1. 배도식, 「우리 종이 韓紙」, 『한국민속의 현장』(집문당, 1993);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종이문화』(1995).
2. 정선영, 「고정지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38(2007); 손계영, 「詩箋紙의 유형과 특징」, 『고문서연구』23(2003); 손계영, 「조선시대 草注紙와 楮注紙」, 『서지학보』29(2005); 정선영, 「백면지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41(2008); 정선영, 「정색계 색지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46(2010).
3. 손계영, 『朝鮮時代 文書紙 研究』(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천주현, 『조선 후기 국왕발급문서의 제지과학적 특성』(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4. 손계영, 앞의 논문(2005), 62~72쪽.
5. 조계영, 「조선 후기 왕실의 冊匠과 粧冊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31(2005), 76~85쪽.
6. 韓國精神文化研究院, 『藏書閣所藏儀軌解題』(2002), 2쪽.

외한 나머지 289책이 1631년부터 1849년까지 약 200년간에 걸쳐 제작된 어람본이다.<sup>7</sup> 따라서 외규장각 의궤 책지冊紙는 조선 후기 초주지 연구에 있어서 가장 실증적인 연구가 가능한 자료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장황된 서책이라는 제한된 조건이긴 하지만 의궤 책지의 구조적 특성과 섬유 식별 등으로 조선 후기 초주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 II. 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

### 1. 조사 대상

조사 대상은 전체 297책 중 40책이며, 종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각 의궤에서 분리되어 보관해 온 원본 표지의 공격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조사 대상 의궤는 [표 1]과 같으며, 시대별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작 시기를 세기별로 구분하였다.

[표 1] 조사 대상 의궤

유물번호	서명	제작 시기(년)	종이 규격(cm)	분상처
외규001	풍정도감의궤	17A1 (1630)	44.8×71.4	분상
외규002	선조목릉천장산릉도감의궤	17A2 (1631)	52.0×72.0	어람
외규003	중묘수리도감의궤	17A3 (1637)	50.0×73.8	어람
외규004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	17A4 (1638)	47.2×63.8	어람
외규005	소현세자예장도감의궤	17A5 (1645)	46.2×64.6	어람
외규009	공해왕후순릉수개도감의궤	17A6 (1648)	45.5×69.2	분상
외규011	인조국장도감의궤	17A7 (1650)	46.4×69.6	어람
외규016	현종명성왕후가례도감의궤	17A8 (1652)	47.4×65.6	어람
외규020	효종국장도감의궤 (하)	17A9 (1659)	49.1×71.8	어람
외규030	숙종인경왕후가례도감의궤	17A10 (1671)	50.3×76.8	어람
외규035	인선왕후국장도감의궤 (1)	17A11 (1674)	49.6×73.0	어람

7. 유세림, 「외규장각 의궤의 현황과 특징」, 『외규장각 의궤 학술총서 1-조선왕조의궤 현황과 전망』(국립중앙박물관, 2012), 151~154쪽. 의궤가 아닌 자료 3종 3책은 『강화부의규장각형지안』 2건과 『책보도식』 1건이다. 단, 이 3책은 내용적 측면에서는 의궤로 분류하기 어렵지만, 장황은 어람본 의궤와 유사하며, 특히 종이는 모두 초주지를 사용하였다.

유물번호	서명	제작 시기(년)	종이 규격(cm)	분상처
외규036	인선왕후국장도감의궤 (2)	17A12 (1674)	49.9×73.6	어람
외규037	인선왕후국장도감의궤 (3)	17A13 (1674)	49.8×73.6	어람
외규067	장렬왕후빈전도감의궤	17A14 (1689)	47.7×72.8	어람
외규068	장렬왕후빈전도감의궤	17A15 (1689)	47.6×72.4	어람
외규069	장렬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17A16 (1689)	46.2×72.4	분상
외규070	장렬왕후국장도감의궤 (상)	17A17 (1689)	48.6×76.0	어람
외규071	장렬왕후국장도감의궤 (하)	17A18 (1689)	48.3×75.4	어람
외규082	인현왕후명릉산릉도감의궤 (상)	18A19 (1702)	51.8×73.2	어람
외규083	인현왕후명릉산릉도감의궤 (하)	18A20 (1702)	51.6×73.0	어람
외규093	숙종어용도사도감의궤	18A21 (1713)	46.0×68.0	어람
외규095	단의빈빈궁도감의궤	18A22 (1718)	46.8×68.0	어람
외규096	단의빈빈궁도감의궤	18A23 (1718)	47.0×68.4	어람
외규100	민회빈봉묘도감의궤 (상)	18A24 (1719)	56.8×78.0	어람
외규101	민회빈봉묘도감의궤 (하)	18A25 (1719)	56.9×77.6	어람
외규120	효장세자책례도감의궤 (상)	18A26 (1725)	48.0×69.6	어람
외규121	효장세자책례도감의궤 (하)	18A27 (1725)	48.1×69.4	어람
외규122	효장세자책례도감의궤	18A28 (1725)	46.4×66.4	분상
외규168	효순현빈묘소도감의궤 (상)	18A29 (1752)	49.0×71.6	어람
외규169	효순현빈묘소도감의궤 (하)	18A30 (1752)	46.2×71.8	어람
외규170	효순현빈묘소도감의궤 (하)	18A31 (1752)	46.2×68.6	분상
외규211	문효세자책례도감의궤	18A32 (1784)	49.7×68.4	어람
외규227	헌경혜빈빈궁혼궁도감의궤 (상)	19A33 (1816)	47.3×66.6	어람
외규228	헌경혜빈빈궁혼궁도감의궤 (중)	19A34 (1816)	47.4×67.0	어람
외규229	헌경혜빈빈궁혼궁도감의궤 (하)	19A35 (1816)	47.3×67.2	어람
외규230	헌경혜빈양례도감의궤 (1)	19A36 (1816)	46.8×66.8	어람
외규231	헌경혜빈양례도감의궤 (2)	19A37 (1816)	46.6×66.4	어람
외규233	헌경혜빈양례도감의궤 (4)	19A38 (1816)	47.0×67.4	어람
외규234	헌경혜빈부궁도감의궤	19A39 (1818)	46.9×69.4	어람
외규296	강화부외규장각봉안책보보략 어제어필급장치서적형지안	19A40 (1856)	49.8×63.0	

## 2. 조사 방법

전통 수록지手漉紙<sup>8</sup>는 종이 원료, 함량, 가공 방법 그리고 장인匠人의 숙련도 등에 의해 종이의 품질이 결정된다. 그리고 초지抄紙에 사용된 섬유와 가공법의 난이도難易度에 따라 노동력의 강도와 지가가 좌우된다. 이는 곧 우수한 품질의 종이는 순수한 원료와 많은 노동력이 수반됨을 의미한다.

수록지 제작에 사용되는 발틀과 발[簾] 그리고 물질 방법은 완성된 종이의 규격과 섬유 결합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발은 가는 대나무 발촉과 그 발촉을 엮는 발끈으로 이루어져 있다.<sup>9</sup> 발을 엮을 때 발촉의 종류와 굵기 그리고 발끈의 간격에 따라 초지 과정에서 종이 섬유의 물빠짐이 좌우되고 초지 후 규격, 두께, 섬유 배향성配向性,<sup>10</sup> 지합紙合<sup>11</sup> 등 종이의 기본적인 특성이 결정된다. 지나치게 발끈 간격이 넓고 굵은 발을 사용할 경우는 얇은 종이를 뜨는데 어려움이 있고, 반대로 발끈 간격이 좁고 가는 발을 사용할 경우는 물빠짐이 원활하지 않아 섬유를 고르게 분산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초지 과정에서 종이의 두께와 강도 등을 고려하여 발의 선택이 요구된다.

외규장각 의궤 책지의 구조적 특성 연구를 위해 초지용 발의 형태와 종이의 두께와 밀도, 평량 그리고 섬유의 배향성과 지합을 관찰하였다. 종이 표면의 가공 정도, 충전제의 사용, 섬유의 결합 정도는 편광현미경[Leica DMLP]을 이용하여 100배 확대 관찰하였다.

원료 섬유의 정색染色 반응 특성은 C-염색법에 의한 정색 반응<sup>12</sup>과 사프라닌safranin·아스트라 블루astra blue의 이중 염색으로 관찰하였다.

외규장각 의궤는 변철邊鐵과 박을정朴乙丁으로 장정된 상태로 책지의 특성 연구에 제한이 많다. 따라서 내지를 이용하여 종이 발의 형태와 종이 두께 등을 파악하였으며, 밀도, 평량 등은 내지와 같은 종이를 사용한 동일 의궤의 공격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 III. 조사 결과

### 1. 초지 발의 특징

종이 제작에 사용되는 발은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서 실처럼 둥글게 뽑은 발촉을 말총으로 엮어 놓은 것으로, 어떠한 발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종이의 품질이 좌우된다. 책지 제작 과정에서 두꺼운 종이를 뜰 때에는 발촉이 굵은 것을 사용하며, 얇은 종이를 뜰 때에는 가늘고 촘촘한 발을 사용한다.<sup>13</sup> 즉 종이의 두께는 발의 형태에 따라 조절된다.

조선 후기 『탁지준절度支準折』에 나타난 도량형을 기준으로 초주지와 저주지의 규격을 현대의 미터법으로 환산해보면 각각 약 108.3×73.9cm, 109.3×83.7cm이다.<sup>14</sup> 외규장각 책지의 종이 평균 규격이 약 48.4×70.3cm이므로 초주지 한 장을 반절半切하여 두 장의 책지를 만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현대의 전통 한지 제작에 사용되는 발이 대체적으로 93×63cm인 것과 비교하면 큰 종이 발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1~4는 어람건 의궤, 도5~6은 분상건 의궤의 공격지를 7200lux의 조도照度<sup>15</sup>에서 투과광으로 관찰한 것이다. 도1~6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현대 음양지陰陽紙 발과의 차이이다. 도7에서와 같이 현대 전통 음양지 발은 발끈이 중간에서 서로 어긋나게 제작된다. 이는 음양지 한 장을 제작하기 위해서 두 번 뜬 종이를 수직방향으로 합지合紙하는 원리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외규장각 의궤 책지는 도8에서와 같이 중간에서 어긋남이 없이 발끈이 일자형으로 이어져 있으며 수평 방향으로 합지되었다.

외규장각 의궤 대부분이 어람건이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외규장각 의궤의 어람건 발끈 간격은 평균 2.3cm, 발촉은 15/3cm, 분상건의 발끈 간격은 평균 2.2cm, 발촉은 16/3cm이다. 즉 초지 발에서는 어람건과 분상건에 차이가 없어 보인다. 도9에서와 같이 의궤용 책지 제작을 위한 발촉은 시기에 따라 큰 변화 없이 15개 내외를 보여 약 2mm 굵기의 발촉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발끈 간격은 도10에서와 같이 전반적으로 시대가 내려올수록 좁아지는 추이推移를 나타내고 있다. 즉 점차 발을 촘촘하게 엮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에 제작된 전통 한지들이 약 1.5cm

8. 현대적인 기계지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장인이 직접 수공으로 떠서 만드는 종이를 말한다.

9. 정동찬·윤용현, 『겨레과학인 우리공예』Ⅱ(민속원, 2010), 91~112쪽.

10. 수록지 제작 과정에서 물질 방법에 따라 종이는 종방향과 횡방향의 섬유배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섬유의 배열에 어느 정도 규칙성을 가지게 되고 이를 배향성이라 한다. 한국펄프·종이공학회, 『펄프·제지기술사전』(아카데미서적, 2001), 25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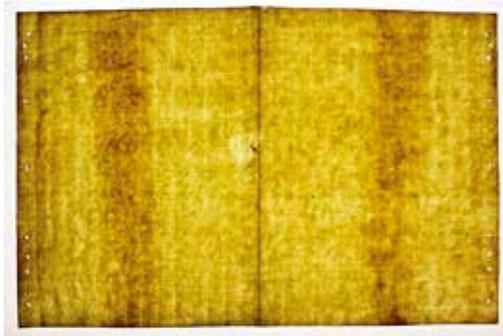
11. 수록지의 지합은 완성된 종이 내 섬유의 분산된 정도이다. 즉 이는 초지 과정에서 섬유의 고른 분포 정도를 나타내므로 종이 제작자의 기술적인 완성도를 관찰할 수 있다. 수록지 제작 과정에서 물질은 장인의 숙련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펄프·종이공학회, 앞의 책(2001), 155쪽.

12. 윤병호 외, 『펄프·종이 시험법』(한국펄프·종이공학회, 2006), 211~24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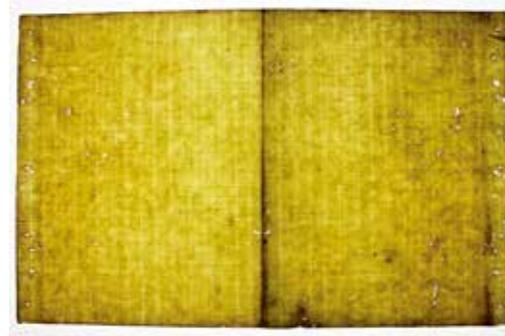
13. 전철, 『한지韓紙』(원광대학교 출판국, 2003), 190쪽.

14. 천주현, 앞의 논문(2014), 7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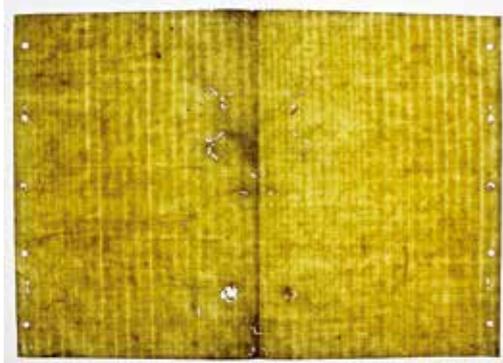
15. 조도 측정: Minolata CL-200, 측정거리 5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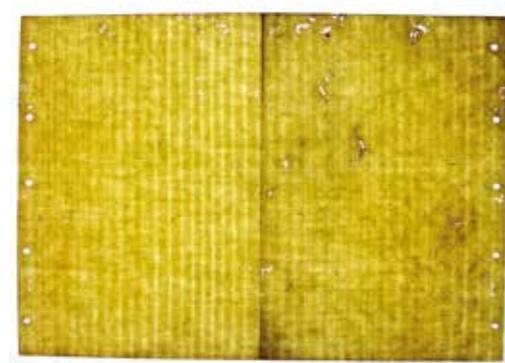
도1. 『장렬왕후빈전도감의궤』(1689, 어람건)



도2. 『장렬왕후국장도감의궤』(1689, 어람건)



도3. 『헌경혜빈빈공훈공도감의궤』(중)(1816, 어람건)



도4. 『헌경혜빈빈공훈공도감의궤』(하)(1816, 어람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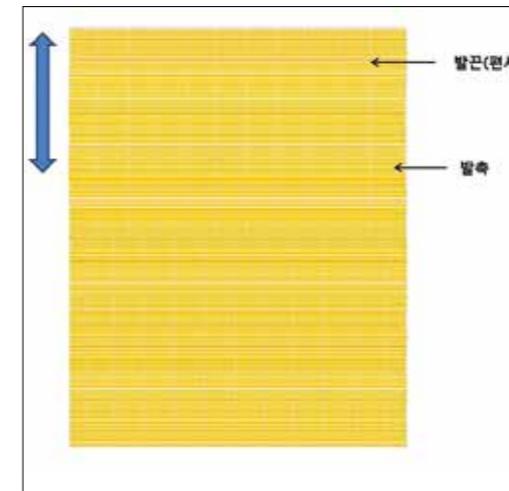
도5. 『장렬왕후빈전훈전도감의궤』(1689, 분상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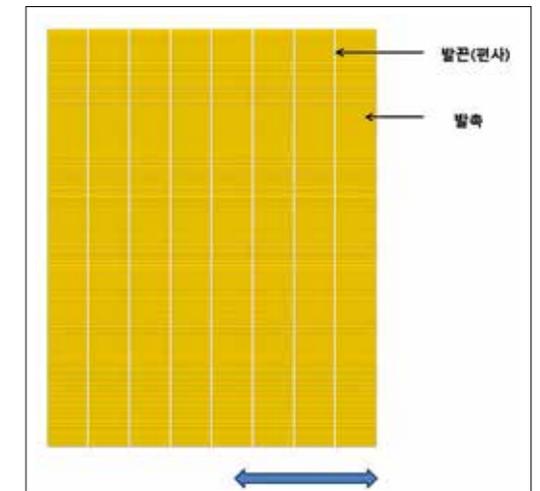
도6. 『효순현빈묘소도감의궤』(하)(1752, 분상건)

이내의 발근 간격을 보이고 있어<sup>16</sup> 이러한 발근 간격의 변화가 제지기술製紙技術의 변천 과정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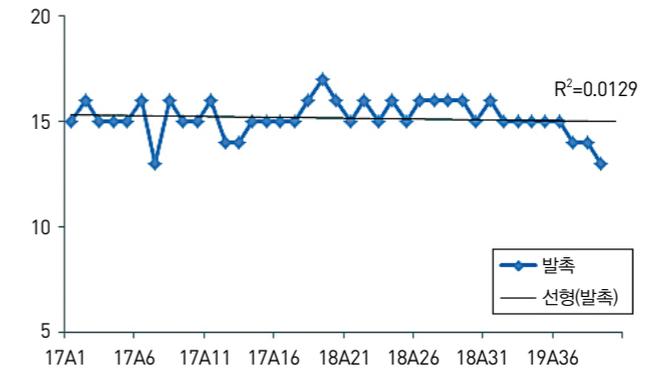
16. 김형진, 『한지韓紙』(문화체육관광부, 2010): Vol. 11-02, Vol. II 6-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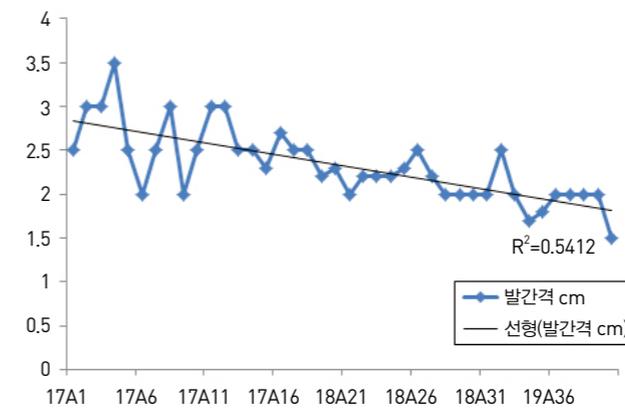
도7. 전통한지 종이 발(현대)



도8. 외규장각 의궤 책지의 종이 발



도9. 의궤 책지의 시기별 발촉 변화



도10. 의궤 책지의 시기별 발근 변화

## 2. 의궤 책지의 기본 특성

외규장각 의궤 책지의 두께, 무게, 평량, 밀도, 벌크Bulk 등의 기본적인 특성을 조사하여 [표 2]에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종이의 특성은 종이 제작 과정에서의 원료 섬유 종류, 양, 섬유간 결합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고해<sup>17</sup> 초지 방법과 가공 방법, 각종 첨가제, 초지법 등에 따라 결정된다.

전통 한지 제작 과정에서 충전제를 첨가하지 않았을 경우, 밀도가 0.40g/cm<sup>3</sup> 이상이면 도침 가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종이의 밀도로 도침 가공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즉 종이의 두께와 밀도 등 기본적인 특성을 연구하면 초지 방법과 가공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표 2] 의궤 책지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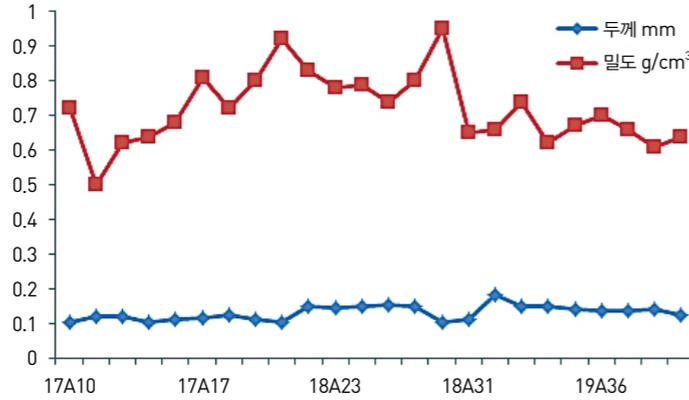
구분	두께(mm)	무게(g)	밀도(g/cm <sup>3</sup> )	평량(g/m <sup>2</sup> )	벌크(cm <sup>3</sup> /g)	발촉(ea/3cm)	발근 폭(cm)
17A1	0.10	-	-	-	-	15	2.5
17A2	0.09	-	-	-	-	16	3
17A3	0.10	-	-	-	-	15	3
17A4	0.13	-	-	-	-	15	3.5
17A5	0.09	-	-	-	-	15	2.5
17A6	0.09	-	-	-	-	16	2
17A7	0.11	-	-	-	-	13	2.5
17A8	0.12	-	-	-	-	16	3
17A9	0.13	-	-	-	-	15	2
17A10	0.10	25.40	0.72	67.50	1.40	15	2.5
17A11	0.12	-	-	-	-	16	3
17A12	0.12	30.60	0.50	84.39	1.99	14	3
17A13	0.12	-	-	-	-	14	2.5
17A14	0.12	39.44	0.62	118.30	1.63	15	2.5
17A15	0.11	42.50	0.64	124.40	1.57	15	2.3
17A16	0.11	26.60	0.68	83.29	1.48	15	2.7

17. 종이의 제작 과정에서 원료 섬유를 피브릴화하는 과정이다. 고해 과정에서 섬유의 피브릴화 정도가 종이 두께, 표면 평량도 등 종이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17A17	0.12	33.50	0.81	92.66	1.23	15	2.5
17A18	0.13	35.20	0.72	96.63	1.38	16	2.5
18A19	0.11	31.30	0.80	85.09	1.26	17	2.2
18A20	0.12	-	-	-	-	16	2.3
18A21	0.10	27.7	0.92	89.66	1.08	15	2
18A22	0.15	38.9	0.83	122.30	1.21	16	2.2
18A23	0.15	37.5	0.78	117.30	1.28	15	2.2
18A24	0.15	56.37	0.79	130.10	1.26	16	2.2
18A25	0.15	59.95	0.74	139.70	1.35	15	2.3
18A26	0.15	-	-	-	-	16	2.5
18A27	0.15	32.73	0.80	99.60	1.24	16	2.2
18A28	0.12	-	-	-	-	16	2
18A29	0.10	-	-	-	-	16	2
18A30	0.10	30.25	0.95	87.00	1.06	15	2
18A31	0.11	22.30	0.65	71.80	1.53	16	2
18A32	0.18	39.40	0.66	120.30	1.52	15	2.5
19A33	0.15	32.47	0.74	103.70	1.36	15	2
19A34	0.15	29.50	0.62	93.40	1.62	15	1.7
19A35	0.14	34.90	0.67	110.00	1.50	15	1.8
19A36	0.14	34.04	0.70	111.40	1.42	15	2
19A37	0.14	28.10	0.66	92.41	1.52	14	2
19A38	0.14	25.47	0.61	82.70	1.65	14	2
19A39	0.13	29.94	0.64	94.25	1.57	13	2
19A40	0.12	-	-	-	-	-	1.5

도11은 외규장각 의궤 책지의 밀도와 두께를 비교한 것이다. 시기별로 두께는 대체적으로 일정한 것에 비해 밀도는 변화가 많다. 특히 17A17(1689년)~18A30(1752년), 즉 조선 후기 숙종, 영조의 재위 기간에 제작된 의궤 책지의 경우는 다른 기간에 제작된 것과 비교하여 두께는 비슷하지만 밀도가 높게 나타나 더욱 치밀하게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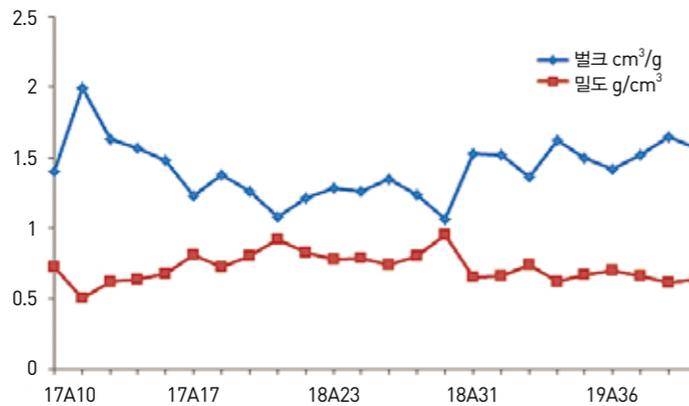
이 기간에 제작된 의궤는 책지의 평균 두께가 약 0.13mm로 다른 시기와 차이가 없었지만 밀도의 경우는 0.82g/cm<sup>3</sup>로 다른 시기의 평균 0.65g/cm<sup>3</sup>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도11. 외규장각 의궤 책지의 밀도와 두께

이러한 현상은 도12의 밀도와 벌크 관계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종이의 밀도와 벌크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동일한 두께에서 밀도가 높고 벌크가 낮으면 그만큼 섬유 사이의 공극이 적어 치밀하게 제작된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는 종이 제작 과정에서의 첨가제와 가공 처리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도11과 마찬가지로 17A17~18A30의 구간에서는 밀도가 높고 벌크가 낮아, 이 시기의 책지는 다른 시기에 비해 매우 치밀함을 알 수 있다.

외규장각 의궤 297책 중 약 60%를 차지하는 171책이 숙종~영조 재위기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 시기에 의궤 제작이 활발하였고 의궤 제작에 많은 공을 들인 것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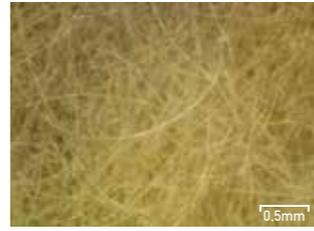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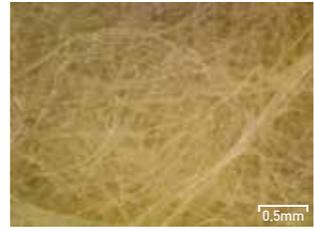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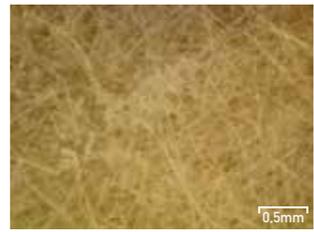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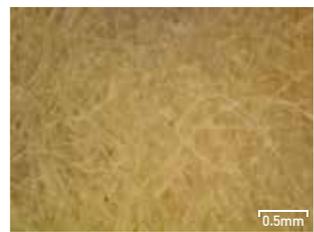
도12. 외규장각 의궤 책지의 밀도와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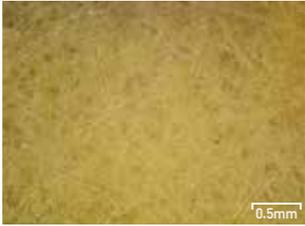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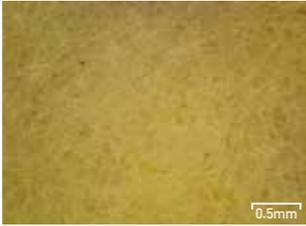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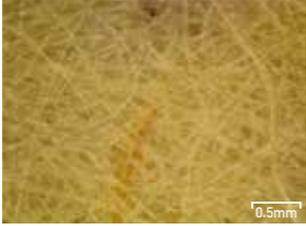
### 3. 초지 방법과 가공 특성

외규장각 의궤 책지의 물질 방법을 관찰하기 위해 의궤에 사용된 내지의 표면과 이면을 확대 관찰하여 섬유의 배향을 조사하였다. 수록지 제작 과정에서의 물질에는 흘림뜨기와 가둠뜨기 방식이 있다. 전자는 앞뒤좌우로 물질하기 때문에 앞뒤로 물질한 첫 물질과 좌우로 물질한 두 번째 물질부터는 섬유 배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후자는 앞뒤 물질만을 하기 때문에 앞뒤 섬유 배향이 나란히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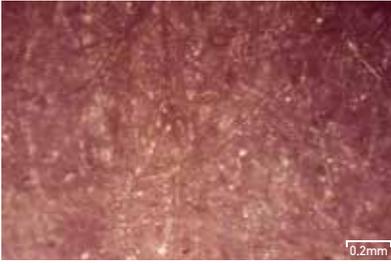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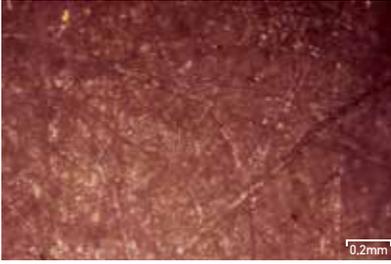
[표 3]에 동일 시기의 어람건과 분상건을 확대하여 책지의 표면과 이면을 나타냈다. 이 표에서 분상건에 비해 어람건의 종이 표면이 치밀한 것을 볼 수 있다. 섬유의 배향은 어람건, 분상건 구분 없이 井자 형으로 엉켜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섬유 배향이 불규칙적으로 흐트러져 앞뒤좌우로 물질하는 흘림뜨기 방식으로 제작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표 3] 외규장각 의궤 책지의 표면과 이면 섬유 배향 관찰

구분	표면	이면	비고
17A1			분상건
17A2			어람건
17A6			분상건

구분	표면	이면	비고
17A7			어람건
17A15			어람건
17A16			분상건
18A26			어람건
18A28			분상건

[표 4] 외규장각 의궤 책지의 가공 처리 관찰

어람건	분상건
 17A7	 17A6
 17A17	 17A16
 18A27	 18A28
 18A30	 18A31

조선 후기 실학자 박제가는 “종이는 먹을 잘 받아야 글씨를 쓰거나 그림 그리기에 적당하고 좋은 것이다. 찢어지지 않는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sup>18</sup>라고 하였고, 서유구는 “고려지는 두드리지 않으면 표면에 털이 일어나고 글자가 퍼져서 두드리지 않은 종이는 서사용書寫用으로 선호하지 않는다”<sup>19</sup>라고 하여 종이 인쇄적성印刷適性的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전통적인 종이 제작 과정에서 인쇄적성의 향상을 위해 도침, 염색, 아교나 명반 등을 활용한 표면 가공 처리 등을 한다. 특히 도침 가공은 젖은 상태의 종이를 두드려 섬유간 결합을 치밀하게 하고 표면을 평활平滑하게 하는 과정으로 편광현미경으로 도침 정도, 첨가물 등의 관찰이 가능하다.

[표 4]는 동일 시기의 어람건과 분상건을 편광현미경으로 관찰한 것이다. 표에서 납작한 형태의 섬유와 형광을 발하는 섬유 표면 등에서 충전제의 첨가와 도침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어람건 의뢰에서 분상건 의뢰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난다. 즉 어람건의 초주지와 분상건의 저주지는 표면 도침 정도에 의해 구분이 가능하다.

#### 4. 정색 반응에 의한 원료 섬유 관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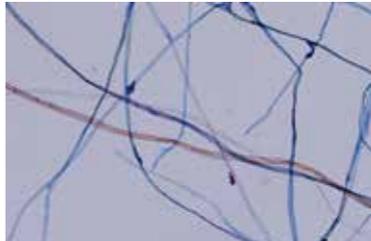
종이의 원료가 되는 식물성 인피섬유韌皮纖維는 물리적·화학적 성질이 달라 특수한 시약으로 염색처리하면 섬유의 종류에 따라서 고유의 색을 나타낸다.<sup>20</sup> 섬유 식별을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C-염색법에 의한 정색 관찰이다. 전통 한지의 주원료인 다편나무 인피섬유는 C-염색법에 의한 관찰 반응에서 적갈색을 띠고 섬유의 가장자리에 얇은 투명막과 횡문(cross-marking) 등이 나타난다. 반면 삼지닥이나 안피섬유雁皮纖維의 경우는 올리브색, 벗짚과 대나무 섬유의 경우는 적보라색이나 청회색을 나타내어 섬유 식별이 가능하다.

그리고 사프라닌과 아스트라 블루 염색을 통하여 원료 섬유의 특징을 관찰할 수 있다. 사프라닌의 경우 원료 섬유의 목화된 세포벽의 리그닌lignin에 착색되어 붉은 색을 나타내고, 아스트라 블루는 셀룰로오스에 착색되어 성숙 세포일수록 진한 청색을 나타낸다. 즉 색이 진할수록 리그닌의 함량이 많고 성숙 세포이다.

[표 5]에 외규장각 의뢰 책지의 정색 반응 결과를 나타냈다. [표 5]를 보면 C-염색법에 의한

관찰에서 전형적인 다편섬유의 특징을 나타냈고, 사프라닌과 아스트라 블루 이중 염색에서 붉은색과 청색이 열게 보였다. 즉 외규장각 의뢰의 책지는 다편섬유를 원료로 하였으며, 원료 처리 과정에 서 불순물이 적고 셀룰로오스 함량이 높은 순수한 섬유를 얻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5] 정색 반응에 의한 원료 섬유 관찰

구분	× 100	× 200
C-염색법		
사프라닌 & 아스트라 블루		

## IV. 맺음말

외규장각 의뢰 책지를 조사하여 몇 가지 그 특성을 확인함으로써 의뢰 제작에 사용된 초주지에 실증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먼저 의뢰 제작에 사용된 초주지의 발은 평균적으로 발끈 간격 2.3cm, 발촉 15/3cm 로 나타났고 시기가 내려올수록 점차 조밀해지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현대 전통 한지 발에 비해 넓고 굽은 발을 사용한 것으로, 두꺼운 종이를 뜨는 것에 용이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종이 제작 방법은 현대의 음양지 제작 방법과 달리 1930년대 다드 헌터Dard Hunter에 의해 조사되었던 장판지 뜨는 방법<sup>21</sup>과 유사하다. 따라서 초지 장인과 발잡이가 한 조를 이루어 두 사람이 큰 발의 종이를

18. 박제가, 『북학의』(을유문화사, 2011), 131~132쪽.

19. 서유구, 『林園經濟志』, 怡雲志 東國紙品條.

20. 이상현, 『고문헌 출현 한지의 원료 섬유 식별』(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년).

21. Dard Hunter, 『Papermaking』(1947), 96~97쪽.

서로 맞잡고 물질하는 방법으로 제작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의궤 책지의 발끈 무늬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둘째, 외규장각 의궤 책지는 평균 두께 0.13mm, 밀도 0.72g/cm<sup>3</sup> 정도로 두껍고 치밀하였다. 특히 숙종~영조 재위 시기에 제작된 의궤의 책지는 다른 시기의 의궤에 비해 더욱 밀도가 높고 치밀하게 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C-염색법에 의한 섬유 식별에서는 어람건과 분상건 의궤 모두 닥섬유로 확인되었다. 조선 후기에 의궤와 마찬가지로 초주지가 사용되었던 교서敎書에서도 유사한 결과<sup>22</sup>를 얻을 수 있어 조선 시대 초주지의 특성이 보다 명확히 규명되었다.

셋째, 의궤 책지와 조선 후기 『탁지준절』에 보이는 종이 규격을 비교하면 초주지 한 장으로 의궤 책지 두 장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약 108.3×73.9cm의 초주지 한 장을 가로로 반절하면 실제 의궤 책지의 규격과 유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어람건 의궤의 초주지와 분상건 의궤의 저주지의 차이점을 명확히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조사 대상 외규장각 의궤 다수가 어람건으로 비교 대상인 분상건 의궤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어람건과 분상건 의궤의 육안과 현미경 관찰에서 인쇄적성과 도침 처리 유무에 따른 표면 밀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탁지준절』에 보이는 초주지와 저주지의 가격 차이<sup>23</sup>는 종이 제작 과정에서의 가공 처리 정도와 생산 과정의 노동력에 의해 결정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분상건 의궤에 대한 조사 자료를 축적하고 이번 초주지 조사 결과와 비교 연구를 통해 저주지에 대해서도 상세한 고찰이 필요하다.

22. 천주현, 앞의 논문(2014), 35~36쪽.

23. 손계영, 앞의 논문(2005), 59~60쪽.

## 국문초록

### 외규장각 의궤 책지의 특성

조선 시대 문헌에 보이는 우리나라의 옛 종이는 대략 100여 종에 이른다. 문헌 속의 종이는 제작에 사용된 원료, 가공 방법, 용도, 크기와 두께 그리고 생산지 등에 따라 명명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옛 종이의 품질과 특징에 대한 현대적인 분석 연구가 미흡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실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연구는 종이 실물에 대한 연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연구 대상을 구하기 어렵고 연구 방법에 있어서도 제한적이다.

조선 시대 의궤 제작은 어람건은 초주지, 분상건은 저주지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외규장각 의궤 책지의 연구는 문헌 속에 보이는 초주지와 저주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연구 대상 의궤는 전체 297책 중 40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의궤에서 분리되어 보관해 온 원래 책지의 공격지도 포함하였다.

연구 방법은 종이의 무게, 두께, 밀도, 평량 등 구조적 특성과 원료 섬유의 식별 그리고 종이 제작 과정에 사용된 발의 형태 추정을 통해 제작 방법에 대해 실증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먼저 의궤 종이 제작에 사용된 발은 평균 발끈 폭 2.3cm, 발촉 15/3cm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의 규격은 시대가 내려올수록 점차 조밀해지는 특징을 보였다.

종이 제작 방법은 의궤 종이에 보이는 발끈 무늬의 관찰에서 현재의 음양지 제작 방법과 달리 1930년대 다드 헌터Dard Hunter에 의해 조사되었던 장판지 제작 방법과 같이 두 사람이 큰 발을 서로 맞잡고 뜨는 방법으로 제작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둘째, 외규장각 의궤의 책지는 평균 두께 0.13mm, 밀도 0.72 g/cm<sup>3</sup> 정도로 두껍고 치밀하였다. 특히 조선 후기 숙종~영조 재위의 약 100년간 제작된 의궤의 책지가 다른 시기에 제작된 의궤에 비해 더욱 치밀하였다.

C-염색법에 의한 원료 섬유 관찰에서는 적갈색을 띠고 섬유 가장자리에 얇은 투명막과 횡문(cross-marking) 등이 확인되어 연구 대상 의궤의 책지는 모두 닥섬유로 확인되었다.

셋째, 의궤의 책지와 조선 후기 『탁지준절』에 보이는 종이 규격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초주지 한 장으로 의궤 책지 2장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약 108.3×73.9cm의 초주지 한 장을 가로로 반절하면 현재의 의궤 종이 규격과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에서 어람건의 초주지와 분상건의 저주지가 구분되지는 않았다. 이는 연구 대상인 외규장각 의궤 다수가 어람건으로 분상건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다만 어람건과 분상건 의궤의 현미경 관찰에서 표면의 밀도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탁지준절』에 보이는 초주지와 저주지의 가격 차이는 종이 제작 과정에서의 가공처리 유무와 생산 과정의 노동력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저주지에 대해서는 향후 더 많은 연구 자료의 축적으로 이번 연구 결과에 나타난 초주지와 비교 연구가 요구된다.

주제어: 책지, 초주지, 저주지, 밀도, 평량, 도침, 초지발, 원료 섬유, 섬유 배향

---

## Abstract

### Characteristics of Paper Used in the *Oegyujanggak* *Uigwe*

To date, about 100 different types of traditional Korean paper have been identified in documents from the Joseon Dynasty. Thus far, however, scientific analyses of the quality and characteristics of Joseon-period paper have been insufficient.

King's copies of *Uigwe*, made exclusively for royal use, were produced with *chojuji* paper, while *Uigwe* made for general use were produced with *jeojuji* paper. *Chojuji* and *jeojuji* paper are known primarily from historical documents, so research on the paper used to make the *Oegyujanggak Uigwe* is highly significant for determining the actual characteristics of these paper typ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hysical features of *Uigwe* paper, including the thickness and density, and takes an empirical approach to *chojuji* paper through analysis of its raw fibers.

Analysis of the pages of the *Uigwe* showed that they were made using a bamboo papermaking mold, consisting of many thin strips of bamboo joined with several pieces of string that were tied at roughly regular intervals. The average space between the strings was 2.3cm, and there were approximately fifteen bamboo strips in a 3.0cm section of the mold. The bamboo molds used in the later period were denser than those used in the early period. It is estimated that, to make *Uigwe* paper, a large bamboo mold was held by two people (one at each end), which is similar to a printmaking method investigated by Dard Hunter in the 1930s.

The *Uigwe* paper was found to be quite thick and dense, with an average thickness of 0.13mm and an average density of 0.72 g/cm<sup>3</sup>. In particular, the density was highest in *Uigwe* copies produced over a roughly 100-year span from the late seventeenth to the mid-eighteenth century (during the reigns of King Sukjong and Yeongjo). C-stain analysis on the raw fibers revealed that the paper for both king's copies and general copies of *Uigwe* was made of paper mulberry.

Standard measurements found in the historical document *Takjijunjeol*, which categorizes items used in royal palaces and government offices, were converted into metric terms, revealing that one full sheet of *chojuji* paper was approximately 108.3×73.9cm. Measurements of the *Uigwe* pages revealed that one inner page was approximately half the size of a full sheet of *chojuji* (breadthwise), indicating that two sheets of inner *Uigwe* pages could be obtained from each full sheet of *chojuji*.

Of the forty *Uigwe* copies that were examined for this study, thirty-five were

king's copies and only five were general copies. With such a wide discrepancy in the quantity of each type, it was rather difficult to attempt any direct comparisons between the two. However, microscopy was performed on paper from each *Uigwe* type, revealing that the density of *chojuji* paper for king's copies was higher than that of *jeojuji* paper for general copies. Notably, according to *Takjijunjeol*, *chojuji* was more expensive than *jeojuji*. A paper with a greater surface density would have required more labor and a higher level of processing, which could explain the difference in cost.

Keywords: inner pages(*chaekji*), *chojuji*, *jeojuji*, density, basis weight, paper smoothing(*dochim*), papermaking mold, raw fibers, fiber orientation

## Caractéristiques du papier des protocoles royaux de la bibliothèque royale de la dynastie Joseon

D'après les documents de la dynastie Joseon, il existait à l'époque une centaine de sortes de papiers. Cependant la qualité et les caractéristiques des papiers d'autrefois n'ont pas fait l'objet de nombreuses recherches analytiques modernes. Les protocoles royaux (*uigwe*) de la bibliothèque royale de la dynastie Joseon (*Oekyujanggak*), destinés au roi, ont été copiés sur du papier de la meilleure qualité, appelé *Chojuji*, alors que ceux à l'usage de l'administration ont été réalisés sur un papier plus rugueux, appelé *Jeojuji*. De ce fait, il est essentiel d'étudier les papiers afin de définir les propriétés du *Chojuji* et du *Jeojuji*.

Cette étude a pour objectif d'appréhender les caractéristiques structurelles du papier des protocoles royaux, comme l'épaisseur ou la densité, en particulier d'examiner scientifiquement la matière du *Chojuji*. Cette analyse nous conduit à trois conclusions.

1°/ Les matrices bambou, appelées « formes », utilisées pour la fabrication du papier des protocoles royaux, ont des chaînettes de fibre végétale espacées de 2,3cm et une trame de 15 vergeures de bambou par intervalle de 3cm. La toile composant la forme s'est de plus en plus resserrée au fil du temps. Pour la fabrication, deux ouvriers tiennent deux bords opposés d'une feuille de papier couchée dans une forme pour rendre sa surface lisse et la faire sécher, ainsi que le montre une recherche faite par Dard Hunter dans les années 1930.

2°/ Le papier des protocoles a en moyenne une épaisseur de 0,13mm et une densité de 0,72g/cm<sup>3</sup> : il s'agit donc d'un papier épais et serré. Il est à noter que le papier le plus serré a été employé notamment pour les protocoles réalisés sous les règnes des rois Sukjong à Yeongjo, c'est-à-dire pendant le dernier quart du XVII<sup>e</sup> siècle et les trois premiers quarts du XVIII<sup>e</sup>. La technique d'analyse des tissus appelée *C-Stain* permet d'affirmer que les papiers des protocoles, qu'ils soient destinés au roi ou aux bureaux, sont issus de la même fibre de mûrier.

3°/ L'examen des formats des protocoles royaux et des *Registres des matériels fournis aux administrations* (*Takjijunjeol*) confirme qu'une feuille de *Chojuji* correspond à deux feuillets intérieurs dans un exemplaire de protocole royal. En d'autres termes, une feuille de ce papier de haute qualité (108,3×73,9cm) est pliée une fois dans le sens de la largeur, ce qui donne approximativement deux feuillets au format des protocoles.

Il faut signaler que cette recherche ne prend pas en compte la distinction entre le *Chojuji* des protocoles réservés au roi et le *Jeojuji* de ceux destinés

aux bureaux. En effet, la majorité des protocoles étudiés ici sont des ouvrages réservés au roi, et l'analyse de quelques protocoles distribués à l'administration n'a pas fourni assez de résultats pour comparer les deux types de papiers. Néanmoins, un examen microscopique a permis de constater une différence de densité. Il est possible d'en inférer que l'écart de prix entre le *Chojuji* et le *Jeojuji*, mentionné dans les *Registres des matériels fournis aux administrations*, tient au degré de traitement de la matière et au coût de la main-d'œuvre dans le processus de fabrication.

Mots-clés : papier, *Chojuji*, *Jeojuji*, densité, grammage, battage manuel, forme, fibres comme matière première, orientation des fibres

# 자료 Materials

1. 외규장각 의궤 상세 목록  
Detailed List of the *Oegyujanggak Uigwe*
2. 외규장각 의궤 변철 도판  
Plates of *Byeoncheol* of the *Oegyujanggak Uigwe*
3. 외규장각 의궤 책의 직물 도판  
Plates of Cloth Covers of the *Oegyujanggak Uigwe*

# 외규장각 의궤 상세 목록

Detailed List of the *Oegyujanggak Uigwe*

## 01

### 일러두기

1. <외규장각 의궤 상세 목록>은 외규장각 의궤 297책 및 분리 보관된 외규장각 의궤 책의 직물 296건의 조사 결과를 서지사항과 장황에 관한 상세 정보를 중심으로 정리한 목록이다.
2. 외규장각 의궤의 서명은 이 책의 권두 '일러두기' 4번에 따라 부여하였다.
3. 유물 번호는 해당 의궤의 행사 연도를 기준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 부여한 번호로, 외규1~297은 외규장각 의궤, 외규298~593번은 책의 직물에 해당한다. 의궤와 분리 보관된 책의가 함께 확인된 경우에는 '의궤/책의' 순으로 유물 번호를 표기하고 의궤의 경우 ( ) 안에 프랑스국립도서관이 부여한 도서 번호를 병기하였다. 어느 의궤의 책의 직물인지 확인되지 않아, 프랑스국립도서관에서 번호를 부여하지 않은 책의 직물(무번 01~15)은 목록 마지막에 수록하였다.
4. 의궤의 제작 시기는 이 책의 권두 '일러두기' 5번에 따라 의궤의 편찬 연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따라서 국립중앙박물관 유물 번호의 순서와 의궤의 제작 연도의 순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5. 의궤의 장수張數는 의궤의 본문이 시작되기 전 앞뒤로 붙어 있는 빈 종이[격지隔紙]를 제외하고 인찰선印札線이 있는 본문 책지의 장수를 확인하여 기록하였다. 일부 의궤의 본문 중 결락缺落된 부분을 채운 빈 종이도 장수에 포함하였다.
6. 각 의궤는 열람자 및 보관 장소에 따라 어람건御覽件과 분상건分上件으로 구분하였다. 단, 정조 대 이후 어람건 형식을 갖춘 의궤 중 본문에 어람건이 아닌 '규장각' 혹은 '외규장각'으로 봉안처가 명기된 의궤는 어람건이라 표기하고 ( ) 안에 의궤 기록에 명기된 봉안처를 병기하였다. 분상건의 경우 표제表題나 기타 서지사항을 통해 분상처가 확인되는 경우 ( ) 안에 분상처를 병기하였다.
7. 표제는 책의에 기록된 서명을 기록하되 분리 보관된 책의 직물에 남아 있는 것은 표제 뒤에 '(원)'이라고 부기하여 구분하였다. 책의에는 표제가 없으나 이제裏題가 있는 경우 표제 뒤에 '(이제)'라고 부기하였다. 표제가 적힌 제첨題簽 직물이 손상되어 글자의 일부만 남아 있는 경우는 추정 글자를 ( ) 안에 표기하였다. 제첨 부분이 떨어져서 표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결락'이라고 표기하였다.
8. 내제內題는 의궤 본문의 첫머리에 기록된 제목을 표기하였다. 의궤의 앞부분이 유실되어 내제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결락'이라고 적었다. 한 종의 의궤이지만 여러 책으로 분책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책의 첫머리에 표시된 권수제卷首題를 실었다.
9. 의궤의 크기는 세로×가로×두께, 책의 직물의 크기는 세로×가로이며, 단위는 cm이다. 의궤의 크기는 책의를 덮은 상태의 앞면을 기준으로 측정하였고, 책의 직물은 분리 보관된 상태 그대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서명이 같아도 의궤의 크기와 책의 직물의 크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0. 원환圓環의 지름은 고정쇠를 기준으로 수평이 되는 쪽의 외지름과 내지름을 측정하여 '외지름/내지름' 순으로 표기하였다. 단, 육안으로 구별되는 타원형인 경우는 긴 쪽과 짧은 쪽 모두를 측정하여 병기하였다.
11. 국화동菊花童의 지름은 꽃잎의 양 끝을 기준으로 측정한 수치의 평균값이다. 단, 크기가 평균값과 현저히 다른 국화동이 혼입된 경우는 ( ) 안에 별도 표기하였다. 2겹의 꽃잎으로 구성된 이중 국화동은 '큰 꽃잎/작은 꽃잎' 순으로 수치를 표기하였다.
12. 변철邊鐵 상세 정보는 변철의 무늬, 원환의 유무, 박을정의 개수, 국화동의 형태 순서로 표기하였다.
13. 책의 직물명은 '색상, 무늬의 종류, 제직 방법에 따른 직물 분류명'의 순서로 표기하였으며, ( ) 안에는 직조 방법의 세부 특징을 바닥조직과 무늬조직으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제첨 직물명과 홍협紅挾 직물명도 책의 직물명의 표기법에 따라 기록하였다.
14. 책의 직물 상세 정보는 ①무늬의 구성, ②무늬의 크기(가로×세로, 단위는 cm), ③보배무늬[寶紋]의 종류, ④무늬의 방향, 단위무늬의 크기, 후배지後背紙의 유무 등 기타 특기 사항을 기록하였다. 무늬의 크기는 직물의 식서 방향에서 상하좌우 끝점을 기준으로 가상의 사각형을 그리고 좌우의 크기를 가로, 상하의 크기를 세로로 하여 측정하였다. 단위무늬는 직물 전체에 무늬가 반복되는데 필요한 기본 무늬 구성으로 측정 방법은 위와 동일하게 하였다.

유물 번호	서명	제작 시기	장수	유일본 여부	어람건/분상건	도설 및 반차도	표제	내제	크기
외규1 (coréen 2431)	풍정도감의궤 豊呈都監儀軌	인조 8 (1630)	37	유일	분상건 (분상처 미상)	—	崇禎庚午豊呈都監儀軌(이제)	결락	전체 44.8×35.7×2.0 변철 1.8-2.0
외규2 / 외규298 (coréen 2402)	선조목릉천장산릉도감의궤 宣祖穆陵遷葬山陵都監儀軌	인조 9 (1631)	239		어람건	도설 채색	穆陵遷葬儀軌 (이제)	崇禎三年十二月日 穆陵遷葬時 山陵都 監儀軌	전체 52.0×36.0×6.5 변철 2.5 국화동 2.5
외규3 / 외규299 (coréen 2664)	종묘수리도감의궤 宗廟修理都監儀軌	인조 15 (1637)	67	유일	어람건	—	宗廟修理都監儀軌(원)	宗廟修理都監儀軌	전체 50.0×36.9×2.5 변철 2.6 국화동 2.2
외규4 / 외규300 (coréen 2524)	인조장렬왕후가래도감의궤 仁祖莊烈王后嘉禮都監儀軌	인조 16 (1638)	193		어람건	반차도 8면, 도설 채색	[戊寅年] 嘉禮 都監儀軌(원)	결락	전체 47.2×31.9×5.7 변철 3.5 원환 3.0 / 2.0 국화동 2.4
외규5 / 외규301 (coréen 2572)	소현세자제장도감의궤 昭顯世子禮葬都監儀軌	인조 23 (1645)	270		어람건	반차도 22면, 도설 채색	禮葬都監儀軌 (원)	順治二年乙酉六月 日 禮葬都監儀軌	전체 46.2×32.3×7.5 변철 2.8 원환 2.6 / 2.0 국화동 2.3
외규6 / 외규302 (coréen 2585)	소현세자묘소도감의궤 昭顯世子墓所都監儀軌	인조 23 (1645)	159		어람건	—	—	順治二年乙酉閏六 月 日 墓所都監儀軌	전체 47.5×35.9×5.0 변철 2.9 국화동 2.5
외규7 / 외규303 (coréen 2594)	소현세자빈궁훈공도감의궤 昭顯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	인조 23 (1645)	195		어람건	도설 채색	殯宮魂宮兩都 監儀軌(원)	順治二年乙酉七月 日 殯宮都監儀軌	전체 48.1×35.4×6.2 변철 2.8 원환 2.8 / 2.1 국화동 2.1
외규8 / 외규304 (coréen 2622)	창덕궁수리도감의궤 昌德宮修理都監儀軌	인조 25 (1647)	189		어람건	—	昌德宮修理都 監儀軌(원)	順治四年丁亥六月 十五日 昌德宮修理 都監儀軌	전체 45.6×34.2×5.3 변철 2.9 원환 3.0 / 2.1 국화동 2.5
외규9 / 외규305 (coréen 2609)	공혜왕후순릉수개도감의궤 恭惠王后順陵修改都監儀軌	인조 26 (1648)	36	유일	분상건 (분상처 미상)	—	[順陵]修改都 監…(원)	順治五年戊子四月 日 修改都監儀軌	전체 45.5×34.6×1.9 변철 2.6
외규10 / 외규306 (coréen 2596)	인조빈전훈전도감의궤 仁祖殯殿魂殿都監儀軌	효종 즉위 (1649)	263		어람건	—	결락	결락	전체 46.5×33.7×11.5 변철 2.8 국화동 2.2

변철 상세 정보	장황 재료	책의 직물명 (직조방법)	책의 직물 상세 정보	책의 직물 크기	제점 직물명 (직조방법)	홍첩 직물명 (직조방법)
무늬(민무늬) 원환 없음 박을정 3개	변철 강철[正鐵] 책의 개장 책지 저주지	—	④개장된 책의(외규1)의 안쪽에 표제가 묵서된 종이 있음	44.8 × 35.7	—	—
무늬(민무늬) 원환(유실) 박을정 3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	④앞·뒤표지는 양지로 남아있음 (개장된 것으로 추정됨. 원 책의 직물은 남아있지 않음) 안쪽 변철 부분에 묵서된 한지 조각이 있음	51.4 × 33.6	—	—
무늬(민무늬) 원환(유실)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소가하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조작:3/1 위능직-좌상향)	①소가하무늬 ②사선길이(0.28), 마름모형(0.4×0.4) ④표제는 제점 종이에 바로 적음 단위무늬(1.1×1.3)	49.6 × 36.5	종이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여의천도문룡 (바닥조작:2/1 경능직-좌상향, 무늬조작:5/1 위능직-좌상향)	①여의무늬+복숭아무늬 ②여의(3.4×2.0), 복숭아(3.5×1.9) ④단위무늬(7.7×2.0) 무늬와 무늬 사이에 여백(1.5-2.9) 있음 표제는 책의에 바로 적음	46.9 × 31.6	—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45.3 × 30.9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 5매3림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림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유실)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앞·뒤표지에 변철 쪽으로 직물폭 연결 바느질 있음	46.9 × 35.1	—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앞·뒤표지에 변철 쪽으로 직물폭 연결 바느질 있음 제점 직물은 식서방향 90° 회전되어 장황됨	47.4 × 33.5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3림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림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표제는 제점 종이에 바로 적음 앞·뒤 표지에 변철 쪽으로 직물폭 연결 바느질 있음	45.2 × 34.1	종이	—
무늬(민무늬) 원환(유실) 박을정 3개 국화동(유실)	변철 강철[正鐵] 책의 개장 책지 저주지	홍색마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표제는 책의에 바로 적음	44.8 × 33.2	—	—
무늬(민무늬) 원환(유실)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소색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능화판으로 귀감문과 화문을 찍어서 무늬를 냄 직물은 거의 적갈색으로 변색됨	46.6 × 32.4	—	—

유물 번호	서명	제작 시기	장수	유일본 여부	어람건/분상건	도설 및 반차도	표제	내제	크기
외규11 / 외규307 (coréen 2552)	인조국장도감의궤 仁祖國葬都監儀軌	효종 1 (1650)	341		어람건	반차도 29면, 도설 채색	… 葬都監儀軌 (원)	順治六年己丑十月日 國葬都監都廳儀軌	전체 46.4×34.8×8.1 변철 2.7 원환 2.5 / 1.9 국화동 2.0
외규12 / 외규308 (coréen 2433)	인조인열왕후부묘도감의궤 (2) 仁祖仁烈王后附廟都監儀軌 (二)	효종 2 (1651)	78		어람건	—	附廟都監一房儀軌	附廟一房	전체 46.3×36.3×2.7 변철 2.9 원환 3.3 / 2.5 국화동 2.3
외규13 / 외규309 (coréen 2432)	인조인열왕후부묘도감의궤 (3) 仁祖仁烈王后附廟都監儀軌 (三)	효종 2 (1651)	34		어람건	—	附廟都監二房儀軌	附廟二房	전체 46.5×36.2×1.9 변철 2.9 원환 3.4 / 2.5 국화동 2.3
외규14 / 외규310 (coréen 2629)	인선왕후책례도감의궤 仁宣王后冊禮都監儀軌	효종 2 (1651)	86		어람건	도설 채색	中殿冊禮都監儀軌 合部(원)	順治八年辛卯八月日 中殿冊禮都監都廳儀軌	전체 46.5×36.1×3.5 변철 2.9 원환 2.6 / 1.8 국화동 2.3
외규15 (coréen 2681)	현종왕세자책례도감의궤 顯宗王世子冊禮都監儀軌	효종 2 (1651)	105		어람건	도설 채색	—	順治八年辛卯八月日 王世子冊禮都監都廳儀軌	전체 46.5×36.2×4.8 변철 3.0 국화동 2.3
외규16 (coréen 2525)	현종명성왕후가례도감의궤 顯宗明聖王后嘉禮都監儀軌	효종 3 (1652)	171		어람건	반차도 16면, 도설 채색	—	順治八年十二月日 嘉禮都監王世子嘉禮時都廳儀軌	전체 47.4×32.8×5.1 변철 3.0 원환 3.4 / 2.2 국화동 2.4
외규17 / 외규311 (coréen 2611)	창덕궁창경궁수리도감의궤 昌德宮昌慶宮修理都監儀軌	효종 3 (1652)	92		어람건	—	修理都監儀軌 (원)	順治九年三月日 昌德昌慶兩宮修理都監儀軌	전체 48.4×37.9×3.0 변철 3.0 원환 3.0 / 2.2 국화동 2.4
외규18 / 외규312 (coréen 2597)	효종빈전혼전도감의궤 孝宗殯殿魂殿監儀軌	현종 즉위 (1659)	308		어람건	도설 흑백	殯殿都監儀軌 己亥(원)	殯殿都監儀軌	전체 52.2×38.2×10.2 변철 3.0
외규19 / 외규313 (coréen 2555)	효종국장도감의궤 (상) 孝宗國葬都監儀軌 (上)	현종 즉위 (1659)	293		어람건	반차도 30면, 도설 채색	國葬都監儀軌 己亥 上(원)	順治十六年己亥十一月日 國葬都監都廳儀軌	전체 48.9×35.9×9.3 변철 3.0
외규20 / 외규314 (coréen 2554)	효종국장도감의궤 (하) 孝宗國葬都監儀軌 (下)	현종 즉위 (1659)	222		어람건	도설 채색	國葬都監儀軌 己亥 下(원)	順治十六年己亥十一月日 國葬都監二房儀軌	전체 49.1×35.9×7.1 변철 3.1 원환 3.3 / 2.5 국화동 2.5

변철 상세 정보	장황 재료	책의 직물명 (직조방법)	책의 직물 상세 정보	책의 직물 크기	제침 직물명 (직조방법)	홍첩 직물명 (직조방법)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소색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능화판으로 귀갑문과 화문을 찍어서 무늬를 냄 ④표제는 책의에 바로 적음	46.2 × 30.6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화문릉 (바닥조작:2/1 경능직-좌상향, 무늬조작:3/1 위능직-좌상향)	①작은 꽃무늬(한종류) ②꽃(6.4×4.3) ④뒤표지 직물은 겉과 안이 뒤집혀 보이는 부분이 안쪽임 제침은 개장된 책의(외규12)로 옮겨짐 단위무늬(8.2×4.3) 무늬와 무늬 사이에 여백(4.8~5.8) 있음	46.2 × 36.2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화문릉 (바닥조작:2/1 경능직-우상향, 무늬조작:3/1 위능직-좌상향)	①작은 꽃무늬(한종류) ④제침은 개장된 책의(외규13)로 옮겨짐	46.3 × 36.2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화문릉 (바닥조작:2/1 경능직-좌상향, 무늬조작:5/1 위능직-좌상향)	①작은 꽃무늬(두종류) ②꽃(4.0×4.3), (4.1×4.2) ④단위무늬(7.4×4.3), (7.4×4.2) 무늬와 무늬 사이에 여백(1.6~2.2) 있음	46.4 × 34.7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	④원 책의 직물 없음	—	—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	④원 책의 직물 없음	—	—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화문릉 (바닥조작:2/1 경능직-좌상향, 무늬조작:5/1 위능직-좌상향)	①작은 꽃무늬(두종류) ②꽃(4.3×3.4), (4.4×3.3) ④단위무늬(5.9×3.4), (5.8×3.3) 무늬와 무늬 사이에 여백(1.9~2.3) 있음	48.0 × 37.4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유실, 원판만 남음)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백색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①작은 꽃무늬(두종류)+만자무늬 ②꽃(3.4×3.2), (3.1×3.2) ④단위무늬(6.5×8.0)	51.4 × 36.8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유실)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꼬리(좌상향) ②구름(6.5×5.8), 꼬리(9.0×3.1) ③전보.방승.보.(단)서보.(단)서각.화주.여의.산호 ④단위무늬(11.3×16.0) 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48.8 × 36.1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꼬리(좌상향) ②구름(6.5×5.8), 꼬리(9.0×3.1) ③전보.방승.보.(단)서보.(단)서각.화주.여의.산호 ④단위무늬(11.3×16.0) 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48.8 × 35.7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

유물 번호	서명	제작 시기	장수	유일 여부	어람건/ 분상건	도설 및 반차도	표제	내제	크기
외규21 / 외규315 (coréen 2438)	효종부묘도감의궤 孝宗耐廟都監儀軌	현종 2 (1661)	195		어람건	반차도 18면, 도설 채색	耐廟都監儀軌	順治十八年辛丑十 月初一日 耐廟都監 都廳儀軌	전체 47.9×35.2×6.0 변철 2.8 원환 3.4 / 2.5 국화동 2.4
외규22 / 외규316 (coréen 2530)	장렬왕후인선왕후존숭도감의궤 莊烈王后仁宣王后尊崇都監儀軌	현종 2 (1661)	123		어람건	도설 채색	尊崇都(監)儀軌 (원)	順治十八年辛丑十 月初一日 大王大妃 殿 王大妃殿 尊崇都 監都廳儀軌	전체 47.5×35.8×5.0 변철 2.8 원환 3.4 / 2.5 국화동 2.3
외규23 / 외규317 (coréen 2641)	명성왕후책례도감의궤 明聖王后冊禮都監儀軌	현종 2 (1661)	120		어람건	도설 채색	冊禮都…(원)	順治十八年辛丑十 月初一日 冊禮都監 都廳儀軌	전체 47.8×35.2×4.0 변철 2.8 원환 3.4 / 2.5 국화동 2.4
외규24 / 외규318 (coréen 2590)	별삼방의궤 別三房儀軌	현종 2 (1661)	57	유일	어람건	—	別三房儀軌(원)	順治十八年辛丑十 月初一日 別三房儀 軌	전체 48.0×35.1×2.0 변철 2.8 원환 3.2 / 2.4 국화동 2.2
외규25 / 외규319 (coréen 2644)	숙종왕세자책례도감의궤 肅宗王世子冊禮都監儀軌	현종 8 (1667)	127		어람건	—	冊禮都監 儀軌(원)	丁未正月 日 冊禮都 監儀軌	전체 49.8×37.0×4.0 변철 2.8 원환 2.4 / 1.9 국화동 2.1
외규26 / 외규320 (coréen 2695)	영녕전수개도감의궤 永寧殿修改都監儀軌	현종 8 (1667)	156		어람건	—	永寧殿修改都 監儀軌(원)	康熙六年七月 日 永 寧殿修改都監儀軌	전체 51.0×38.9×5.2 변철 2.7 원환 3.8 / 3.0 국화동 2.4
외규27 / 외규321 (coréen 2654)	정종후릉수개도감의궤 定宗厚陵修改都監儀軌	현종 8 (1667)	37	유일	어람건	—	厚陵修改都監 儀軌(원)	康熙六年丁未十 月初九日 厚陵修改都 監儀軌	전체 50.3×38.5×1.5 변철 2.6 원환 2.7 / 1.9 국화동 2.1
외규28 / 외규322 (coréen 2442)	집상전수개도감의궤 集祥殿修改都監儀軌	현종 9 (1668)	54	유일	어람건	—	결락	결락	전체 52.5×36.2×2.3 변철 2.6 원환 3.2 / 2.5 국화동 2.5
외규29 / 외규323 (coréen 2576)	신덕왕후부묘도감의궤 神德王后耐廟都監儀軌	현종 11 (1670)	197		어람건	반차도 12면, 도설 채색	결락	康熙八年己酉十月 日 耐廟都監都廳 儀軌	전체 50.2×37.9×6.3 변철 2.4 원환 3.2 / 2.4 국화동 2.0
외규30 / 외규324 (coréen 2526)	숙종인경왕후가례도감의궤 肅宗仁敬王后嘉禮都監儀軌	현종 12 (1671)	239		어람건	반차도 12면, 도설 채색	嘉禮都監儀軌 (원)	康熙十年辛亥四月 日 嘉禮都監王世子 嘉禮時都廳儀軌	전체 50.4×38.3×6.4 변철 2.9 원환 4.1 / 3.3 국화동 2.3

변철 상세 정보	장황 재료	책의 직물명 (직조방법)	책의 직물 상세 정보	책의 직물 크기	제침 직물명 (직조방법)	홍협 직물명 (직조방법)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①사합여의형+만자형꼬리 ②구름(6.6×4.3), 구름+꼬리(14.0×7.6) ④제침은 개장된 책의(외규21)로 옮겨짐 구름무늬 총마다 시계방향으로 180° 회전 단위무늬(11.2×10.5)	47.8 × 35.3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①사합여의형+만자형꼬리 ②구름(6.6×4.3), 구름+꼬리(14.0×7.6) ④제침은 개장된 책의(외규21)로 옮겨짐 구름무늬 총마다 시계방향으로 180° 회전 단위무늬(11.2×10.5)	47.4 × 34.2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2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뿔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①사합여의형+만자형꼬리 ②구름(6.7×4.8), 구름+꼬리(14.0×8.6) ④구름무늬 총마다 시계방향으로 180° 회전 단위무늬(11.4×11.9)	47.7 × 34.9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①사합여의형+만자형꼬리 ②구름(6.8×4.1), 구름+꼬리(14.1×8.1) ④구름무늬 총마다 시계방향으로 180° 회전 단위무늬(11.4×11.9)	47.5 × 34.9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문 (바닥조작:2/1 경능직-좌상향, 무늬조작:5/1 위능직-좌상향)	①사합여의형+만자형꼬리 ②구름(5.0×2.0), 구름+꼬리(11.2×4.2) ④구름무늬 총마다 시계방향으로 180° 회전 단위무늬(16.8×30.8) 무늬와 무늬 사이에 여백(15.1~15.8) 있음	49.4 × 35.9	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조작:3/1 위능직-우상향)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문단 (바닥조작:5매2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뿔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꼬리(좌상향) ②구름(13.3×10.1), 꼬리(16.2×5.9) ④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33.8×32.1)	50.5 × 38.8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①사합여의형+만자형꼬리 ②구름(6.7×4.5), 구름+꼬리(14.2×7.9) ④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22.1×21.7)	50.4 × 38.3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천화봉문단 (바닥조작:5매2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뿔 위주자)	①연꽃넝쿨무늬+모란넝쿨무늬+봉황무늬 ②연꽃(6.3×5.2), 모란(6.4×5.2), 봉황(6.5×7.1, 6.4×5.6) ④단위무늬(11.3×18.5)	52.1 × 35.9	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조작:5매3뿔 경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꼬리(좌상향) ②구름(6.6×4.7), 꼬리(9.7×2.5) ③전보.방승.보.(쌍)서보.(쌍)서각.화주.여의.산호 ④구름무늬 총마다 시계방향으로 180° 회전 단위무늬(11.7×13.7)	50.0 × 37.5	—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꼬리(좌상향) ②구름(7.0×6.1), 꼬리(9.2×3.5) ③전보.방승.보.(단)서보.(단)서각.화주.여의.산호 ④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11.6×16.0)	49.9 × 38.1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2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뿔 위주자)	—

유물 번호	서명	제작 시기	장수	유일본 여부	어람건/분상건	도설 및 반차도	표제	내제	크기
외규31 / 외규325 (coréen 2405)	인선왕후영릉산릉도감의궤 (상) 仁宣王后寧陵山陵都監儀軌 (上)	현종 15 (1674)	141		어람건	도설 채색	山陵都監儀軌 上	康熙十三年二月日 山陵都監儀軌目錄券之上	전체 51.5×37.5×5.2 변철 2.7 원환 3.0 / 2.0 국화동 1.8
외규32 / 외규326 (coréen 2413)	인선왕후영릉산릉도감의궤 (하) 仁宣王后寧陵山陵都監儀軌 (下)	현종 15 (1674)	201		어람건	—	山陵都監儀軌 下	康熙十三年二月日 山陵都監儀軌券之下	전체 51.5×37.6×7.0 변철 2.7 원환 3.0 / 2.0 국화동 1.8
외규33 / 외규327 (coréen 2598)	인선왕후빈전도감의궤 仁宣王后殯殿都監儀軌	현종 15 (1674)	248		어람건	—	殯殿都監儀軌 (원)	殯殿都監儀軌	전체 50.5×36.9×6.2 변철 2.7 원환 3.3 / 2.6 국화동 2.0
외규34 / 외규328 (coréen 2497)	인선왕후혼전도감의궤 仁宣王后魂殿都監儀軌	현종 15 (1674)	179	유일	어람건	—	魂殿都監儀軌 (원)	魂殿都監儀軌	전체 50.5×36.9×5.5 변철 2.8 원환 3.3 / 2.5 국화동 1.9
외규35 (coréen 2553)	인선왕후국장도감의궤 (1) 仁宣王后國葬都監儀軌 (一)	현종 15 (1674)	182		어람건	—	國葬·軌 第一	康熙十三年甲寅六月日 國葬都監都廳儀軌	전체 49.6×36.5×6.5 변철 2.8 원환 3.3 / 2.4 국화동 1.8
외규36 / 외규329 (coréen 2633)	인선왕후국장도감의궤 (2) 仁宣王后國葬都監儀軌 (二)	현종 15 (1674)	225		어람건	도설 채색	國葬都監儀軌 第二(원)	康熙十三年甲寅六月日 國葬都監一房儀軌	전체 49.9×36.8×7.0 변철 2.7 원환 3.3 / 2.6 국화동 2.0
외규37 (coréen 2556)	인선왕후국장도감의궤 (3) 仁宣王后國葬都監儀軌 (三)	현종 15 (1674)	236		어람건	도설 채색	國葬都監儀軌 第三終	康熙十三年六月日 國葬都監三房儀軌	전체 49.8×36.8×7.6 변철 2.7 원환 3.3 / 2.5 국화동 1.8
외규38 / 외규330 (coréen 2404)	현종승릉산릉도감의궤 (상) 顯宗崇陵山陵都監儀軌 (上)	숙종 즉위 (1674)	198		어람건	도설 채색	山陵都監儀軌 上卷	康熙十三年八月日 山陵都監儀軌	전체 51.1×37.2×7.0 변철 2.8 원환 3.2 / 2.4 국화동 1.7
외규39 / 외규331 (coréen 2420)	현종승릉산릉도감의궤 (하) 顯宗崇陵山陵都監儀軌 (下)	숙종 즉위 (1674)	221		어람건	—	山陵都監儀軌 下卷	三物所	전체 51.3×37.0×7.9 변철 2.8 원환 3.1 / 2.3 국화동 1.9
외규40 / 외규332 (coréen 2599)	현종빈전도감의궤 顯宗殯殿都監儀軌	숙종 1 (1675)	200		어람건	도설 채색	—	殯殿都監儀軌	전체 50.2×35.5×5.7 변철 2.7 원환 3.1 / 2.2 국화동 1.9

변철 상세 정보	장황 재료	책의 직물명 (직조방법)	책의 직물 상세 정보	책의 직물 크기	제침 직물명 (직조방법)	홍첩 직물명 (직조방법)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연화모란문단 (바닥조작:5매2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뿔 위주자)	①연꽃넝쿨무늬+모란넝쿨무늬 ②연꽃(4.7×6.9), 모란(5.3×5.8) ④제침은 개장된 책의(외규31)로 옮겨짐 단위무늬(10.7×12.7)	51.2 × 37.4	만자문지화문단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연화모란문단 (바닥조작:5매2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뿔 위주자)	①연꽃넝쿨무늬+모란넝쿨무늬 ②연꽃(4.7×6.9), 모란(5.3×5.8) ④제침은 개장된 책의(외규32)로 옮겨짐 단위무늬(10.7×12.7)	51.2 × 37.4	만자문지화문단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푸른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뿔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고리(우상향) ②구름(6.5×5.4), 고리(9.7×3.5) ③전보.방승.보.(단)서보.화주.여의.산호.만자 ④푸른색 표지, 구름무늬 총마다 시계방향으로180°회전 단위무늬(11.1×14.0)	50.0 × 36.6	만자문지화문단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푸른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뿔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고리(우상향) ②구름(6.4×4.9), 고리(9.0×3.1) ③전보.방승.보.(단)서보.화주.여의.산호.만자 ④푸른색 표지, 구름무늬 총마다 시계방향으로180°회전 단위무늬(11.1×14.0)	51.1 × 35.6	만자문지화문단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원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뿔 위주자)	*개장되지 않은 원 책의 그대로임 ①사합여의형+사선형고리(우상향) ②구름(6.9×6.9), 고리(9.0×3.8) ③전보.방승.보.(단)서보.(단)서각.화주.여의.산호 ④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단위무늬(11.6×18.3)	49.6 × 36.5	만자문지화문단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고리(우상향) ②구름(6.8×6.3), 고리(9.0×3.8) ③전보.방승.보.(단)서보.(단)서각.화주.여의.산호 ④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단위무늬(11.6×17.5)	49.2 × 36.8	만자문지화문단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원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개장되지 않은 원 책의 그대로임 ①사합여의형+사선형고리(우상향) ②구름(6.8×6.4), 고리(9.0×3.6) ③전보.방승.보.(단)서보.(단)서각.화주.여의.산호 ④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단위무늬(11.6×16.8)	49.8 × 36.8	만자문지화문단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의 원장 책지 초주지	초록연화보문단 (바닥조작:5매2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뿔 위주자)	①측면형과 보상화형 교차 배치 ②측면형(5.2×5.0), 보상화형(5.3×4.5) ③전보.방승.보.(단)서보.(단)서각.여의.산호 ④앞·뒤표지 직물은 식서방향 90° 회전되어 장황됨 제침은 개장된 책의(외규38)로 옮겨짐 단위무늬(14.8×10.8)	51.5 × 36.4	여의기하문단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고리(우상향) ②구름(6.6×6.2), 고리(8.7×3.6) ③전보.방승.보.(단)서보.(단)서각.화주.여의.산호 ④제침은 개장된 책의(외규39)로 옮겨짐 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10.8×17.2)	51.0 × 36.8	여의기하문단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고리(우상향) ②구름(6.6×6.5), 고리(8.7×3.0) ③전보.방승.보.(단)서보.(단)서각.화주.여의.산호 ④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10.8×16.3)	51.0 × 35.2	—	—

유물 번호	서명	제작 시기	장수	유일본 여부	어람건/ 분상건	도설 및 반차도	표제	내제	크기
외규41 / 외규333 (coréen 2498)	현종훈전도감의궤 顯宗魂殿都監儀軌	속종 1 (1675)	147		어람건	—	魂殿…(원)	魂殿都監儀軌	전체 50.2×35.4×4.1 변철 2.6 원환 3.0 / 2.4 국화동 2.0
외규42 / 외규334 (coréen 2435)	인선왕후부묘도감의궤 仁宣王后附廟都監儀軌	속종 2 (1676)	135		어람건	반차도 18면, 도설 채색	附廟都監 儀軌	康熙十五年丙辰六 月二十五日 附廟都 監都廳儀軌	전체 49.4×35.0×4.2 변철 2.8 원환 3.0 / 2.0 국화동 2.0
외규43 / 외규335 (coréen 2642)	인경왕후책례도감의궤 仁敬王后册禮都監儀軌	속종 3 (1677)	137		어람건	도설 채색	册禮都監儀軌 (원)	康熙十六年丁巳四 月日 册禮都監都廳 儀軌	전체 46.6×35.3×3.8 변철 3.1 원환 3.2 / 2.4 국화동 2.2
외규44 / 외규336 (coréen 2666)	장렬왕후명성왕후존순도감의궤 莊烈王后明聖王后尊崇都監儀軌	속종 3 (1677)	156		어람건	도설 채색	尊崇都監儀軌 (원)	康熙十六年丁巳四 月日 尊崇都監都廳 儀軌	전체 46.5×35.4×4.0 변철 3.1 원환 3.1 / 2.1 국화동 2.2
외규45 / 외규337 (coréen 2591)	별삼방의궤 別三房儀軌	속종 3 (1677)	74	유일	어람건	—	別三房儀軌(원)	康熙十六年丁巳四 月日 別三房儀軌	전체 46.5×35.4×2.2 변철 3.1 원환 3.2 / 1.4 국화동 2.2
외규46 / 외규338 (coréen 2587)	남별전중건청의궤 南別殿重建廳儀軌	속종 3 (1677)	109		어람건	—	…別殿重建廳 儀軌(원)	康熙十六年丁巳九 月二十九日 南別殿 重建廳儀軌	전체 49.1×35.7×3.5 변철 2.9 원환 3.1 / 2.4 국화동 2.2
외규47 / 외규339 (coréen 2575)	보사녹훈도감의궤 保社錄勳都監儀軌	속종 8 (1682)	196	유일	어람건	—	…勳都監儀軌 (원)	康熙十九年庚申四 月日 錄勳都監儀軌	전체 51.1×31.9×4.9 변철 2.6 원환 3.2 / 2.6 국화동 2.0
외규48 / 외규340 (coréen 2411)	인경왕후익릉산릉도감의궤 (상) 仁敬王后翼陵山陵都監儀軌 (上)	속종 7 (1681)	297		어람건	도설 채색	山陵都監儀軌 上	康熙十九年庚申十 月日 山陵都監儀軌	전체 49.5×37.0×7.8 변철 2.7 원환 4.7 / 2.7 국화동 1.9
외규49 / 외규341 (coréen 2421)	인경왕후익릉산릉도감의궤 (하) 仁敬王后翼陵山陵都監儀軌 (下)	속종 7 (1681)	226		어람건	—	山陵都監儀軌 下	三物所	전체 49.5×36.8×6.5 변철 2.7 원환 3.8 / 2.9 국화동 2.0
외규50 / 외규342 (coréen 2600)	인경왕후빈전도감의궤 仁敬王后殯殿都監儀軌	속종 7 (1681)	224		어람건	도설 채색	결락	殯殿都監儀軌	전체 48.9×35.0×5.8 변철 2.9 원환 3.3 / 2.2 국화동 2.2

변철 상세 정보	장황 재료	책의 직물명 (직조방법)	책의 직물 상세 정보	책의 직물 크기	제침 직물명 (직조방법)	홍협 직물명 (직조방법)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고리(우상향) ②구름(6.5×6.8), 꼬리(8.8×4.2) ③전보.방승.보.(단)서보.(단)서각.화주.여의.산호 ④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11.1×18.2)	49.7 × 35.4	화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조작:5매3뿔 경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고리(우상향) ②구름(6.7×5.8), 꼬리(8.8×3.2) ③전보.방승.보.(단)서보.(단)서각.화주.여의.산호 ④제침은 개장된 책의(외규42)로 옮겨짐 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11.3×16.4)	49.0 × 34.9	만자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고리(우상향) ②구름(6.5×6.6), 꼬리(8.9×2.7) ③전보.방승.보.(단)서보.(단)서각.화주.여의.산호 ④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11.1×14.4)	46.2 × 34.5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고리(우상향) ②구름(6.6×6.5), 꼬리(8.8×3.2) ③전보.방승.보.(단)서보.(단)서각.여의.화주.산호 ④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11.1×16.5)	46.2 × 34.8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고리(우상향) ②구름(6.6×6.2), 꼬리(8.6×3.5) ③전보.방승.보.(단)서보.(단)서각.화주.여의.산호 ④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22.5×16.6)	46.0 × 35.2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고리(우상향) ②구름(6.7×5.3), 꼬리(8.6×1.7) ③전보.방승.보.(단)서보.(단)서각.화주.여의.산호 ④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11.4×15.1)	48.7 × 34.9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연화문단 (바닥조작:5매2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뿔 위주자)	①측면형과 보상화형 교차 배치 ②측면형(6.0×4.6), 보상화형(6.4×5.2) ④단위무늬(11.1×14.3)	50.8 × 31.6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민무늬, '경신庚申' 묵서)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뿔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고리(우상향) ②구름(8.0×5.4), 꼬리(10.0×6.6) ③전보.방승(만자)보.(단)서보.(단)서각.화주.여의.산호.만자 ④제침은 개장된 책의(외규48)로 옮겨짐 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11.1×21.1)	49.2 × 36.8	만자문지조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
무늬(민무늬, '경신庚申' 묵서)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뿔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고리(우상향) ②구름(7.5×5.6), 꼬리(10.0×6.8) ③전보.방승(만자)보.(단)서보.(단)서각.화주.여의.산호.만자 ④제침은 개장된 책의(외규49)로 옮겨짐 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21.9×11.3)	49.2 × 36.8	만자문지여의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
무늬(민무늬, '경신庚申' 묵서)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뿔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고리(우상향) ②구름(7.4×8.4), 꼬리(8.7×6.1) ③전보.방승.보.(쌍)서보.(쌍)서각.화주.여의.산호 ④뒤표지는 종이만 남음 구름무늬 층마다 시계방향으로 180° 회전 단위무늬(11.3×26.6)	48.7 × 34.8	—	—

유물 번호	서명	제작 시기	장수	유일본 여부	어람건/ 분상건	도설 및 반차도	표제	내제	크기
외규51 / 외규343 (coréen 2499)	인경왕후훈전도감의궤 仁敬王后魂殿都監儀軌	숙종 7 (1681)	173		어람건	—	魂殿都監儀軌 (원)	魂殿都監儀軌	전체 48.6×35.0×4.7 변철 3.0 원환 3.3 / 2.4 국화동 2.3
외규52 / 외규344 (coréen 2558)	인경왕후국장도감의궤 (상) 仁敬王后國葬都監儀軌 (上)	숙종 7 (1681)	261		어람건	반차도 20면, 도설 채색	國葬都監儀軌 庚申 上(원)	康熙二十年二月日 國葬都監都廳儀軌	전체 48.9×37.3×6.6 변철 2.7 원환 3.7 / 2.6 국화동 2.0
외규53 / 외규345 (coréen 2557)	인경왕후국장도감의궤 (하) 仁敬王后國葬都監儀軌 (下)	숙종 7 (1681)	260		어람건	도설 채색	國葬都監儀軌 庚申…(원)	康熙二十年辛酉二 月日 國葬都監二房 儀軌	전체 49.0×37.1×7.2 변철 2.7 국화동 1.8
외규54 / 외규346 (coréen 2527)	숙종인현왕후가례도감의궤 肅宗仁顯王后嘉禮都監儀軌	숙종 7 (1681)	347		어람건	반차도 18면, 도설 채색	…嘉禮都監儀 軌(원)	康熙二十年辛酉五 月日 嘉禮都監都廳 儀軌	전체 48.9×36.1×9.5 변철 2.7 국화동 2.4(뒤: 2.0)
외규55 (coréen 2510)	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의궤 定宗定安王后諡號都監儀軌	숙종 7 (1681)	125		어람건	도설 채색	諡號都監儀軌	諡號都監儀軌	전체 47.3×34.1×4.0 변철 2.8 원환 3.5 / 2.8 국화동 2.1
외규56 / 외규347 (coréen 2509)	태조신왕후태종원경왕후시호 도감의궤 太祖神懿王后太宗元敬王后諡號 都監儀軌	숙종 9 (1683)	171		어람건	도설 채색	諡號…(원)	諡號都監儀軌	전체 44.7×34.2×5.1 변철 2.5 원환 3.2 / 2.3 국화동 1.8
외규57 / 외규348 (coréen 2406)	명성왕후송릉산릉도감의궤 (상) 明聖王后崇陵山陵都監儀軌 (上)	숙종 10 (1684)	130		어람건	도설 채색	山陵都監儀軌 上	康熙二十二年癸亥 十二月日 山陵都監 儀軌	전체 47.2×34.8×4.0 변철 2.5 원환 3.8 / 2.9 국화동 2.0
외규58 / 외규349 (coréen 2588)	명성왕후송릉산릉도감의궤 (하) 明聖王后崇陵山陵都監儀軌 (下)	숙종 10 (1684)	163		어람건	—	山陵都監儀軌 下(원)	三物所	전체 47.5×34.9×4.7 변철 2.5 원환 3.8 / 2.9 국화동 2.0
외규59 / 외규350 (coréen 2601)	명성왕후빈전도감의궤 明聖王后殯殿都監儀軌	숙종 10 (1684)	164		어람건	도설 채색	殯殿都監儀軌 (원)	殯殿都監儀軌	전체 48.0×35.9×4.7 변철 2.6 원환 3.4 / 2.6 국화동 2.1
외규60 / 외규351 (coréen 2501)	명성왕후훈전도감의궤 明聖王后魂殿都監儀軌	숙종 10 (1684)	161		어람건	—	魂殿都監儀軌 (원)	魂殿都監儀軌	전체 48.0×35.6×4.9 변철 2.6 원환 3.5 / 2.7 국화동 2.0

변철 상세 정보	장황 재료	책의 직물명 (직조방법)	책의 직물 상세 정보	책의 직물 크기	제침 직물명 (직조방법)	홍첩 직물명 (직조방법)
무늬(민무늬, '경신庚申' 묵서)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뿔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꼬리(우상향) ②구름(7.3×7.9), 꼬리(8.8×5.6) ③전보.방승.보.(쌍)서보.(쌍)서각.여의.화주.산호 ④구름무늬 총마다 시계방향으로 180° 회전 단위무늬(11.5×25.0)	48.6 × 34.9	만자문지국화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조작:5매3뿔 경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뿔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꼬리(좌상향) ②구름(6.5×5.3), 꼬리(9.1×3.4) ③전보.방승.보.(단)서보.화주.여의.산호.만자 ④구름무늬 총마다 시계방향으로 180° 회전 단위무늬(11.1×13.3)	48.5 × 36.8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유실)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뿔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꼬리(좌상향) ②구름(6.5×5.3), 꼬리(9.1×3.4) ③전보.방승.보.(단)서보.화주.여의.산호.만자 ④구름무늬 총마다 시계방향으로 180° 회전 단위무늬(11.1×13.3)	48.4 × 36.9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유실)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꼬리(우상향) ②구름(6.6×6.2), 꼬리(8.8×3.2) ③전보.방승.보.(단)서보.(단)서각.화주.여의.산호 ④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11.1×15.8)	48.2 × 34.4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원장 책지 초주지	초록천화봉문단 (바닥조작:5매2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뿔 위주자)	*개장되지 않은 원 책의 그대로임 ①연꽃.넝쿨무늬+모란.넝쿨무늬+봉황무늬 ②연꽃(6.3×5.2), 모란(6.4×5.2), 봉황(6.5×7.1, 6.4×5.6) ④단위무늬(11.3×18.5)	47.3 × 34.1	만자문지여의문단 (바닥조작:5매2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뿔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꼬리(우상향) ②구름(6.7×5.4), 꼬리(8.8×3.5) ③전보.방승.보.(쌍)서보.(단)서각.화주.여의.산호 ④구름무늬 총마다 시계방향으로 180° 회전 단위무늬(10.3×15.3)	44.3 × 32.6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2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뿔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꼬리(우상향) ②구름(6.8×6.0), 꼬리(8.9×3.2) ③전보.방승.보. 화주.여의.산호.(단)서보.(단)서각 ④제침은 개장된 책의(외규57)로 옮겨짐 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11.2×16.2)	46.8 × 34.5	능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꼬리(우상향) ②구름(6.8×6.0), 꼬리(8.9×3.2) ③전보.방승.보.화주.여의.산호.(단)서보.(단)서각 ④제침은 개장된 책의(외규57)로 옮겨짐 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11.2×16.2)	46.2 × 33.5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2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뿔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뿔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꼬리(좌상향) ②구름(6.7×5.8), 꼬리(9.5×3.6) ③전보.방승.보.(단)서보.화주.여의.산호.만자 ④구름무늬 총마다 시계방향으로 180° 회전 단위무늬(11.0×13.9)	47.5 × 35.2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뿔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꼬리(좌상향) ②구름(6.5×5.9), 꼬리(9.6×3.6) ③전보.방승.보.(단)서보.여의.화주.산호.만자 ④구름무늬 총마다 시계방향으로 180° 회전 단위무늬(12.1×14.2)	47.8 × 35.2	만자문지화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조작:5매3뿔 경주자)	—

유물 번호	서명	제작 시기	장수	유일본 여부	어람건/분상건	도설 및 반차도	표제	내제	크기
외규61 / 외규352 (coréen 2559)	명성왕후국장도감의궤 (하) 明聖王后國葬都監儀軌(下)	속종 10 (1684)	275		어람건	도설 채색	國葬都監儀軌 癸亥 下(원)	康熙二十三年四月 日 國葬都監二房儀軌	전체 49.6×36.3×8.6 변철 2.7 원환 4.0 / 3.0 국화동 2.2
외규62 / 외규353 (coréen 2577)	명성왕후부묘도감의궤 明聖王后附廟都監儀軌	속종 12 (1686)	160		어람건	반차도 20면, 도설 채색	—	康熙二十五年丙寅 閏四月二 十八日 附廟都監都 廳儀軌	전체 46.5×34.5×4.4 변철 2.5 원환 3.4 / 2.4 국화동 2.1
외규63 (coréen 2667)	장렬왕후존숭도감의궤 莊烈王后尊崇都監儀軌	속종 12 (1686)	154		어람건	도설 채색	尊崇都監儀軌	康熙二十五年五月 日 尊崇都監都廳 儀軌	전체 46.2×35.0×4.4 변철 2.5 원환 2.9 / 2.1 국화동 2.0
외규64 / 외규354 (coréen 2653)	장렬왕후책보수개도감의궤 莊烈王后冊寶修改都監儀軌	속종 14 (1688)	107		어람건	—	冊寶修改都監 儀軌(원)	康熙二十六年十二 月日 冊寶修改都監 儀軌	전체 46.4×34.3×3.3 변철 2.4 원환 3.4 / 2.6 국화동 2.0
외규65 / 외규355 (coréen 2407)	장렬왕후휘릉산릉도감의궤 (상) 莊烈王后徽陵山陵都監儀軌(上)	속종 15 (1689)	165		어람건	도설 채색	山陵都監儀軌 上	康熙二十七年戊辰 八月日 山陵都監 儀軌	전체 46.8×35.5×5.0 변철 2.6 원환 3.9 / 3.0 국화동 2.2
외규66 / 외규356 (coréen 2625)	장렬왕후휘릉산릉도감의궤 (하) 莊烈王后徽陵山陵都監儀軌(下)	속종 15 (1689)	218		어람건	—	…都監儀軌 下 (원)	三物所	전체 46.7×35.6×6.1 변철 2.5 원환 4.2 / 3.2 국화동 2.0
외규67 / 외규357 (coréen 2607)	장렬왕후빈전도감의궤 莊烈王后殯殿都監儀軌	속종 15 (1689)	227	유일	어람건	도설 채색	殯殿都監儀軌 (원)	殯殿都監儀軌	전체 47.7×36.4×7.0 변철 2.6 국화동 2.0
외규68 / 외규358 (coréen 2502)	장렬왕후혼전도감의궤 莊烈王后魂殿都監儀軌	속종 15 (1689)	200	유일	어람건	—	魂殿都監儀軌 (원)	魂殿都監儀軌	전체 47.6×36.2×6.5 변철 2.6 원환 4.3 / 3.4 국화동 2.0
외규69 / 외규359 (coréen 2628)	장렬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莊烈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속종 15 (1689)	407		분상건 (분상처 미상)	도설 채색	莊烈王后殯 殿… (이제)	殯殿都監儀軌	전체 46.2×36.2×11.2 변철 2.0~2.3 원환 4.5 / 3.4
외규70 / 외규360 (coréen 2561)	장렬왕후국장도감의궤 (상) 莊烈王后國葬都監儀軌(上)	속종 15 (1689)	327	유일	어람건	반차도 26면, 도설 채색	國葬都監儀軌 乾(원)	康熙二十七年十二 月日 國葬都監都廳 儀軌	전체 48.6×38.0×9.3 변철 2.4 원환 3.2 / 2.5 국화동 2.0

변철 상세 정보	장황 재료	책의 직물명 (직조방법)	책의 직물 상세 정보	책의 직물 크기	제침 직물명 (직조방법)	홍첩 직물명 (직조방법)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3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됨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꼬리(우상향) ②구름(6.8×7.0), 꼬리(9.1×3.4) ③전보.방승.보.(단)서보.(단)서각.화주.여의.산호 ④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11.1×17.8)	49.2 × 35.9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3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됨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됨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꼬리(우상향) ②구름(7.2×7.2), 꼬리(8.9×6.4) ③전보.방승.보.(쌍)서보.(쌍)서각.화주.여의.산호 ④구름무늬 층마다 시계방향으로 180° 회전 단위무늬(12.2×25.0)	46.3 × 34.5	—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원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됨 위주자)	*개장되지 않은 원 책의 그대로임 ①사합여의형+사선형꼬리(좌상향) ③전보.방승.보.서보.서각.여의.화주.산호	46.2 × 35.0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2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됨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됨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꼬리(좌상향) ②구름(6.9×6.6), 꼬리(10.2×5.8) ③전보.방승.보.(단)서보.(단)서각.여의.화주.산호 ④구름무늬 층마다 시계방향으로 180° 회전 단위무늬(14.0×23.8)	46.2 × 34.1	만자문지능문단 (바닥조작:5매3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됨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연화문단 (바닥조작:5매2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됨 위주자)	①측면형과 보상화형 교차 배치 ②측면형(6.2×5.3), 보상화형(6.0×5.2) ④제침은 개장된 책의(외규65)로 옮겨짐 단위무늬(11.0×15.2)	46.4 × 35.4	만자능문지운문단 (바닥조작:5매3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됨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연화문단 (바닥조작:5매2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됨 위주자)	①측면형과 보상화형 교차 배치 ②측면형(6.2×5.3), 보상화형(6.0×5.2) ④단위무늬(11.0×15.2)	46.5 × 34.7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3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됨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유실)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됨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꼬리(좌상향) ②구름(7.0×8.2), 꼬리(8.4×8.6) ③전보.방승.보.(쌍)서보.(쌍)서각.화주.여의.산호.보 ④구름무늬 층마다 시계방향으로 180° 회전 단위무늬(12.0×30.0)	47.4 × 36.4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3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됨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됨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꼬리(좌상향) ②구름(7.2×7.6), 꼬리(8.4×8.6) ③전보.방승.보.(쌍)서보.(쌍)서각.화주.여의.산호 ④구름무늬 층마다 시계방향으로 180° 회전 단위무늬(12.0×30.0)	47.3 × 36.3	만자문지능문단 (바닥조작:5매3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됨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3개	변철 강철[正鐵] 책의 개장 책지 저주지	홍색마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직물은 양·뒤표지 변철 부분만 남아 있음 개장된 책의(외규69)의 안쪽에 표제가 묵서된 층이가 있음	44.9 × 34.5	—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3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됨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꼬리(좌상향) ②구름(6.5×6.6), 꼬리(8.5×3.5) ③전보.방승.보.(쌍)서보.(단)서각.화주.여의.산호 ④구름무늬 층마다 시계방향으로 180° 회전 단위무늬(12.0×17.8)	48.0 × 38.1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3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됨 위주자)	—

유물 번호	서명	제작 시기	장수	유일본 여부	어람건/분상건	도설 및 반차도	표제	내제	크기
외규71 / 외규361 (coréen 2560)	장렬왕후국장도감의궤 (하) 莊烈王后國葬都監儀軌(下)	숙종 15 (1689)	302		어람건	도설 채색	國葬都監儀軌 坤(원)	康熙二十七年戊辰十二月日 國葬都監二房儀軌	전체 48.3×37.7×9.5 변철 2.3 원환 3.3 / 2.5 국화동 2.0
외규72 / 외규362 (coréen 2685)	경종왕세자책례도감의궤 景宗王世子册禮都監儀軌	숙종 16 (1690)	213		어람건	반차도 12면, 도설 채색	王世子册禮都監儀軌(원)	康熙二十九年六月日 册禮都監儀軌	전체 48.4×36.1×6.8 변철 2.5 원환 3.9 / 3.0 국화동 2.2
외규73 / 외규363 (coréen 2643)	희빈중궁전책례도감의궤 禧嬪中宮殿册禮都監儀軌	숙종 16 (1690)	214		어람건	도설 채색	册禮都監儀軌(원)	康熙二十九年庚午十月日 册禮都監都廳儀軌	전체 47.2×36.6×7.0 변철 2.8 원환 4.2 / 3.2 국화동 2.4
외규74 / 외규364 (coréen 2434)	장렬왕후부묘도감의궤 莊烈王后附廟都監儀軌	숙종 17 (1691)	166		어람건	반차도 28면, 도설 채색	附廟都監都廳儀軌	康熙三十年月日 附廟都監都廳儀軌	전체 48.2×34.7×5.5 변철 2.4 원환 3.7 / 2.8 국화동 2.0
외규75 / 외규365 (coréen 2551)	경덕궁수리소의궤 慶德宮修理所儀軌	숙종 19 (1693)	79	유일	어람건	—	慶德宮修理所儀軌(원)	康熙三十二年癸酉六月日 慶德宮修理所儀軌	전체 48.6×35.0×2.8 변철 2.6 원환 4.0 / 3.2 국화동 2.3
외규76 / 외규366 (coréen 2427)	보사복훈도감의궤 保社復勳都監儀軌	숙종 21 (1695)	141	유일	어람건	—	復勳都監儀軌	康熙三十三年甲戌五月日 復勳都監儀軌	전체 51.1×31.4×3.2 변철 2.8 원환 3.2 / 2.3 국화동 2.0
외규77 / 외규367 (coréen 2528)	경덕단의왕후가례도감의궤 景宗端懿王后嘉禮都監儀軌	숙종 22 (1696)	318		어람건	반차도 12면, 도설 채색	嘉禮都監儀軌(원)	康熙三十五年丙子五月日 嘉禮都監王世子嘉禮時都廳儀軌	전체 47.4×36.8×9.0 변철 2.4 원환 3.3 / 2.5 국화동 1.9
외규78 / 외규368 (coréen 2614)	정순왕후사릉봉릉도감의궤 定順王后思陵封陵都監儀軌	숙종 25 (1699)	268		어람건	도설 채색	思陵都監儀軌(원)	康熙三十七年戊寅十月日 封陵都監儀軌	전체 47.6×35.2×7.6 변철 3.3 원환 3.7 / 2.8 국화동 2.0
외규79 / 외규369 (coréen 2627)	단종장릉봉릉도감의궤 端宗莊陵封陵都監儀軌	숙종 25 (1699)	299		어람건	도설 채색	莊陵都監儀軌(원)	康熙三十七年戊寅十一月日 封陵都監儀軌	전체 46.0×34.5×8.1 변철 3.2 원환 4.3 / 3.4, 3.7 / 2.9 국화동 1.9
외규80 / 외규370 (coréen 2428)	단종정순왕후복위부묘도감의궤 端宗定順王后復位附廟都監儀軌	숙종 25 (1699)	356		어람건	반차도 30면, 도설 채색	復位附廟都監儀軌	復位附廟都監儀軌	전체 45.2×36.0×10.0 변철 3.0 원환 3.5 / 2.7 국화동 2.0

변철 상세 정보	장황 재료	책의 직물명 (직조방법)	책의 직물 상세 정보	책의 직물 크기	제침 직물명 (직조방법)	홍협 직물명 (직조방법)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3점 경주자, 무늬조작: 5매3점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꼬리(좌상향) ②구름(6.5×6.6), 꼬리(8.4×3.5) ③전보,방승,보,(쌍)서보,(단)서각,화주,여의,산호 ④구름무늬 총마다 시계방향으로 180° 회전 단위무늬(12.0×17.8)	48.0 × 37.8	화문단 (바닥조작:5매3점 경주자, 무늬조작: 5매3점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점 경주자, 무늬조작: 5매2점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꼬리(우상향) ②구름(6.5×6.6), 꼬리(8.6×3.7) ③전보,방승,보,(단)서보,(쌍)서각,여의,화주,산호 ④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11.2×17.4)	48.2 × 36.1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3점 경주자, 무늬조작: 5매3점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점 경주자, 무늬조작: 5매2점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꼬리(좌상향) ②구름(6.5×6.3), 꼬리(9.8×5.5) ③전보,방승,보,(단)서보,(단)서각,여의,화주,산호 ④구름무늬 총마다 시계방향으로 180° 회전 단위무늬(13.4×22.2)	47.0 × 37.1	연화문단 (바닥조작:5매2점 경주자, 무늬조작: 5매2점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화문릉 (바닥조작:2/1 경능직-좌상향, 무늬조작:3/1 위능직-좌상향)	①작은 꽃무늬(두종류) ②꽃(4.2×4.8), 꽃(4.0×4.6) ④제침은 개장된 책의(외규74)로 옮겨짐 단위무늬(7.5×12.0)	46.3 × 36.2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3점 경주자, 무늬조작: 5매3점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점 경주자, 무늬조작: 5매2점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꼬리(우상향) ②구름(6.5×7.3), 꼬리(9.6×5.6) ③전보,방승,보,(단)서보,(쌍)서각,화주,여의,산호 ④구름무늬 총마다 시계방향으로 180° 회전 단위무늬(12.5×25.4)	48.5 × 34.5	연화문단 (바닥조작:5매3점 경주자, 무늬조작: 5매3점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문단 (바닥조작:5매2점 경주자, 무늬조작: 5매2점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꼬리(좌상향) ②구름(11.9×11.0), 꼬리(14.6×5.5) ④제침과 홍협은 개장된 책의(외규76)로 옮겨짐 구름무늬 총마다 시계방향으로 180° 회전 단위무늬(22.8×28.8)	51.0 × 31.7	여의기하문단 (바닥조작:5매3점 경주자, 무늬조작: 5매3점 위주자)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점 경주자, 무늬조작: 5매2점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꼬리(좌상향) ②구름(6.5×5.0), 꼬리(9.8×4.4) ③전보,방승,보,(단)서보,(단)서각,화주,여의,산호 ④구름무늬 총마다 시계방향으로 180° 회전 단위무늬(13.4×17.5)	46.8 × 36.7	화문단 (바닥조작:5매3점 경주자, 무늬조작: 5매3점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3점 경주자, 무늬조작: 5매3점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꼬리(좌상향) ②구름(5.9×6.3), 꼬리(8.1×3.8) ③전보,방승,보,(쌍)서보,(쌍)서각,화주,여의,산호 ④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11.4×18.0)	47.4 × 35.5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3점 경주자, 무늬조작: 5매3점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3점 경주자, 무늬조작: 5매3점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꼬리(우상향) ②구름(6.8×6.6), 꼬리(8.6×3.6) ③전보,방승,보,(단)서보,(쌍)서각,화주,여의,산호 ④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11.2×18.0)	45.7 × 34.6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3점 경주자, 무늬조작: 5매3점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점 경주자, 무늬조작: 5매2점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꼬리(우상향) ②구름(5.8×4.5), 꼬리(9.1×4.5) ③전보,방승,(쌍)서보,(쌍)서각 ④제침은 개장된 책의(외규80)로 옮겨짐 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13.0×16.1)	45.1 × 36.2	포도문단 (바닥조작:5매3점 경주자, 무늬조작: 5매3점 위주자)	—

유물 번호	서명	제작 시기	장수	유일본 여부	어람건/분상건	도설 및 반차도	표제	내제	크기
외규81 / 외규371 (coréen 2626)	단종장릉수개도감의궤 端宗莊陵修改都監儀軌	숙종 25 (1699)	33		어람건	—	莊陵修改都監儀軌(원)	莊陵修改都監儀軌	전체 47.0×33.8×2.0 변철 2.9 원환 3.9 / 3.1 국화동 2.0
외규82 / 외규372 (coréen 2414)	인현왕후명릉산릉도감의궤(상) 仁顯王后明陵山陵都監儀軌(上)	숙종 28 (1702)	191		어람건	도설 채색	—	康熙四十年辛巳八月日山陵都監儀軌	전체 51.8×36.6×5.2 변철 3.0 원환 3.9 / 3.1 국화동 2.3
외규83 (coréen 2401)	인현왕후명릉산릉도감의궤(하) 仁顯王后明陵山陵都監儀軌(下)	숙종 28 (1702)	263		어람건	—	山陵都監儀軌下	三物所	전체 51.6×36.5×8.0 변철 3.0 원환 6.3 / 4.6 국화동 2.5 / 1.8
외규84 / 외규373 (coréen 2602)	인현왕후빈전도감의궤 仁顯王后殯殿都監儀軌	숙종 28 (1702)	240		어람건	도설 채색	결락	殯殿都監儀軌	전체 49.2×36.4×6.6 변철 2.7 원환 3.8 / 3.0 국화동 2.1
외규85 / 외규374 (coréen 2503)	인현왕후훈전도감의궤 仁顯王后魂殿都監儀軌	숙종 28 (1702)	294		어람건	—	魂殿都監儀軌(원)	魂殿都監儀軌	전체 48.8×36.1×8.3 변철 2.7 원환 3.8 / 2.9 국화동 2.1(앞: 2.3)
외규86 / 외규375 (coréen 2562)	인현왕후국장도감의궤(상) 仁顯王后國葬都監儀軌(上)	숙종 28 (1702)	389		어람건	반차도 26면, 도설 채색	國葬都監儀軌上(원)	康熙四十年二月日國葬都監都廳儀軌	전체 48.6×35.8×10.1 변철 2.7 원환 3.5 / 2.7 국화동 2.0
외규87 / 외규376 (coréen 2563)	인현왕후국장도감의궤(하) 仁顯王后國葬都監儀軌(下)	숙종 28 (1702)	358		어람건	도설 채색	國葬都監儀軌下(원)	康熙四十年二月日國葬都監二房儀軌	전체 48.8×36.2×9.6 변철 2.7 원환 3.6 / 2.8 국화동 2.0
외규88 / 외규377 (coréen 2529)	숙종인원왕후가례도감의궤(상) 肅宗仁元王后嘉禮都監儀軌(上)	숙종 28 (1702)	223		어람건	도설 채색	嘉禮都監儀軌上(원)	康熙四十一年壬午十月日嘉禮都監大殿嘉禮儀軌	전체 47.6×35.7×8.2 변철 3.0 원환 4.4 / 3.4 국화동 2.3
외규89 / 외규378 (coréen 2548)	금보개조도감의궤 金寶改造都監儀軌	숙종 31 (1705)	224		어람건	도설 채색	金寶改造都監儀軌前(원)	康熙四十四年乙酉六月日金寶改造都監都廳儀軌	전체 47.3×35.8×7.4 변철 2.5 원환 없음 국화동 2.0
외규90 / 외규379 (coréen 2549)	금보개조도감추보의궤 金寶改造都監追補儀軌	숙종 31 (1705)	109		어람건	—	金寶改造都監儀軌後(원)	康熙四十四年乙酉九月日金寶改造都監都廳追附儀軌	전체 47.4×35.9×4.2 변철 2.5 원환 3.0 / 2.1 국화동 2.0

변철 상세 정보	장황 재료	책의 직물명 (직조방법)	책의 직물 상세 정보	책의 직물 크기	제침 직물명 (직조방법)	홍협 직물명 (직조방법)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됨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꼬리(우상향) ②구름(5.8×4.5), 꼬리(9.1×4.5) ③전보.방송.(쌍)서보.(쌍)서각 ④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13.0×16.1)	46.6 × 33.6	화문단 (바닥조작:5매3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됨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연화보문단 (바닥조작:5매2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됨 위주자)	①측면형과 보상화형 교차 배치 ②측면형(5.0×4.9), 보상화형(5.2×4.8) ③전보.방송.보.(단)서보.(단)서각.여의.화주.산호 ④앞표지는 종이만 남음 뒤표지 직물은 식서방향 90° 회전 되어 장황됨 단위무늬(10.6×13.7)	51.2 × 35.7	—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복화伏花, 2겹)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	④책의 직물은 없고 개장된 책이에 제침만 있음	51.6 × 36.5	화문단 (바닥조작:5매2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됨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3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됨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꼬리(좌상향) ②구름(6.0×7.3), 꼬리(8.2×5.2) ③전보.방송.보.(쌍)서보.(쌍)서각.화주.여의.산호 ④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11.3×23.2)	48.8 × 36.3	—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됨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꼬리(좌상향) ②구름(6.0×7.3), 꼬리(8.3×5.2) ③전보.방송.보.(쌍)서보.(쌍)서각.화주.여의.산호 ④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11.3×23.2)	48.5 × 37.0	연화문단 (바닥조작:5매3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됨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3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됨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꼬리(좌상향) ②구름(4.8×4.8), 꼬리(6.7×3.0) ③전보.방송.보.(쌍)서보.(쌍)서각.화주.여의.산호 ④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8.5×12.9)	48.3 × 35.8	연화문단 (바닥조작:5매3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됨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3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됨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꼬리(좌상향) ②구름(4.8×4.8), 꼬리(6.7×3.0) ③전보.방송.보.(쌍)서보.(쌍)서각.화주.여의.산호 ④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8.5×12.9)	48.4 × 35.8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3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됨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됨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꼬리(좌상향) ②구름(5.6×4.7), 꼬리(8.6×4.8) ③전보.방송.(쌍)서보.(쌍)서각 ④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12.5×17.6)	47.2 × 35.8	연화보문단 (바닥조작:5매3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됨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유실)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문단 (바닥조작:5매2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됨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꼬리(우상향) ②구름(12.0×13.6), 꼬리(15.5×6.7) ④앞표지와 제침 직물은 식서방향 90° 회전되어 장황됨 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47.3 × 36.2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3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됨 위주자)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문단 (바닥조작:5매2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됨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꼬리(우상향) ②구름(12.0×14.3), 꼬리(16.0×7.4) ④앞표지와 제침 직물은 식서방향 90° 회전되어 장황됨 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47.4 × 36.3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3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됨 위주자)	—

유물 번호	서명	제작 시기	장수	유일본 여부	어람건/분상건	도설 및 반차도	표제	내제	크기
외규91 / 외규380 (coréen 2668)	숙종인경왕후인현왕후인원왕후 존숭도감의궤 (상) 肅宗仁敬王后仁顯王后仁元王后 尊崇都監儀軌(上)	숙종 39 (1713)	140		어람건	—	尊崇都監儀軌 上(원)	康熙五十二年三月 日 尊崇都監儀軌	전체 46.2×34.4×3.7 변철 2.5 원환 3.3 / 2.3 국화동 1.9
외규92 / 외규381 (coréen 2669)	숙종인경왕후인현왕후인원왕후 존숭도감의궤 (하) 肅宗仁敬王后仁顯王后仁元王后 尊崇都監儀軌(下)	숙종 39 (1713)	200		어람건	도설 채색	尊崇都監儀軌 下(원)	康熙五十二年三月 日 一房儀軌	전체 46.2×34.4×5.2 변철 2.5 원환 3.3 / 2.3 국화동 1.9
외규93 / 외규382 (coréen 2697)	숙종어용도사도감의궤 肅宗御容圖寫都監儀軌	숙종 39 (1713)	134		어람건	—	御容圖寫都監儀軌(원)	康熙五十二年四月 日 御容圖寫都監儀軌	전체 46.0×34.3×4.0 변철 2.7 원환 3.0 / 2.3 국화동 1.8
외규94 / 외규383 (coréen 2635)	단의빈묘소도감의궤 (하) 端懿嬪墓所都監儀軌(下)	숙종 44 (1718)	213		어람건	—	端懿嬪墓所儀軌 下(원)	三物所	전체 47.3×35.5×7.3 변철 2.9 원환 4.8 / 3.8 국화동 2.2
외규95 / 외규384 (coréen 2637)	단의빈빈궁도감의궤 端懿嬪殯宮都監儀軌	숙종 44 (1718)	200		어람건	도설 채색	端懿嬪殯宮儀軌(원)	殯宮都監儀軌	전체 46.8×34.0×7.4 변철 2.9 원환 4.9 / 3.8 국화동 2.2
외규96 / 외규385 (coréen 2634)	단의빈훈궁도감의궤 端懿嬪魂宮都監儀軌	숙종 44 (1718)	229		어람건	—	端懿嬪魂宮儀軌(원)	魂宮都監儀軌	전체 47.0×34.1×8.2 변철 2.8 원환 4.9 / 3.9 국화동 2.2
외규97 / 외규386 (coréen 2636)	단의빈예장도감의궤 (상) 端懿嬪禮葬都監儀軌(上)	숙종 44 (1718)	346		어람건	반차도 20면, 도설 채색	端懿嬪禮葬都監儀軌 上(원)	康熙五十七年二月 日 禮葬都監都廳儀軌	전체 48.7×36.5×11.8 변철 2.5 원환 7.1 / 5.9 국화동 2.0
외규98 / 외규387 (coréen 2638)	단의빈예장도감의궤 (하) 端懿嬪禮葬都監儀軌(下)	숙종 44 (1718)	329		어람건	도설 채색	端懿嬪禮葬都監儀軌 下(원)	康熙五十七年戊戌二月 日 禮葬都監二房儀軌	전체 47.5×36.6×11.2 변철 2.5 원환 없음 국화동 2.2
외규99 / 외규388 (coréen 2429)	민회빈복위선시도감의궤 愍懷嬪復位宣諭都監儀軌	숙종 44 (1718)	246		어람건	도설 채색	결락	康熙五十七年四月 日 復位宣諭都監儀軌	전체 47.2×34.6×6.7 변철 2.5 원환 5.2 / 4.2 국화동 2.2, 1.7~1.8
외규100 / 외규389 (coréen 2578)	민회빈봉묘도감의궤 (상) 愍懷嬪封墓都監儀軌(上)	숙종 45 (1719)	170		어람건	—	愍懷嬪封墓都監儀軌 上(원)	愍懷嬪封墓都監儀軌	전체 56.8×39.0×6.9 변철 3.2 원환 5.2 / 3.9 국화동 2.7(뒤: 2.0)

변철 상세 정보	장황 재료	책의 직물명 (직조방법)	책의 직물 상세 정보	책의 직물 크기	제침 직물명 (직조방법)	홍첩 직물명 (직조방법)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만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됨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고리(좌상향) ②구름(5.2×4.6), 고리(8.6×5.0) ③전보.방송.(쌍)서보.(쌍)서각 ④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12.0×16.2)	45.8 × 34.3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3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됨 위주자)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만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됨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고리(좌상향) ②구름(5.3×4.8), 고리(8.5×4.9) ③전보.방송.(쌍)서보.(쌍)서각 ④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12.0×17.3)	45.8 × 34.4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3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됨 위주자)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만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3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됨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고리(우상향) ②구름(4.7×5.4), 고리(6.3×2.9) ③전보.방송.보.(쌍)서보.(쌍)서각,여의,화주,산호 ④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8.3×14.3)	45.6 × 34.1	화문단 (바닥조작:5매3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됨 위주자)	화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조작:3/1 위능작-좌상향)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만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됨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고리(좌상향) ②구름(5.3×5.1), 고리(8.4×5.5) ③전보.방송.(쌍)서보.(쌍)서각 ④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12.0×17.9)	47.0 × 35.4	화문단 (바닥조작:5매3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됨 위주자)	—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됨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고리(좌상향) ②구름(5.3×5.1), 고리(8.4×5.5) ③전보.방송.(쌍)서보.(쌍)서각 ④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12.0×17.9)	46.7 × 34.2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3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됨 위주자)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됨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고리(좌상향) ②구름(5.3×5.1), 고리(8.4×5.5) ③전보.방송.(쌍)서보.(쌍)서각 ④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12.0×17.9)	46.7 × 34.1	화문단 (바닥조작:5매3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됨 위주자)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됨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고리(우상향) ②구름(4.1×4.2), 고리(7.2×3.0) ③전보.방송.폭보.(쌍)서보.(쌍)서각,화주,여의,산호,만자 ④뒤표지 직물은 겉과 안이 뒤집혀져서 보이는 부분이 안쪽면임 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7.9×13.0)	47.4 × 36.7	화문단 (바닥조작:5매2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됨 위주자)	—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됨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고리(우상향) ②구름(4.1×4.3), 고리(7.2×3.0) ③전보.방송.폭보.(쌍)서보.(쌍)서각,화주,여의,산호 ④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7.9×13.0)	47.4 × 36.9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2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됨 위주자)	—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됨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고리(좌상향) ②구름(5.2×5.0), 고리(8.4×5.5) ③전보.방송.(쌍)서보.(쌍)서각 ④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11.9×19.4)	46.8 × 34.8	—	—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7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연화문단 (바닥조작:5매2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됨 위주자)	①측면형과 보상화형 교차 배치 ②측면형(6.1×6.2), 보상화형(6.3×6.7) ④단위무늬(11.2×18.4)	56.4 × 38.9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2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됨 위주자)	—

유물 번호	서명	제작 시기	장수	유일본 여부	어람건/분상건	도설 및 반차도	표제	내제	크기
외규101 / 외규390 (coréen 2579)	민회빈봉묘도감의궤 (하) 愍懷嬪封墓都監儀軌 (下)	숙종 45 (1719)	168		어람건	—	…懷嬪封墓都監儀軌 下(원)	三物所	전체 56.9×38.8×7.2 변철 3.2 원환 5.2 / 4.0 국화동 2.7
외규102 / 외규391 (coréen 2665)	경종선의왕후가례도감의궤 (상) 景宗宣懿王后嘉禮都監儀軌 (上)	숙종 45 (1719)	247		어람건	—	嘉禮都監儀軌 上(원)	康熙五十七年戊戌九月日 嘉禮都監王世子 嘉禮時都廳儀軌	전체 48.1×35.4×8.5 변철 3.2 원환 5.3 / 4.3 국화동 2.7
외규103 / 외규392 (coréen 2531)	경종선의왕후가례도감의궤 (하) 景宗宣懿王后嘉禮都監儀軌 (下)	숙종 45 (1719)	152		어람건	도설 채색	嘉禮都監儀軌 下(원)	康熙五十七年戊戌九月日 二房儀軌	전체 48.1×35.7×5.5 변철 3.2 원환 5.4 / 4.2 국화동 2.7
외규104 / 외규393 (coréen 2408)	숙종명릉산릉도감의궤 (상) 肅宗明陵山陵都監儀軌 (上)	경종 1 (1721)	205		어람건	도설 채색	山陵都監儀軌 上(원)	康熙五十九年庚子六月日 山陵都監儀軌	전체 51.8×39.4×8.6 변철 3.0 원환 5.3 / 3.9 국화동 2.5
외규105 / 외규394 (coréen 2418)	숙종명릉산릉도감의궤 (하) 肅宗明陵山陵都監儀軌 (下)	경종 1 (1721)	207		어람건	—	山陵都監儀軌 下	三物所	전체 51.9×39.5×8.6 변철 3.1 원환 5.3 / 3.9 국화동 2.5
외규106 / 외규395 (coréen 2603)	숙종빈전도감의궤 肅宗殯殿都監儀軌	경종 1 (1721)	267		어람건	도설 채색	殯殿都監儀軌 (원)	殯殿都監儀軌	전체 49.0×36.2×9.9 변철 2.9 원환 5.4 / 4.2 국화동 2.6
외규107 / 외규396 (coréen 2504)	숙종혼전도감의궤 肅宗魂殿都監儀軌	경종 1 (1721)	262		어람건	—	魂殿都監儀軌 (원)	魂殿都監儀軌	전체 49.0×36.4×9.7 변철 2.9 원환 5.4 / 4.2 국화동 2.7
외규108 / 외규397 (coréen 2565)	숙종국장도감의궤 (상) 肅宗國葬都監儀軌 (上)	경종 1 (1721)	343		어람건	반차도 32면, 도설 채색	國葬都監儀軌 上(원)	康熙五十九年庚子十月日 國葬都監都廳儀軌	전체 47.6×35.1×9.6 변철 2.9 원환 5.3 / 4.0 국화동 2.7
외규109 / 외규398 (coréen 2564)	숙종국장도감의궤 (하) 肅宗國葬都監儀軌 (下)	경종 1 (1721)	498		어람건	도설 채색	國葬都監儀軌 下(원)	康熙五十九年庚子十月日 國葬都監二房儀軌	전체 47.5×35.0×12.0 변철 2.9(뒤: 2.7) 원환 5.4 / 4.0 국화동 2.7

변철 상세 정보	장황 재료	책의 직물명 (직조방법)	책의 직물 상세 정보	책의 직물 크기	제침 직물명 (직조방법)	홍첩 직물명 (직조방법)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7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연화문단 (바닥조작:5매2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뿔 위주자)	①측면형과 보상화형 교차 배치 ②측면형(6.1×6.0), 보상화형(6.2×6.7) ④단위무늬(10.2×19.2)	56.3 × 38.1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2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뿔 위주자)	—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은보문단 (바닥조작:5매2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뿔 위주자)	①사함여의형+사선형고리(우상향) ②구름(5.3×5.4), 고리(8.5×5.9) ③전보.방승.(쌍)서보.(쌍)서각 ④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12.3×19.9)	47.8 × 35.5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은보문단 (바닥조작:5매2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뿔 위주자)	①사함여의형+사선형고리(우상향) ②구름(5.3×5.4), 고리(8.5×5.9) ③전보.방승.(쌍)서보.(쌍)서각 ④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12.3×19.9)	47.8 × 35.4	화보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연화문단 (바닥조작:5매2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뿔 위주자)	①동일형 상하반복 배치 ②연꽃(6.3×6.8) ④단위무늬(19.7×10.2)	51.8 × 39.1	화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연화문단 (바닥조작:5매2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뿔 위주자)	①동일형 상하반복 배치 ②연꽃(6.2×7.4) ④식서 확인 가능함 제침과 홍첩은 개장된 책의(외규105)로 옮겨짐 단위무늬(10.2×19.8)	51.8 × 39.1	화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조작:3/1 위능직·좌상향)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앞표지:초록연화문단 (바닥조작:5매2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뿔 위주자), 뒤표지:초록은보문단 (바닥조작:5매2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뿔 위주자)	①앞표지:동일형 상하반복 배치 뒤표지:사함여의형+사선형고리(우상향) ②앞표지:연꽃(6.2×6.3) 뒤표지:구름(7.3×8.6), 고리(8.3×6.0) ③뒤표지:전보.방승.보.(쌍)서보.(쌍)서각.화주.산호.여의 ④앞표지:단위무늬(10.1×18.0) 뒤표지:구름무늬 총마다 시계방향으로 180° 회전 단위무늬(11.6×26.0)	48.7 × 36.2 (앞), 48.0 × 34.5 (뒤)	연화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연화문단 (바닥조작:5매2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뿔 위주자)	①동일형 상하반복 배치 ②연꽃(6.4×6.6) ④단위무늬(10.1×19.9)	48.8 × 36.4	화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연화문단 (바닥조작:5매2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뿔 위주자)	①동일형 상하반복 배치 ②연꽃(6.6×7.1) ④단위무늬(10.2×18.6)	47.3 × 35.2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연화문단 (바닥조작:5매2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뿔 위주자)	①동일형 상하반복 배치 ②연꽃(6.4×6.8) ④단위무늬(10.2×18.6)	47.2 × 34.8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유물 번호	서명	제작 시기	장수	유일본 여부	어람건/분상건	도설 및 반차도	표제	내제	크기
외규110 / 외규399 (coréen 2645)	영조왕세제책례도감의궤 (상) 英祖王世弟册禮都監儀軌 (上)	경종 1 (1721)	138		어람건	도설 채색	册禮都監儀軌 上(원)	康熙六十年九月日 册禮都監儀軌	전체 49.3×36.7×5.5 변철 2.9 원환 5.0 / 3.9 국화동 2.2
외규111 / 외규400 (coréen 2496)	단의왕후혜릉석물추배도감의궤 端懿王后惠陵石物追排都監儀軌	경종 2 (1722)	98		어람건	—	…追排都監儀軌(원)	康熙六十一年壬寅 六月十四日 惠陵石物追排都監儀軌	전체 48.7×35.8×4.4 변철 3.2 원환 6.9 / 5.7, 5.9 / 4.7 국화동 2.6
외규112 / 외규401 (coréen 2592)	별삼방의궤 別三房儀軌	경종 2 (1722)	111	유일	어람건	—	別三房儀軌(원)	康熙六十一年壬寅 九月日 別三房儀軌	전체 50.7×37.3×3.5 변철 2.7 원환 4.6 / 3.7 국화동 2.1
외규113 / 외규402 (coréen 2646)	단의왕후선의왕후책례도감의궤 端懿王后宣懿王后册禮都監儀軌	경종 2 (1722)	309		어람건	도설 채색	册禮都監儀軌 (원)	康熙六十一年壬寅 九月日 册禮都監儀軌	전체 50.9×37.3×8.5 변철 2.8 원환 5.8 / 4.6 국화동 2.1
외규114 / 외규403 (coréen 2670)	인원왕후존숭도감의궤 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	경종 2 (1722)	180		어람건	도설 채색	尊崇都監儀軌 (원)	康熙六十一年壬寅 九月日 尊崇都監都廳儀軌	전체 51.0×37.3×5.4 변철 2.7 원환 4.7 / 3.7 국화동 2.2
외규115 / 외규404 (coréen 2403)	경종의릉산릉도감의궤 (상) 景宗懿陵山陵都監儀軌 (上)	영조 1 (1725)	218		어람건	도설 흑백	山陵都監儀軌 上	雍正二年甲辰八月日 山陵都監儀軌	전체 50.6×37.0×7.8 변철 2.7 원환 4.7 / 3.7 국화동 2.2
외규116 / 외규405 (coréen 2416)	경종의릉산릉도감의궤 (하) 景宗懿陵山陵都監儀軌 (下)	영조 1 (1725)	314		어람건	—	山陵都監儀軌 下	三物所	전체 50.7×37.5×10.6 변철 2.7 원환 4.7 / 3.6 국화동 2.2
외규117 / 외규406 (coréen 2505)	경종훈전도감의궤 景宗魂殿都監儀軌	영조 1 (1725)	220		어람건	—	魂殿都監儀軌 (원)	魂殿都監儀軌	전체 47.6×34.3×5.3 변철 2.8 원환 4.9 / 3.6 국화동 2.4
외규118 / 외규407 (coréen 2568)	경종국장도감의궤 (상) 景宗國葬都監儀軌 (上)	영조 1 (1725)	332		어람건	반차도 32면, 도설 채색	國葬都監儀軌 上(원)	雍正二年甲辰十二月日 國葬都監都廳儀軌	전체 50.0×37.6×12.3 변철 2.7 원환 4.7 / 3.5 국화동 2.3
외규119 / 외규408 (coréen 2567)	경종국장도감의궤 (하) 景宗國葬都監儀軌 (下)	영조 1 (1725)	450		어람건	도설 채색	國葬都監儀軌 下(원)	雍正二年甲辰九月日 國葬都監二房儀軌	전체 50.1×37.5×15.9 변철 2.7 원환 4.7 / 3.5 국화동 2.3

변철 상세 정보	장황 재료	책의 직물명 (직조방법)	책의 직물 상세 정보	책의 직물 크기	제침 직물명 (직조방법)	홍첩 직물명 (직조방법)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됨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고리(우상향) ②구름(5.2×4.9), 고리(8.3×5.2) ③전보.방승.(쌍)서보.(쌍)서각 ④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12.3×18.2)	49.4 × 36.7	화문단 (바닥조작:5매3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됨 위주자)	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조작:3/1 위능직-좌상향)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연화문단 (바닥조작:5매2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됨 위주자)	①동일형 상하반복 배치 ②연꽃(6.5×7.0) ④단위무늬(10.2×18.6)	48.4 × 35.9	봉황문단 (바닥조작:5매3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됨 위주자)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됨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고리(우상향) ②구름(4.4×4.3), 고리(7.7×3.2) ③전보.방승.(쌍)서보.경보.(쌍)서각,화주,여의,산호,만자 ④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7.8×14.0)	50.4 × 37.2	모란문단 (바닥조작:5매3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됨 위주자)	—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됨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고리(우상향) ②구름(4.7×4.4), 고리(7.5×3.0) ③전보.방승.(쌍)서보.경보.(쌍)서각,여의,화주,폭보,산호,만자 ④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8.7×12.6)	50.4 × 37.3	화문단 (바닥조작:5매3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됨 위주자)	—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됨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고리(우상향) ②구름(4.7×4.4), 고리(7.9×3.2) ③전보.방승,폭보,경보.(쌍)서보.(쌍)서각,여의,화주,산호,만자 ④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8.7×12.8)	50.5 × 37.2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3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됨 위주자)	—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됨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고리(좌상향) ②구름(5.1×5.2), 고리(8.5×5.8) ③전보.방승.(쌍)서보.(쌍)서각 ④제침은 개장된 책의(외규115)로 옮겨짐 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11.5×19.4)	50.2 × 37.0	화문단 (바닥조작:5매3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됨 위주자)	—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됨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고리(좌상향) ②구름(5.3×4.7), 고리(8.5×5.5) ③전보.방승.(쌍)서보.(쌍)서각 ④제침은 개장된 책의(외규116)로 옮겨짐 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11.4×17.2)	51.3 × 37.2	화문단 (바닥조작:5매3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됨 위주자)	—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연화문단 (바닥조작:5매2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됨 위주자)	①동일형 상하반복 배치 ②연꽃(6.1×5.7) ④단위무늬(10.0×15.4)	47.5 × 34.1	화조문단 (바닥조작:5매2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됨 위주자)	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조작:3/1 위능직-우상향)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됨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고리(좌상향) ②구름(5.0×4.5), 고리(8.7×5.6) ③전보.방승.(쌍)서보.(쌍)서각 ④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11.5×18.3)	49.7 × 37.8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3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됨 위주자)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됨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고리(좌상향) ②구름(5.7×5.4), 고리(8.7×5.4) ③전보.방승.(쌍)서보.(쌍)서각 ④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11.6×18.7)	49.8 × 37.4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3됨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됨 위주자)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유물 번호	서명	제작 시기	장수	유일본 여부	어람건/분상건	도설 및 반차도	표제	내제	크기
외규120 / 외규409 (coréen 2648)	효장세자책례도감의궤 (상) 孝章世子册禮都監儀軌 (上)	영조 1 (1725)	106		어람건	도설 채색	册禮都監儀軌 上(원)	雍正三年三月 日 册禮都監儀軌	전체 48.0×34.8×4.5 변철 2.9 원환 4.1 / 2.8 국화동 2.6
외규121 / 외규410 (coréen 2686)	효장세자책례도감의궤 (하) 孝章世子册禮都監儀軌 (下)	영조 1 (1725)	164		어람건	반차도 10면, 도설 채색	결락	乙巳三月 日 二房 儀軌	전체 48.1×34.7×6.8 변철 2.9 원환 4.0 / 2.8 국화동 2.6
외규122 / 외규411 (coréen 2649)	효장세자책례도감의궤 孝章世子册禮都監儀軌	영조 1 (1725)	189		분상건 (분상처 미상)	반차도 10면, 도설 채색	—	雍正三年三月 日 册禮都監儀軌	전체 46.4×33.2×5.4 변철 2.2
외규123 / 외규412 (coréen 2663)	종묘개수도감의궤 (상) 宗廟改修都監儀軌 (上)	영조 2 (1726)	256		어람건	—	宗廟改修都監 儀軌 上(원)	雍正三年乙巳十月 日 宗廟改修都監 儀軌	전체 51.3×37.6×10.8 변철 3.0 원환 4.7 / 3.6 국화동 2.3
외규124 / 외규413 (coréen 2436)	경종단의왕후부묘도감의궤 景宗端懿王后祔廟都監儀軌	영조 2 (1726)	320		어람건	반차도 44면, 도설 채색	祔廟都監 儀軌	雍正四年丙午十月 日 祔廟都監都廳 儀軌	전체 46.3×36.8×8.6 변철 3.0 원환 4.6 / 3.6 국화동 2.5
외규125 / 외규414 (coréen 2647)	정성왕후책례도감의궤 貞聖王后册禮都監儀軌	영조 2 (1726)	207		어람건	도설 채색	…禮都監儀軌 (원)	雍正四年丙午十月 日 册禮都監都廳 儀軌	전체 46.9×36.8×6.5 변철 2.9 원환 4.7 / 3.7 국화동 2.4(뒤: 2.3)
외규126 / 외규415 (coréen 2671)	인원왕후선인왕후존승도감의궤 仁元王后宣懿王后尊崇都監儀軌	영조 2 (1726)	199		어람건	도설 채색	결락	雍正四年丙午月 日 尊崇都監都廳儀軌	전체 46.9×37.0×5.5 변철 3.0 원환 4.7 / 3.7 국화동 2.5
외규127 / 외규416 (coréen 2593)	별삼방의궤 別三房儀軌	영조 2 (1726)	107	유일	어람건	—	결락	雍正四年丙午十月 日 別三房儀軌	전체 46.8×37.5×3.3 변철 3.0 원환 4.7 / 3.6 국화동 2.5
외규128 / 외규417 (coréen 2533)	효장세자가례도감의궤 (상) 孝章世子嘉禮都監儀軌 (上)	영조 3 (1727)	259		어람건	도설 채색	嘉禮都監儀軌 (원)	雍正五年丁未十月 日 嘉禮都監王世子 嘉禮時儀軌	전체 48.5×35.5×9.3 변철 2.9 원환 4.7 / 3.6 국화동 2.5
외규129 / 외규418 (coréen 2532)	효장세자가례도감의궤 (하) 孝章世子嘉禮都監儀軌 (下)	영조 3 (1727)	167		어람건	반차도 12면, 도설 채색	嘉禮都監儀軌 下(원)	雍正五年丁未十月 日 二房	전체 48.4×35.2×6.3 변철 2.9 원환 4.7 / 3.6 국화동 2.4

변철 상세 정보	장황 재료	책의 직물명 (직조방법)	책의 직물 상세 정보	책의 직물 크기	제침 직물명 (직조방법)	홍첩 직물명 (직조방법)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웹 경주자, 무늬조작: 5매2웹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고리(좌상향) ②구름(5.4×4.5), 꼬리(8.7×5.7) ③전보.방송(쌍)서보(쌍)서각 ④구름무늬 총마다 시계방향으로 180° 회전 단위무늬(11.3×18.2)	47.8 × 34.8	화문단 (바닥조작:5매3웹 경주자, 무늬조작: 5매3웹 위주자)	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조작:3/1 위능직-좌상향)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웹 경주자, 무늬조작: 5매2웹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고리(좌상향) ②구름(5.4×4.8), 꼬리(8.7×6.0) ③전보.방송(쌍)서보(쌍)서각 ④구름무늬 총마다 시계방향으로 180° 회전 단위무늬(11.3×17.8)	47.8 × 34.9	만자문지화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조작:3/1 위능직-좌상향)	—
무늬(민무늬) 원환 없음 박을정 3개	변철 강철[正鐵] 책의 개장 책지 저주지	홍색마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후배지 있음	45.7 × 33.0	—	—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웹 경주자, 무늬조작: 5매2웹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고리(좌상향) ②구름(4.3×3.4), 꼬리(8.6×2.7) ③전보.방송(쌍)서보(쌍)서각 ④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11.6×16.5)	50.8 × 37.5	만자문지화보문단 (바닥조작:5매2웹 경주자, 무늬조작: 5매2웹 위주자)	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조작:3/1 위능직-좌상향)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웹 경주자, 무늬조작: 5매2웹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고리(좌상향) ②구름(4.2×3.8), 꼬리(6.9×2.5) ③전보.방송(쌍)서보(쌍)서각 ④식서 확인 가능함/제침은 개장된 책의(외규124)로 옮겨짐 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8.6×10.0)	46.7 × 36.9	화문단 (바닥조작:5매2웹 경주자, 무늬조작: 5매2웹 위주자)	—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웹 경주자, 무늬조작: 5매2웹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고리(좌상향) ②구름(4.4×3.9), 꼬리(7.0×2.8) ③전보.방송(쌍)서보(쌍)서각 ④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8.2×11.4)	46.7 × 37.1	화문단 (바닥조작:5매2웹 경주자, 무늬조작: 5매2웹 위주자)	—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웹 경주자, 무늬조작: 5매2웹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고리(좌상향) ②구름(4.3×3.4), 꼬리(6.7×2.9) ③전보.방송(쌍)서보(쌍)서각 ④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8.0×10.8)	46.8 × 36.9	종이	—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웹 경주자, 무늬조작: 5매2웹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고리(좌상향) ②구름(4.3×3.2), 꼬리(6.7×2.5) ③전보.방송(쌍)서보(쌍)서각 ④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8.0×10.4)	46.4 × 37.3	—	—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화문릉 (바닥조작:2/1 경능직-좌상향, 무늬조작:5/1 위능직-좌상향)	①작은 꽃무늬(한종류) ②꽃(5.3×2.1~5.6×2.8) ④단위무늬(5.7×2.1~5.9×2.8) 무늬와 무늬 사이에 여백(9.4~11.3) 있음	47.2 × 32.3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웹 경주자, 무늬조작: 5매2웹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고리(좌상향) ②구름(5.3×4.9), 꼬리(8.4×5.2) ③전보.방송(쌍)서보(쌍)서각 ④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11.4×18.1)	48.1 × 35.6	화문단 (바닥조작:5매3웹 경주자, 무늬조작: 5매3웹 위주자)	—

유물 번호	서명	제작 시기	장수	유일본 여부	어람건/분상건	도설 및 반차도	표제	내제	크기
외규130 / 외규419 (coréen 2440)	분무녹훈도감의궤 (상) 奮武錄勳都監儀軌 (上)	영조 5 (1729)	257	유일	어람건	—	奮武錄勳都監儀軌 上	雍正六年戊申三月日 奮武錄勳都監儀軌 上	전체 48.0×36.2×7.8 변철 2.6 원환 4.9 / 3.7 국화동 2.2
외규131 / 외규420 (coréen 2439)	분무녹훈도감의궤 (하) 奮武錄勳都監儀軌 (下)	영조 5 (1729)	259		어람건	—	奮武錄勳都監儀軌 下	雍正六年戊申三月日 奮武錄勳都監儀軌 下	전체 48.0×36.0×7.8 변철 2.7 원환 4.9 / 3.6 국화동 2.3
외규132 / 외규421 (coréen 2409)	선의왕후의릉산릉도감의궤 (상) 宣懿王后懿陵山陵都監儀軌 (上)	영조 7 (1731)	159		어람건	도설 흑백	…陵都監儀軌 上卷	雍正八年庚戌六月日 山陵都監儀軌	전체 51.5×37.6×5.3 변철 2.9 원환 4.6 / 3.5 국화동 2.4
외규133 / 외규422 (coréen 2417)	선의왕후의릉산릉도감의궤 (하) 宣懿王后懿陵山陵都監儀軌 (下)	영조 7 (1731)	296		어람건	—	山陵都…儀軌 下卷	三物所	전체 51.7×37.9×8.6 변철 2.9 원환 4.6 / 3.5 국화동 2.4
외규134 / 외규423 (coréen 2604)	선의왕후빈전도감의궤 宣懿王后殯殿都監儀軌	영조 7 (1731)	205		어람건	—	殯殿都監儀軌 (원)	殯殿都監儀軌	전체 50.3×37.4×6.1 변철 2.9(뒤: 2.8) 원환 4.6 / 3.4 국화동 2.2
외규135 (coréen 2506)	선의왕후훈전도감의궤 宣懿王后魂殿都監儀軌	영조 7 (1731)	281		어람건	—	魂殿都監儀軌	魂殿都監儀軌	전체 50.4×37.3×8.1 변철 2.9 원환 4.7 / 3.5 국화동 2.2
외규136 / 외규424 (coréen 2566)	선의왕후국장도감의궤 (상) 宣懿王后國葬都監儀軌 (上)	영조 7 (1731)	324		어람건	반차도 46면, 도설 채색	國葬都監儀軌 上(원)	雍正八年十月日 國葬都監儀軌	전체 47.6×34.5×8.5 변철 2.7 원환 4.9 / 3.6 국화동 2.5
외규137 / 외규425 (coréen 2569)	선의왕후국장도감의궤 (하) 宣懿王后國葬都監儀軌 (下)	영조 7 (1731)	425		어람건	도설 채색	國葬都監儀軌 下(원)	雍正八年庚戌十月日 國葬都監二房儀軌	전체 47.8×34.7×11.5 변철 2.7 원환 4.9 / 3.6 국화동 2.5
외규138 / 외규426 (coréen 2410)	인조장릉천봉산릉도감의궤 (상) 仁祖長陵遷奉山陵都監儀軌 (上)	영조 8 (1732)	323		어람건	도설 흑백	山陵都監儀軌 上	雍正九年辛亥四月十八日 長陵遷奉山陵都監儀軌	전체 49.9×35.9×9.0 변철 3.0 원환 4.8 / 3.7 국화동 2.6
외규139 / 외규427 (coréen 2415)	인조장릉천봉산릉도감의궤 (하) 仁祖長陵遷奉山陵都監儀軌 (下)	영조 8 (1732)	311		어람건	—	山陵都監…	三物所	전체 50.0×36.6×8.3 변철 3.0 원환 4.9 / 3.5 국화동 2.5

변철 상세 정보	장황 재료	책의 직물명 (직조방법)	책의 직물 상세 정보	책의 직물 크기	제침 직물명 (직조방법)	홍협 직물명 (직조방법)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연화문단 (바닥조작:5매2웹 경주자, 무늬조작: 5매2웹 위주자)	①동일형 상하반복 배치 ②연꽃(6.3×5.7) ④제침과 홍협은 개장된 책의(외규130)로 옮겨짐 단위무늬(10.2×15.7)	48.0 × 36.3	화문단 (바닥조작:5매2웹 경주자, 무늬조작: 5매2웹 위주자)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연화문단 (바닥조작:5매2웹 경주자, 무늬조작: 5매2웹 위주자)	①동일형 상하반복 배치 ②연꽃(6.0×5.5) ④제침과 홍협은 개장된 책의(외규131)로 옮겨짐 단위무늬(9.9×15.9)	47.9 × 36.2	화문단 (바닥조작:5매2웹 경주자, 무늬조작: 5매2웹 위주자)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연화문단 (바닥조작:5매2웹 경주자, 무늬조작: 5매2웹 위주자)	①동일형 상하반복 배치 ②연꽃(6.4×6.5) ④제침과 홍협은 개장된 책의(외규132)로 옮겨짐 책의 직물은 식서방향 90° 회전되어 장황됨 단위무늬(16.5×10.4)	51.4 × 37.9	화문단 (바닥조작:5매3웹 경주자, 무늬조작: 5매3웹 위주자)	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조작:3/1 위능직-좌상향)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연화문단 (바닥조작:5매2웹 경주자, 무늬조작: 5매2웹 위주자)	①동일형 상하반복 배치 ②연꽃(6.5×7.0) ④제침과 홍협은 개장된 책의(외규133)로 옮겨짐 단위무늬(10.4×19.7)	51.5 × 37.9	화문단 (바닥조작:5매3웹 경주자, 무늬조작: 5매3웹 위주자)	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조작:3/1 위능직-좌상향)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연화문단 (바닥조작:5매2웹 경주자, 무늬조작: 5매2웹 위주자)	①동일형 상하반복 배치 ②연꽃(6.6×6.2) ④단위무늬(10.2×18.3)	50.2 × 37.2	연화문단 (바닥조작:5매2웹 경주자, 무늬조작: 5매2웹 위주자)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원장 책지 초주지	초록연화문단 (바닥조작:5매2웹 경주자, 무늬조작: 5매2웹 위주자)	*개장되지 않은 원 책의 그대로임 ①동일형 상하반복 배치	50.4 × 37.4	화문단 (바닥조작:5매2웹 경주자, 무늬조작: 5매2웹 위주자)	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조작:3/1 위능직-우상향)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연화문단 (바닥조작:5매2웹 경주자, 무늬조작: 5매2웹 위주자)	①동일형 상하반복 배치 ②연꽃(6.3×5.8) ④단위무늬(10.1×17.1)	47.5 × 34.3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2웹 경주자, 무늬조작: 5매2웹 위주자)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연화문단 (바닥조작:5매2웹 경주자, 무늬조작: 5매2웹 위주자)	①동일형 상하반복 배치 ②연꽃(6.5×6.4) ④단위무늬(10.3×18.6)	47.6 × 34.2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2웹 경주자, 무늬조작: 5매2웹 위주자)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연화문단 (바닥조작:5매2웹 경주자, 무늬조작: 5매2웹 위주자)	①동일형 상하반복 배치 ②연꽃(6.5×5.6) ④제침과 홍협은 개장된 책의(외규138)로 옮겨짐 단위무늬(10.3×16.2)	49.7 × 36.1	화문단 (바닥조작:5매3웹 경주자, 무늬조작: 5매3웹 위주자)	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조작:3/1 위능직-좌상향)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연화문단 (바닥조작:5매2웹 경주자, 무늬조작: 5매2웹 위주자)	①동일형 상하반복 배치 ②연꽃(6.3×5.5) ④식서 확인 가능함 제침과 홍협은 개장된 책의(외규139)로 옮겨짐 단위무늬(10.3×15.2)	49.7 × 35.9	화문단 (바닥조작:5매3웹 경주자, 무늬조작: 5매3웹 위주자)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유물 번호	서명	제작 시기	장수	유일본 여부	어람건/분상건	도설 및 반차도	표제	내제	크기
외규140 / 외규428 (coréen 2658)	인조장릉천릉도감의궤 (1) 仁祖長陵遷陵都監儀軌 (一)	영조 8 (1732)	169		어람건	—	遷陵都監儀軌 一(원)	雍正九年九月日 遷陵都監都廳儀軌	전체 46.4×33.9×5.7 변철 2.9 원환 4.8 / 3.5 국화동 2.6
외규141 / 외규429 (coréen 2656)	인조장릉천릉도감의궤 (2) 仁祖長陵遷陵都監儀軌 (二)	영조 8 (1732)	195		어람건	—	결락	雍正九年九月日 遷陵都監都廳來關秩	전체 46.3×33.8×5.8 변철 2.9 원환 4.8 / 3.6 국화동 2.5
외규142 / 외규430 (coréen 2661)	인조장릉천릉도감의궤 (3) 仁祖長陵遷陵都監儀軌 (三)	영조 8 (1732)	246		어람건	반차도 60면, 도설 채색	遷陵都監儀軌 三(원)	雍正九年九月日 遷陵都監一房儀軌	전체 46.5×34.0×8.0 변철 2.9 원환 4.7 / 3.5 국화동 2.5(앞5: 2.2)
외규143 / 외규431 (coréen 2655)	인조장릉천릉도감의궤 (4) 仁祖長陵遷陵都監儀軌 (四)	영조 8 (1732)	242		어람건	도설 채색	遷陵都監儀軌 四(원)	雍正九年辛亥九月日 遷陵都監二房儀軌	전체 48.5×33.9×8.5 변철 2.9 원환 4.7 / 3.5 국화동 2.5
외규144 / 외규432 (coréen 2659)	인조장릉천릉도감의궤 (5) 仁祖長陵遷陵都監儀軌 (五)	영조 8 (1732)	256		어람건	도설 채색	遷陵都監儀軌 五(원)	雍正九年辛亥九月日 遷陵都監三房儀軌	전체 46.6×34.2×9.2 변철 2.9 원환 4.9 / 3.6 국화동 2.5
외규145 / 외규433 (coréen 2657)	인조장릉천릉도감의궤 (6) 仁祖長陵遷陵都監儀軌 (六)	영조 8 (1732)	204		어람건	—	遷陵都監儀軌 六(원)	雍正九年九月日 遷陵內別工作	전체 46.4×34.9×6.8 변철 2.9 원환 4.8 / 3.5 국화동 2.5
외규146 / 외규434 (coréen 2660)	인조장릉천릉도감의궤 (7) 仁祖長陵遷陵都監儀軌 (七)	영조 8 (1732)	250		어람건	—	遷陵都監儀軌 七(원)	雍正九年九月日 遷陵都監殯殿所儀軌	전체 46.4×34.5×7.3 변철 3.0 원환 4.6 / 3.5 국화동 2.5
외규147 / 외규435 (coréen 2486)	현빈옥인조성도감의궤 賢嬪玉印造成都監儀軌	영조 11 (1735)	72		어람건	도설 채색	賢嬪宮玉印都監儀軌(원)	雍正十三年乙卯四月日 玉印造成都監儀軌	전체 47.7×33.5×3.7 변철 2.6 원환 4.3 / 3.1 국화동 2.4
외규148 / 외규436 (coréen 2520)	세조영정모사도감의궤 世祖影幀模寫都監儀軌	영조 11 (1735)	155		어람건	—	影幀模寫都監儀軌	雍正十三年九月日 影幀模寫都監儀軌	전체 46.7×33.8×4.5 변철 2.7 원환 3.6 / 2.6 국화동 2.1
외규149 / 외규437 (coréen 2662)	친경의궤 親耕儀軌	영조 15 (1739)	117		어람건	—	결락	乾隆四年己未正月十四日 先農壇親耕儀軌	전체 47.4×34.7×4.3 변철 2.8 원환 4.4 / 3.6 국화동 2.4

변철 상세 정보	장황 재료	책의 직물명 (직조방법)	책의 직물 상세 정보	책의 직물 크기	제침 직물명 (직조방법)	홍첩 직물명 (직조방법)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연화문단 (바닥조작:5매2웹 경주자, 무늬조작: 5매2웹 위주자)	①동일형 상하반복 배치 ②연꽃(6.2×6.5) ④뒤표지 직물은 식서방향 90°회전되어 장황됨	46.1 × 33.5	화문단 (바닥조작:5매2웹 경주자, 무늬조작: 5매2웹 위주자)	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조작:3/1 위능직-좌상향)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연화문단 (바닥조작:5매2웹 경주자, 무늬조작: 5매2웹 위주자)	①동일형 상하반복 배치 ②연꽃(6.2×6.2) ④단위무늬(10.1×17.3)	46.2 × 33.2	—	—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연화문단 (바닥조작:5매2웹 경주자, 무늬조작: 5매2웹 위주자)	①동일형 상하반복 배치 ②연꽃(6.2×5.9) ④뒤표지 직물은 식서방향 90°회전되어 장황됨	46.1 × 33.8	화문단 (바닥조작:5매3웹 경주자, 무늬조작: 5매3웹 위주자)	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조작:3/1 위능직-좌상향)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연화문단 (바닥조작:5매2웹 경주자, 무늬조작: 5매2웹 위주자)	①동일형 상하반복 배치 ②연꽃(6.3×6.4) ④뒤표지 직물은 식서방향 90°회전되어 장황됨	46.1 × 33.6	화문단 (바닥조작:5매3웹 경주자, 무늬조작: 5매3웹 위주자)	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조작:3/1 위능직-좌상향)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연화문단 (바닥조작:5매2웹 경주자, 무늬조작: 5매2웹 위주자)	①동일형 상하반복 배치 ②연꽃(6.1×6.5) ④뒤표지 직물은 식서방향 90°회전되어 장황됨	46.1 × 33.8	화문단 (바닥조작:5매3웹 경주자, 무늬조작: 5매3웹 위주자)	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조작:3/1 위능직-좌상향)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연화문단 (바닥조작:5매2웹 경주자, 무늬조작: 5매2웹 위주자)	①동일형 상하반복 배치 ②연꽃(6.4×6.4) ④뒤표지 직물은 식서방향 90°회전되어 장황됨	46.1 × 33.9	화문단 (바닥조작:5매2웹 경주자, 무늬조작: 5매2웹 위주자)	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조작:3/1 위능직-좌상향)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연화문단 (바닥조작:5매2웹 경주자, 무늬조작: 5매2웹 위주자)	①동일형 상하반복 배치 ②연꽃(6.2×5.8) ④뒤표지 직물은 식서방향 90°회전되어 장황됨	46.2 × 33.5	화문단 (바닥조작:5매2웹 경주자, 무늬조작: 5매2웹 위주자)	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조작:3/1 위능직-좌상향)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웹 경주자, 무늬조작: 5매2웹 위주자)	①사함여의형+사선형고리(우상향) ②구름(5.2×4.6), 고리(8.6×4.1) ③전보,방승,보,(쌍)서보,(쌍)서각,화주,여의,산호 ④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47.8 × 33.8	화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조작:5매3웹 경주자)	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조작:3/1 위능직-좌상향)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웹 경주자, 무늬조작: 5매2웹 위주자)	①사함여의형+사선형고리(우상향) ②구름(5.1×4.3), 고리(8.8×4.1) ③전보,방승,보,(쌍)서보,(쌍)서각,화주,여의,산호 ④제침과 홍첩은 개장된 책(외규148)로 옮겨짐	46.7 × 33.8	화문단 (바닥조작:5매3웹 경주자, 무늬조작: 5매3웹 위주자)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연화문단 (바닥조작:5매2웹 경주자, 무늬조작: 5매2웹 위주자)	①동일형 상하반복 배치 ②연꽃(6.3×6.5) ④제침 직물은 있으나 표제가 쓰여있지 않음	47.1 × 34.6	화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조작:3/1 위능직-우향)	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조작:2/1 위능직-좌상향)

유물 번호	서명	제작 시기	장수	유일본 여부	어람건/분상건	도설 및 반차도	표제	내제	크기
외규150 / 외규438 (coréen 2694)	단경왕후은릉봉릉도감의궤 (상) 端敬王后溫陵封陵都監儀軌 (上)	영조 15 (1739)	192		어람건	—	결락	乾隆四年己未三月日 溫陵封陵都監儀軌	전체 48.3×35.0×5.7 변철 2.8 원환 5.4 / 4.1 국화동 2.4
외규151 / 외규439 (coréen 2419)	단경왕후은릉봉릉도감의궤 (하) 端敬王后溫陵封陵都監儀軌 (下)	영조 15 (1739)	202		어람건	—	…監儀軌 下	三物所	전체 48.2×34.7×5.8 변철 2.9 원환 5.2 / 4.1 국화동 2.4
외규152 / 외규440 (coréen 2639)	단경왕후복위부묘도감의궤 (상) 端敬王后復位附廟都監儀軌 (上)	영조 15 (1739)	212		어람건	—	端敬王后復位附廟都監儀軌 上(원)	결락	전체 47.3×34.8×8.2 변철 2.7 원환 5.4 / 4.2 국화동 2.4
외규153 / 외규441 (coréen 2640)	단경왕후복위부묘도감의궤 (하) 端敬王后復位附廟都監儀軌 (下)	영조 15 (1739)	160		어람건	반차도 26면, 도설 채색	端敬王后復位附廟都監儀軌 下(원)	乾隆四年五月日 二房儀軌	전체 47.6×34.6×6.3 변철 2.8 원환 5.4 / 4.1 국화동 2.4
외규154 / 외규442 (coréen 2523)	효종가상시호도감의궤 孝宗加上諡號都監儀軌	영조 16 (1740)	169		어람건	도설 채색	加上諡號都監儀軌	결락	전체 47.0×33.5×4.9 변철 3.1 원환 5.2 / 3.8 국화동 2.4
외규155 / 외규443 (coréen 2673)	인원왕후영조정성왕후존승도감의궤 (상) 仁元王后英祖貞聖王后尊崇都監儀軌 (上)	영조 16 (1740)	154		어람건	—	尊崇都監儀軌 上(원)	乾隆五年七月日 尊崇都監儀軌	전체 46.4×34.8×7.5 변철 2.8 원환 5.3 / 3.8 국화동 2.5(뒤: 2.7)
외규156 / 외규444 (coréen 2672)	인원왕후영조정성왕후존승도감의궤 (하) 仁元王后英祖貞聖王后尊崇都監儀軌 (下)	영조 16 (1740)	191		어람건	도설 채색	尊崇都監儀軌 下(원)	乾隆五年七月日 尊崇都監一房儀軌	전체 46.4×34.8×7.9 변철 2.9 원환 5.3 / 3.8 국화동 2.5
외규157 / 외규445 (coréen 2682)	사도세자가례도감의궤 (상) 思悼世子嘉禮都監儀軌 (上)	영조 20 (1744)	256		어람건	반차도 12면, 도설 채색	嘉禮都監儀軌 上(원)	乾隆九年甲子正月日 嘉禮都監王世子嘉禮時都廳儀軌	전체 47.7×35.5×8.1 변철 3.3 원환 5.3 / 4.0 국화동 2.6
외규158 / 외규446 (coréen 2581)	숙종인현왕후명릉개수도감의궤 肅宗仁顯王后明陵改修都監儀軌	영조 20 (1744)	76		어람건	—	明陵陵上改修都監儀軌(원)	乾隆九年甲子七月日 明陵兩陵上改修都監儀軌	전체 48.2×36.0×2.9 변철 3.3 원환 4.5 / 3.5 국화동 2.3
외규159 / 외규447 (coréen 2652)	신의왕후제릉신도비영건청의궤 神懿王后齊陵神道碑營建廳儀軌	영조 20 (1744)	170	유일	어람건	—	齊陵神道碑營建廳儀軌(원)	乾隆九年甲子八月日 齊陵神道碑營建廳儀軌	전체 47.7×35.1×6.5 변철 3.3 원환 4.5 / 3.4 국화동 2.7

변철 상세 정보	장황 재료	책의 직물명 (직조방법)	책의 직물 상세 정보	책의 직물 크기	제침 직물명 (직조방법)	홍첩 직물명 (직조방법)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뿔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고리(좌상향) ②구름(5.2×4.7), 고리(8.3×5.7) ③전보.방승.(쌍)서보.(쌍)서각 ④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11.1×17.7)	47.9 × 35.2	종이	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조작:3/1 위능직-좌상향)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뿔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고리(좌상향) ②구름(5.1×4.3), 고리(8.3×5.5) ③전보.방승.(쌍)서보.(쌍)서각 ④식서 확인 가능함/제침과 홍첩은 개장된 책의(외규151)로 옮겨짐/구름무늬 방향은 동일/ 단위무늬(10.9×17.2)	47.8 × 35.1	화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조작:3/1 위능직-좌상향)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뿔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고리(좌상향) ②구름(5.5×4.8), 고리(8.9×4.3) ③전보.방승.보.(쌍)서보.(쌍)서각,여의,화주,산호 ④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10.2×17.0)	47.3 × 34.8	화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조작:3/1 위능직-좌상향)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뿔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고리(좌상향) ②구름(5.2×4.5), 고리(8.9×3.2) ③전보.방승.보.(쌍)서보.(쌍)서각,여의,화주,산호 ④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11.0×16.2)	47.5 × 34.8	화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조작:3/1 위능직-좌상향)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뿔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고리(좌상향) ②구름(5.2×5.5), 고리(8.7×4.2) ③전보.방승.보.(쌍)서보.(쌍)서각,여의,화주,산호 ④제침과 홍첩은 개장된 책의(외규154)로 옮겨짐 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10.9×17.0)	47.9 × 33.6	화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조작:3/1 위능직-우상향)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뿔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고리(우상향) ②구름(5.5×5.3), 고리(8.7×4.1) ③전보.방승.보.(쌍)서보.(쌍)서각,여의,화주,산호 ④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10.8×16.1)	46.1 × 34.9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뿔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고리(우상향) ②구름(5.4×4.7), 고리(8.6×3.9) ③전보.방승.보.(쌍)서보.(쌍)서각,여의,화주,산호 ④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10.8×15.1)	46.3 × 34.9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무문단 (바닥조작: 5매3뿔 경주자)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작:5매2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뿔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고리(좌상향) ②구름(5.1×5.0), 고리(8.8×4.1) ③전보.방승.보.(쌍)서보.(쌍)서각,여의,화주,산호 ④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10.8×16.0)	47.2 × 35.2	만자문지화문단 (바닥조작:5매2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뿔 위주자)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연화문단 (바닥조작:5매2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뿔 위주자)	①측면형과 보상화형 교차 배치 ②측면형(5.6×5.2), 보상화형(5.5×5.1) ④단위무늬(10.3×15.6)	47.8 × 35.7	봉황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연화문단 (바닥조작:5매2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뿔 위주자)	①측면형과 보상화형 교차 배치 ②측면형(6.7×5.6), 보상화형(6.1×5.2) ④단위무늬(11.5×16.9)	47.4 × 35.4	화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무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유물 번호	서명	제작 시기	장수	유일본 여부	어람건/분상건	도설 및 반차도	표제	내제	크기
외규160 / 외규448 (coréen 2519)	세종영릉표석영건청의궤 世宗英陵表石營建廳儀軌	영조 21 (1745)	110	유일	어람건	—	英陵表石營建廳儀軌(원)	乾隆九年甲子十一月日 英陵表石營建廳儀軌	전체 49.0×35.5×3.5 변철 3.3 원환 5.3 / 3.9 국화동 2.3
외규161 / 외규449 (coréen 2574)	목릉휘릉혜릉표석영건청의궤 穆陵徽陵惠陵表石營建廳儀軌	영조 23 (1747)	134	유일	어람건	—	穆陵 徽陵 惠陵 表石營建廳儀軌(원)	乾隆十二年丙寅十一月日 穆陵徽陵惠陵表石營建廳儀軌	전체 46.2×35.0×4.2 변철 2.5 원환 5.2 / 4.0 국화동 2.6(뒤2: 2.3)
외규162 / 외규450 (coréen 2675)	인원왕후존숭도감의궤 (상) 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上)	영조 23 (1747)	140		어람건	도설 채색	尊崇都監儀軌上(원)	乾隆十二年二月日 尊崇都監儀軌	전체 48.0×36.3×6.7 변철 3.7 원환 4.8 / 3.3 국화동 3.6~3.7
외규163 / 외규451 (coréen 2674)	인원왕후존숭도감의궤 (하) 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下)	영조 23 (1747)	153		어람건	반차도 6면, 도설 채색	尊崇都監儀軌下(원)	乾隆十二年二月日 尊崇都監二房儀軌	전체 48.2×36.3×7.1 변철 3.7 원환 4.8 / 3.3 국화동 3.6
외규164 / 외규452 (coréen 2624)	진전중수도감의궤 (상) 眞殿重修都監儀軌(上)	영조 24 (1748)	93		어람건	—	眞殿重修都監儀軌上(원)	乾隆十三年戊辰正月日 眞殿重修都監儀軌	전체 48.2×34.5×3.9 변철 3.1 원환 5.1 / 3.8 국화동 2.5(뒤3: 2.2)
외규165 / 외규453 (coréen 2623)	진전중수도감의궤 (중) 眞殿重修都監儀軌(中)	영조 24 (1748)	101		어람건	—	眞殿重修都... (원)	乾隆十三年戊辰正月日 眞殿重修都監一房儀軌	전체 48.0×34.5×4.5 변철 3.2 원환 5.1 / 3.8 국화동 2.5
외규166 / 외규454 (coréen 2676)	인원왕후존숭도감의궤 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	영조 27 (1751)	181		어람건	반차도 6면, 도설 채색	尊崇都監儀軌(원)	乾隆十六年二月日 尊崇都監儀軌	전체 47.8×34.2×5.2 변철 2.9 원환 4.5 / 3.2 국화동 2.4
외규167 / 외규455 (coréen 2680)	의소세손책례도감의궤 懿昭世孫冊禮都監儀軌	영조 27 (1751)	221		어람건	반차도 10면, 도설 채색	王世孫冊禮都監儀軌(원)	乾隆十六年五月日 冊禮都監儀軌	전체 48.2×36.3×6.5 변철 2.8 원환 5.4 / 4.0 국화동 2.1
외규168 / 외규456 (coréen 2461)	효순현빈묘소도감의궤 (상) 孝純賢嬪墓所都監儀軌(上)	영조 28 (1752)	145		어람건	—	孝純賢嬪墓所都監儀軌上	乾隆十六年辛未十一月日 墓所都監儀軌	전체 49.0×35.8×4.0 변철 2.8 원환 4.3 / 3.2 국화동 2.2
외규169 / 외규457 (coréen 2463)	효순현빈묘소도감의궤 (하) 孝純賢嬪墓所都監儀軌(下)	영조 28 (1752)	195	유일	어람건	—	... 都監儀軌(원)	三物所	전체 49.2×35.9×5.6 변철 2.8 원환 4.3 / 3.1 국화동 2.1

변철 상세 정보	장황 재료	책의 직물명 (직조방법)	책의 직물 상세 정보	책의 직물 크기	제침 직물명 (직조방법)	홍협 직물명 (직조방법)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연화문단 (바닥조작:5매2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2뿔 위주자)	①동일형 상하반복 배치 ②연꽃(6.5×6.4) ④단위무늬(10.8×16.7)	48.8 × 35.7	화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늬조작: 5매3뿔 위주자)	—
무늬(연꽃넝쿨문, 앞뒤변철(원환 포함)이 서로 바뀌었음)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45.9 × 34.7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47.6 × 35.9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47.8 × 36.8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홍협 직물은 홍색 종이임	47.9 × 34.2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종이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홍협 직물은 홍색 종이임	47.8 × 34.1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종이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47.5 × 34.1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48.1 × 35.8	무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보배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제침과 홍협은 개장된 책의(외규168)로 옮겨짐	48.7 × 36.0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보배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48.7 × 35.9	—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유물 번호	서명	제작 시기	장수	유일본 여부	어람건/분상건	도설 및 반차도	표제	내제	크기
외규170 / 외규458 (coréen 2465)	효순헌빈묘소도감의궤 (하) 孝純賢嬪墓所都監儀軌 (下)	영조 28 (1752)	197		분상건 (강화부)	—	… [江華府 上] 孝純賢嬪墓所儀軌 (원)	三物所	전체 46.2×34.3×6.3 변철 3.5
외규171 / 외규459 (coréen 2462)	효순헌빈빈궁훈궁도감의궤 (상) 孝純賢嬪殯宮魂宮兩都監儀軌 (上)	영조 28 (1752)	146		어람건	도설 채색	孝純賢嬪殯宮魂宮兩都監儀軌 上	孝純賢嬪殯宮魂宮兩都監儀軌	전체 48.8×34.5×5.8 변철 2.8 원환 4.0 / 2.7 국화동 2.2
외규172 / 외규460 (coréen 2460)	효순헌빈빈궁훈궁도감의궤 (하) 孝純賢嬪殯宮魂宮兩都監儀軌 (下)	영조 28 (1752)	197		어람건	—	孝純賢嬪殯宮魂宮兩都監儀軌 下	殯宮魂宮兩都監二房儀軌	전체 48.8×34.3×6.2 변철 2.8 원환 4.0 / 2.7 국화동 2.2
외규173 / 외규461 (coréen 2443)	효순헌빈예장도감의궤 (상) 孝純賢嬪禮葬都監儀軌 (上)	영조 28 (1752)	289	유일	어람건	반차도 22면, 도설 채색	孝純賢嬪禮葬都監儀軌 上	乾隆十六年辛未十一月日 禮葬都監都廳儀軌	전체 47.7×34.8×7.8 변철 2.7 원환 4.5 / 3.2 국화동 2.2
외규174 / 외규462 (coréen 2464)	효순헌빈예장도감의궤 (하) 孝純賢嬪禮葬都監儀軌 (下)	영조 28 (1752)	344		어람건	도설 채색	孝純賢嬪禮葬都監儀軌 下 (원)	乾隆十六年辛未十一月日 禮葬都監二房儀軌	전체 47.7×34.8×9.3 변철 2.7 원환 4.3 / 3.1 국화동 2.2
외규175 / 외규463 (coréen 2677)	인원왕후영조정성왕후존송도감의궤 (상) 仁元王后英祖貞聖王后尊崇都監儀軌 (上)	영조 28 (1752)	129		어람건	—	尊崇都監儀軌… (원)	乾隆十七年 月 日 尊崇都監儀軌	전체 48.5×35.7×6.3 변철 3.0 원환 4.1 / 3.8 국화동 2.3
외규176 / 외규464 (coréen 2678)	인원왕후영조정성왕후존송도감의궤 (하) 仁元王后英祖貞聖王后尊崇都監儀軌 (下)	영조 28 (1752)	191		어람건	반차도 8면, 도설 채색	尊崇都監儀軌 下 (원)	결락	전체 48.6×35.1×8.8 변철 3.0 원환 4.1 / 3.7 국화동 2.3
외규177 / 외규465 (coréen 2512)	의소세손묘소도감의궤 (상) 懿昭世孫墓所都監儀軌 (上)	영조 28 (1752)	111	유일	어람건	도설 흑백	懿昭世孫墓所都監儀軌 上 (원)	乾隆十七年壬申三月日 墓所都監儀軌	전체 48.5×34.7×3.7 변철 2.9 원환 4.1 / 2.8 국화동 2.2
외규178 / 외규466 (coréen 2514)	의소세손묘소도감의궤 (하) 懿昭世孫墓所都監儀軌 (下)	영조 28 (1752)	204	유일	어람건	—	懿昭世孫墓所都監儀軌 下 (원)	三物所	전체 48.7×34.6×5.7 변철 2.9 원환 4.1 / 2.8 국화동 2.2
외규179 / 외규467 (coréen 2515)	의소세손빈궁훈궁도감의궤 (상) 懿昭世孫殯宮魂宮兩都監儀軌 (上)	영조 28 (1752)	158		어람건	도설 채색	懿昭世孫殯宮魂宮兩都監儀軌 上 (원)	懿昭世孫殯宮魂宮兩都監儀軌	전체 48.8×34.6×4.7 변철 2.8 원환 4.0 / 2.7 국화동 2.2(뒤5: 1.7)

변철 상세 정보	장황 재료	책의 직물명 (직조방법)	책의 직물 상세 정보	책의 직물 크기	제침 직물명 (직조방법)	홍첩 직물명 (직조방법)
무늬(민무늬) 원환 없음 박을정 3개(개수)	변철 강철[正鐵] 책의 개장 책지 저주지	홍색마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표제는 책의에 바로 적음	45.9 × 33.3	—	—
무늬(보배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제침과 홍첩은 개장된 책의(외규171)로 옮겨짐	48.5 × 34.5	무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보배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제침과 홍첩은 개장된 책의(외규172)로 옮겨짐	48.5 × 34.3	무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보배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제침과 홍첩은 개장된 책의(외규173)로 옮겨짐	47.3 × 34.9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보배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제침과 홍첩은 개장된 책의(외규174)로 옮겨짐	47.3 × 34.6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보배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48.2 × 35.2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보배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48.2 × 35.1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보배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48.2 × 34.8	무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보배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48.4 × 34.6	무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보배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48.3 × 34.6	무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유물 번호	서명	제작 시기	장수	유일본 여부	어람건/분상건	도설 및 반차도	표제	내제	크기
외규180 / 외규468 (coréen 2516)	의소세손빈궁훈궁도감의궤 (하) 懿昭世孫賓宮魂宮都監儀軌 (下)	영조 28 (1752)	131		어람건	—	懿昭世孫賓宮魂宮兩都監儀軌 下(원)	魂宮都監二房造成所儀軌	전체 48.6×34.5×3.9 변철 2.8 원환 4.0 / 2.7 국화동 2.2(앞4: 1.8)
외규181 / 외규469 (coréen 2511)	의소세손예장도감의궤 (상) 懿昭世孫禮葬都監儀軌 (上)	영조 28 (1752)	207	유일	어람건	반차도 28면, 도설 채색	懿昭世孫禮葬都監儀軌 上 (원)	乾隆十七年壬申三月日禮葬都監都廳儀軌	전체 48.6×36.0×5.7 변철 2.8 원환 3.9 / 2.8 국화동 2.4
외규182 / 외규470 (coréen 2513)	의소세손예장도감의궤 (하) 懿昭世孫禮葬都監儀軌 (下)	영조 28 (1752)	270	유일	어람건	도설 채색	懿昭世孫禮葬都監儀軌 下 (원)	乾隆十七年壬申三月日禮葬都監二房儀軌	전체 49.0×36.0×7.8 변철 2.7 원환 3.9 / 2.8 국화동 2.4(뒤1: 2.5)
외규183 / 외규471 (coréen 2517)	의소묘영건청의궤 懿昭廟營建廳儀軌	영조 29 (1753)	103		어람건	도설 채색	결락	乾隆十七年壬申七月日懿昭廟營建廳儀軌	전체 47.1×34.3×3.3 변철 3.0 원환 3.9 / 2.8 국화동 2.3
외규184 / 외규472 (coréen 2589)	희릉태릉효릉강릉장릉표석영건청의궤 禧陵泰陵孝陵康陵章陵表石營建廳儀軌	영조 29 (1753)	164	유일	어람건	—	五陵表石營建廳儀軌(원)	乾隆十八年癸酉正月日禧陵泰陵孝陵康陵章陵表石營建廳儀軌	전체 47.5×35.0×6.5 변철 3.0 원환 4.7 / 3.5 국화동 2.4
외규185 / 외규473 (coréen 2521)	숙종인경왕후인현왕후인원왕후가상존호도감책보도식 肅宗仁敬王后仁顯王后仁元王后加上尊號都監冊寶圖式	영조 29 (1753)	17		어람건	도설 채색	加上尊號都監冊寶圖式(원)	乾隆十八年癸酉十一月日加上尊號都監冊寶圖式	전체 47.0×34.2×1.0 변철 2.8 원환 4.9 / 3.7 국화동 2.2, 2.0
외규186 / 외규474 (coréen 2522)	숙종인경왕후인현왕후인원왕후가상존호도감의궤 (상) 肅宗仁敬王后仁顯王后仁元王后加上尊號都監儀軌 (上)	영조 30 (1754)	131		어람건	도설 채색	加上尊號都監儀軌(원)	乾隆十八年癸酉十一月日加上尊號都監儀軌	전체 47.0×34.1×5.5 변철 2.8 원환 4.9 / 3.7 국화동 2.3(뒤2: 2.1)
외규187 / 외규475 (coréen 2426)	숙종인경왕후인현왕후인원왕후가상존호도감의궤 (하) 肅宗仁敬王后仁顯王后仁元王后加上尊號都監儀軌 (下)	영조 30 (1754)	237		어람건	반차도 4면, 도설 채색	加上尊號都監儀軌	乾隆十八年癸酉十一月日加上尊號都監一房儀軌	전체 47.2×33.9×9.4 변철 2.8 원환 3.4 / 2.4 국화동 2.2(앞3·뒤3: 1.9)
외규188 / 외규476 (coréen 2441)	후릉현릉광릉경릉창릉선릉정릉표석영건청의궤 厚陵顯陵光陵敬陵昌陵宣陵靖陵表石營建廳儀軌	영조 31 (1755)	274	유일	어람건	—	[厚陵顯陵光陵敬陵昌陵宣陵靖陵表石營建廳儀軌]	乾隆十九年甲戌十二月日厚陵顯陵光陵敬陵昌陵宣陵靖陵表石營建廳儀軌	전체 49.1×35.4×7.5 변철 3.4 원환 5.2 / 3.8 국화동 2.6
외규189 / 외규477 (coréen 2430)	풍양구궤유지비석수립의궤 豐壤舊闕遺址碑石豎立儀軌	영조 31 (1755)	44		어람건	—	豐壤舊闕遺址碑石豎立儀軌	乾隆二十年正月日豐壤舊闕遺址碑石豎立儀軌	전체 45.9×31.5×2.7 변철 3.0 원환 4.9 / 3.5 국화동 2.4

변철 상세 정보	장황 재료	책의 직물명 (직조방법)	책의 직물 상세 정보	책의 직물 크기	제침 직물명 (직조방법)	홍협 직물명 (직조방법)
무늬(보배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48.3 × 34.5	무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보배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47.5 × 34.2	무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보배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뒤표지는 종이만 남음	48.4 × 35.9	무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앞·연꽃넝쿨문, 뒤: 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46.8 × 34.5	—	—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47.1 × 34.8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46.2 × 34.2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46.8 × 34.3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제침과 홍협은 개장된 책의(외규187)로 옮겨짐	47.1 × 23.9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앞표지 상단에 7열의 목서 있음 제침과 홍협은 개장된 책의(외규188)로 옮겨짐	48.9 × 35.1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제침과 홍협은 개장된 책의(외규189)로 옮겨짐	45.7 × 31.5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유물 번호	서명	제작 시기	장수	유일본 여부	어람건/ 분상건	도설 및 반차도	표제	내제	크기
외규190 / 외규478 (coréen 2424)	경혜인빈상시봉원도감의궤 (상) 敬惠仁嬪上諡封園都監儀軌 (上)	영조 31 (1755)	188	유일	어람건	도설 채색	上諡封園都監 儀軌 上	乾隆二十年乙亥六 月初二日 上諡封園 都監儀軌	전체 48.5×34.1×8.3 변철 2.7 원환 5.1 / 3.8 국화동 1.9(뒤2: 2.2)
외규191 / 외규479 (coréen 2425)	경혜인빈상시봉원도감의궤 (하) 敬惠仁嬪上諡封園都監儀軌 (下)	영조 31 (1755)	165		어람건	—	上諡封園都監 儀軌 下	園所造成所	전체 48.3×34.0×7.7 변철 2.6 원환 4.9 / 3.6 국화동 1.9(앞3: 2.3)
외규192 / 외규480 (coréen 2580)	정성왕후홍릉산릉도감의궤 (하) 貞聖王后弘陵山陵都監儀軌 (下)	영조 33 (1757)	187		어람건	—	弘陵山陵都監 儀軌 下(원)	乾隆二十二年丁丑 二月日 山陵都監儀 軌下	전체 47.7×34.4×5.3 변철 2.6 원환 5.3 / 3.9 국화동 2.2(앞3: 2.4)
외규193 / 외규481 (coréen 2606)	정성왕후빈전도감의궤 貞聖王后殯殿都監儀軌	영조 33 (1757)	174		어람건	도설 채색	殯殿都監儀軌 (원)	殯殿都監儀軌	전체 47.9×35.0×5.6 변철 2.7 원환 5.3 / 3.9 국화동 1.9
외규194 / 외규482 (coréen 2507)	정성왕후혼전도감의궤 貞聖王后魂殿都監儀軌	영조 33 (1757)	185		어람건	—	魂殿都監儀軌 (원)	魂殿都監儀軌	전체 47.9×35.1×5.4 변철 2.7 원환 5.3 / 3.9 국화동 1.9
외규195 / 외규483 (coréen 2508)	정성왕후국장도감의궤 (하) 貞聖王后國葬都監儀軌 (下)	영조 33 (1757)	245		어람건	도설 채색	弘陵國葬都監 儀軌 下(원)	乾隆二十二年丁丑二 月日 國葬都監二房 儀軌	전체 48.4×34.7×6.8 변철 2.7 원환 5.3 / 4.0 국화동 2.0
외규196 / 외규484 (coréen 2582)	인원왕후명릉산릉도감의궤 (상) 仁元王后明陵山陵都監儀軌 (上)	영조 33 (1757)	146		어람건	도설 채색	明陵山陵都監 儀軌 上(원)	乾隆二十二年丁丑 三月日 山陵都監儀 軌上	전체 47.8×34.5×4.2 변철 2.6 원환 5.2 / 3.8 국화동 2.2(앞3: 2.4, 앞5: 1.9)
외규197 / 외규485 (coréen 2412)	인원왕후명릉산릉도감의궤 (하) 仁元王后明陵山陵都監儀軌 (下)	영조 33 (1757)	152		어람건	—	明陵山陵都監 儀軌 下	乾隆二十二年丁丑 三月日 山陵都監儀 軌下	전체 47.7×34.2×4.6 변철 2.6 원환 5.3 / 3.9 국화동 2.2
외규198 / 외규486 (coréen 2605)	인원왕후빈전도감의궤 仁元王后殯殿都監儀軌	영조 33 (1757)	179		어람건	도설 채색	殯殿都監儀軌 (원)	殯殿都監儀軌	전체 47.9×35.1×5.4 변철 2.8 원환 5.1 / 3.9 국화동 2.0
외규199 / 외규487 (coréen 2500)	인원왕후혼전도감의궤 仁元王后魂殿都監儀軌	영조 33 (1757)	177		어람건	—	魂殿都監儀軌 (원)	魂殿都監儀軌	전체 47.8×34.9×5.3 변철 2.8 원환 5.2 / 4.0 국화동 1.9

변철 상세 정보	장황 재료	책의 직물명 (직조방법)	책의 직물 상세 정보	책의 직물 크기	제침 직물명 (직조방법)	홍협 직물명 (직조방법)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제침과 홍협은 개장된 책의(외규190)로 옮겨짐	48.1 × 34.1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뒤표지는 종이만 남음 제침과 홍협은 개장된 책의(외규191)로 옮겨짐	48.2 × 34.2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뒤표지는 종이만 남음	47.2 × 34.1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47.7 × 34.8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뒤표지는 종이만 남음	47.6 × 34.8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48.1 × 34.2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뒤표지는 종이만 남음	47.0 × 34.2	종이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제침과 홍협은 개장된 책의(외규197)로 옮겨짐	47.0 × 34.2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47.7 × 34.8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47.7 × 34.8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유물 번호	서명	제작 시기	장수	유일본 여부	어람건/ 분상건	도설 및 반차도	표제	내제	크기
외규200 / 외규488 (coréen 2583)	인원왕후국장도감의궤 (상) 仁元王后國葬都監儀軌(上)	영조 33 (1757)	209		어람건	도설 채색	明陵國葬都監 儀軌 上(원)	乾隆二十二年丁丑三 月日國葬都監都廳 儀軌	전체 48.5×34.8×5.7 변철 2.9 원환 5.1 / 4.1 국화동 2.0
외규201 / 외규489 (coréen 2584)	인원왕후국장도감의궤 (하) 仁元王后國葬都監儀軌(下)	영조 33 (1757)	200		어람건	도설 채색	明陵國葬都 監…(원)	乾隆二十二年丁丑 三月日國葬都監二 房儀軌	전체 48.4×34.9×5.2 변철 2.8 원환 5.2 / 3.9 국화동 2.0
외규202 / 외규490 (coréen 2437)	인원왕후부묘도감의궤 仁元王后附廟都監儀軌	영조 35 (1759)	170		어람건	반차도 36면, 도설 채색	附廟都監儀軌	乾隆二十四年己卯 五月日附廟都監都 廳儀軌	전체 47.2×34.7×6.5 변철 2.7 원환 4.8 / 3.7 국화동 2.2(뒤3: 2.1)
외규203 / 외규491 (coréen 2534)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상) 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上)	영조 35 (1759)	150		어람건	도설 채색	嘉禮都監儀軌 上(원)	乾隆二十四年己卯 六月日 嘉禮都監儀軌	전체 47.3×33.6×4.8 변철 2.6 원환 5.0 / 3.8 국화동 2.0
외규204 / 외규492 (coréen 2535)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하) 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下)	영조 35 (1759)	138		어람건	반차도 50면, 도설 채색	嘉禮都監儀軌 下(원)	乾隆二十四年己卯 六月日 二房儀軌	전체 47.2×33.8×3.9 변철 2.7 원환 5.1 / 3.8 국화동 2.0
외규205 / 외규493 (coréen 2650)	정조왕세손책례도감의궤 正祖王世孫册禮都監儀軌	영조 35 (1759)	119		어람건	도설 채색	册禮都監儀軌 (원)	乾隆二十四年己卯 六月日 册禮都監儀軌	전체 47.3×33.6×3.3 변철 2.6 원환 5.1 / 4.0 국화동 2.1
외규206 / 외규494 (coréen 2586)	사도세자묘소도감의궤 (하) 思悼世子墓所都監儀軌(下)	영조 38 (1762)	136		어람건	—	墓所都監儀 軌…(원)	乾隆二十七年壬午 閏五月日墓所都監 儀軌下	전체 47.4×34.6×4.5 변철 2.8 원환 4.6 / 3.3 국화동 1.9
외규207 / 외규495 (coréen 2595)	사도세자빈궁훈공도감의궤 (하) 思悼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下)	영조 38 (1762)	87		어람건	—	殯宮魂宮都監 儀軌 下(원)	殯宮都監二房儀軌	전체 47.7×34.5×2.9 변철 2.7 원환 4.8 / 3.6 국화동 1.9
외규208 / 외규496 (coréen 2630)	수은묘영건청의궤 垂恩廟營建廳儀軌	영조 40 (1764)	195		어람건	도설 채색	垂恩廟(營建)廳 儀軌(원)	乾隆二十九年甲申 正月日 垂恩廟營建廳儀軌	전체 47.7×33.7×6.5 변철 2.6 국화동 2.0
외규209 / 외규497 (coréen 2547)	태조건원릉정자각중수도감의궤 太祖健元陵丁字閣重修都監儀軌	영조 40 (1764)	78		어람건	—	健元陵丁字閣 重修都監儀軌 (원)	乾隆二十九年甲申 二月日 重修都監儀軌	전체 48.5×33.9×3.9 변철 3.0 원환 4.8 / 3.6 국화동 2.4

변철 상세 정보	장황 재료	책의 직물명 (직조방법)	책의 직물 상세 정보	책의 직물 크기	제침 직물명 (직조방법)	홍협 직물명 (직조방법)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47.9 × 34.4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48.2 × 34.1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제침과 홍협은 개장된 책의(외규202)로 옮겨짐	46.9 × 35.0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뒤표지 직물은 변철 부분 소량만 남아 있음	46.8 × 33.3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뒤표지 직물은 변철 부분 소량만 남아 있음	46.8 × 33.5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47.0 × 33.2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47.2 × 33.3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47.3 × 34.2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연꽃넝쿨문) 원환(유실)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47.5 × 33.6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48.0 × 33.9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유물 번호	서명	제작 시기	장수	유일본 여부	어람건/분상건	도설 및 반차도	표제	내제	크기
외규210 / 외규498 (coréen 2422)	영조정성왕후정순왕후장헌세자혜빈존후도감의궤 (상) 英祖貞聖王后貞純王后莊獻世子惠嬪尊號都監儀軌(上)	정조 8 (1784)	180		어람건 (외규 장각)	—	…上號都監儀軌 上	乾隆四十九年甲辰七月日 英宗大王 貞聖王 后追上尊號 王大妃殿加上尊號 景慕宮追上尊號 惠慶宮加上尊號都監儀軌	전체 49.6×34.0×6.8 변철 2.7 원환 5.5 / 4.5 국화동 1.9
외규211 / 외규499 (coréen 2651)	문효세자책례도감의궤 文孝世子冊禮都監儀軌	정조 8 (1784)	198		어람건 (외규 장각)	반차도 12면, 도설 채색	冊禮都監儀軌 (원)	乾隆四十九年甲辰八月日 王世子冊禮都監儀軌	전체 49.7×34.1×9.0 변철 2.9 원환 5.9 / 4.8 국화동 1.6(뒤4: 1.7)
외규212 / 외규500 (coréen 2690)	문효세자묘소도감의궤 (상) 文孝世子墓所都監儀軌(上)	정조 10 (1786)	147		어람건 (규장각)	도설 흑백	文孝世子墓所都監儀軌 上 (원)	文孝世子墓所都監儀軌	전체 47.7×33.8×5.4 변철 3.3 원환 6.3 / 4.9 국화동 2.7(뒤3: 2.1)
외규213 / 외규501 (coréen 2684)	문효세자묘소도감의궤 (하) 文孝世子墓所都監儀軌(下)	정조 10 (1786)	110		어람건 (규장각)	—	…世子墓所都監儀…(원)	三物所	전체 47.6×33.8×4.6 변철 3.3 원환 6.3 / 4.9 국화동 2.7(뒤3: 2.1)
외규214 / 외규502 (coréen 2692)	문효세자빈궁훈궁도감의궤 (상) 文孝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上)	정조 10 (1786)	157		어람건 (규장각)	—	—	文孝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	전체 48.3×33.7×5.7 변철 2.3 원환 4.2 / 3.1 국화동 1.6
외규215 / 외규503 (coréen 2693)	문효세자빈궁훈궁도감의궤 (하) 文孝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下)	정조 10 (1786)	195		어람건 (규장각)	도설 채색	文孝世子殯…(원)	文孝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	전체 48.7×33.6×7.0 변철 2.3 원환 6.3 / 3.0 국화동 1.6
외규216 / 외규504 (coréen 2573)	문효세자예장도감의궤 (상) 文孝世子禮葬都監儀軌(上)	정조 10 (1786)	201		어람건	도설 채색	…葬都監儀軌…(원)	乾隆五十一年丙午月日 禮葬都監都廳儀軌	전체 48.4×36.1×7.9 변철 3.2 원환 6.1 / 4.8 국화동 2.4(뒤3: 2.2, 뒤4: 2.3)
외규217 / 외규505 (coréen 2691)	문효세자예장도감의궤 (하) 文孝世子禮葬都監儀軌(下)	정조 10 (1786)	224		어람건	도설 채색	文孝世子禮葬都監儀軌 下 (원)	乾隆五十一年丙午五月日 禮葬都監三房儀軌	전체 48.2×36.0×7.5 변철 3.2 원환 6.3 / 5.0 국화동 2.5
외규218 / 외규506 (coréen 2688)	정순왕후가상존후도감의궤 貞純王后加上尊號都監儀軌	정조 11 (1787)	113		어람건 (규장각)	반차도 8면, 도설 채색	—	乾隆五十二年丁未正月日 王大妃殿加上尊號都監儀軌	전체 47.7×33.8×3.9 변철 3.0 원환 6.5 / 5.1 국화동 2.3

변철 상세 정보	장황 재료	책의 직물명 (직조방법)	책의 직물 상세 정보	책의 직물 크기	제침 직물명 (직조방법)	홍협 직물명 (직조방법)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제침과 홍협은 개장된 책의(외규210)로 옮겨짐	49.2 × 34.2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49.3 × 33.1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46.1 × 33.5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47.1 × 32.2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48.0 × 33.9	—	—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47.9 × 33.4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47.7 × 35.2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47.9 × 36.2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양화仰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47.5 × 34.0	—	—

유물 번호	서명	제작 시기	장수	유일본 여부	어람건/분상건	도설 및 반차도	표제	내제	크기
외규219 / 외규507 (coréen 2689)	문희묘영건청등록 文禧廟營建廳謄錄	정조 14 (1790)	173		어람건	반차도 25면, 도설 채색	文禧廟營建廳謄錄 全(원)	文禧廟營建廳謄錄	전체 45.4×34.0×5.1 변철 2.4 원환 3.9 / 2.8 국화동 1.9(뒤1: 2.3)
외규220 / 외규508 (coréen 2476)	장헌세자현릉원원소도감의궤(상) 莊獻世子顯陵園園所都監儀軌(上)	정조 13 (1789)	267		어람건 (규장각)	도설 채색	顯隆園園所都監儀軌 上(원)	顯隆園園所都監儀軌 上	전체 49.7×36.9×9.7 변철 2.9 원환 5.7 / 4.3 국화동 2.3
외규221 / 외규509 (coréen 2696)	장헌세자영원천봉도감의궤(4) 莊獻世子永祜園遷奉都監儀軌(四)	정조 13 (1789)	142		어람건	반차도 42면, 도설 채색	…園遷奉都監儀軌 四(원)	乾隆五十四年己酉十月日 永祜園遷奉都監一房儀軌	전체 48.4×33.7×5.8 변철 2.7 원환 4.8 / 3.5 국화동 2.3
외규222 / 외규510 (coréen 2537)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궤(상) 純祖純元王后嘉禮都監儀軌(上)	순조 2 (1802)	262		어람건	도설 채색	—	嘉禮都監儀軌 上	전체 48.6×35.4×9.0 변철 3.0 원환 5.1 / 3.7 국화동 2.2
외규223 / 외규511 (coréen 2536)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궤(하) 純祖純元王后嘉禮都監儀軌(下)	순조 2 (1802)	177		어람건	반차도 66면, 도설 채색	—	嘉禮都監儀軌 下	전체 48.6×35.3×6.2 변철 3.0 원환 5.0 / 3.8 국화동 2.4
외규224 / 외규512 (coréen 2687)	효명세자책례도감의궤 孝明世子冊禮都監儀軌	순조 12 (1812)	145		어람건	반차도 12면, 도설 채색	결락	嘉慶十七年壬申七月日 王世子冊禮都監都廳儀軌	전체 47.5×33.8×5.0 변철 2.8 원환 4.0 / 2.9 국화동 2.1 / 0.6
외규225 / 외규513 (coréen 2475)	헌경혜빈현릉원원소도감의궤(상) 獻敬惠嬪顯陵園園所都監儀軌(上)	순조 16 (1816)	130		어람건 (규장각)	—	獻敬惠嬪顯隆園園所都監儀軌…(원)	顯隆園園所都監儀軌 上	전체 46.3×33.3×5.3 변철 3.3 원환 6.0 / 4.6 국화동 2.7
외규226 / 외규514 (coréen 2467)	헌경혜빈현릉원원소도감의궤(하) 獻敬惠嬪顯隆園園所都監儀軌(下)	순조 16 (1816)	175		어람건 (규장각)	도설 채색	獻敬惠嬪顯隆園園所都監儀軌…(원)	顯隆園園所都監儀軌 下	전체 46.1×33.1×7.6 변철 3.4 원환 6.0 / 4.6 국화동 2.6
외규227 / 외규515 (coréen 2471)	헌경혜빈빈궁훈공도감의궤(상) 獻敬惠嬪賓宮魂宮都監儀軌(上)	순조 16 (1816)	140		어람건 (규장각)	—	獻敬惠嬪賓宮魂(宮都監儀軌)(원)	獻敬惠嬪賓宮魂宮都監儀軌	전체 47.3×33.3×5.4 변철 2.9 원환 5.2 / 3.9 국화동 2.2
외규228 / 외규516 (coréen 2469)	헌경혜빈빈궁훈공도감의궤(중) 獻敬惠嬪賓宮魂宮都監儀軌(中)	순조 16 (1816)	212		어람건 (규장각)	도설 채색	獻敬惠嬪賓宮魂宮都監儀軌 中(원)	獻敬惠嬪賓宮魂宮都監一房儀軌	전체 47.4×33.5×7.7 변철 2.9 원환 5.1 / 3.9 국화동 2.2

변철 상세 정보	장황 재료	책의 직물명 (직조방법)	책의 직물 상세 정보	책의 직물 크기	제침 직물명 (직조방법)	홍첩 직물명 (직조방법)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7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45.2 × 33.7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양, 복화伏花) 뒤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49.7 × 36.8	무문단 (바닥조작:5매3뿔 경주자)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복화伏花, 일부 원판圓板+복화伏花 혼입)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48.1 × 33.1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형圓形+원판圓板, 일부 복화伏花 혼입)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뒤표지는 종이만 남음	48.2 × 33.9	—	—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형圓形+원판圓板, 일부 복화伏花 혼입)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	④종이만 남음	48.7 × 35.1	—	—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2겹)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뒤표지 직물은 변철 부분 소량만 남아 있음	47.2 × 33.6	—	—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제침 직물은 결과안이 뒤집혀져 보이는 부분이 안쪽면임 후배지 있음	45.7 × 32.3	무문단 (바닥조작:5매2뿔 경주자)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제침 직물은 결과안이 뒤집혀져 보이는 부분이 안쪽면임 후배지 있음	45.6 × 32.6	무문단 (바닥조작:5매2뿔 경주자)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양화仰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능화판으로 만자문지화문을 찍어서 무늬를 냄 ④후배지 있음	47.2 × 33.4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양화仰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능화판으로 만자문지화문을 찍어서 무늬를 냄 ④후배지 있음	47.3 × 33.5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유물 번호	서명	제작 시기	장수	유일본 여부	어람건/분상건	도설 및 반차도	표제	내제	크기
외규229 / 외규517 (coréen 2468)	헌경혜빈빈궁훈궁도감의궤 (하) 獻敬惠嬪賓宮魂宮都監儀軌(下)	순조 16 (1816)	212		어람건 (규장각)	도설 채색	獻敬惠嬪(嬪殯)宮魂宮都監儀軌 下(원)	獻敬惠嬪殯宮魂宮都監二房儀軌	전체 47.3×33.6×7.1 변철 2.7 원환 5.1 / 3.9 국화동 2.2
외규230 / 외규518 (coréen 2470)	헌경혜빈양례도감의궤 (1) 獻敬惠嬪襄禮都監儀軌(一)	순조 16 (1816)	216		어람건 (규장각)	—	獻敬惠嬪襄禮都監儀軌 一(원)	獻敬惠嬪襄禮都監儀軌卷首	전체 46.8×33.4×7.5 변철 2.9 원환 4.8 / 3.6 국화동 2.0
외규231 / 외규519 (coréen 2466)	헌경혜빈양례도감의궤 (2) 獻敬惠嬪襄禮都監儀軌(二)	순조 16 (1816)	180		어람건 (규장각)	반차도 46면, 도설 채색	獻敬惠嬪襄禮都監儀軌 二	獻敬惠嬪襄禮都監儀軌卷之二	전체 46.6×33.2×6.4 변철 2.9 원환 4.8 / 3.7 국화동 2.0
외규232 / 외규520 (coréen 2472)	헌경혜빈양례도감의궤 (3) 獻敬惠嬪襄禮都監儀軌(三)	순조 16 (1816)	143		어람건 (규장각)	도설 채색	獻敬惠嬪襄禮都監儀軌 三(원)	獻敬惠嬪襄禮都監儀軌卷之三	전체 46.8×33.1×5.5 변철 2.9 원환 4.9 / 3.7 국화동 2.0
외규233 / 외규521 (coréen 2473)	헌경혜빈양례도감의궤 (4) 獻敬惠嬪襄禮都監儀軌(四)	순조 16 (1816)	155		어람건 (규장각)	도설 채색	獻敬惠嬪襄禮都監儀軌 四(원)	獻敬惠嬪襄禮都監儀軌卷之四	전체 47.0×33.7×5.3 변철 2.8 원환 4.8 / 3.7 국화동 1.9
외규234 / 외규522 (coréen 2474)	헌경혜빈부궁도감의궤 獻敬惠嬪附宮都監儀軌	순조 18 (1818)	166		어람건 (규장각)	반차도 28면, 도설 채색	獻敬惠嬪附宮都監儀軌 全(원)	獻敬惠嬪附宮都監儀軌	전체 46.9×34.7×5.5 변철 2.9 원환 4.9 / 4.4 국화동 2.3
외규235 / 외규523 (coréen 2683)	효명세자가례도감의궤 (상) 孝明世子嘉禮都監儀軌(上)	순조 19 (1819)	247		어람건 (규장각)	도설 채색	王世子嘉禮都監儀軌 上(원)	王世子嘉禮都監儀軌 上	전체 46.3×33.0×7.8 변철 2.9 원환 5.7 / 4.4 국화동 2.3(뒤1: 2.5)
외규236 / 외규524 (coréen 2540)	정조효의왕후건릉산릉도감의궤 (상) 正祖孝懿王后健陵山陵都監儀軌(上)	순조 21 (1821)	264		어람건 (규장각)	—	[正宗大王山陵遷健陵山陵都監儀軌 上(원) 陵奉孝懿王后因山兼行健陵山陵都監儀軌 上(원)]	健陵山陵都監儀軌 上	전체 46.0×31.8×9.1 변철 2.6 원환 4.2 / 3.0 국화동 2.0
외규237 (coréen 2445)	효의왕후빈전훈전도감의궤 (상) 孝懿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上)	순조 21 (1821)	134		어람건 (규장각)	—	—	孝懿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전체 47.2×33.1×5.3 변철 3.5 원환 4.7 / 3.5 국화동 2.5
외규238 / 외규525 (coréen 2457)	효의왕후빈전훈전도감의궤 (중) 孝懿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中)	순조 21 (1821)	182		어람건 (규장각)	도설 채색	…監儀軌 中	孝懿王后殯殿魂殿都監一房儀軌	전체 47.0×33.3×6.5 변철 3.4 원환 4.3 / 3.0 국화동 2.5

변철 상세 정보	장황 재료	책의 직물명 (직조방법)	책의 직물 상세 정보	책의 직물 크기	제침 직물명 (직조방법)	홍협 직물명 (직조방법)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양화仰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능화판으로 만자문지화문을 찍어서 무늬를 냄 ④후배지 있음	47.2 × 33.3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후배지 있음	46.7 × 33.4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후배지 있음 제침과 홍협은 개장된 책의(외규231)로 옮겨짐	46.5 × 33.2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뒤표지는 종이만 남음	46.7 × 33.2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후배지 있음	46.8 × 33.3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양화仰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46.7 × 34.6	무문단 (바닥조작:5매2뿔 경주자)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양·양화仰花, 뒤: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45.8 × 32.8	무문단 (바닥조작:5매2뿔 경주자)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앞표지 우측 상단에 작은 작은 표제가 더 있음 뒤표지는 종이만 남음 후배지 있음	45.5 × 30.1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양화仰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	④책의 직물 없음	—	—	—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후배지 있음 제침과 홍협은 개장된 책의(외규238)로 옮겨짐	46.9 × 33.7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유물 번호	서명	제작 시기	장수	유일본 여부	어람건/분상건	도설 및 반차도	표제	내제	크기
외규239 / 외규526 (coréen 2452)	효의왕후빈전혼전도감의례 (하) 孝懿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下)	순조 21 (1821)	224		어람건 (규장각)	도설 채색	孝懿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下	孝懿王后殯殿魂殿都監二房儀軌	전체 47.2×33.1×8.4 변철 3.4 원환 4.6 / 3.5 국화동 2.5
외규240 / 외규527 (coréen 2454)	효의왕후국장도감의례 (1) 孝懿王后國葬都監儀軌 (一)	순조 21 (1821)	196		어람건 (규장각)	—	—	孝懿王后國葬都監儀軌卷首	전체 45.6×33.2×6.8 변철 2.7 원환 4.1 / 2.9 국화동 2.0
외규241 / 외규528 (coréen 2455)	효의왕후국장도감의례 (2) 孝懿王后國葬都監儀軌 (二)	순조 21 (1821)	195		어람건 (규장각)	반차도 40면, 도설 채색	—	孝懿王后國葬都監儀軌卷之二	전체 46.1×33.2×6.9 변철 2.6 원환 4.1 / 2.9 국화동 2.0
외규242 / 외규529 (coréen 2453)	효의왕후국장도감의례 (3) 孝懿王后國葬都監儀軌 (三)	순조 21 (1821)	134		어람건 (규장각)	도설 채색	—	孝懿王后國葬都監儀軌卷之三	전체 46.0×33.1×5.2 변철 2.6 원환 4.1 / 2.9 국화동 2.0
외규243 / 외규530 (coréen 2545)	정조건릉천봉도감의례 (1) 正祖健陵遷奉都監儀軌 (一)	순조 21 (1821)	100		어람건 (규장각)	—	결락	健陵遷奉都監儀軌卷首	전체 46.3×33.4×4.0 변철 2.7 원환 4.2 / 3.0 국화동 2.4(뒤3: 2.7)
외규244 / 외규531 (coréen 2543)	정조건릉천봉도감의례 (3) 正祖健陵遷奉都監儀軌 (三)	순조 21 (1821)	115		어람건 (규장각)	반차도 30면, 도설 채색	—	健陵遷奉都監儀軌 三(원) 道光元年辛巳九月日 健陵遷奉都監一房儀軌	전체 46.0×33.3×5.0 변철 2.8 원환 4.2 / 3.0 국화동 2.3
외규245 / 외규532 (coréen 2544)	정조건릉천봉도감의례 (4) 正祖健陵遷奉都監儀軌 (四)	순조 21 (1821)	128		어람건 (규장각)	도설 채색	—	健陵遷奉都監儀軌 四(원) 道光元年辛巳九月日 健陵遷奉都監二房儀軌	전체 46.0×33.4×5.3 변철 2.8 원환 4.2 / 3.0 국화동 2.0
외규246 / 외규533 (coréen 2542)	정조건릉천봉도감의례 (5) 正祖健陵遷奉都監儀軌 (五)	순조 21 (1821)	203		어람건 (규장각)	도설 채색	—	道光元年辛巳九月日 健陵遷奉都監三房儀軌	전체 46.3×33.6×7.9 변철 2.8 원환 4.2 / 3.0 국화동 2.2
외규247 / 외규534 (coréen 2546)	정조건릉천봉도감의례 (6) 正祖健陵遷奉都監儀軌 (六)	순조 21 (1821)	142		어람건 (규장각)	도설 채색	—	道光元年辛巳九月日 健陵遷奉都監殯殿所儀軌	전체 46.2×33.5×5.3 변철 2.7 원환 4.2 / 3.0 국화동 2.4
외규248 / 외규535 (coréen 2541)	정조건릉천봉도감의례 (7) 正祖健陵遷奉都監儀軌 (七)	순조 21 (1821)	96		어람건 (규장각)	—	—	健陵遷奉都監儀軌 七(원) 道光元年辛巳九月日 健陵遷奉都監內別工作儀軌	전체 46.3×33.4×4.1 변철 2.8 원환 4.2 / 3.0 국화동 2.3

변철 상세 정보	장황 재료	책의 직물명 (직조방법)	책의 직물 상세 정보	책의 직물 크기	제침 직물명 (직조방법)	홍협 직물명 (직조방법)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양화(仰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후배지 있음 제침과 홍협은 개장된 책의(외규239)로 옮겨짐	46.6 × 33.1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양화(仰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직물은 앞표지 변철 부분에 소량 남아 있음 후배지 있음	45.2 × 34.2	—	—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앞: 양화(仰花), 뒤: 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직물은 앞표지에 소량 남아 있음 후배지 있음	45.2 × 32.8	—	—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직물은 앞표지 변철 부분에 소량 남아 있음 후배지 있음	45.3 × 31.8	—	—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앞: 양화(仰花), 뒤: 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후배지 있음	45.8 × 31.2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앞: 양화(仰花), 뒤: 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후배지 있음	45.6 × 32.6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후배지 있음	45.0 × 33.4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앞표지 직물은 중심 부분에 소량만 있음	46.2 × 33.2	—	—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후배지 있음	45.9 × 33.5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앞: 양화(仰花), 뒤: 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후배지 있음	45.8 × 33.3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유물 번호	서명	제작 시기	장수	유일본 여부	어람건/분상건	도설 및 반차도	표제	내제	크기
외규249 / 외규536 (coréen 2495)	현목수빈휘경원원소도감의궤 (상) 顯穆綏嬪徽慶園園所都監儀軌(上)	순조 23 (1823)	129		어람건 (규장각)	—	—	徽慶園園所都監儀軌上	전체 48.2×34.4×3.8 변철 2.8 원환 5.9 / 4.8 국화동 2.3
외규250 / 외규537 (coréen 2484)	현목수빈휘경원원소도감의궤 (하) 顯穆綏嬪徽慶園園所都監儀軌(下)	순조 23 (1823)	228		어람건 (규장각)	도설 채색	…都監儀軌…(원)	道光二年壬午十二月日三物所儀軌	전체 48.2×34.1×8.5 변철 2.9 원환 5.9 / 4.8 국화동 1.8~2.0
외규251 / 외규538 (coréen 2479)	현목수빈빈궁훈궁도감의궤 (상) 顯穆綏嬪賓宮魂宮都監儀軌(上)	순조 23 (1823)	114		어람건 (규장각)	—	顯穆綏嬪殯…(원)	顯穆綏嬪殯宮魂宮都監儀軌	전체 47.4×33.3×5.0 변철 2.8 원환 5.7 / 4.3 국화동 2.4
외규252 / 외규539 (coréen 2480)	현목수빈빈궁훈궁도감의궤 (중) 顯穆綏嬪殯宮魂宮都監儀軌(中)	순조 23 (1823)	154		어람건 (규장각)	도설 채색	—	顯穆綏嬪殯宮魂宮都監一房儀軌	전체 47.0×33.0×6.0 변철 2.8 원환 5.7 / 4.4 국화동 2.4(뒤: 2.7)
외규253 / 외규540 (coréen 2478)	현목수빈빈궁훈궁도감의궤 (하) 顯穆綏嬪殯宮魂宮都監儀軌(下)	순조 23 (1823)	210		어람건 (규장각)	도설 채색	顯穆綏嬪殯宮魂宮都監儀軌下(원)	顯穆綏嬪殯宮魂宮都監二房儀軌	전체 47.2×33.2×7.5 변철 2.8 원환 5.9 / 4.5 국화동 2.4
외규254 / 외규541 (coréen 2477)	현목수빈장례도감의궤 (1) 顯穆綏嬪葬禮都監儀軌(一)	순조 23 (1823)	151		어람건 (규장각)	—	…(禮都)…(원)	顯穆綏嬪葬禮都監儀軌卷首	전체 46.0×33.2×5.5 변철 2.8 원환 5.4 / 4.2 국화동 2.2
외규255 / 외규542 (coréen 2481)	현목수빈장례도감의궤 (2) 顯穆綏嬪葬禮都監儀軌(二)	순조 23 (1823)	170		어람건 (규장각)	반차도 32면, 도설 채색	顯穆綏嬪葬禮都監儀軌…(원)	顯穆綏嬪葬禮都監儀軌卷之二	전체 45.9×33.1×6.1 변철 2.9 원환 5.4 / 4.2 국화동 2.2
외규256 / 외규543 (coréen 2483)	현목수빈장례도감의궤 (3) 顯穆綏嬪葬禮都監儀軌(三)	순조 23 (1823)	103		어람건 (규장각)	도설 채색	顯穆綏嬪葬禮都監儀軌三(원)	顯穆綏嬪葬禮都監儀軌卷之三	전체 45.7×33.0×4.2 변철 2.8 원환 5.5 / 4.3 국화동 2.2
외규257 / 외규544 (coréen 2482)	현목수빈장례도감의궤 (4) 顯穆綏嬪葬禮都監儀軌(四)	순조 23 (1823)	142		어람건 (규장각)	도설 채색	顯穆綏嬪葬禮都監儀軌四(원)	顯穆綏嬪葬禮都監儀軌卷之四	전체 45.9×33.2×5.2 변철 2.8 원환 5.5 / 4.3 국화동 2.2
외규258 / 외규545 (coréen 2456)	효의왕후부묘도감의궤 孝懿王后附廟都監儀軌	순조 23 (1823)	144		어람건 (규장각)	반차도 26면, 도설 채색	孝懿王后附太廟都監儀軌全	道光三年癸未五月日孝懿王后附廟都監儀軌	전체 46.0×33.0×5.8 변철 2.7 원환 5.6 / 4.3 국화동 2.1

변철 상세 정보	장황 재료	책의 직물명 (직조방법)	책의 직물 상세 정보	책의 직물 크기	제침 직물명 (직조방법)	홍첩 직물명 (직조방법)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후배지 있음	48.0 × 32.7	—	—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양화(仰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후배지 있음	48.2 × 33.4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양화(仰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후배지 있음 뒤표지는 종이만 남음	47.3 × 32.8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양화(仰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직물은 앞표지 변철 부분에 소량 남아 있음 후배지 있음	47.1 × 32.9	—	—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양화(仰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후배지 있음 뒤표지는 종이만 남음	46.8 × 32.5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양화(仰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후배지 있음	45.8 × 33.0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양화(仰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후배지 있음	45.8 × 33.2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양화(仰花), 뒤: 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후배지 있음	45.6 × 33.1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양화(仰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후배지 있음	45.7 × 32.9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양화(仰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푸른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전체적으로 푸른색/후배지 있음 제침 직물은 겉과 안이 뒤집혀져 보이는 부분이 안쪽면임 제침과 홍첩은 개장된 책의(외규258)로 옮겨짐	45.8 × 33.1	무문단 (바닥조작:5매3원 경주자)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유물 번호	서명	제작 시기	장수	유일본 여부	어람건/분상건	도설 및 반차도	표제	내제	크기
외규259 / 외규546 (coréen 2487)	현사궁별묘영건도감의궤 顯思宮別廟營建都監儀軌	순조 24 (1824)	154		어람건 (규장각)	도설 채색	결락	顯思宮別廟營建都監儀軌	전체 45.8×32.1×6.0 변철 2.5 원환 4.5 / 3.5 국화동 2.0
외규260 / 외규547 (coréen 2485)	현목수빈입묘도감의궤 顯穆綏嬪入廟都監儀軌	순조 25 (1825)	167		어람건 (규장각)	반차도 20면	…穆綏嬪入廟都監儀軌 全 (원)	顯穆綏嬪入廟都監儀軌	전체 46.2×32.3×6.5 변철 2.6 원환 4.0 / 2.7 국화동 2.2 / 1.5
외규261 / 외규548 (coréen 2459)	효명세자장례도감의궤 (1) 孝明世子葬禮都監儀軌 (一)	순조 30 (1830)	150		어람건 (규장각)	—	孝明世子葬禮都監儀軌 一	孝明世子葬禮都監儀軌 卷首	전체 46.5×33.0×5.5 변철 2.5 원환 5.2 / 3.6 국화동 2.1
외규262 / 외규549 (coréen 2610)	서궐영건도감의궤 西闕營建都監儀軌	순조 32 (1832)	139		어람건 (규장각)	도설 흑백	西闕營建都監儀軌 (원)	西闕營建都監儀軌	전체 45.2×33.4×5.1 변철 2.5 원환 5.2 / 3.6 국화동 2.4
외규263 / 외규550 (coréen 2458)	효명세자입묘도감의궤 孝明世子入廟都監儀軌	순조 32 (1832)	145		어람건 (규장각)	반차도 40면	孝明世子入廟都監儀軌 …	孝明世子入廟都監儀軌	전체 46.4×33.8×5.3 변철 3.0 원환 5.5 / 4.3 국화동 2.6 / 2.1
외규264 / 외규551 (coréen 2518)	순조인릉산릉도감의궤 (상) 純祖仁陵山陵都監儀軌 (上)	헌종 1 (1835)	256		어람건 (규장각)	—	…宗大王仁陵山陵都監儀軌…(원)	仁陵山陵都監儀軌 上	전체 46.8×33.9×10.2 변철 3.4 원환 6.5 / 4.9 국화동 2.8 / 2.0
외규265 / 외규552 (coréen 2632)	순조국장도감의궤 (2) 純祖國葬都監儀軌 (二)	헌종 1 (1835)	212		어람건 (규장각)	반차도 64면, 도설 채색	純宗大王國葬都監儀軌 二 (원)	純宗大王國葬都監儀軌 卷之二	전체 46.2×33.8×8.7 변철 3.5 원환 6.5 / 4.9 국화동 2.8 / 2.1
외규266 / 외규553 (coréen 2631)	순조국장도감의궤 (3) 純祖國葬都監儀軌 (三)	헌종 1 (1835)	172		어람건 (규장각)	도설 채색	純宗大王國葬都監儀軌 三 (원)	純宗大王國葬都監儀軌 卷之三	전체 45.8×33.5×7.0 변철 3.5 원환 6.6 / 4.9 국화동 2.8 / 2.1
외규267 / 외규554 (coréen 2679)	순원왕후신정왕후존순도감의궤 純元王后神貞王后尊崇都監儀軌	헌종 3 (1837)	146		어람건 (규장각)	반차도 15면, 도설 채색	尊崇都監儀軌 全 (원)	道光十六年丙申十月 日 大王大妃殿 王大妃殿尊崇都監儀軌	전체 48.1×34.4×5.9 변철 3.4 원환 7.5 / 5.7 국화동 2.6 / 2.1
외규268 / 외규555 (coréen 2538)	헌종효현왕후가례도감의궤 (상) 憲宗孝顯王后嘉禮都監儀軌 (上)	헌종 3 (1837)	245		어람건 (규장각)	도설 채색	嘉禮都監儀軌 上 (원)	嘉禮都監儀軌 上	전체 47.1×34.2×10.2 변철 2.1 원환 5.0 / 3.7 국화동 1.9

변철 상세 정보	장황 재료	책의 직물명 (직조방법)	책의 직물 상세 정보	책의 직물 크기	제침 직물명 (직조방법)	홍첩 직물명 (직조방법)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후배지 있음	44.2 × 25.2	무문단 (바닥조작:5매2웹 경주자)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2겹)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뒤표지는 종이만 남음	45.6 × 32.0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양화仰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후배지 있음 제침과 홍첩은 개장된 책의(외규261)로 옮겨짐	46.1 × 32.9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44.8 × 33.4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2겹)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후배지 있음 제침과 홍첩은 개장된 책의(외규263)로 옮겨짐	46.2 × 33.5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2겹)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46.9 × 33.4	무문단 (바닥조작:5매3웹 경주자)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2겹)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후배지 있음	45.8 × 33.5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연꽃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2겹)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후배지 있음	45.6 × 33.6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2겹)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47.8 × 34.2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민무늬)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양화仰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46.6 × 34.0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유물 번호	서명	제작 시기	장수	유일본 여부	어람건/분상건	도설 및 반차도	표제	내제	크기
외규269 / 외규556 (coréen 2539)	헌종효현왕후가례도감의궤 (하) 憲宗孝顯王后嘉禮都監儀軌 (下)	헌종 3 (1837)	180		어람건 (규장각)	반차도 68면, 도설 채색	嘉禮都監儀軌 下(원)	嘉禮都監儀軌 下	전체 46.8×34.1×7.2 변철 2.2 국화동 2.0
외규270 / 외규557 (coréen 2423)	순원왕후상호도감의궤 純元王后上號都監儀軌	헌종 7 (1841)	178		어람건 (규장각)	반차도 10면, 도설 채색	上號都監儀軌 全	上號都監儀軌	전체 48.4×33.9×6.5 변철 2.8 국화동 2.9 / 2.3
외규271 / 외규558 (coréen 2550)	효현왕후경릉산릉도감의궤 (상) 孝顯王后景陵山陵都監儀軌 (上)	헌종 9 (1843)	208		어람건 (규장각)	—	…王后景陵山陵都監儀軌 上(원)	景陵山陵都監儀軌	전체 46.8×33.1×7.8 변철 2.3 원환 4.9 / 3.3 국화동 2.2 / 1.6
외규272 / 외규559 (coréen 2451)	효현왕후경릉산릉도감의궤 (하) 孝顯王后景陵山陵都監儀軌 (下)	헌종 9 (1843)	252		어람건 (규장각)	도설 채색	孝顯王后景陵山陵都監儀軌 下	道光二十三年癸卯八月日三物所儀軌	전체 46.7×33.0×10.0 변철 2.3 원환 4.8 / 3.2 국화동 2.2 / 1.6
외규273 / 외규560 (coréen 2446)	효현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상) 孝顯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上)	헌종 9 (1843)	115		어람건 (규장각)	—	…(監)儀軌 上(원)	孝顯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전체 47.2×32.2×4.0 변철 2.4 국화동 2.3 / 1.7
외규274 / 외규561 (coréen 2444)	효현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중) 孝顯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中)	헌종 9 (1843)	160		어람건 (규장각)	도설 채색	孝顯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中	孝顯王后殯殿魂殿都監一房儀軌	전체 47.0×32.5×5.5 변철 2.3 원환 4.8 / 3.3 국화동 2.2 / 1.5
외규275 / 외규562 (coréen 2447)	효현왕후국장도감의궤 (1) 孝顯王后國葬都監儀軌 (一)	헌종 10 (1844)	151		어람건 (규장각)	—	孝顯王后國葬都監儀軌 一	孝顯王后國葬都監儀軌	전체 45.9×32.3×6.3 변철 2.4 원환 4.8 / 3.3 국화동 2.3 / 1.6
외규276 / 외규563 (coréen 2450)	효현왕후국장도감의궤 (2) 孝顯王后國葬都監儀軌 (二)	헌종 10 (1844)	197		어람건 (규장각)	반차도 52면, 도설 채색	孝顯王后國葬都監儀軌 二	孝顯王后國葬都監儀軌卷之二	전체 46.0×32.2×7.3 변철 2.4 원환 4.8 / 3.4 국화동 2.3 / 1.6
외규277 / 외규564 (coréen 2448)	효현왕후국장도감의궤 (3) 孝顯王后國葬都監儀軌 (三)	헌종 10 (1844)	122		어람건 (규장각)	도설 채색	결락	孝顯王后國葬都監儀軌卷之三	전체 45.9×32.1×5.0 변철 2.4 원환 4.8 / 3.4 국화동 2.3 / 1.6
외규278 / 외규565 (coréen 2449)	효현왕후국장도감의궤 (4) 孝顯王后國葬都監儀軌 (四)	헌종 10 (1844)	122		어람건 (규장각)	도설 흑백	…(王后)…(원)	孝顯王后國葬都監儀軌卷之四	전체 45.9×32.0×4.5 변철 2.3 원환 4.8 / 3.3 국화동 2.3 / 1.7

변철 상세 정보	장황 재료	책의 직물명 (직조방법)	책의 직물 상세 정보	책의 직물 크기	제침 직물명 (직조방법)	홍협 직물명 (직조방법)
무늬(민무늬) 원환(유실) 박을정 5개 국화동(양화仰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46.5 × 34.9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유실)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2겹)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후배지 있음 다른 책의 조각이 포함되어 있음 제침과 홍협은 개장된 책의(외규270)로 옮겨짐	48.2 × 33.8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2겹)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후배지 있음	46.2 × 32.7	무문단 (바닥조작:5매2ړ뵼 경주자)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2겹)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후배지 있음 제침과 홍협은 개장된 책의(외규272)로 옮겨짐	46.2 × 31.8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유실)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2겹)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후배지 있음	46.5 × 32.1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2겹)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후배지 있음 제침과 홍협은 개장된 책의(외규274)로 옮겨짐	46.9 × 32.3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2겹)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후배지 있음 제침과 홍협은 개장된 책의(외규275)로 옮겨짐	45.8 × 32.2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2겹)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후배지 있음 제침과 홍협은 개장된 책의(외규276)로 옮겨짐	45.8 × 32.2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2겹)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후배지 있음	45.8 × 31.8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2겹)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후배지 있음	45.4 × 31.9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유물 번호	서명	제작 시기	장수	유일본 여부	어람건/ 분상건	도설 및 반차도	표제	내제	크기
외규279 / 외규566 (coréen 2612)	익종수릉천봉산릉도감의궤 (상) 翼宗綏陵遷奉山陵都監儀軌 (上)	헌종 12 (1846)	251		어람건 (규장각)	—	綏陵山陵都監 儀軌 上(원)	綏陵遷奉山陵都監 儀軌	전체 48.4×33.6×9.2 변철 2.8 원환 7.1 / 5.4 국화동 2.3 / 1.8
외규280 / 외규567 (coréen 2613)	익종수릉천봉산릉도감의궤 (하) 翼宗綏陵遷奉山陵都監儀軌 (下)	헌종 12 (1846)	251		어람건 (규장각)	도설 흑백	綏陵山陵都監 儀軌 下(원)	道光二十六年丙午 二月日 三物所儀軌	전체 48.2×33.5×9.0 변철 2.8 원환 7.1 / 5.5 국화동 2.4 / 1.8
외규281 / 외규568 (coréen 2618)	익종수릉천봉도감의궤 (1) 翼宗綏陵遷奉都監儀軌 (一)	헌종 12 (1846)	131		어람건 (규장각)	—	綏陵遷奉都監 儀軌 卷之一 (원)	道光二十六年丙午 閏五月 日 綏陵遷奉都監都 廳儀軌	전체 45.5×33.5×4.8 변철 2.7 국화동 2.2(앞2·뒤1·뒤4: 1.6)
외규282 / 외규569 (coréen 2616)	익종수릉천봉도감의궤 (2) 翼宗綏陵遷奉都監儀軌 (二)	헌종 12 (1846)	103		어람건 (규장각)	—	綏陵遷奉都監 儀軌 卷之二 (원)	綏陵遷奉都監儀軌 卷之二	전체 45.5×34.2×3.3 변철 2.7 원환 5.7 / 4.1 국화동 2.5(앞1: 2.7, 뒤: 2.0)
외규283 / 외규570 (coréen 2620)	익종수릉천봉도감의궤 (3) 翼宗綏陵遷奉都監儀軌 (三)	헌종 12 (1846)	147		어람건 (규장각)	반차도 54 면, 도설 채색	綏陵遷奉都監 儀軌 卷之三 (원)	道光二十六年丙午 三月日 綏陵遷奉都監一房 儀軌	전체 45.6×33.5×4.9 변철 2.6 원환 5.6 / 4.0 국화동 2.5 / 2.0(앞5: 2.0/2.0)
외규284 / 외규571 (coréen 2615)	익종수릉천봉도감의궤 (4) 翼宗綏陵遷奉都監儀軌 (四)	헌종 12 (1846)	116		어람건 (규장각)	도설 채색	綏陵遷奉都監 儀軌 卷之四 (원)	道光二十六年丙午 三月日 綏陵遷奉都監二房 儀軌	전체 45.5×33.4×4.1 변철 2.5 국화동 2.2 / 1.6
외규285 / 외규572 (coréen 2617)	익종수릉천봉도감의궤 (5) 翼宗綏陵遷奉都監儀軌 (五)	헌종 12 (1846)	161		어람건 (규장각)	도설 채색	綏陵遷奉都監 儀軌 卷之五 (원)	道光二十六年丙午 三月日 綏陵遷奉都監三房 儀軌	전체 45.5×33.7×5.5 변철 2.7 원환 5.5 / 4.0 국화동 2.2 / 1.7(앞5: 2.5 / 1.7)
외규286 / 외규573 (coréen 2619)	익종수릉천봉도감의궤 (6) 翼宗綏陵遷奉都監儀軌 (六)	헌종 12 (1846)	98		어람건 (규장각)	도설 채색	綏陵遷奉都監 儀軌 卷之六 (원)	道光二十六年丙午三 月日 綏陵遷奉都監齋殿所 儀軌	전체 45.5×33.2×3.7 변철 2.7 원환 5.6 / 4.2 국화동 1.7
외규287 / 외규574 (coréen 2621)	익종수릉천봉도감의궤 (7) 翼宗綏陵遷奉都監儀軌 (七)	헌종 12 (1846)	134		어람건 (규장각)	—	綏陵遷奉都監 儀軌 卷之七 (원)	道光二十六年丙午 三月日 綏陵遷奉都監內別 工作儀軌	전체 45.3×33.1×4.2 변철 2.7 원환 5.5 / 4.0 국화동 2.2 / 1.7
외규288 (coréen 2492)	헌종경릉산릉도감의궤 (상) 憲宗景陵山陵都監儀軌 (上)	철종 즉위 (1849)	226		어람건 (규장각)	—	憲宗大王景陵 山陵都監儀軌 上	景陵山陵都監儀軌上	전체 45.0×32.4×6.5 변철 2.7 원환 6.2 / 4.5 국화동 2.4 / 2.0
외규289 / 외규575 (coréen 2608)	헌종경릉산릉도감의궤 (하) 憲宗景陵山陵都監儀軌 (下)	철종 즉위 (1849)	233		어람건 (규장각)	도설 채색	—	道光二十九年己酉 六月日 三物所儀軌	전체 45.0×32.5×6.6 변철 2.7 원환 3.8 / 2.9 국화동 2.2

변철 상세 정보	장황 재료	책의 직물명 (직조방법)	책의 직물 상세 정보	책의 직물 크기	제침 직물명 (직조방법)	홍첩 직물명 (직조방법)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양화卍花, 2겹)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후배지 있음	48.1 × 33.5	무문단 (바닥조작:5매2뿔 경주자)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양화卍花, 2겹)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48.1 × 33.5	무문단 (바닥조작:5매2뿔 경주자)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유실) 박을정 5개 국화동(양화卍花, 2겹)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후배지 있음	45.3 × 33.2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양화卍花, 2겹)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후배지 있음	45.3 × 33.1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양화卍花, 2겹)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후배지 있음	45.5 × 33.3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유실) 박을정 5개 국화동(양화卍花, 2겹)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후배지 있음	45.6 × 33.2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양화卍花, 2겹)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후배지 있음	45.3 × 33.1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양화卍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후배지 있음	45.3 × 33.2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양화卍花, 2겹)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후배지 있음	45.4 × 33.2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2겹)	변철 황동[豆錫] 책의 원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개장되지 않은 원 책의 그대로임 ①무늬 없음 ④후배지 있음	45.0 × 32.4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圓板+복화伏花)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44.8 × 32.4	—	—

유물 번호	서명	제작 시기	장수	유일본 여부	어람건/분상건	도설 및 반차도	표제	내제	크기
외규290 (coréen 2489)	헌종빈전훈전도감의례 (상) 憲宗殯殿魂殿都監儀軌 (上)	철종 즉위 (1849)	134		어람건 (규장각)	—	憲宗大王殯殿魂殿都監儀軌 上	憲宗大王殯殿魂殿都監儀軌	전체 45.2×31.3×4.5 변철 2.5 원환 5.9 / 4.5 국화동 2.5 / 2.0
외규291 (coréen 2488)	헌종빈전훈전도감의례 (중) 憲宗殯殿魂殿都監儀軌 (中)	철종 즉위 (1849)	170		어람건 (규장각)	도설 채색	憲宗大王殯殿魂殿都監儀軌 中	憲宗大王殯殿魂殿都監一房儀軌	전체 45.2×31.3×5.2 변철 2.6 원환 5.9 / 4.5 국화동 2.5 / 2.0
외규292 / 외규576 (coréen 2490)	헌종빈전훈전도감의례 (하) 憲宗殯殿魂殿都監儀軌 (下)	철종 즉위 (1849)	220		어람건 (규장각)	—	憲宗大王殯殿魂殿都監儀軌…(원)	憲宗大王殯殿魂殿都監二房儀軌	전체 45.2×31.2×6.0 변철 2.6 원환 5.9 / 4.4 국화동 2.5 / 2.0
외규293 (coréen 2493)	헌종국장도감의례 (1) 憲宗國葬都監儀軌 (一)	철종 1 (1850)	176		어람건 (규장각)	—	憲宗大王國葬都監儀軌 一	憲宗大王國葬都監儀軌卷首	전체 46.5×32.6×4.7 변철 3.1 원환 4.4 / 3.0 국화동 2.7 / 2.4
외규294 (coréen 2494)	헌종국장도감의례 (3) 憲宗國葬都監儀軌 (三)	철종 1 (1850)	145		어람건 (규장각)	도설 채색	憲宗大王國葬都監儀軌 三	憲宗大王國葬都監儀軌卷之三	전체 46.4×32.6×4.1 변철 3.1 원환 4.3 / 2.9 국화동 2.7 / 2.4
외규295 coréen 2491)	헌종국장도감의례 (4) 憲宗國葬都監儀軌 (四)	철종 1 (1850)	125		어람건 (규장각)	도설 흑백	憲宗大王國葬都監儀軌 四	憲宗大王國葬都監儀軌	전체 46.5×32.7×4.3 변철 3.1 원환 4.4 / 3.0 국화동 2.7 / 2.4
외규296 / 외규577 (coréen 2570)	강화부외규장각봉안책보보략어 제어필급장치서적형지안 江華府外奎章閣奉安冊寶譜略御 製御筆及藏置書籍形止案	철종 7 (1856)	48		(외규 장각)		[丙辰十一月日]奎章閣形止案(원)	咸豐六年十一月日江華府外奎章閣奉安冊寶譜略誌狀御製御筆及藏置書籍形止案	전체 49.8×31.5×2.2
외규297 / 외규578 (coréen 2571)	강화부외규장각봉안책보보략어 제어필급장치서적형지안 江華府外奎章閣奉安冊寶譜略御 製御筆及藏置書籍形止案	철종 8 (1857)	47		(외규 장각)		[丁巳九月日]外閣上]奎章閣形止案(원)	咸豐七年九月日江華府外奎章閣奉安冊寶譜略誌狀御製御筆及藏置書籍形止案	전체 46.0×33.2×2.1

변철 상세 정보	장황 재료	책의 직물명 (직조방법)	책의 직물 상세 정보	책의 직물 크기	제침 직물명 (직조방법)	홍첩 직물명 (직조방법)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복화伏花, 2겹)	변철 황동[豆錫] 책의 원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개정되지 않은 원 책의 그대로임 ①무늬 없음 ④후배지 있음	45.2 × 31.3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양화仰花, 2겹)	변철 황동[豆錫] 책의 원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개정되지 않은 원 책의 그대로임 ①무늬 없음 ④후배지 있음	45.0 × 32.4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양화仰花, 2겹)	변철 황동[豆錫] 책의 개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45.2 × 31.3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圖板+복화伏花, 2겹)	변철 황동[豆錫] 책의 원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개정되지 않은 원 책의 그대로임 ①무늬 없음 ④후배지 있음	46.5 × 32.5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圖板+복화伏花, 2겹)	변철 황동[豆錫] 책의 원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개정되지 않은 원 책의 그대로임 ①무늬 없음 ④후배지 있음	46.4 × 32.6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늬(넝쿨문) 원환 박을정 5개 국화동 (원판圖板+복화伏花, 2겹)	변철 황동[豆錫] 책의 원장 책지 초주지	초록무문주 (바닥조작:평직)	*개정되지 않은 원 책의 그대로임 ①무늬 없음 ④후배지 있음	46.5 × 32.7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무문주 (바닥조작:평직)
선장(실끈구멍 5개)	책의 개장 책지 장지	홍색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표제는 책의에 바로 적음	48.3 × 30.4	—	—
선장(실끈구멍 5개)	책의 개장 책지 장지	홍색무문주 (바닥조작:평직)	①무늬 없음 ④표제는 책의에 바로 적음	45.7 × 33.0	—	—

유물 번호	유물명	책의 직물명 (직조방법)	책의 직물 상세 정보	책의 직물 크기
외규579 (Unknown 01)	무번01 책의 직물	뒤표지:초록운보문단 (바닥조직:5매3웹 경주자, 무늬조직: 5매3웹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꼬리(좌상향) ②구름(5.3×6.3), 꼬리(8.4×5.0) ③전보,방송,(쌍)서보,(쌍)서각 ④뒤표지만 있음 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12.0×17.7)	47.8×34.8
외규580 (Unknown 02)	무번02 책의 직물	뒤표지:초록무문주 (바닥조직:평직)	①무늬 없음 ④뒤표지만 있음	48.3×33.5
외규581 (Unknown 03)	무번03 책의 직물	초록운보문단 (바닥조직:5매3웹 경주자, 무늬조직:5매3웹 위주자)	①사합여의형+사선형꼬리(우상향) ②구름(6.4×6.0), 꼬리(8.4×3.2) ③전보, 방송, 보, (단)서보, (단)서각, 여의, 화주, 산호 ④구름무늬 방향 모두 동일 단위무늬(10.6×16.4)	50.8×38.1
외규582 (Unknown 04)	무번04 책의 직물	종이	④내지만 있음(15장)	51.1×36.8 47.6×34.2 45.9×32.8
외규583 (Unknown 05)	무번05 책의 직물	종이	④내지만 있음(2장)	46.5×33.5
외규584 (Unknown 06)	무번06 책의 직물	뒤표지:초록연화문단 (바닥조직:5매3웹 경주자, 무늬조직:5매3웹 위주자)	①동일형 상하반복 배치 ②연꽃(6.3×6.9) ④뒤표지만 있음 단위무늬(10.8×18.0)	48.2×36.3
외규585 (Unknown 07)	무번07 책의 직물	뒤표지:초록무문주 (바닥조직:평직)	①무늬 없음 ④뒤표지만 있음	43.1×30.3
외규586 (Unknown 08)	무번08 책의 직물	뒤표지:초록무문주 (바닥조직:평직)	①무늬 없음 ④뒤표지만 있음	45.8×32.2
외규587 (Unknown 09)	무번09 책의 직물	뒤표지:초록무문주 (바닥조직:평직)	①무늬 없음 ④뒤표지만 있음	48.5×34.2
외규588 (Unknown 10)	무번10 책의 직물	뒤표지:초록무문주 (바닥조직:평직)	①무늬 없음 ④뒤표지만 있음	47.2×34.3
외규589 (Unknown 11)	무번11 책의 직물	뒤표지:초록무문주 (바닥조직:평직)	①무늬 없음 ④뒤표지만 있음	45.3×33.8

유물 번호	유물명	책의 직물명 (직조방법)	책의 직물 상세 정보	책의 직물 크기
외규590 (Unknown 12)	무번12 책의 직물	뒤표지:초록무문주 (바닥조직:평직)	①무늬 없음 ④뒤표지만 있음	46.5×31.4
외규591 (Unknown 13)	무번13 책의 직물	뒤표지:초록무문주 (바닥조직:평직)	①무늬 없음 ④뒤표지만 있음	47.3×33.8
외규592 (Unknown 14)	무번14 책의 직물	뒤표지:초록무문주 (바닥조직:평직)	①무늬 없음 ④뒤표지만 있음	46.2×32.8
외규593 (Unknown 15)	무번15 책의 직물	뒤표지:초록무문주 (바닥조직:평직)	①무늬 없음 ④뒤표지만 있음	47.4×35.0

# 외규장각 의궤 변철 도판

## 02

Plates of *Byeoncheol* of the *Oegyujanggak Uigwe*

### 일러두기

1. <외규장각 의궤 변철 도판>에는 외규장각 의궤 297책의 변철 부분의 도판을 수록하였다. 도판의 크기는 실제의 약 37.5%이며 외규100·101은 34%로 축소하였다.
2. 유물 번호는 <외규장각 의궤 상세 목록>의 일러두기를 따랐다.





외규7



외규8



외규9



외규10



외규11



외규12



외규13



외규14



외규15



외규16



외규17



외규18





외규19



외규20



외규21



외규22



외규23



외규24



외규25



외규26



외규27



외규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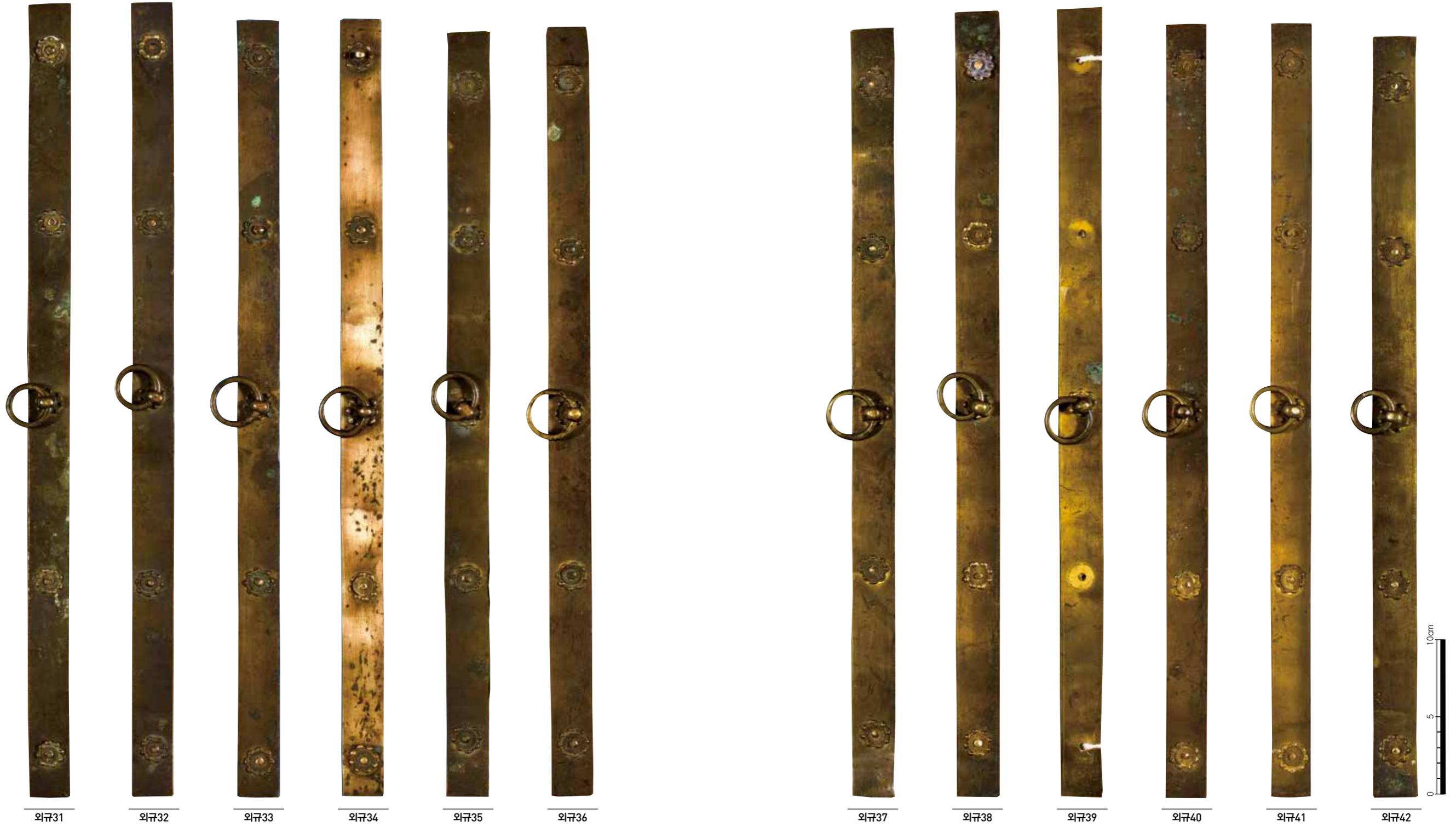


외규29



외규30





외규31

외규32

외규33

외규34

외규35

외규36

외규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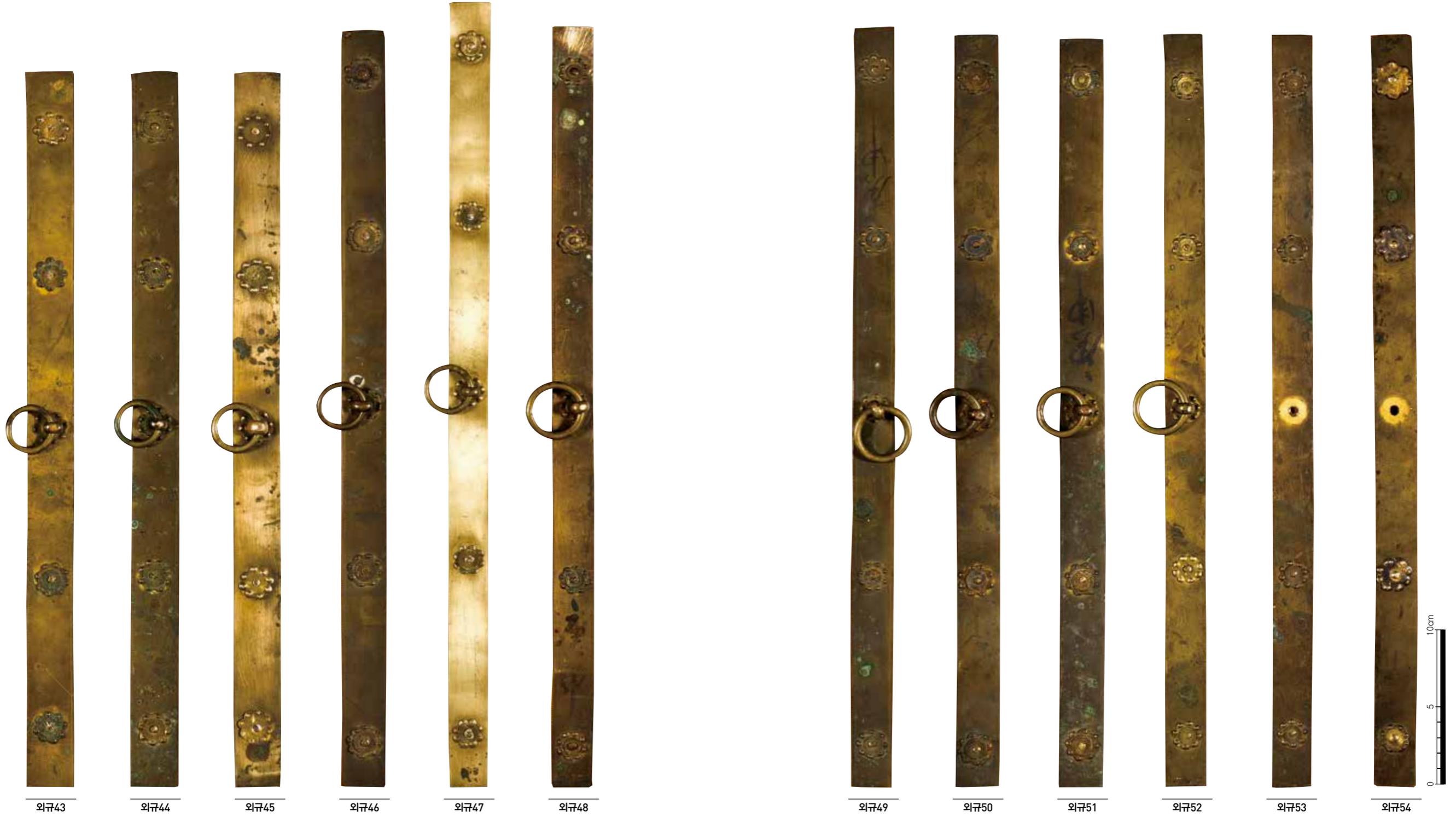
외규38

외규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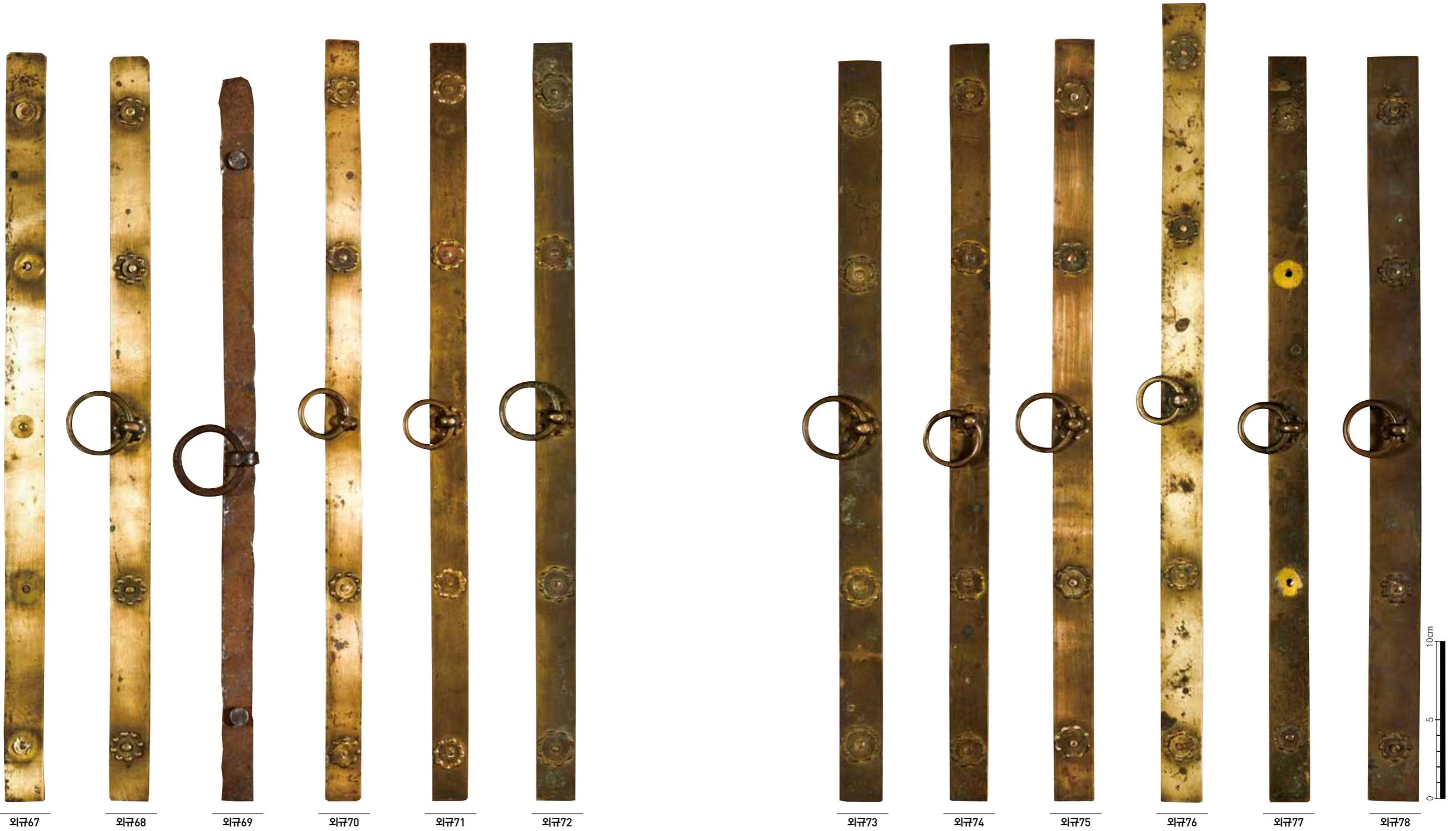
외규40

외규41

외규42









외규79

외규80

외규81

외규82

외규83

외규84

외규85

외규86

외규87

외규88

외규89

외규90







외규103

외규104

외규105

외규106

외규107

외규108

외규109

외규110

외규111

외규112

외규113

외규114





외규115

외규116

외규117

외규118

외규119

외규120

외규121

외규122

외규123

외규124

외규125

외규126





외규127

외규128

외규129

외규130

외규131

외규132



외규133

외규134

외규135

외규136

외규137

외규138



외규139

외규140

외규141

외규142

외규143

외규144

외규145

외규146

외규147

외규148

외규149

외규150





외규151

외규152

외규153

외규154

외규155

외규156

외규157

외규158

외규159

외규160

외규161

외규162





외규 163

외규164

외규165

외규166

외규167

외규168

외규169

외규170

외규171

외규172

외규173

외규174





외규175

외규176

외규177

외규178

외규179

외규180

외규181

외규182

외규183

외규184

외규185

외규186





외규187

외규188

외규189

외규190

외규191

외규192

외규193

외규194

외규195

외규196

외규197

외규198





외규199

외규200

외규201

외규202

외규203

외규204

외규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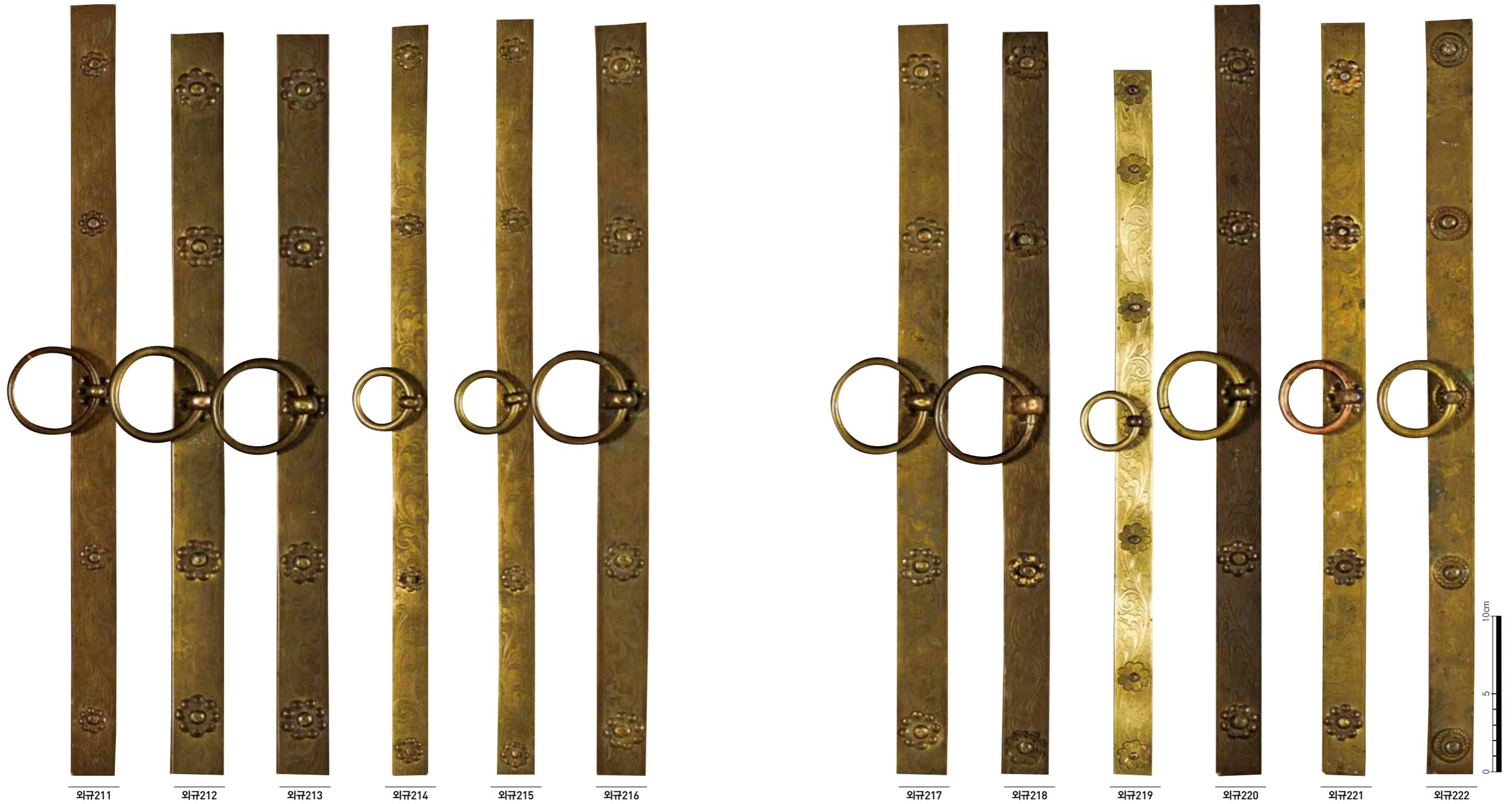
외규206

외규207

외규208

외규209

외규210





외규223

외규224

외규225

외규226

외규227

외규228

외규229

외규230

외규231

외규232

외규233

외규234



외규235

외규236

외규237

외규238

외규239

외규240

외규241

외규242

외규243

외규244

외규245

외규246



외규247

외규248

외규249

외규250

외규251

외규252



외규253

외규254

외규255

외규256

외규257

외규258



외규259

외규260

외규261

외규262

외규263

외규264

외규265

외규266

외규267

외규268

외규269

외규270





외규285

외규286

외규287

외규288

외규289

외규290

외규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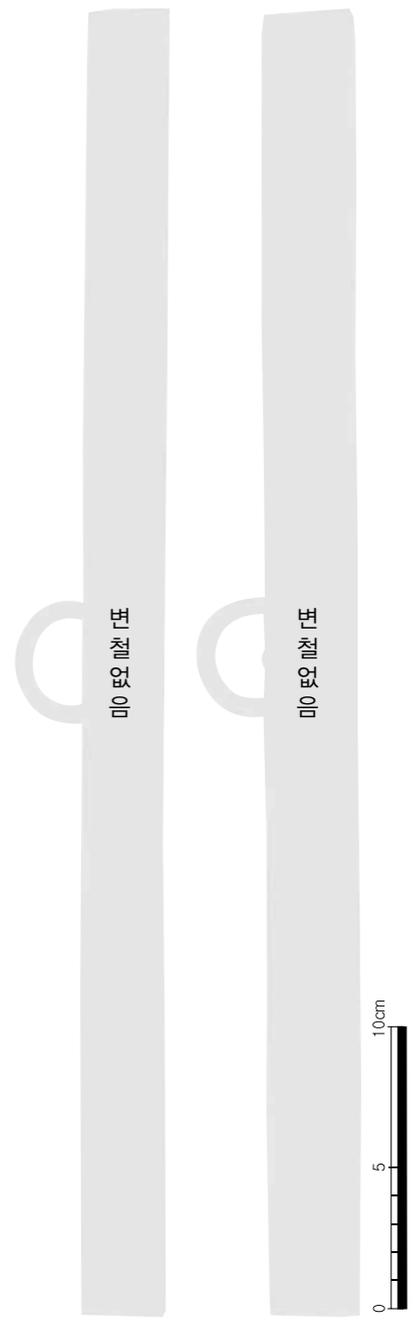


외규292

외규293

외규294

외규295



외규296

외규297



# 외규장각 의궤 책의 직물 도판

## 03

Plates of Cloth Covers of the *Oegyujanggak Uigwe*

### 일러두기

1. <외규장각 의궤 책의 직물 도판>에는 외규장각 의궤 책의 직물의 전체 도판과 함께 해당 직물의 현미경 조직 확대 사진도 참고자료로 수록하였다.
2. 의궤의 서명, 유물 번호 등은 <외규장각 의궤 상세 목록>의 일러두기를 따랐다.
3. 책의 직물의 상세 특징은 <외규장각 의궤 상세 목록>에 기록하였다.

외규1

풍정도감의궤  
豊呈都監儀軌



책의 안쪽 표제가  
묵서된 종이



책의(앞)

※책의 직물이 남아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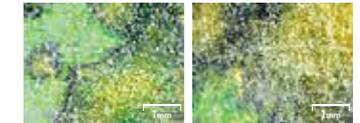
외규2 / 외규298

선조목릉천장산릉도감의궤  
宣祖穆陵遷葬山陵都監儀軌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외규3 / 외규299

종묘수리도감의궤  
宗廟修理都監儀軌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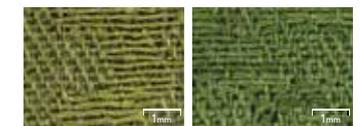
외규4 / 외규300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  
仁祖莊烈王后嘉禮都監儀軌



앞

뒤



책의(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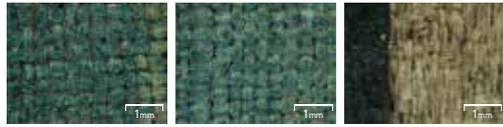
책의(뒤)

외규5 / 외규301

소현세자예장도감의궤  
昭顯世子禮葬都監儀軌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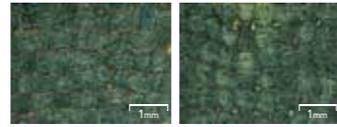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외규6 / 외규302

소현세자묘소도감의궤  
昭顯世子墓所都監儀軌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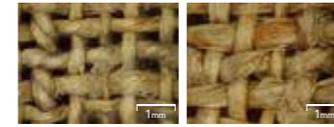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외규9 / 외규305

공혜왕후순릉수개도감의궤  
恭惠王后順陵修改都監儀軌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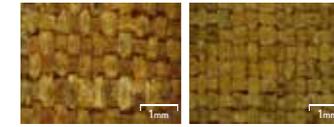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외규10 / 외규306

인조빈전혼전도감의궤  
仁祖殯殿魂殿都監儀軌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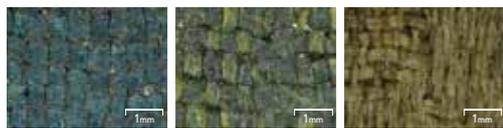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외규7 / 외규303

소현세자빈궁혼궁도감의궤  
昭顯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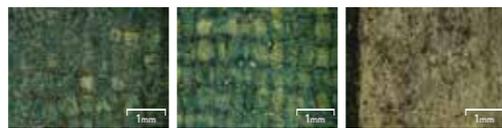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외규8 / 외규304

창덕궁수리도감의궤  
昌德宮修理都監儀軌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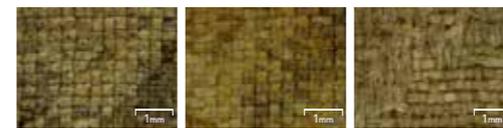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외규11 / 외규307

인조국장도감의궤  
仁祖國葬都監儀軌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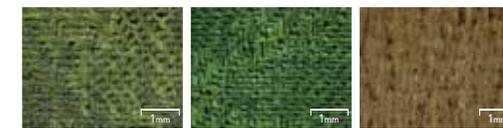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외규12 / 외규308

인조인열왕후부묘도감의궤 (2)  
仁祖仁烈王后附廟都監儀軌 (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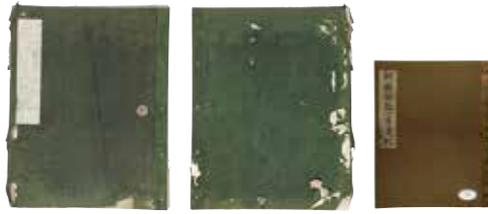
앞 뒤 개정된 책의로 옮겨진 제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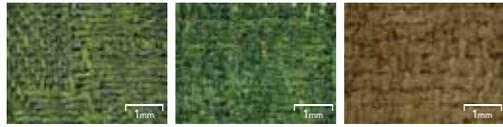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외규13 / 외규309

인조인열왕후부묘도감의궤 (3)  
仁祖仁烈王后祔廟都監儀軌 (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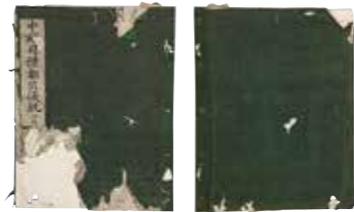
앞 뒤 개장된 책의로 옮겨진 제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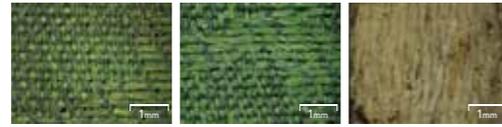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외규14 / 외규310

인선왕후책례도감의궤  
仁宣王后册禮都監儀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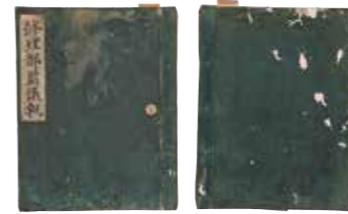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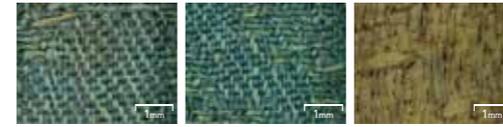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외규17 / 외규311

창덕궁창경궁수리도감의궤  
昌德宮昌慶宮修理都監儀軌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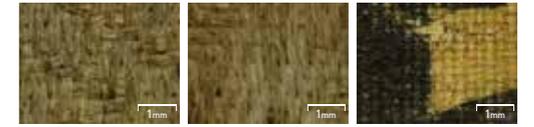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외규18 / 외규312

효종빈전혼전도감의궤  
孝宗殯殿魂殿都監儀軌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제첩

외규15

현종왕세자책례도감의궤  
顯宗王世子册禮都監儀軌



현재 개장된 책의

※책의 직물이 남아있지 않음

외규16

현종명성왕후가례도감의궤  
顯宗明聖王后嘉禮都監儀軌



현재 개장된 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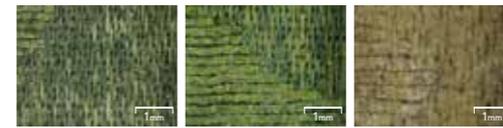
※책의 직물이 남아있지 않음

외규19 / 외규313

효종국장도감의궤 (상)  
孝宗國葬都監儀軌 (上)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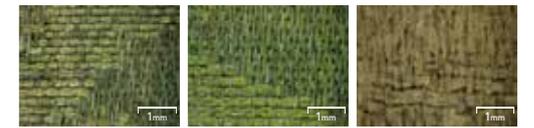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외규20 / 외규314

효종국장도감의궤 (하)  
孝宗國葬都監儀軌 (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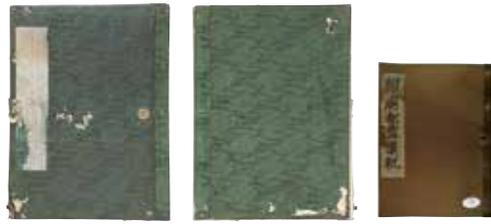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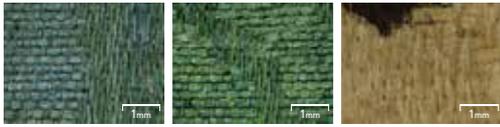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외규21 / 외규315

효종부묘도감의궤  
孝宗附廟都監儀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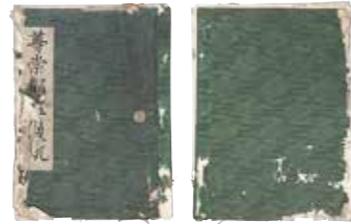
앞 뒤 개장된 책의로 옮겨진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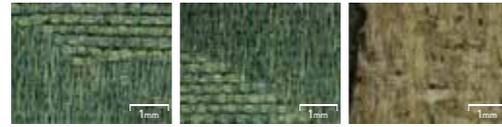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외규22 / 외규316

장렬왕후인선왕후존숭도감의궤  
莊烈王后仁宣王后尊崇都監儀軌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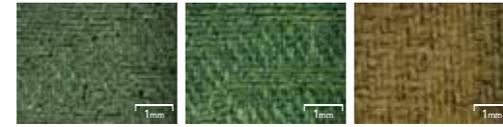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외규25 / 외규319

숙종왕세자책례도감의궤  
肅宗王世子冊禮都監儀軌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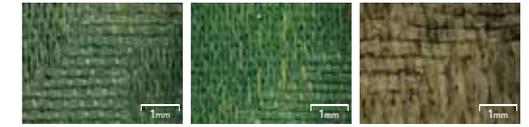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외규26 / 외규320

영녕전수개도감의궤  
永寧殿修改都監儀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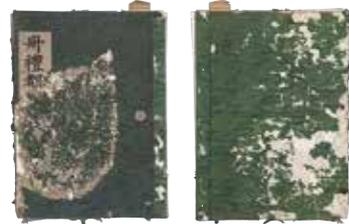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제침

외규23 / 외규317

명성왕후책례도감의궤  
明聖王后冊禮都監儀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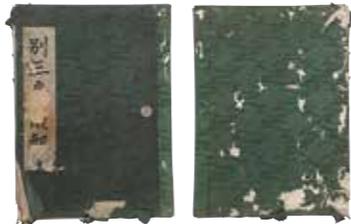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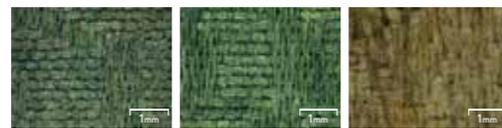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외규24 / 외규318

별삼방의궤  
別三房儀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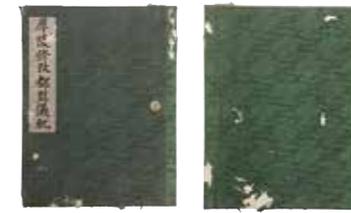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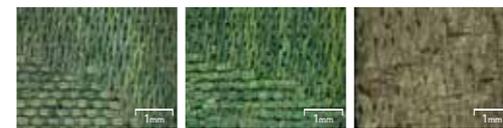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외규27 / 외규321

정종후릉수개도감의궤  
定宗厚陵修改都監儀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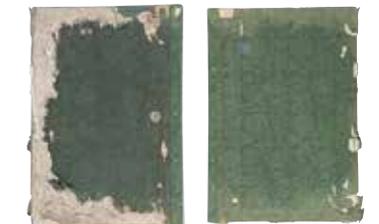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제침

외규28 / 외규322

집상전수개도감의궤  
集祥殿修改都監儀軌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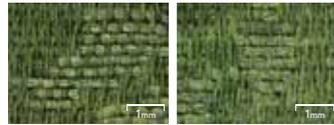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외규29 / 외규323

신덕왕후부묘도감의궤  
神德王后附廟都監儀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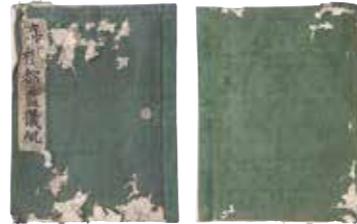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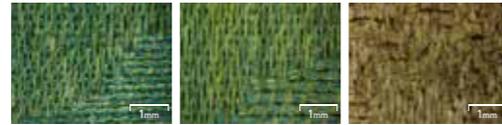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외규30 / 외규324

숙종인경왕후가례도감의궤  
肅宗仁敬王后嘉禮都監儀軌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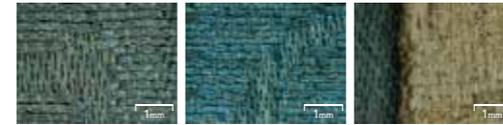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외규33 / 외규327

인선왕후빈전도감의궤  
仁宣王后殯殿都監儀軌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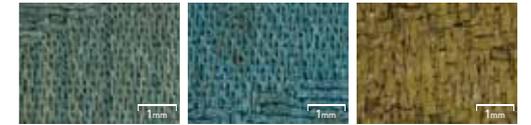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외규34 / 외규328

인선왕후혼전도감의궤  
仁宣王后魂殿都監儀軌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제첩

외규31 / 외규325

인선왕후영릉산릉도감의궤 (상)  
仁宣王后寧陵山陵都監儀軌 (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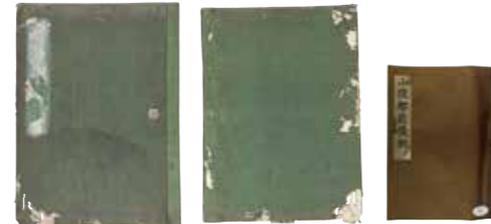
앞 뒤 개장된 책으로 옮겨진 제첩



책의(앞) 책의(뒤) 제첩

외규32 / 외규326

인선왕후영릉산릉도감의궤 (하)  
仁宣王后寧陵山陵都監儀軌 (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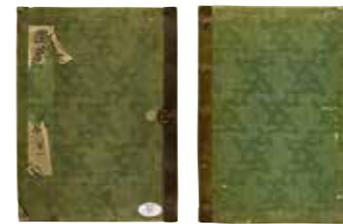
앞 뒤 개장된 책으로 옮겨진 제첩



책의(앞) 책의(뒤) 제첩

외규35

인선왕후국장도감의궤 (1)  
仁宣王后國葬都監儀軌 (一)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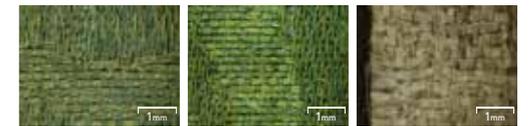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외규36 / 외규329

인선왕후국장도감의궤 (2)  
仁宣王后國葬都監儀軌 (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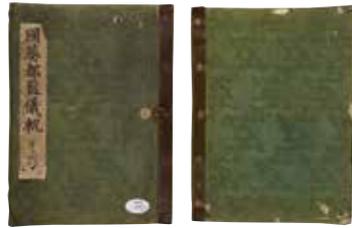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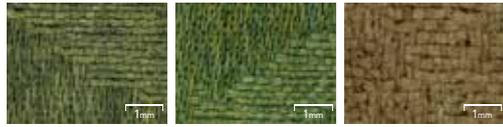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외규37

인선왕후국장도감의궤 (3)  
仁宣王后國葬都監儀軌 (三)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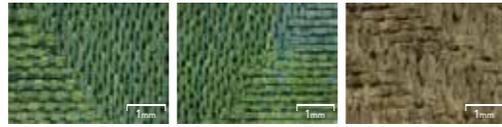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외규38 / 외규330

현종승릉산릉도감의궤 (상)  
顯宗崇陵山陵都監儀軌 (上)



앞 뒤 개장된 책으로 옮겨진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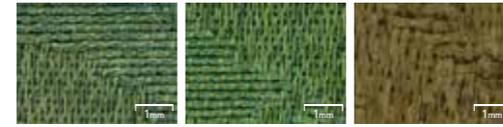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외규41 / 외규333

현종혼전도감의궤  
顯宗魂殿都監儀軌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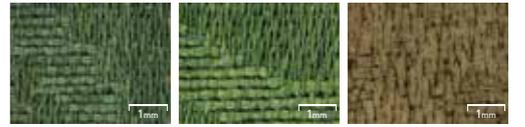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외규42 / 외규334

인선왕후부묘도감의궤  
仁宣王后附廟都監儀軌



앞 뒤 개장된 책으로 옮겨진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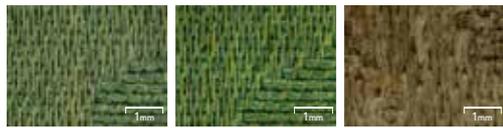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외규39 / 외규331

현종승릉산릉도감의궤 (하)  
顯宗崇陵山陵都監儀軌 (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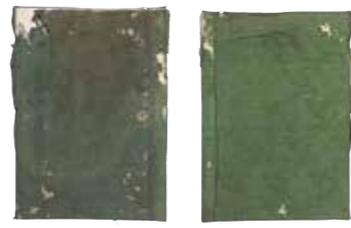
앞 뒤 개장된 책으로 옮겨진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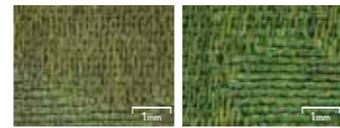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외규40 / 외규332

현종빈전도감의궤  
顯宗殯殿都監儀軌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외규43 / 외규335

인경왕후책례도감의궤  
仁敬王后冊禮都監儀軌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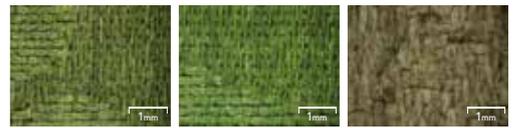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외규44 / 외규336

장렬왕후명성왕후존숭도감의궤  
莊烈王后明聖王后尊崇都監儀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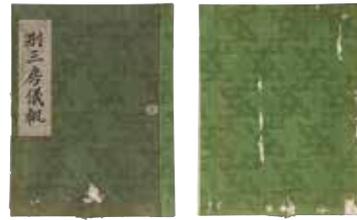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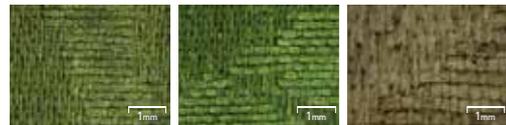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외규45 / 외규337

별삼방의궤  
別三房儀軌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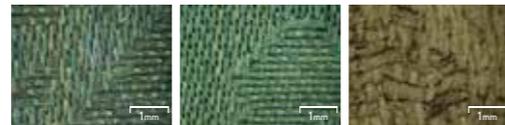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외규46 / 외규338

남별전중건청의궤  
南別殿重建廳儀軌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제침

외규49 / 외규341

인경왕후익릉산릉도감의궤 (하)  
仁敬王后翼陵山陵都監儀軌 (下)



앞 뒤 개장된 책으로 옮겨진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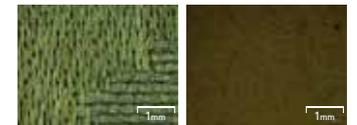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외규50 / 외규342

인경왕후빈전도감의궤  
仁敬王后殯殿都監儀軌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외규47 / 외규339

보사녹훈도감의궤  
保社錄勳都監儀軌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제침



홍첩

외규48 / 외규340

인경왕후익릉산릉도감의궤 (상)  
仁敬王后翼陵山陵都監儀軌 (上)



앞 뒤 개장된 책으로 옮겨진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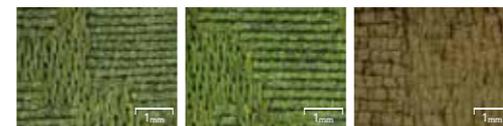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외규51 / 외규343

인경왕후혼전도감의궤  
仁敬王后魂殿都監儀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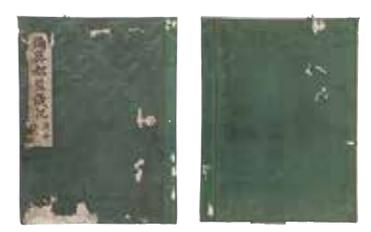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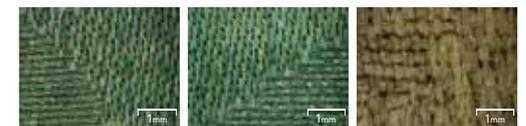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외규52 / 외규344

인경왕후국장도감의궤 (상)  
仁敬王后國葬都監儀軌 (上)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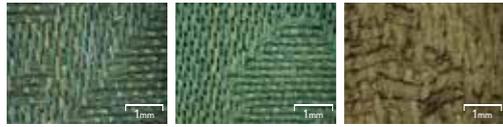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외규53 / 외규345

인경왕후국장도감의궤 (하)  
仁敬王后國葬都監儀軌 (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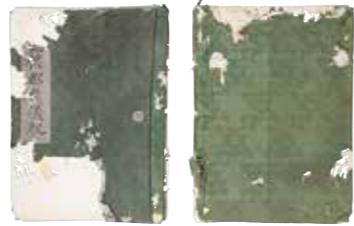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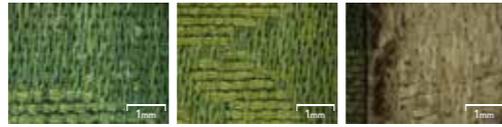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외규54 / 외규346

숙종인현왕후가례도감의궤  
肅宗仁顯王后嘉禮都監儀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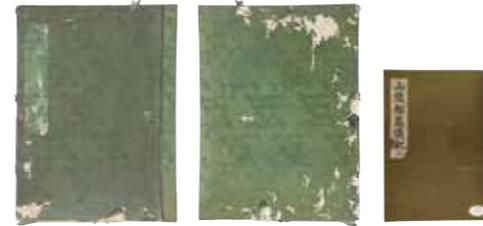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제첩

외규57 / 외규3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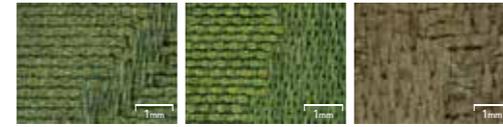
명성왕후승릉산릉도감의궤 (상)  
明聖王后崇陵山陵都監儀軌 (上)



앞 뒤



개장된 책으로 옮겨진 제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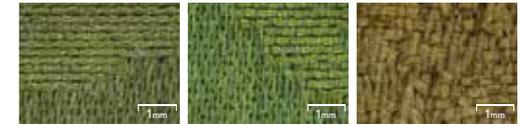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외규58 / 외규349

명성왕후승릉산릉도감의궤 (하)  
明聖王后崇陵山陵都監儀軌 (下)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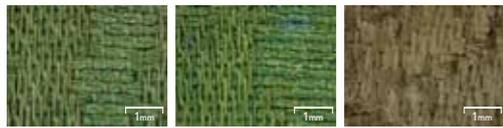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외규55

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의궤  
定宗定安王后諡號都監儀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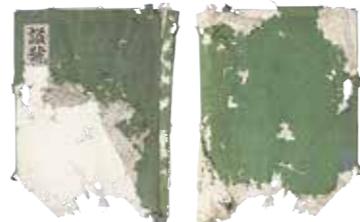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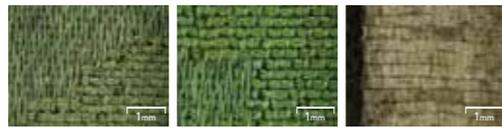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외규56 / 외규347

태조신의왕후태종원경왕후시호도감의궤  
太祖神懿王后太宗元敬王后諡號都監儀軌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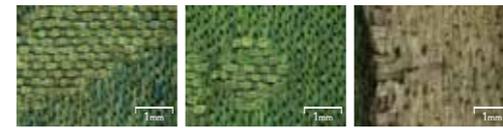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외규59 / 외규350

명성왕후빈전도감의궤  
明聖王后殯殿都監儀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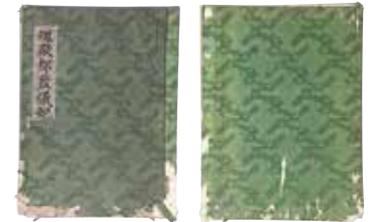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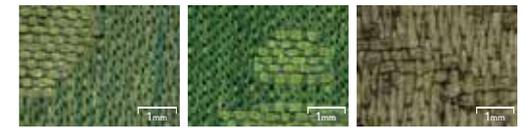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외규60 / 외규351

명성왕후훈전도감의궤  
明聖王后魂殿都監儀軌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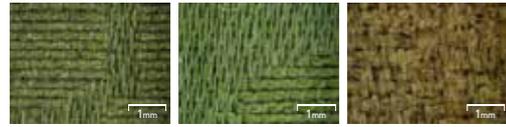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외규61 / 외규352

명성왕후국장도감의궤 (하)  
明聖王后國葬都監儀軌 (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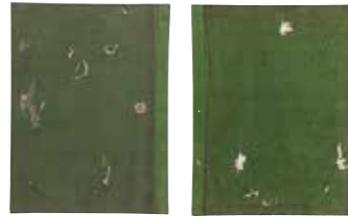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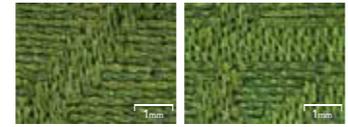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외규62 / 외규353

명성왕후부묘도감의궤  
明聖王后附廟都監儀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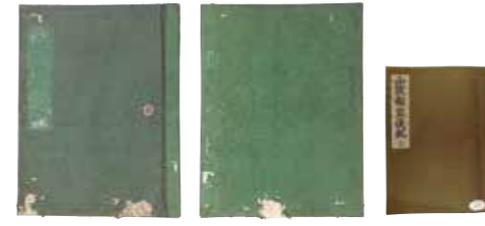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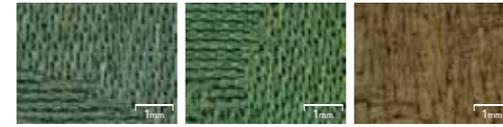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외규65 / 외규355

장렬왕후휘릉산릉도감의궤 (상)  
莊烈王后徽陵山陵都監儀軌 (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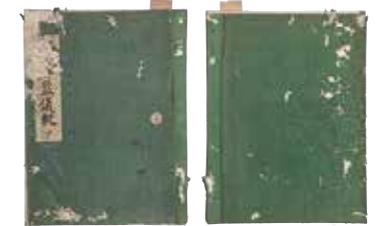
앞 뒤 개장된 책의로 옮겨진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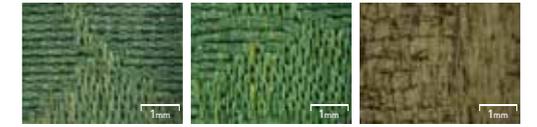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외규66 / 외규356

장렬왕후휘릉산릉도감의궤 (하)  
莊烈王后徽陵山陵都監儀軌 (下)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제침

외규63

장렬왕후존숭도감의궤  
莊烈王后尊崇都監儀軌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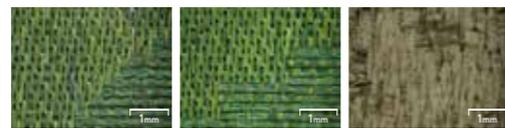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외규64 / 외규354

장렬왕후책보수개도감의궤  
莊烈王后冊寶修改都監儀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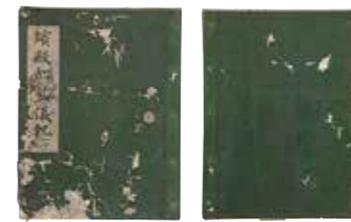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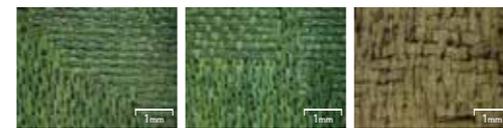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외규67 / 외규357

장렬왕후빈전도감의궤  
莊烈王后殯殿都監儀軌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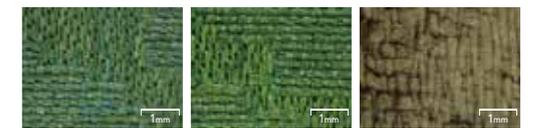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외규68 / 외규358

장렬왕후훈전도감의궤  
莊烈王后魂殿都監儀軌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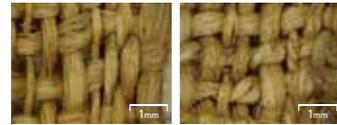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외규69 / 외규359

장렬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莊烈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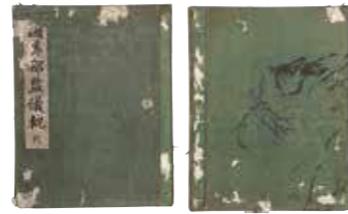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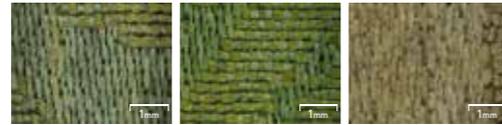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외규70 / 외규360

장렬왕후국장도감의궤 (상)  
莊烈王后國葬都監儀軌 (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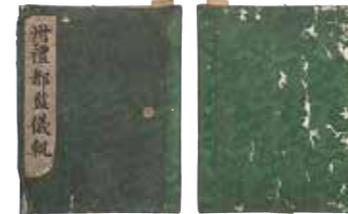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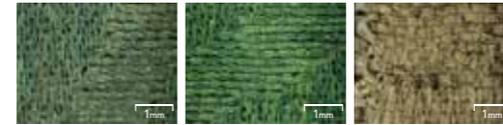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외규73 / 외규363

희빈중궁전책례도감의궤  
禧嬪中宮殿冊禮都監儀軌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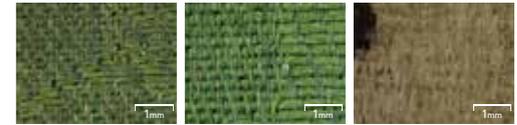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외규74 / 외규364

장렬왕후부묘도감의궤  
莊烈王后祔廟都監儀軌



앞 뒤 개정된 책의로 옮겨진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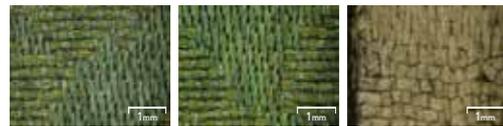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외규71 / 외규361

장렬왕후국장도감의궤 (하)  
莊烈王后國葬都監儀軌 (下)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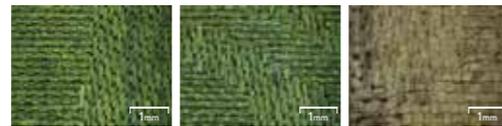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외규72 / 외규362

경종왕세자책례도감의궤  
景宗王世子冊禮都監儀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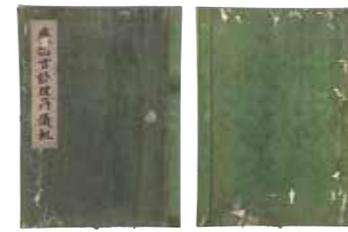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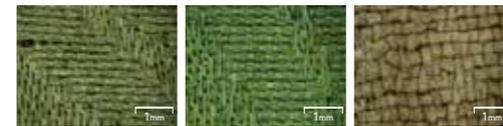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외규75 / 외규365

경덕궁수리소의궤  
慶德宮修理所儀軌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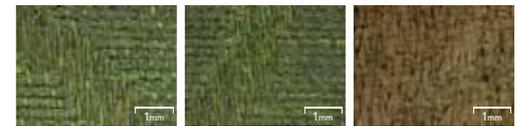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외규76 / 외규366

보사복훈도감의궤  
保社復勳都監儀軌



앞 뒤 개정된 책의로 옮겨진 제침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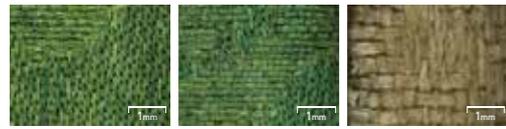
홍첩

외규77 / 외규367

경종단의왕후가례도감의궤  
景宗端懿王后嘉禮都監儀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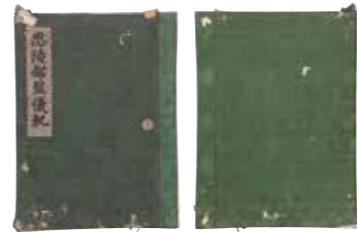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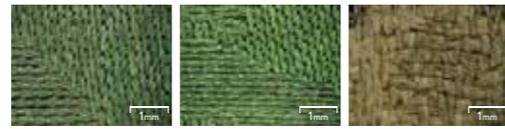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외규78 / 외규368

정순왕후사릉봉릉도감의궤  
定順王后思陵封陵都監儀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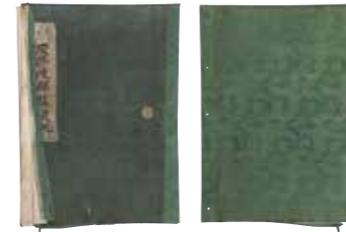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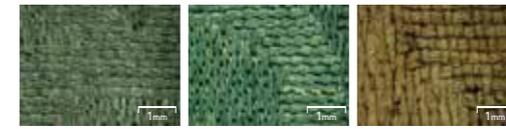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외규81 / 외규371

단종장릉수개도감의궤  
端宗莊陵修改都監儀軌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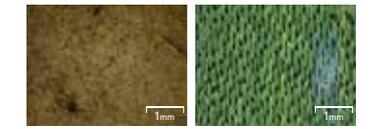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외규82 / 외규372

인현왕후명릉산릉도감의궤 (상)  
仁顯王后明陵山陵都監儀軌 (上)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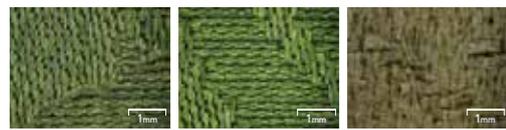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외규79 / 외규369

단종장릉봉릉도감의궤  
端宗莊陵封陵都監儀軌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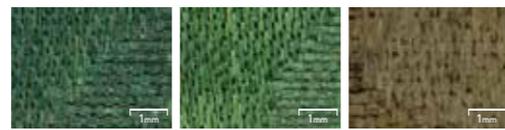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외규80 / 외규370

단종정순왕후복위부묘도감의궤  
端宗定順王后復位附廟都監儀軌



앞 뒤 개장된 책으로 옮겨진 제침



책의(앞) 책의(뒤) 제침

외규83

인현왕후명릉산릉도감의궤 (하)  
仁顯王后明陵山陵都監儀軌 (下)



개장된 책으로 옮겨진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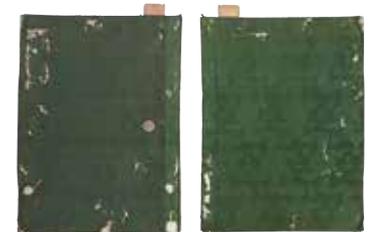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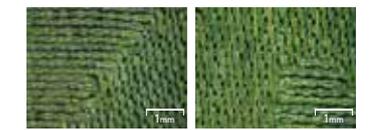
※ 책의 직물이 남아있지 않음

외규84 / 외규373

인현왕후빈전도감의궤  
仁顯王后賓殿都監儀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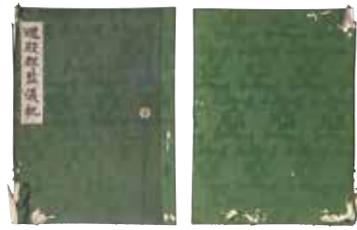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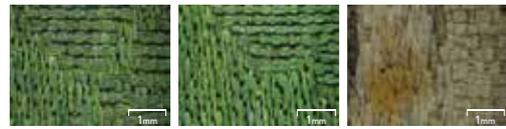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외규85 / 외규374

인현왕후혼전도감의궤  
仁顯王后魂殿都監儀軌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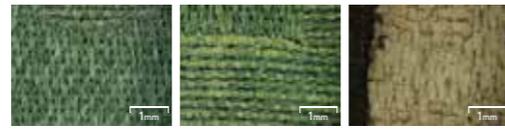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외규86 / 외규375

인현왕후국장도감의궤 (상)  
仁顯王后國葬都監儀軌 (上)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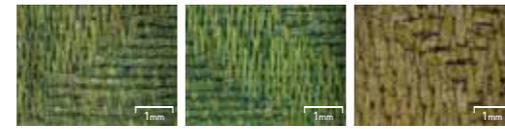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외규89 / 외규378

금보개조도감의궤  
金寶改造都監儀軌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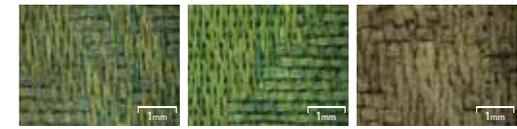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외규90 / 외규379

금보개조도감추보의궤  
金寶改造都監追補儀軌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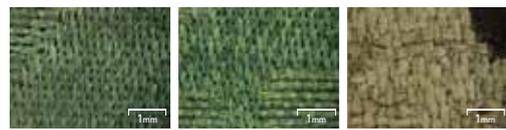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외규87 / 외규376

인현왕후국장도감의궤 (하)  
仁顯王后國葬都監儀軌 (下)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제첩

외규88 / 외규377

숙종인원왕후가례도감의궤 (상)  
肅宗仁元王后嘉禮都監儀軌 (上)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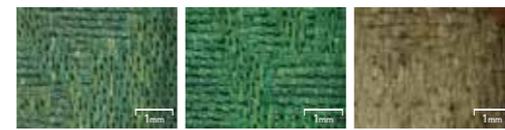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외규91 / 외규380

숙종인경왕후인현왕후인원왕후존숭도감의궤 (상)  
肅宗仁敬王后仁顯王后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 (上)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제첩



홍협

외규92 / 외규381

숙종인경왕후인현왕후인원왕후존숭도감의궤 (하)  
肅宗仁敬王后仁顯王后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 (下)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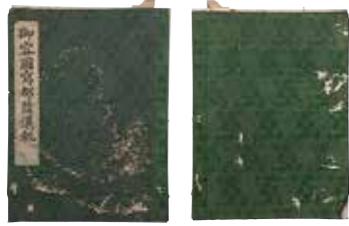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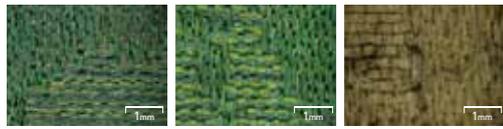
홍협

외규93 / 외규3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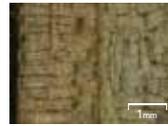
숙종어용도사도감의궤  
肅宗御容圖寫都監儀軌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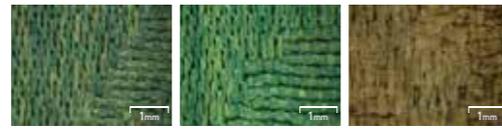
홍협

외규94 / 외규383

단의빈묘소도감의궤 (하)  
端懿嬪墓所都監儀軌 (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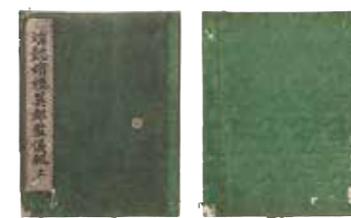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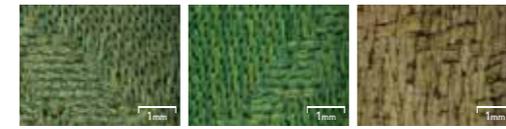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외규97 / 외규386

단의빈예장도감의궤 (상)  
端懿嬪禮葬都監儀軌 (上)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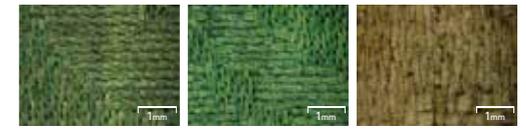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외규98 / 외규387

단의빈예장도감의궤 (하)  
端懿嬪禮葬都監儀軌 (下)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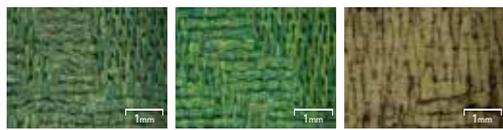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외규95 / 외규3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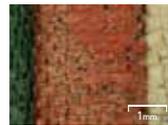
단의빈빈궁도감의궤  
端懿嬪殯宮都監儀軌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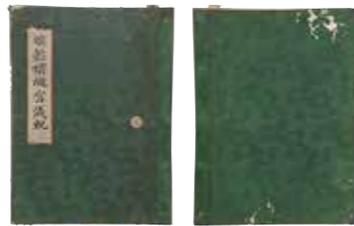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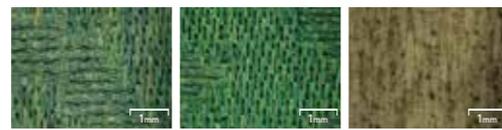
홍협

외규96 / 외규3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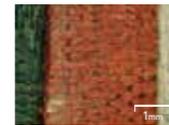
단의빈혼궁도감의궤  
端懿嬪魂宮都監儀軌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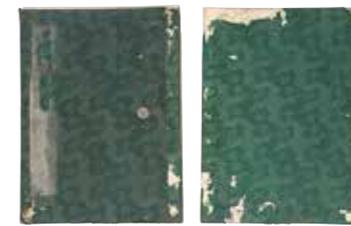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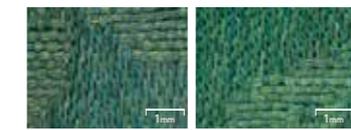
홍협

외규99 / 외규388

민회빈복위선시도감의궤  
愍懷嬪復位宣諭都監儀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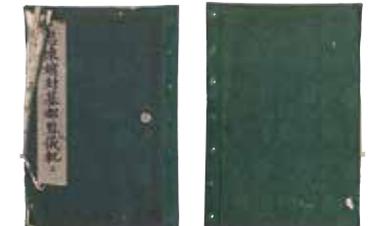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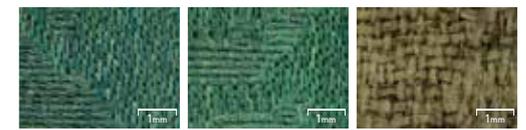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외규100 / 외규389

민회빈봉묘도감의궤 (상)  
愍懷嬪封墓都監儀軌 (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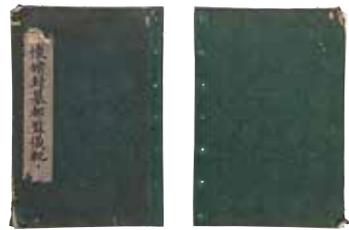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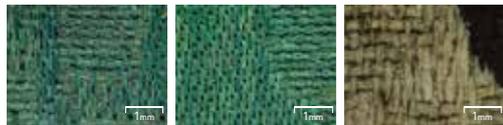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외규101 / 외규390

민회빈봉묘도감의궤 (하)  
愍懷嬪封墓都監儀軌 (下)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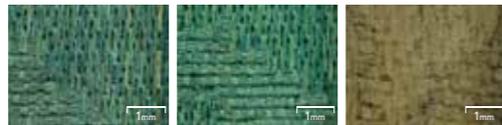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외규102 / 외규391

경종선의왕후가례도감의궤 (상)  
景宗宣懿王后嘉禮都監儀軌 (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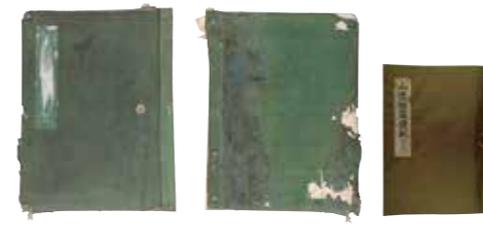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제첩

외규105 / 외규394

숙종명릉산릉도감의궤 (하)  
肅宗明陵山陵都監儀軌 (下)



앞 뒤 개장된 책으로 옮겨진 제첩



책의(앞) 책의(뒤) 제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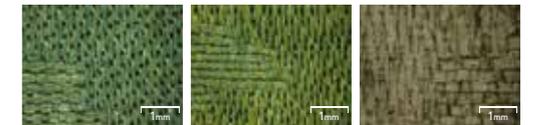
홍합

외규106 / 외규3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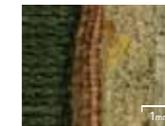
숙종빈전도감의궤  
肅宗殯殿都監儀軌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제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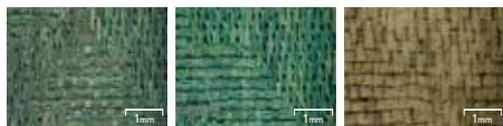
홍합

외규103 / 외규392

경종선의왕후가례도감의궤 (하)  
景宗宣懿王后嘉禮都監儀軌 (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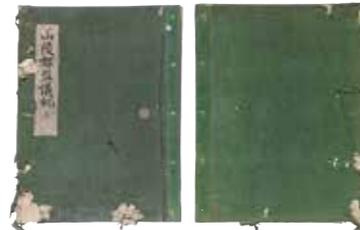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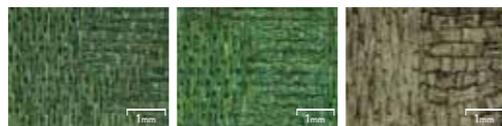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외규104 / 외규393

숙종명릉산릉도감의궤 (상)  
肅宗明陵山陵都監儀軌 (上)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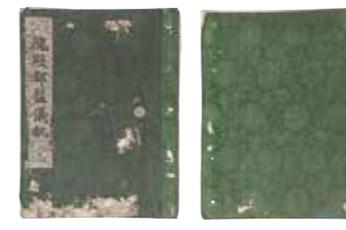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홍합

외규107 / 외규3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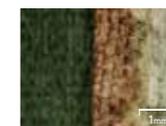
숙종혼전도감의궤  
肅宗魂殿都監儀軌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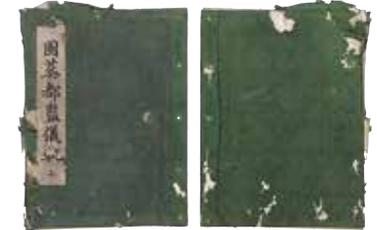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홍합

외규108 / 외규3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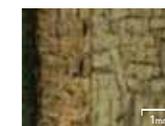
숙종국장도감의궤 (상)  
肅宗國葬都監儀軌 (上)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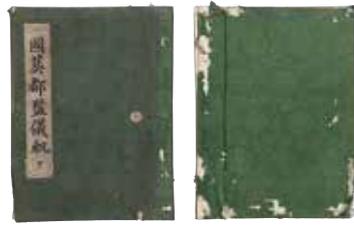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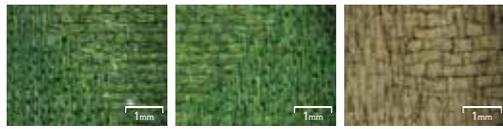
홍합

외규109 / 외규3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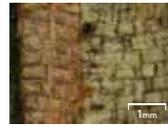
숙종국장도감의궤 (하)  
肅宗國葬都監儀軌 (下)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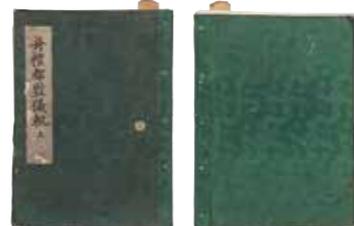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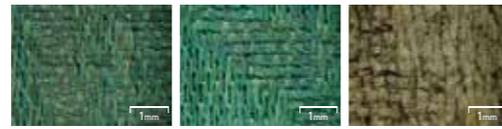
홍협

외규110 / 외규3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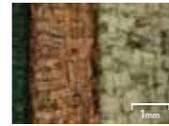
영조왕세제책례도감의궤 (상)  
英祖王世弟冊禮都監儀軌 (上)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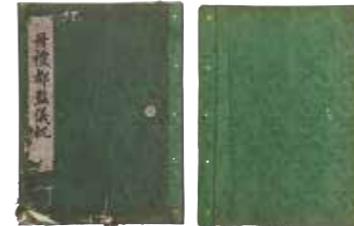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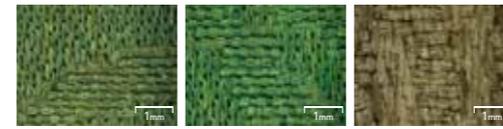
홍협

외규113 / 외규402

단의왕후선의왕후책례도감의궤  
端懿王后宣懿王后冊禮都監儀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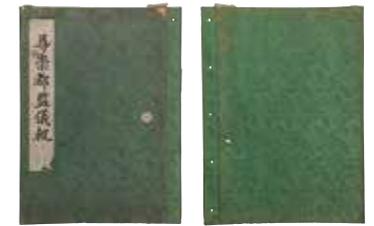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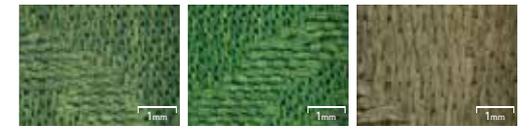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외규114 / 외규403

인원왕후존숭도감의궤  
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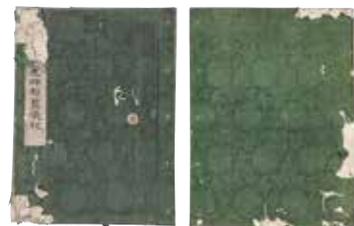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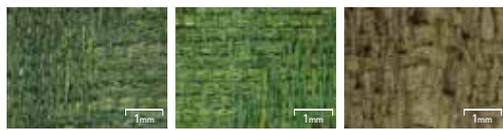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외규111 / 외규400

단의왕후혜릉석물추배도감의궤  
端懿王后惠陵石物追排都監儀軌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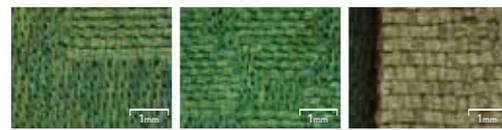
홍협

외규112 / 외규401

별삼방의궤  
別三房儀軌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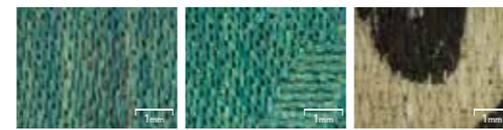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외규115 / 외규404

경종의릉산릉도감의궤 (상)  
景宗懿陵山陵都監儀軌 (上)



앞 뒤 개장된 책으로 옮겨진 제침



책의(앞) 책의(뒤) 제침

외규116 / 외규405

경종의릉산릉도감의궤 (하)  
景宗懿陵山陵都監儀軌 (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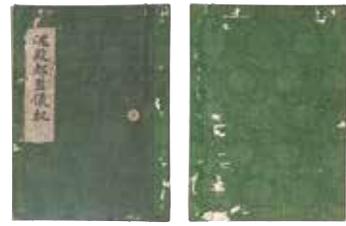
앞 뒤 개장된 책으로 옮겨진 제침



책의(앞) 책의(뒤) 제침

외규117 / 외규4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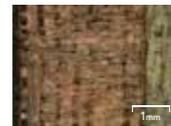
경중혼전도감의궤  
景宗魂殿都監儀軌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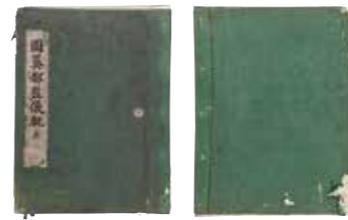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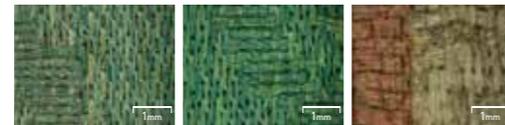
홍협

외규118 / 외규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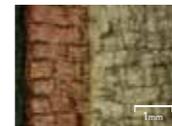
경중국장도감의궤 (상)  
景宗國葬都監儀軌 (上)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제침



홍협

외규121 / 외규410

효장세자책례도감의궤 (하)  
孝章世子冊禮都監儀軌 (下)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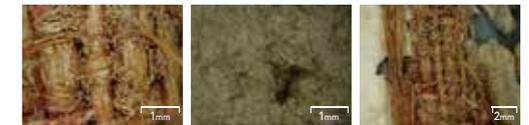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외규122 / 외규411

효장세자책례도감의궤  
孝章世子冊禮都監儀軌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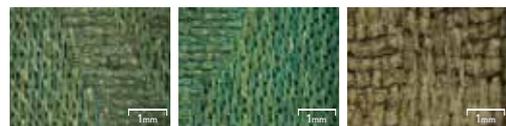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후배지

외규119 / 외규408

경중국장도감의궤 (하)  
景宗國葬都監儀軌 (下)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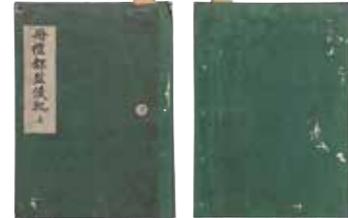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홍협

외규120 / 외규409

효장세자책례도감의궤 (상)  
孝章世子冊禮都監儀軌 (上)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제침



홍협

외규123 / 외규412

종묘개수도감의궤 (상)  
宗廟改修都監儀軌 (上)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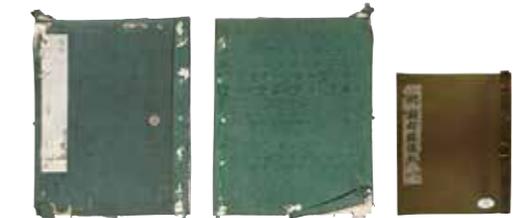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홍협

외규124 / 외규413

경중단의왕후부묘도감의궤  
景宗端懿王后附廟都監儀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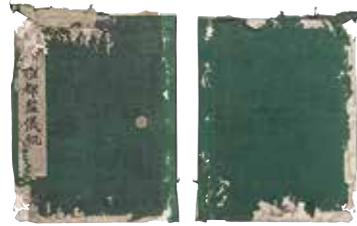
앞 뒤 개장된 책의로 옮겨진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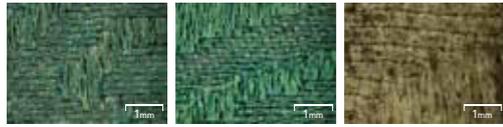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외규125 / 외규414

정성왕후 책례도감의궤  
貞聖王后冊禮都監儀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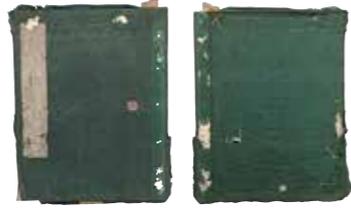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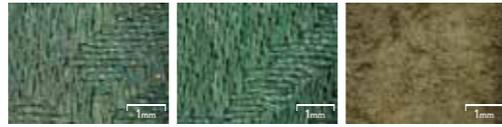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외규126 / 외규415

인원왕후선의왕후존숭도감의궤  
仁元王后宣懿王后尊崇都監儀軌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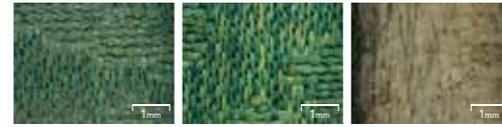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외규129 / 외규418

효장세자가례도감의궤 (하)  
孝章世子嘉禮都監儀軌 (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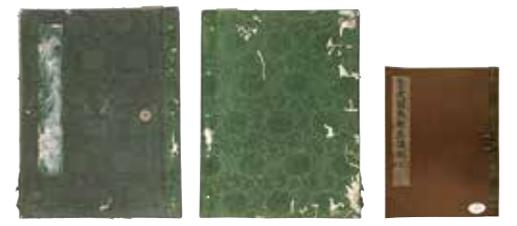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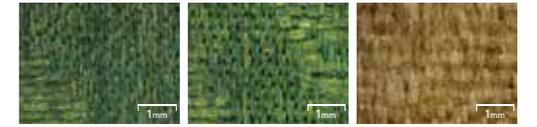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외규130 / 외규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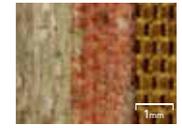
분무녹훈도감의궤 (상)  
奮武錄勳都監儀軌 (上)



앞 뒤 개장된 책으로 옮겨진 제첩과 홍협



책의(앞) 책의(뒤) 제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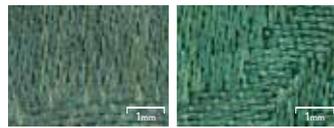
홍협

외규127 / 외규416

별삼방의궤  
別三房儀軌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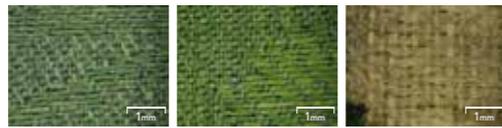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외규128 / 외규417

효장세자가례도감의궤 (상)  
孝章世子嘉禮都監儀軌 (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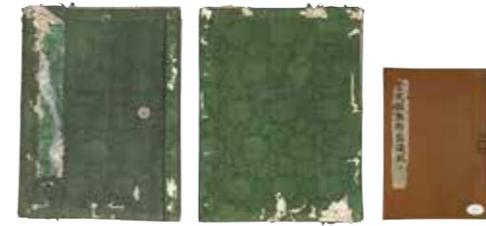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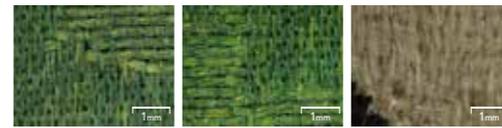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외규131 / 외규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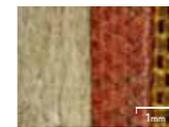
분무녹훈도감의궤 (하)  
奮武錄勳都監儀軌 (下)



앞 뒤 개장된 책으로 옮겨진 제첩과 홍협



책의(앞) 책의(뒤) 제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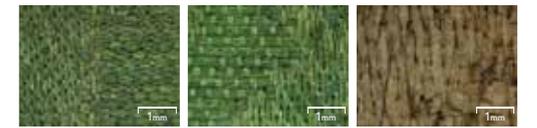
홍협

외규132 / 외규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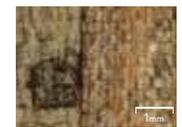
선의왕후의릉산릉도감의궤 (상)  
宣懿王后懿陵山陵都監儀軌 (上)



앞 뒤 개장된 책으로 옮겨진 제첩과 홍협



책의(앞) 책의(뒤) 제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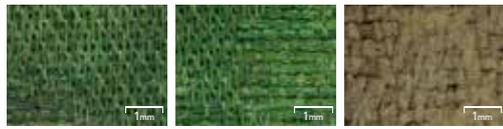
홍협

외규133 / 외규422

선의왕후의릉산릉도감의궤 (하)  
宣懿王后懿陵山陵都監儀軌 (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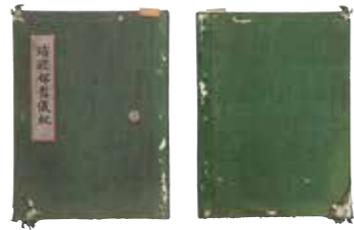


앞 뒤 개장된 책으로 옮겨진 제침과 홍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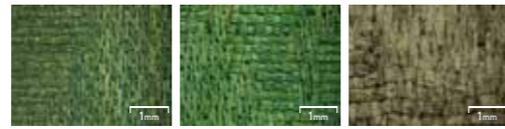


외규134 / 외규423

선의왕후빈전도감의궤  
宣懿王后殯殿都監儀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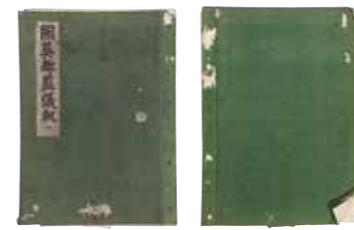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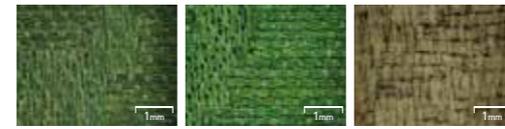


외규137 / 외규425

선의왕후국장도감의궤 (하)  
宣懿王后國葬都監儀軌 (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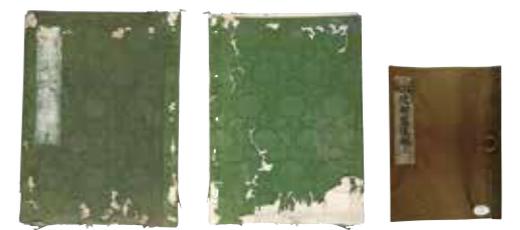


앞 뒤



외규138 / 외규426

인조장릉천봉산릉도감의궤 (상)  
仁祖長陵遷奉山陵都監儀軌 (上)



앞 뒤 개장된 책으로 옮겨진 제침과 홍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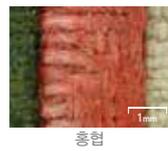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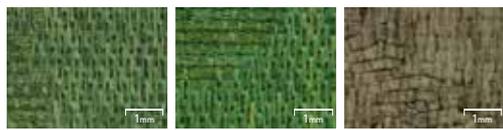


외규135

선의왕후혼전도감의궤  
宣懿王后魂殿都監儀軌



앞 뒤



외규136 / 외규424

선의왕후국장도감의궤 (상)  
宣懿王后國葬都監儀軌 (上)



앞 뒤



외규139 / 외규427

인조장릉천봉산릉도감의궤 (하)  
仁祖長陵遷奉山陵都監儀軌 (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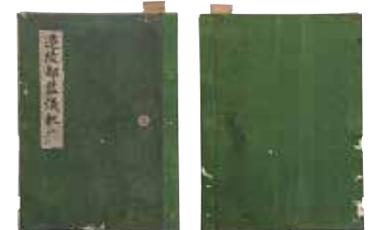


앞 뒤 개장된 책으로 옮겨진 제침과 홍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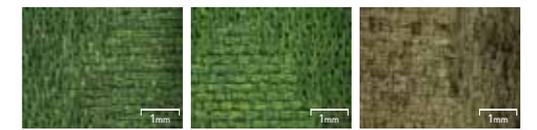


외규140 / 외규428

인조장릉천릉도감의궤 (1)  
仁祖長陵遷陵都監儀軌 (一)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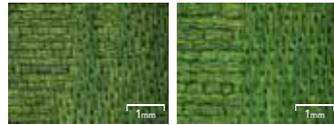


외규141 / 외규429

인조장릉천릉도감의궤 (2)  
仁祖長陵遷陵都監儀軌 (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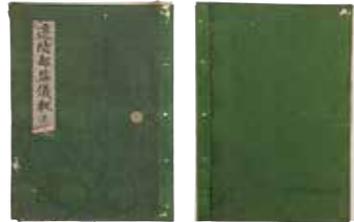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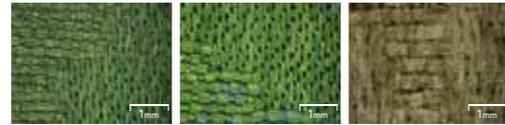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외규142 / 외규430

인조장릉천릉도감의궤 (3)  
仁祖長陵遷陵都監儀軌 (三)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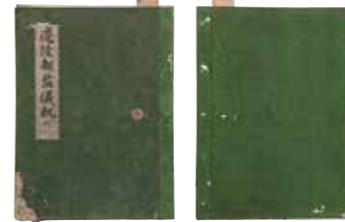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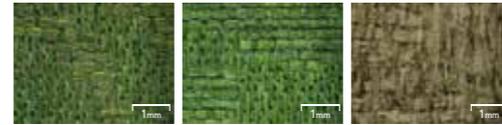
홍협

외규145 / 외규433

인조장릉천릉도감의궤 (6)  
仁祖長陵遷陵都監儀軌 (六)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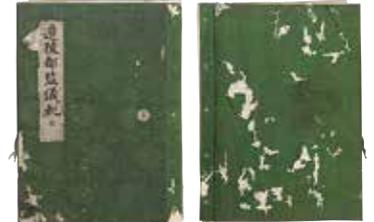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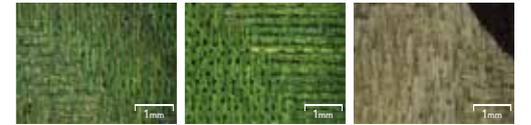
홍협

외규146 / 외규434

인조장릉천릉도감의궤 (7)  
仁祖長陵遷陵都監儀軌 (七)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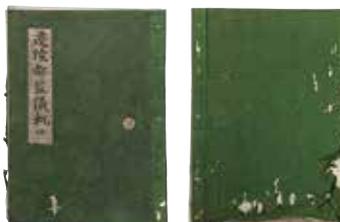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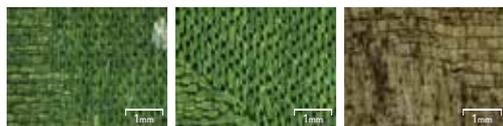
홍협

외규143 / 외규431

인조장릉천릉도감의궤 (4)  
仁祖長陵遷陵都監儀軌 (四)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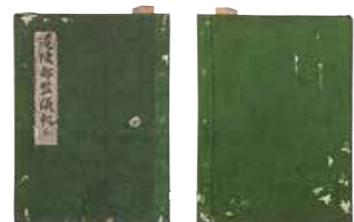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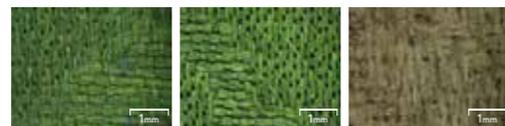
홍협

외규144 / 외규432

인조장릉천릉도감의궤 (5)  
仁祖長陵遷陵都監儀軌 (五)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제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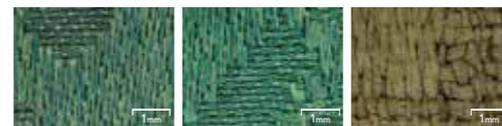
홍협

외규147 / 외규435

현빈옥인조성도감의궤  
賢嬪玉印造成都監儀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제첩



홍협

외규148 / 외규436

세조영정모사도감의궤  
世祖影幀模寫都監儀軌



앞 뒤

개장된 책으로  
올려진 제첩과 홍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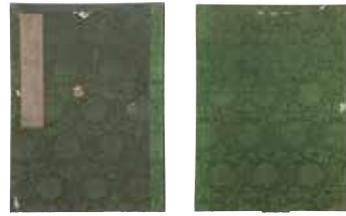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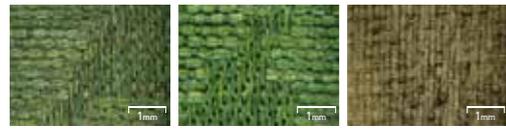
홍협

외규149 / 외규4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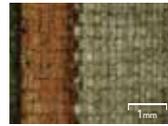
친경의궤  
親耕儀軌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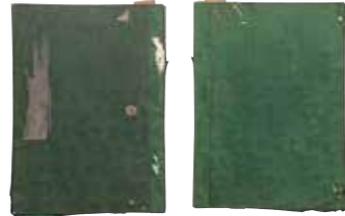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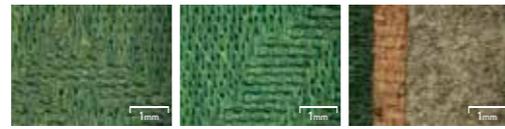
홍협

외규150 / 외규4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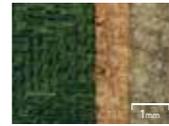
단경왕후온릉봉릉도감의궤 (상)  
端敬王后溫陵封陵都監儀軌 (上)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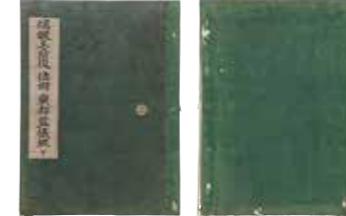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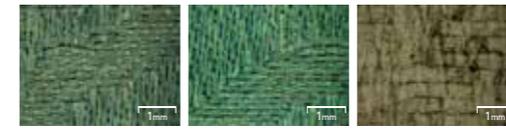
홍협

외규153 / 외규4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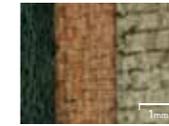
단경왕후복위부묘도감의궤 (하)  
端敬王后復位附廟都監儀軌 (下)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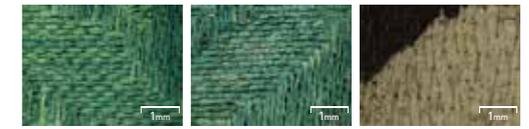
홍협

외규154 / 외규442

효종가상시호도감의궤  
孝宗加上諡號都監儀軌



앞 뒤 개장된 책으로 옮겨진 제침과 홍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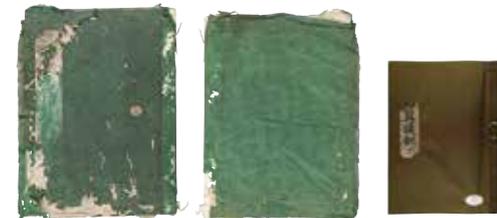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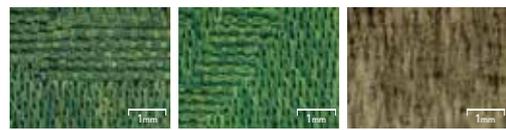
홍협

외규151 / 외규439

단경왕후온릉봉릉도감의궤 (하)  
端敬王后溫陵封陵都監儀軌 (下)



앞 뒤 개장된 책으로 옮겨진 제침과 홍협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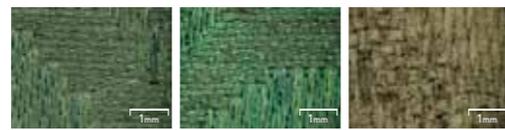
홍협

외규152 / 외규440

단경왕후복위부묘도감의궤 (상)  
端敬王后復位附廟都監儀軌 (上)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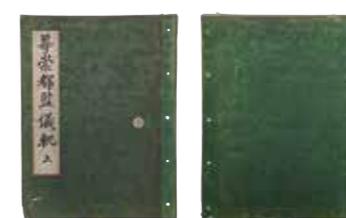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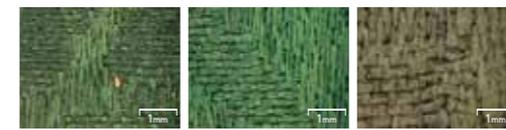
홍협

외규155 / 외규4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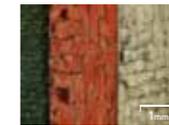
인원왕후영조정성왕후존숭도감의궤 (상)  
仁元王后英祖貞聖王后尊崇都監儀軌 (上)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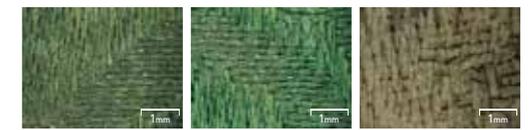
홍협

외규156 / 외규444

인원왕후영조정성왕후존숭도감의궤 (하)  
仁元王后英祖貞聖王后尊崇都監儀軌 (下)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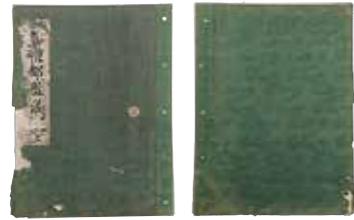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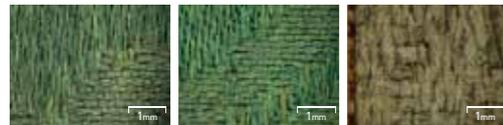
홍협

외규157 / 외규445

사도세자가례도감의궤 (상)  
思悼世子嘉禮都監儀軌 (上)



앞 뒤



책의(앞) 책의(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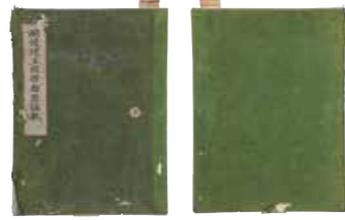
제첩



홍협

외규158 / 외규446

숙종인현왕후명릉개수도감의궤  
肅宗仁顯王后明陵改修都監儀軌



앞 뒤



책의(앞) 책의(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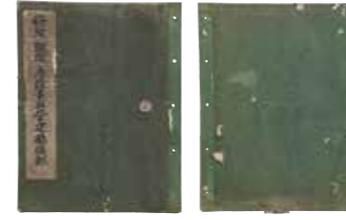
제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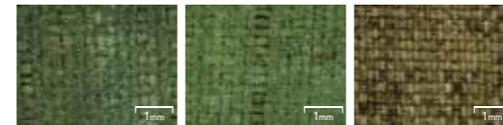
홍협

외규161 / 외규449

목릉휘릉혜릉표석영건청의궤  
穆陵徽陵惠陵表石營建廳儀軌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제첩



홍협

외규162 / 외규450

인원왕후존숭도감의궤 (상)  
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 (上)



앞 뒤



책의(앞) 책의(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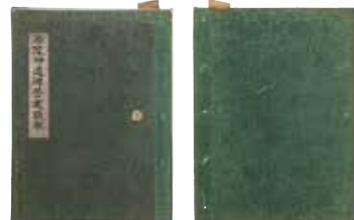
제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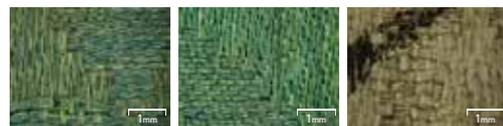
홍협

외규159 / 외규447

신의왕후제릉신도비영건청의궤  
神懿王后齊陵神道碑營建廳儀軌



앞 뒤



책의(앞) 책의(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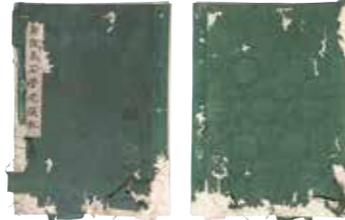
제첩



홍협

외규160 / 외규448

세종영릉표석영건청의궤  
世宗英陵表石營建廳儀軌



앞 뒤



책의(앞) 책의(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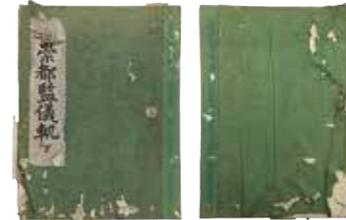
제첩



홍협

외규163 / 외규451

인원왕후존숭도감의궤 (하)  
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 (下)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제첩



홍협

외규164 / 외규452

진전중수도감의궤 (상)  
眞殿重修都監儀軌 (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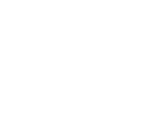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제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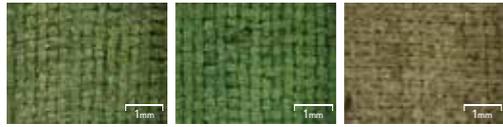
홍협

외규165 / 외규4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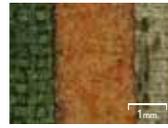
진전중수도감의궤 (중)  
眞殿重修都監儀軌 (中)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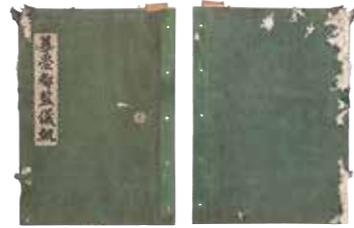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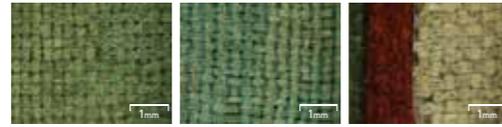
홍협

외규166 / 외규4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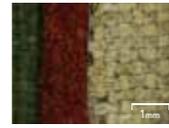
인원왕후존숭도감의궤  
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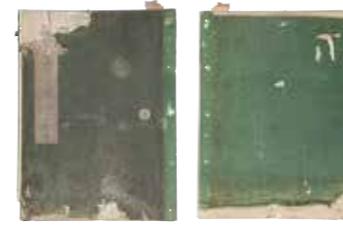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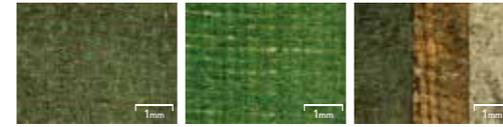
홍협

외규169 / 외규457

효순현빈묘소도감의궤 (하)  
孝純賢嬪墓所都監儀軌 (下)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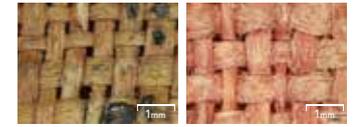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홍협

외규170 / 외규458

효순현빈묘소도감의궤 (하)  
孝純賢嬪墓所都監儀軌 (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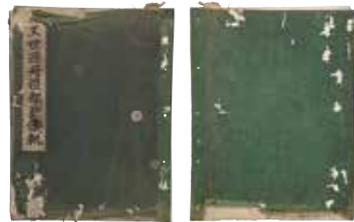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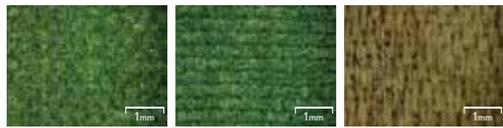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외규167 / 외규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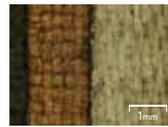
의소세손책례도감의궤  
懿昭世孫冊禮都監儀軌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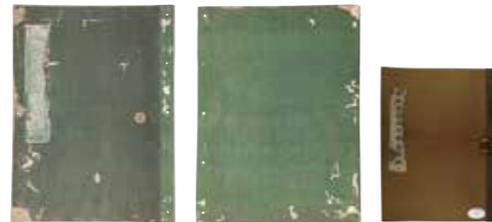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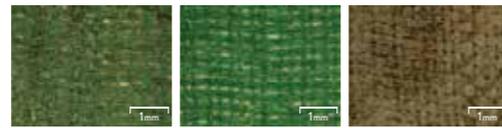
홍협

외규168 / 외규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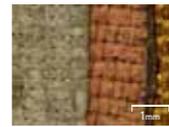
효순현빈묘소도감의궤 (상)  
孝純賢嬪墓所都監儀軌 (上)



앞 뒤 개장된 책으로 옮겨진 제첩과 홍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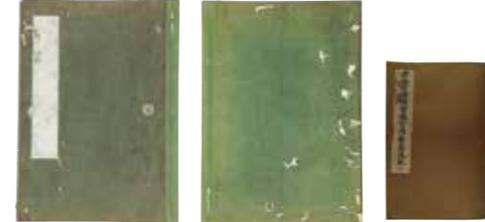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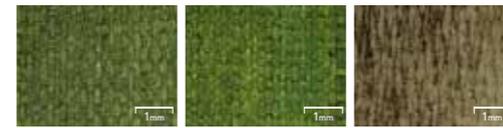
홍협

외규171 / 외규4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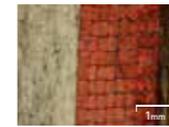
효순현빈빈궁혼궁도감의궤 (상)  
孝純賢嬪賓宮魂宮都監儀軌 (上)



앞 뒤 개장된 책으로 옮겨진 제첩과 홍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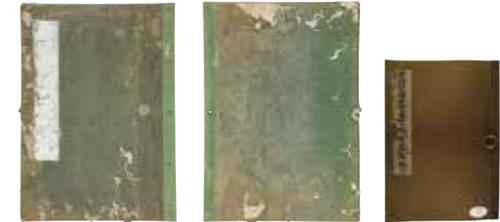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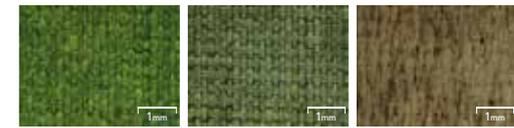
홍협

외규172 / 외규460

효순현빈빈궁혼궁도감의궤 (하)  
孝純賢嬪賓宮魂宮都監儀軌 (下)



앞 뒤 개장된 책으로 옮겨진 제첩과 홍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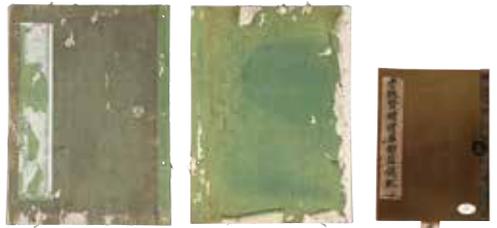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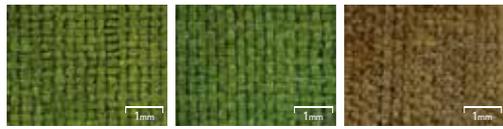
홍협

외규173 / 외규4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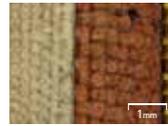
효순현빈예장도감의궤 (상)  
孝純賢嬪禮葬都監儀軌 (上)



앞 뒤 개장된 책으로 옮겨진 제첩과 홍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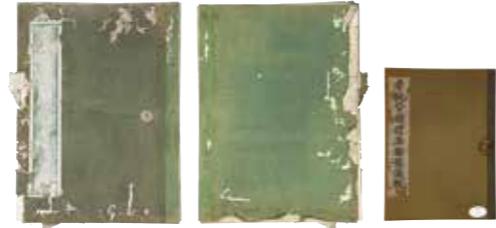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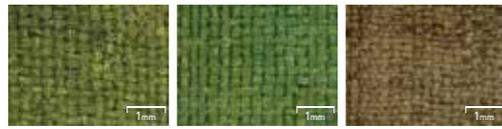
홍협

외규174 / 외규4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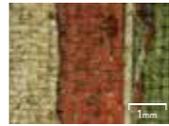
효순현빈예장도감의궤 (하)  
孝純賢嬪禮葬都監儀軌 (下)



앞 뒤 개장된 책으로 옮겨진 제첩과 홍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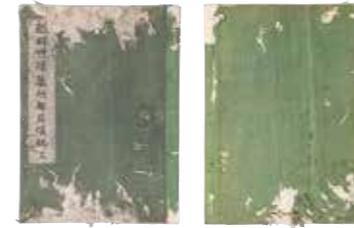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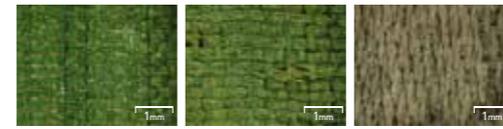
홍협

외규177 / 외규4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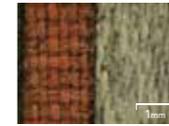
의소세손묘소도감의궤 (상)  
懿昭世孫墓所都監儀軌 (上)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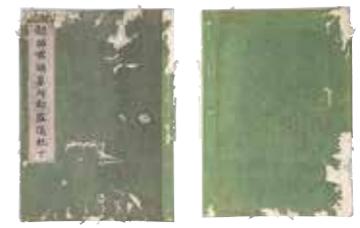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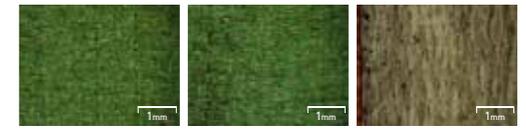
홍협

외규178 / 외규4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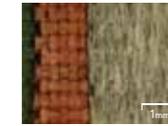
의소세손묘소도감의궤 (하)  
懿昭世孫墓所都監儀軌 (下)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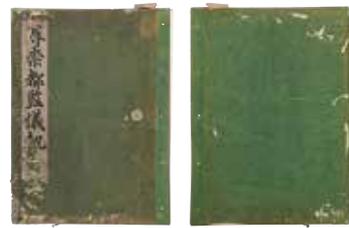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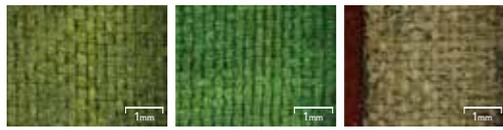
홍협

외규175 / 외규4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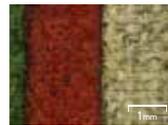
인원왕후영조정성왕후존숭도감의궤 (상)  
仁元王后英祖貞聖王后尊崇都監儀軌 (上)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제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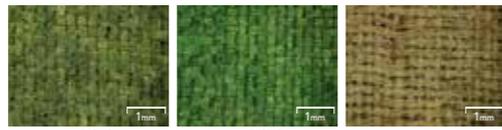
홍협

외규176 / 외규4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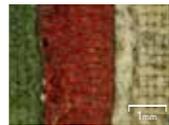
인원왕후영조정성왕후존숭도감의궤 (하)  
仁元王后英祖貞聖王后尊崇都監儀軌 (下)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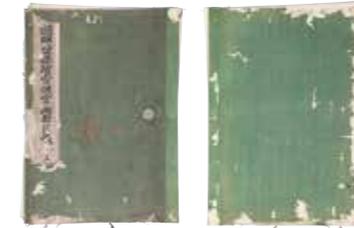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홍협

외규179 / 외규467

의소세손빈궁훈궁도감의궤 (상)  
懿昭世孫嬪宮魂宮都監儀軌 (上)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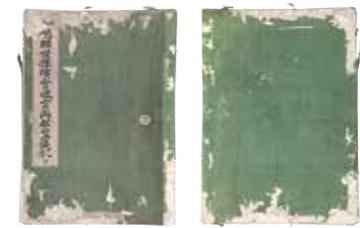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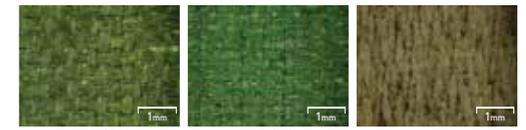
홍협

외규180 / 외규468

의소세손빈궁훈궁도감의궤 (하)  
懿昭世孫嬪宮魂宮都監儀軌 (下)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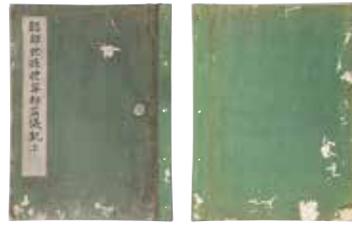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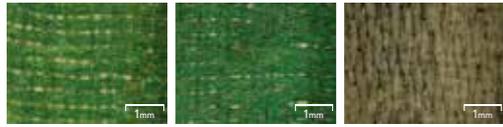
홍협

외규181 / 외규4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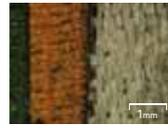
의소세손예장도감의궤 (상)  
懿昭世孫禮葬都監儀軌 (上)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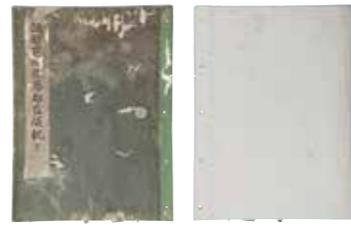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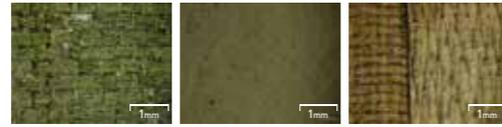
홍협

외규182 / 외규4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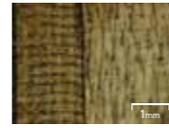
의소세손예장도감의궤 (하)  
懿昭世孫禮葬都監儀軌 (下)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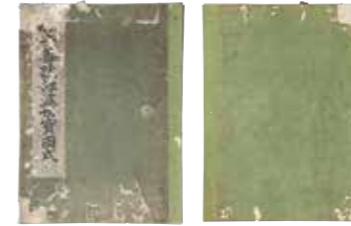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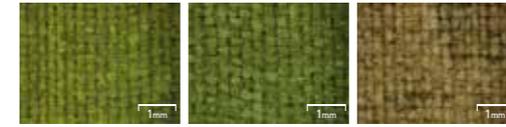
홍협

외규185 / 외규473

숙종인경왕후인현왕후인원왕후가상존호도감책보도식  
肅宗仁敬王后仁顯王后仁元王后加上尊號都監冊寶圖式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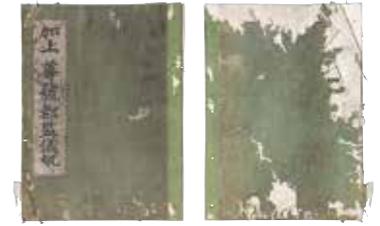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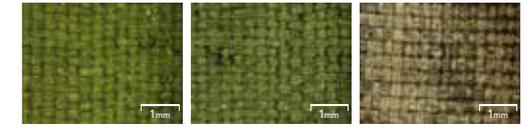
홍협

외규186 / 외규474

숙종인경왕후인현왕후인원왕후가상존호도감의궤 (상)  
肅宗仁敬王后仁顯王后仁元王后加上尊號都監儀軌 (上)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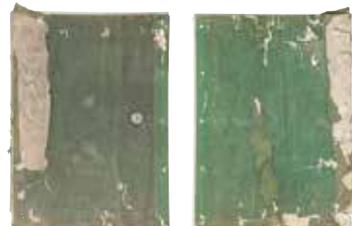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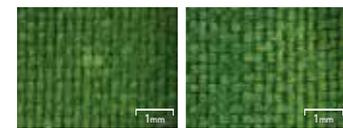
홍협

외규183 / 외규471

의소묘영건청의궤  
懿昭廟營建廳儀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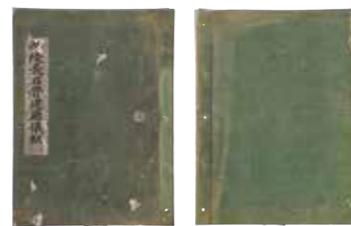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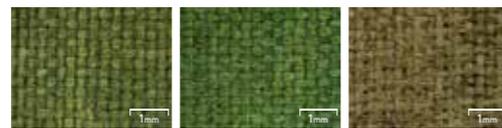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외규184 / 외규472

희릉태릉효릉강릉장릉표석영건청의궤  
禧陵泰陵孝陵康陵章陵表石營建廳儀軌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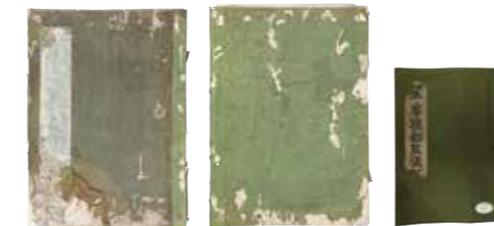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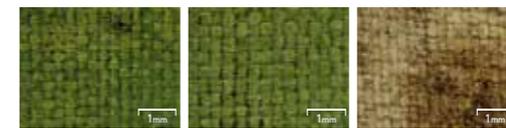
홍협

외규187 / 외규475

숙종인경왕후인현왕후인원왕후가상존호도감의궤 (하)  
肅宗仁敬王后仁顯王后仁元王后加上尊號都監儀軌 (下)



앞 뒤 개장된 책의로 옮겨진 제침과 홍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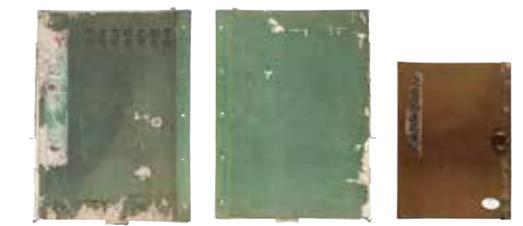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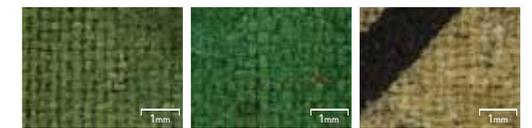
홍협

외규188 / 외규476

후릉현릉광릉경릉창릉선릉정릉표석영건청의궤  
厚陵顯陵光陵敬陵昌陵宣陵靖陵表石營建廳儀軌



앞 뒤 개장된 책의로 옮겨진 제침과 홍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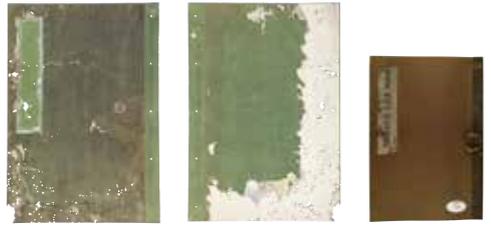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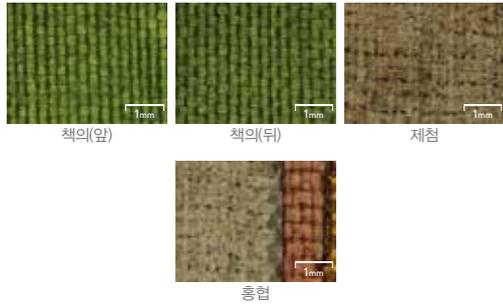
홍협

외규189 / 외규477

풍양구궐유지비석수립의궤  
豊壤舊闕遺址碑石豎立儀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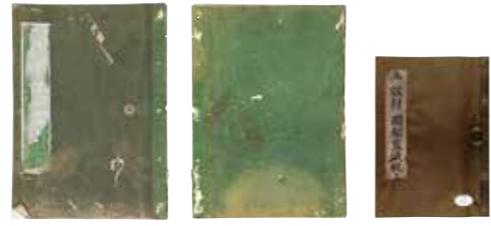


앞 뒤 개장된 책으로 옮겨진 제침과 홍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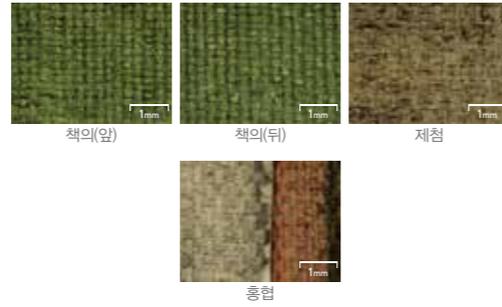


외규190 / 외규478

경혜인빈상시봉원도감의궤 (상)  
敬惠仁嬪上謚封園都監儀軌 (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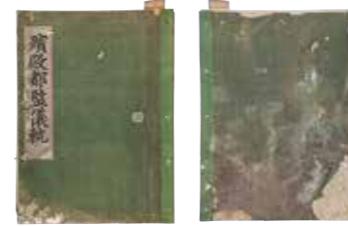


앞 뒤 개장된 책으로 옮겨진 제침과 홍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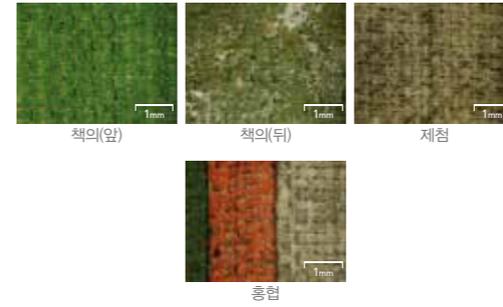


외규193 / 외규481

정성왕후빈전도감의궤  
貞聖王后殯殿都監儀軌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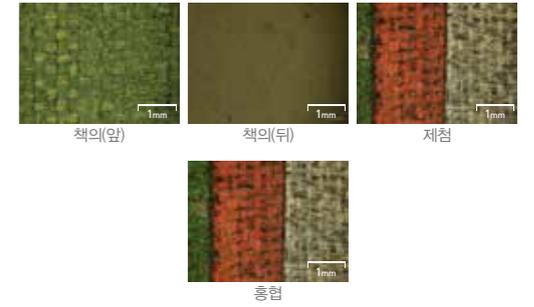


외규194 / 외규482

정성왕후혼전도감의궤  
貞聖王后魂殿都監儀軌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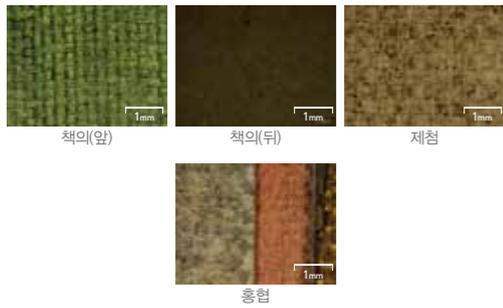


외규191 / 외규479

경혜인빈상시봉원도감의궤 (하)  
敬惠仁嬪上謚封園都監儀軌 (下)



앞 뒤 개장된 책으로 옮겨진 제침과 홍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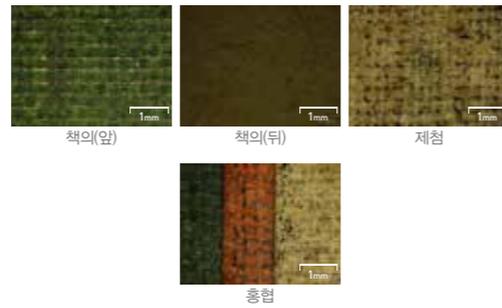


외규192 / 외규480

정성왕후홍릉산릉도감의궤 (하)  
貞聖王后弘陵山陵都監儀軌 (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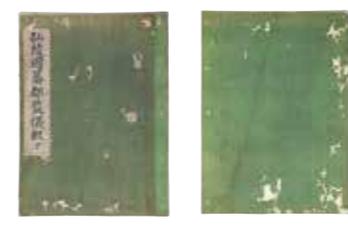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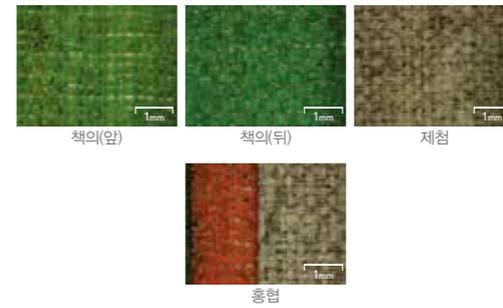


외규195 / 외규483

정성왕후국장도감의궤 (하)  
貞聖王后國葬都監儀軌 (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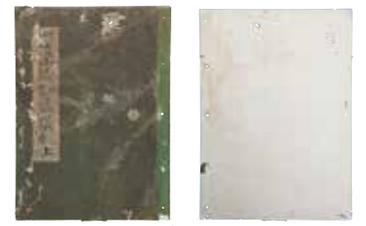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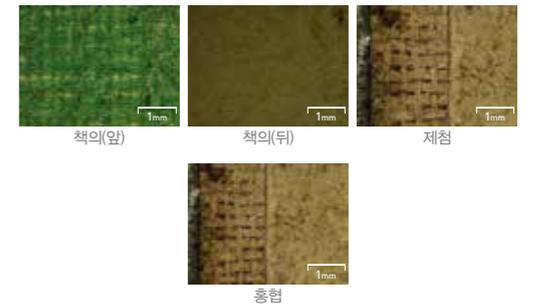


외규196 / 외규484

인원왕후명릉산릉도감의궤 (상)  
仁元王后明陵山陵都監儀軌 (上)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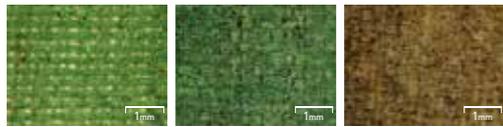


외규197 / 외규4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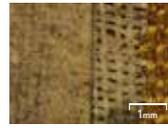
인원왕후명릉산릉도감의궤 (하)  
仁元王后明陵山陵都監儀軌 (下)



앞 뒤 개장된 책으로 옮겨진 제침과 홍협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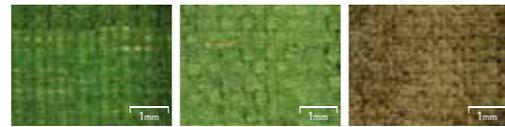
홍협

외규198 / 외규4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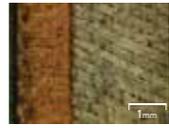
인원왕후빈전도감의궤  
仁元王后殯殿都監儀軌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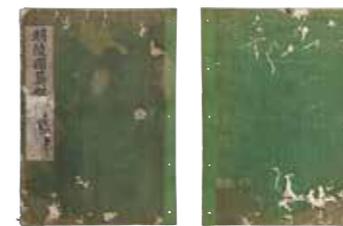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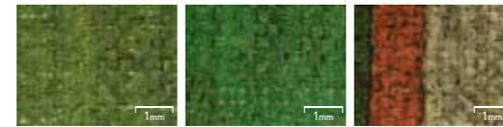
홍협

외규201 / 외규4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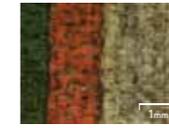
인원왕후국장도감의궤 (하)  
仁元王后國葬都監儀軌 (下)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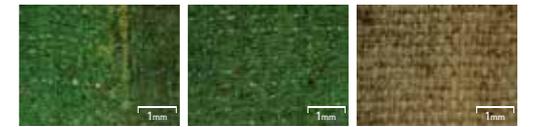
홍협

외규202 / 외규490

인원왕후부묘도감의궤  
仁元王后祔廟都監儀軌



앞 뒤 개장된 책으로 옮겨진 제침과 홍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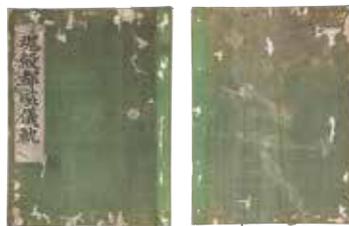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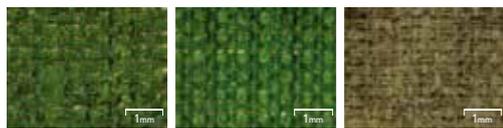
홍협

외규199 / 외규4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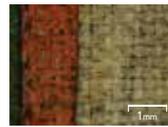
인원왕후혼전도감의궤  
仁元王后魂殿都監儀軌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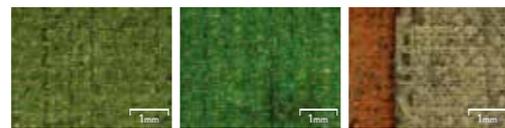
홍협

외규200 / 외규4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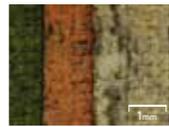
인원왕후국장도감의궤 (상)  
仁元王后國葬都監儀軌 (上)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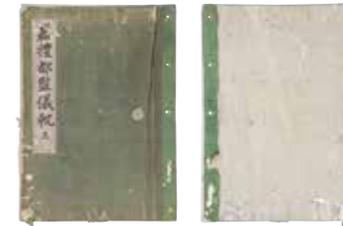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홍협

외규203 / 외규4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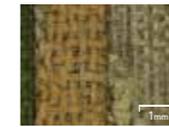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상)  
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 (上)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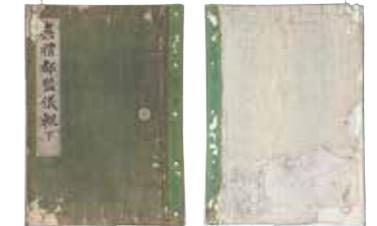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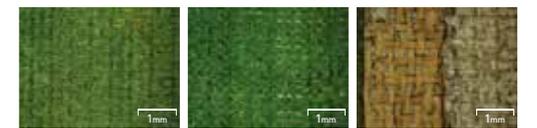
홍협

외규204 / 외규492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하)  
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 (下)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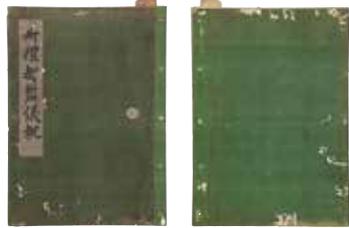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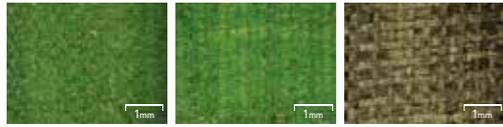
홍협

외규205 / 외규4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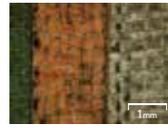
정조왕세손책례도감의궤  
正祖王世孫冊禮都監儀軌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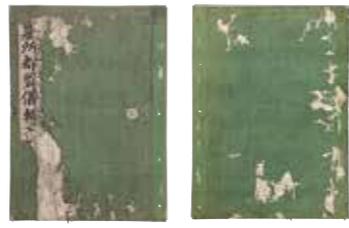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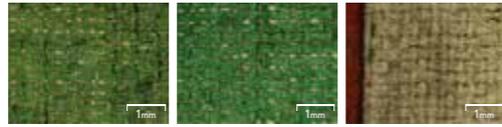
홍협

외규206 / 외규494

사도세자묘소도감의궤 (하)  
思悼世子墓所都監儀軌 (下)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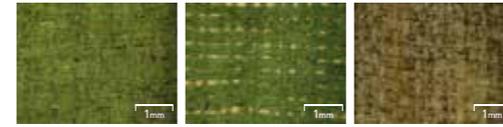
홍협

외규209 / 외규497

태조건원릉정자각중수도감의궤  
太祖健元陵丁字閣重修都監儀軌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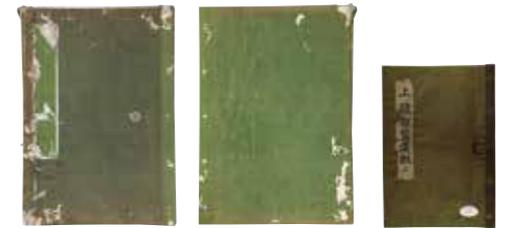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홍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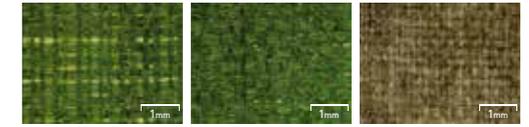
외규210 / 외규498

영조정성왕후정순왕후장헌세자혜빈존호도감의궤 (상)  
英祖貞聖王后貞純王后莊獻世子惠嬪尊號都監儀軌 (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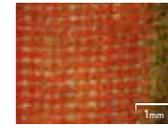


앞 뒤

개장된 책의로 옮겨진 제침과 홍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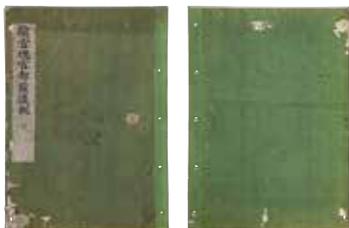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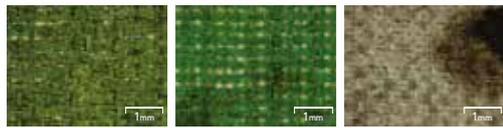
홍협

외규207 / 외규4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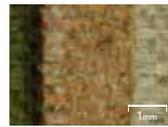
사도세자빈궁혼궁도감의궤 (하)  
思悼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 (下)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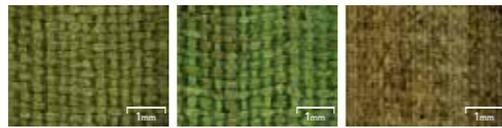
홍협

외규208 / 외규4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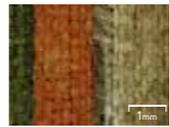
수은묘영건청의궤  
垂恩廟營建廳儀軌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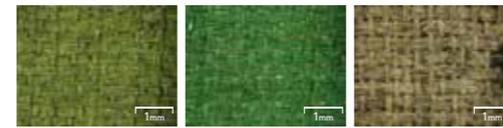
홍협

외규211 / 외규4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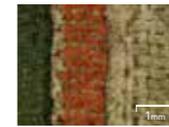
문효세자책례도감의궤  
文孝世子冊禮都監儀軌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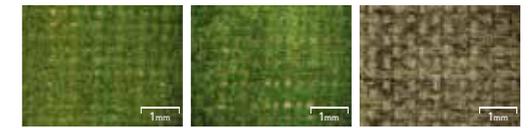
홍협

외규212 / 외규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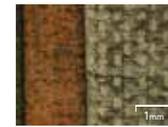
문효세자묘소도감의궤 (상)  
文孝世子墓所都監儀軌 (上)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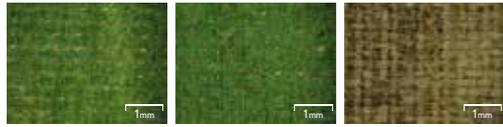
홍협

외규213 / 외규5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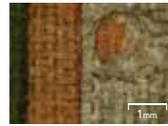
문효세자묘소도감의궤 (하)  
文孝世子墓所都監儀軌 (下)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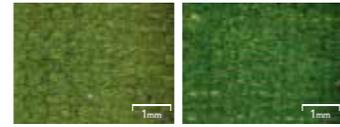
홍협

외규214 / 외규502

문효세자빈궁훈궁도감의궤 (상)  
文孝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 (上)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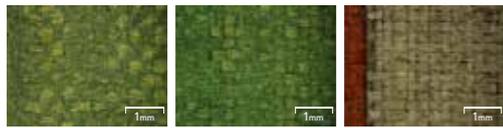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외규215 / 외규5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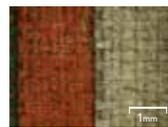
문효세자빈궁훈궁도감의궤 (하)  
文孝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 (下)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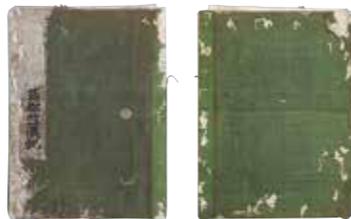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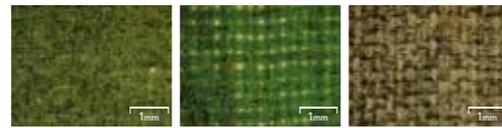


홍협

문효세자예장도감의궤 (상)  
文孝世子禮葬都監儀軌 (上)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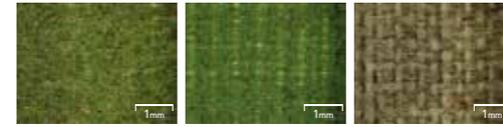
홍협

외규217 / 외규5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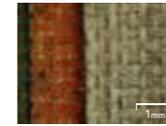
문효세자예장도감의궤 (하)  
文孝世子禮葬都監儀軌 (下)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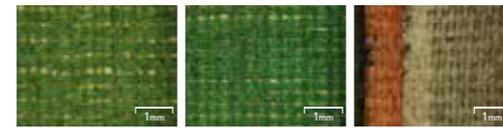
홍협

외규219 / 외규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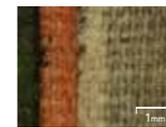
문희묘영건청등록  
文禧廟營建廳謄錄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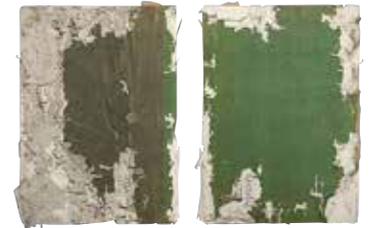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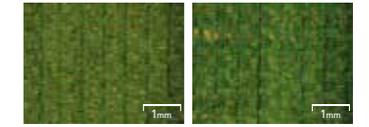
홍협

외규218 / 외규506

정순왕후가상존호도감의궤  
貞純王后加上尊號都監儀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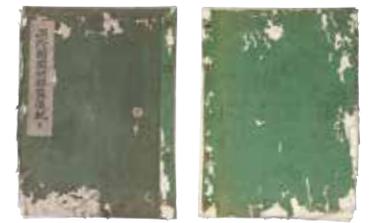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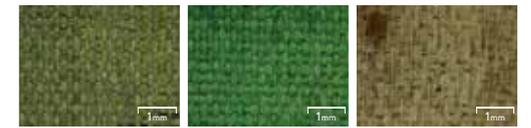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외규220 / 외규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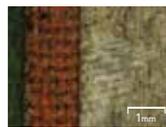
장헌세자현릉원원소도감의궤 (상)  
莊獻世子顯陵園園所都監儀軌 (上)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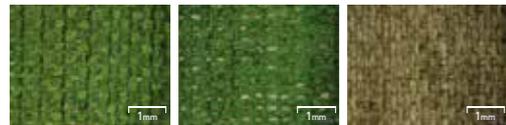
홍협

외규221 / 외규509

장헌세자영우원친봉도감의궤 (4)  
莊獻世子永祐園遷奉都監儀軌 (四)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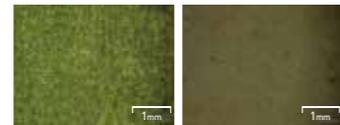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외규222 / 외규510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궤 (상)  
純祖純元王后嘉禮都監儀軌 (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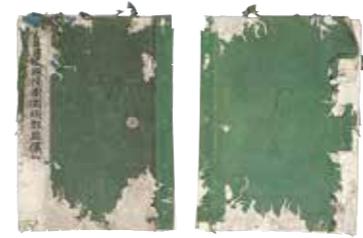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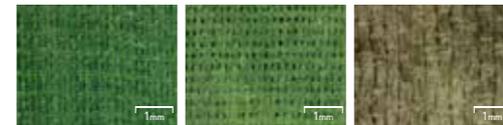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외규225 / 외규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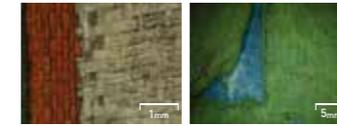
헌경혜빈현릉원원소도감의궤 (상)  
獻敬惠嬪顯陵園園所都監儀軌 (上)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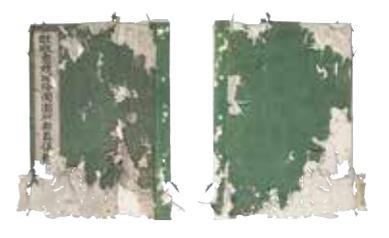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홍협 후배지

외규226 / 외규5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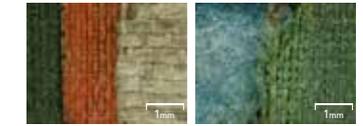
헌경혜빈현릉원원소도감의궤 (하)  
獻敬惠嬪顯陵園園所都監儀軌 (下)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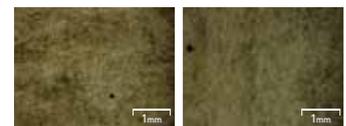
홍협 후배지

외규223 / 외규511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궤 (하)  
純祖純元王后嘉禮都監儀軌 (下)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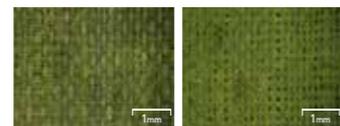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외규224 / 외규512

효명세자책례도감의궤  
孝明世子册禮都監儀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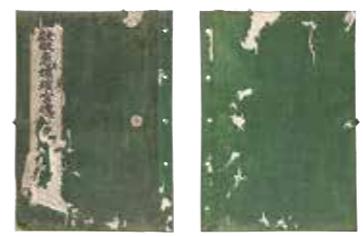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외규227 / 외규515

헌경혜빈빈궁혼궁도감의궤 (상)  
獻敬惠嬪賓宮魂宮都監儀軌 (上)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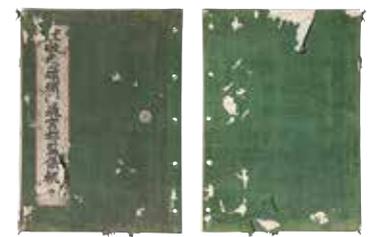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홍협 후배지

외규228 / 외규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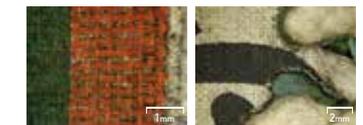
헌경혜빈빈궁혼궁도감의궤 (중)  
獻敬惠嬪賓宮魂宮都監儀軌 (中)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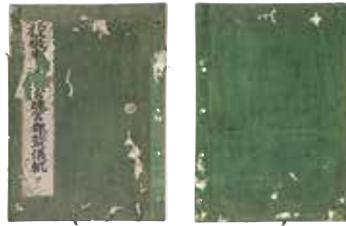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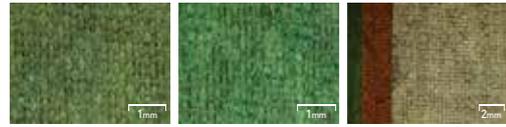
홍협 후배지

외규229 / 외규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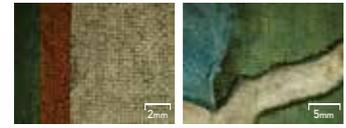
헌경혜빈빈궁혼궁도감의궤 (하)  
獻敬惠嬪賓宮魂宮都監儀軌 (下)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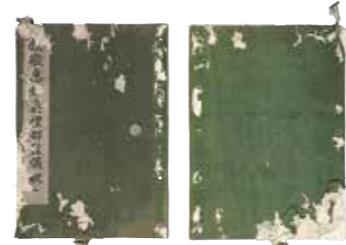
책의(앞) 1mm 책의(뒤) 1mm 제침 2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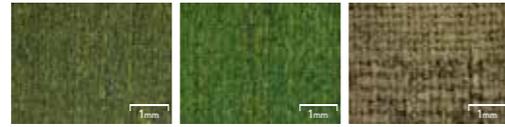
흥협 2mm 후배지 5mm

외규230 / 외규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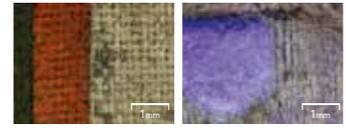
헌경혜빈양례도감의궤 (1)  
獻敬惠嬪襄禮都監儀軌 (一)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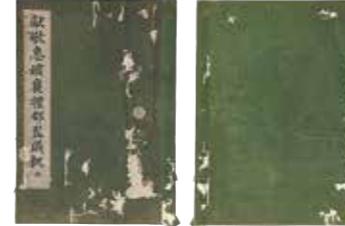
책의(앞) 1mm 책의(뒤) 1mm 제침 1mm



흥협 1mm 후배지 1mm

외규233 / 외규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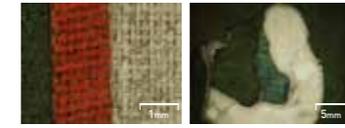
헌경혜빈양례도감의궤 (4)  
獻敬惠嬪襄禮都監儀軌 (四)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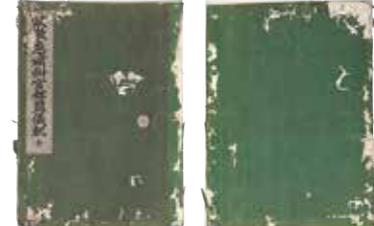
책의(앞) 1mm 책의(뒤) 1mm 제침 1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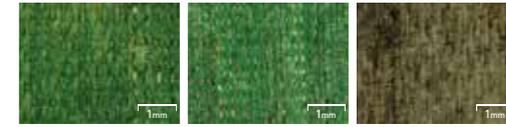
흥협 1mm 후배지 5mm

외규234 / 외규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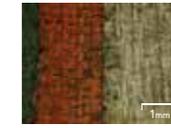
헌경혜빈부궁도감의궤  
獻敬惠嬪附宮都監儀軌



앞 뒤



책의(앞) 1mm 책의(뒤) 1mm 제침 1mm



흥협 1mm

외규231 / 외규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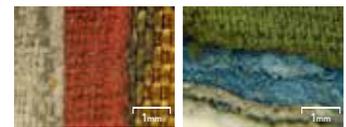
헌경혜빈양례도감의궤 (2)  
獻敬惠嬪襄禮都監儀軌 (二)



앞 뒤 개장된 책의로 옮겨진 제침



책의(앞) 1mm 책의(뒤) 1mm 제침 1mm



흥협 1mm 후배지 1mm

외규232 / 외규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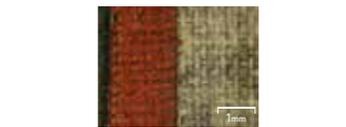
헌경혜빈양례도감의궤 (3)  
獻敬惠嬪襄禮都監儀軌 (三)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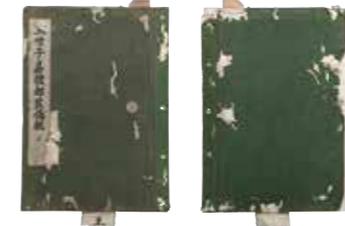
책의(앞) 1mm 책의(뒤) 1mm 제침 1mm



흥협 1mm

외규235 / 외규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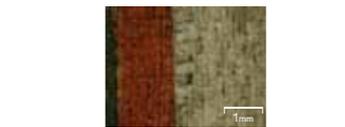
효명세자가례도감의궤 (상)  
孝明世子嘉禮都監儀軌 (上)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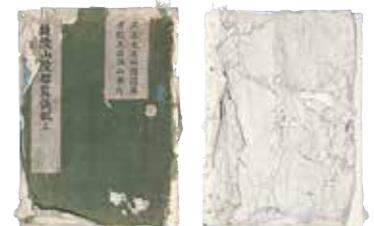
책의(앞) 1mm 책의(뒤) 1mm 제침 1mm



흥협 1mm

외규236 / 외규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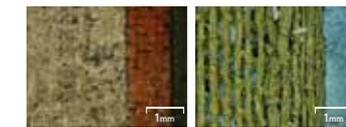
정조효의왕후건릉산릉도감의궤 (상)  
正祖孝懿王后健陵山陵都監儀軌 (上)



앞 뒤



책의(앞) 1mm 책의(뒤) 1mm 제침 1mm



흥협 1mm 후배지 1mm

외규237

효의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상)  
孝懿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上)



현재 개장된 책의

※책의 직물이 남아있지 않음

외규238 / 외규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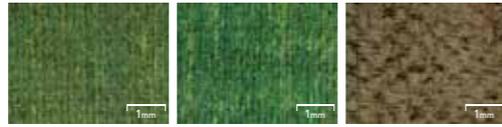
효의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중)  
孝懿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中)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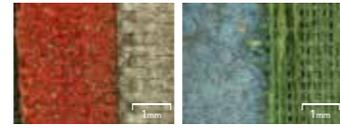
개장된 책으로 옮겨진 제침과 홍협



책의(앞)

책의(뒤)

제침



홍협

후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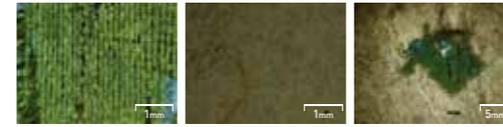
외규241 / 외규528

효의왕후국장도감의궤 (2)  
孝懿王后國葬都監儀軌 (二)



앞

뒤



책의(앞)

책의(뒤)

후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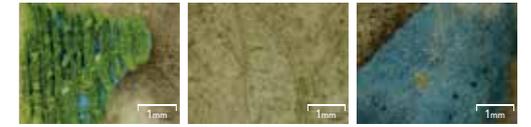
외규242 / 외규529

효의왕후국장도감의궤 (3)  
孝懿王后國葬都監儀軌 (三)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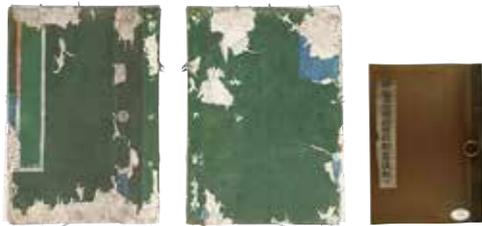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후배지

외규239 / 외규526

효의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하)  
孝懿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下)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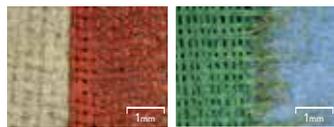
개장된 책으로 옮겨진 제침과 홍협



책의(앞)

책의(뒤)

제침



홍협

후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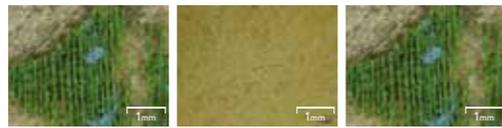
외규240 / 외규527

효의왕후국장도감의궤 (1)  
孝懿王后國葬都監儀軌 (一)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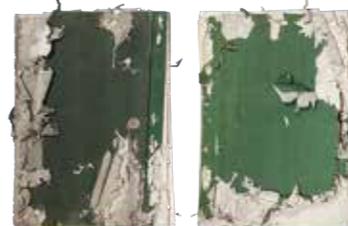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후배지

외규243 / 외규530

정조건릉천봉도감의궤 (1)  
正祖健陵遷奉都監儀軌 (一)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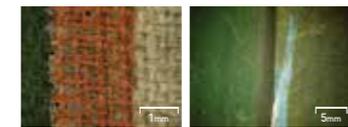
뒤



책의(앞)

책의(뒤)

제침



홍협

후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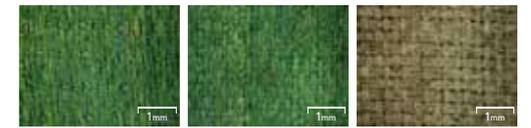
외규244 / 외규531

정조건릉천봉도감의궤 (3)  
正祖健陵遷奉都監儀軌 (三)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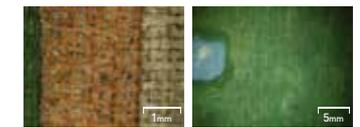
뒤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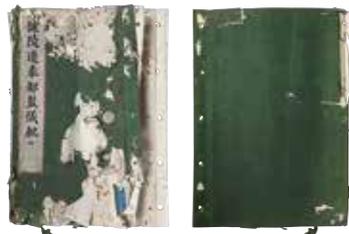


홍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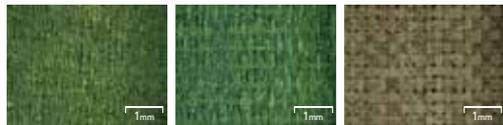
후배지

외규245 / 외규5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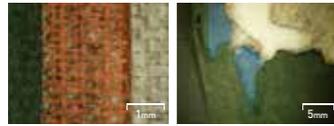
정조건릉천봉도감의궤 (4)  
正祖健陵遷奉都監儀軌 (四)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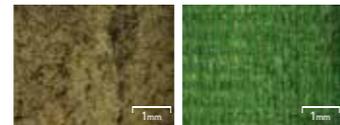
홍협 후배지

외규246 / 외규533

정조건릉천봉도감의궤 (5)  
正祖健陵遷奉都監儀軌 (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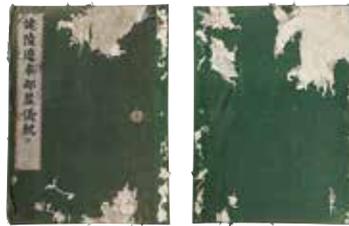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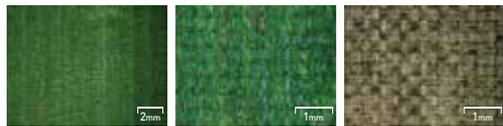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외규247 / 외규5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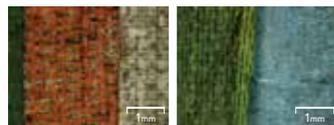
정조건릉천봉도감의궤 (6)  
正祖健陵遷奉都監儀軌 (六)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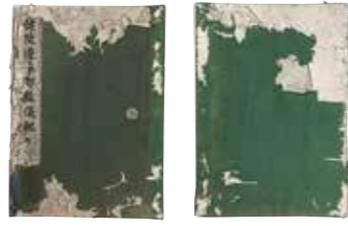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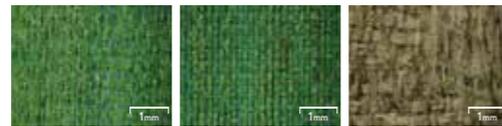
홍협 후배지

외규248 / 외규5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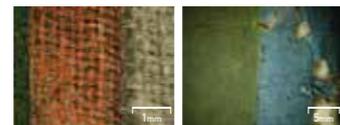
정조건릉천봉도감의궤 (7)  
正祖健陵遷奉都監儀軌 (七)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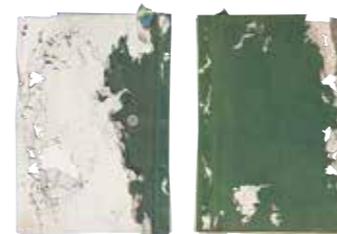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홍협 후배지

외규249 / 외규536

현목수빈휘경원원소도감의궤 (상)  
顯穆綏嬪徽慶園園所都監儀軌 (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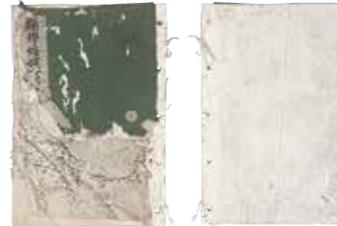
앞 뒤



책의(앞) 책의(뒤) 후배지

외규251 / 외규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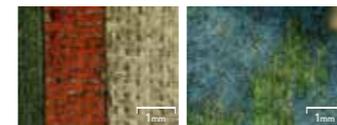
현목수빈빈궁훈궁도감의궤 (상)  
顯穆綏嬪嬪宮勳宮都監儀軌 (上)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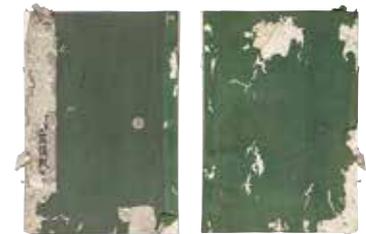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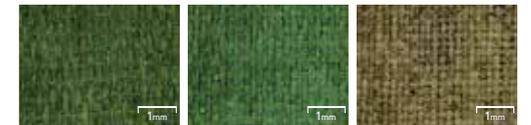
홍협 후배지

외규250 / 외규5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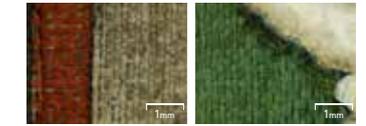
현목수빈휘경원원소도감의궤 (하)  
顯穆綏嬪徽慶園園所都監儀軌 (下)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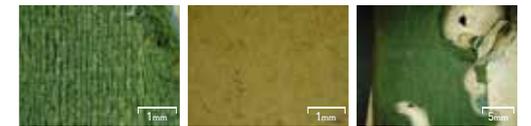
홍협 후배지

외규252 / 외규539

현목수빈빈궁훈궁도감의궤 (중)  
顯穆綏嬪嬪宮勳宮都監儀軌 (中)



앞 뒤



책의(앞) 책의(뒤) 후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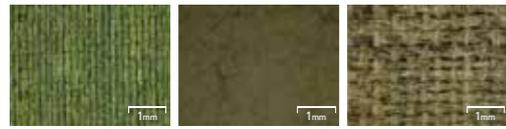
홍협 후배지

외규253 / 외규5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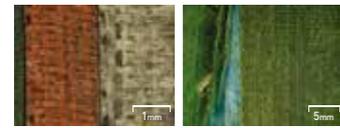
현목수빈궁혼궁도감의궤 (하)  
顯穆綏嬪宮魂宮都監儀軌 (下)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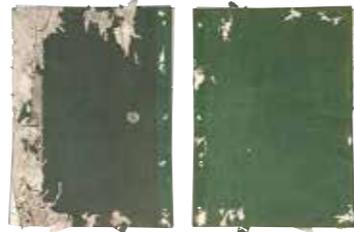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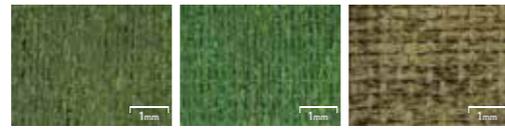
홍협 후배지

외규254 / 외규5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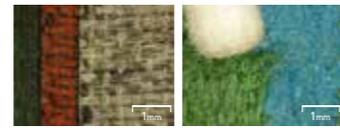
현목수빈장례도감의궤 (1)  
顯穆綏嬪葬禮都監儀軌 (一)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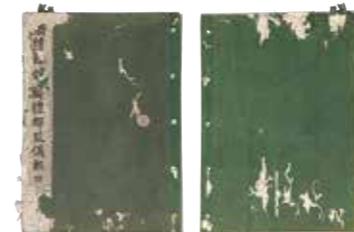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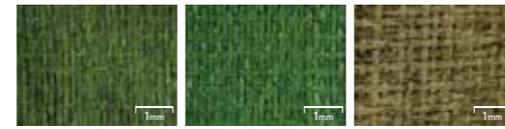
홍협 후배지

외규257 / 외규5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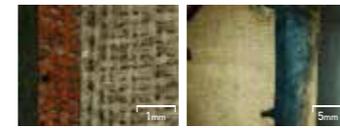
현목수빈장례도감의궤 (4)  
顯穆綏嬪葬禮都監儀軌 (四)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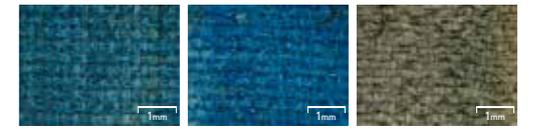
홍협 후배지

외규258 / 외규5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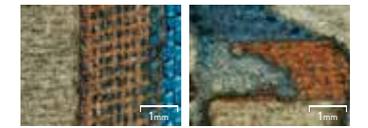
효의왕후부묘도감의궤  
孝懿王后祔廟都監儀軌



앞 뒤 개장된 책의로 옮겨진 제침과 홍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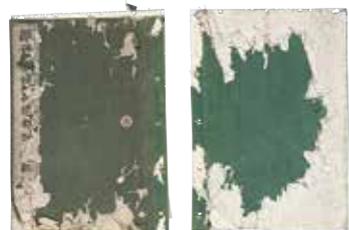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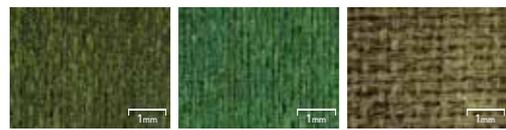
홍협 후배지

외규255 / 외규5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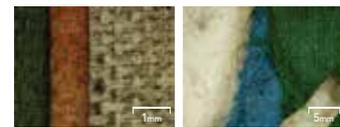
현목수빈장례도감의궤 (2)  
顯穆綏嬪葬禮都監儀軌 (二)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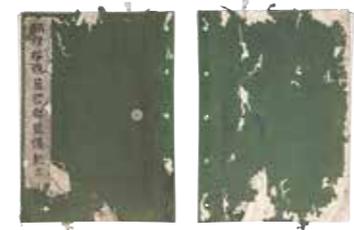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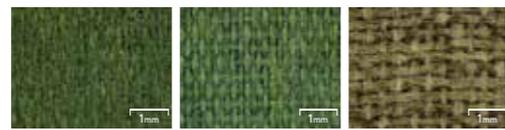
홍협 후배지

외규256 / 외규5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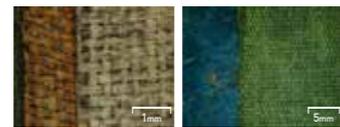
현목수빈장례도감의궤 (3)  
顯穆綏嬪葬禮都監儀軌 (三)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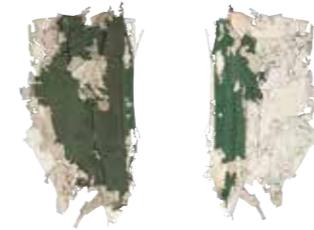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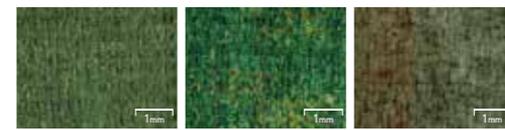
홍협 후배지

외규259 / 외규5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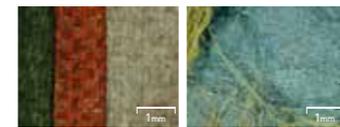
현사궁별묘영건도감의궤  
顯思宮別廟營建都監儀軌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제침



홍협 후배지

외규260 / 외규547

현목수빈입묘도감의궤  
顯穆綏嬪入廟都監儀軌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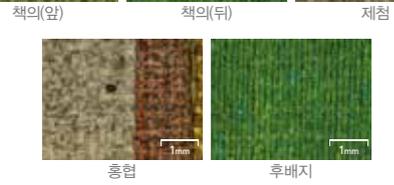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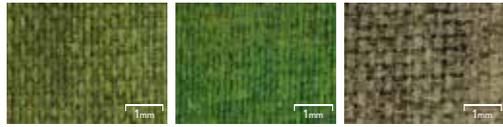
홍협

외규261 / 외규548

효명세자장례도감의궤 (1)  
孝明世子葬禮都監儀軌 (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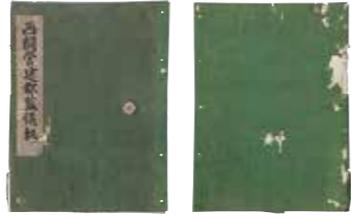


앞 뒤 개장된 책으로 옮겨진 제첩과 홍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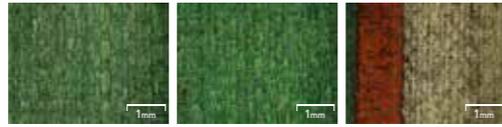


외규262 / 외규549

서궐영건도감의궤  
西闕營建都監儀軌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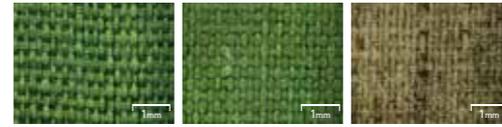


외규265 / 외규552

순조국장도감의궤 (2)  
純祖國葬都監儀軌 (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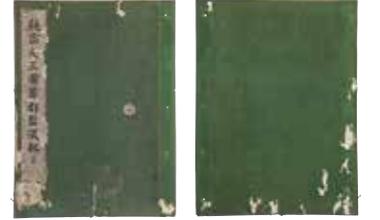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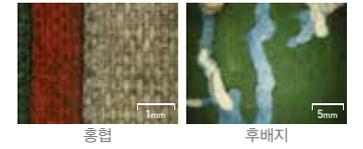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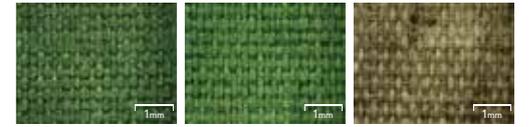


외규266 / 외규553

순조국장도감의궤 (3)  
純祖國葬都監儀軌 (三)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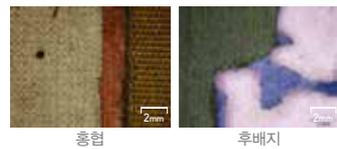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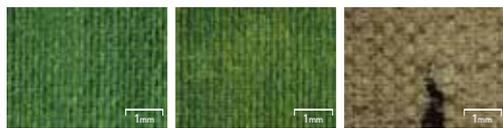


외규263 / 외규550

효명세자입묘도감의궤  
孝明世子入廟都監儀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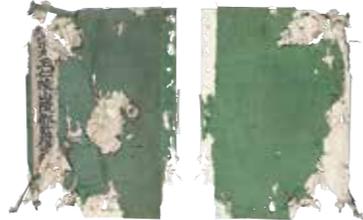


앞 뒤 개장된 책으로 옮겨진 제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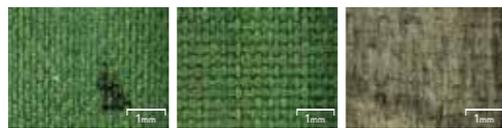


외규264 / 외규551

순조인릉산릉도감의궤 (상)  
純祖仁陵山陵都監儀軌 (上)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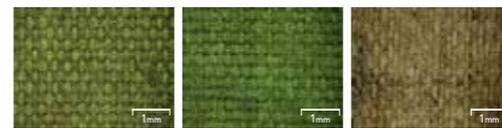


외규267 / 외규554

헌종현왕후정왕후존숭도감의궤  
純元王后神貞王后尊崇都監儀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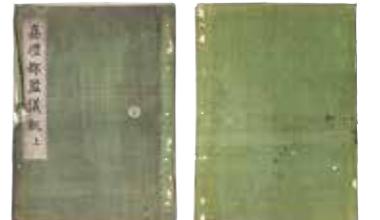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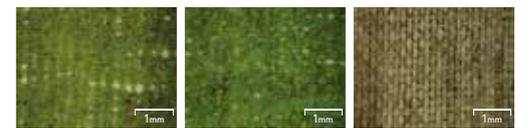


외규268 / 외규555

헌종현왕후가례도감의궤 (상)  
憲宗孝顯王后嘉禮都監儀軌 (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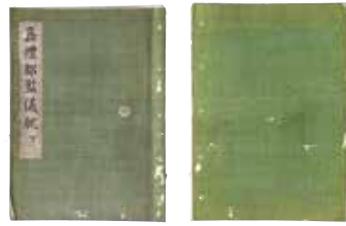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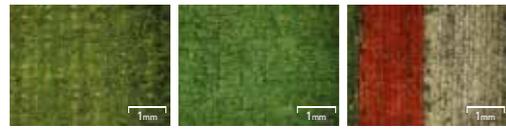


외규269 / 외규556

헌종효현왕후가례도감의궤 (하)  
憲宗孝顯王后嘉禮都監儀軌 (下)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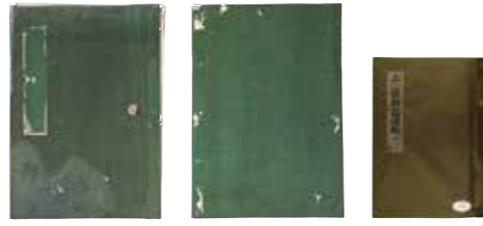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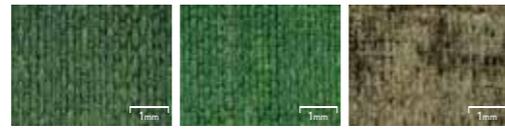
홍협

외규270 / 외규5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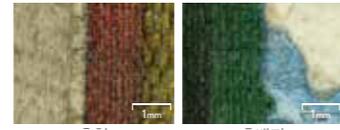
순원왕후상호도감의궤  
純元王后上號都監儀軌



앞 뒤 개장된 책으로 옮겨진 제첩과 홍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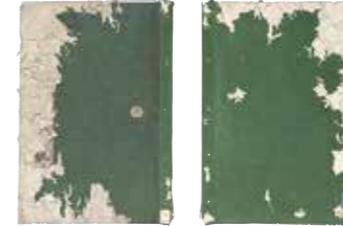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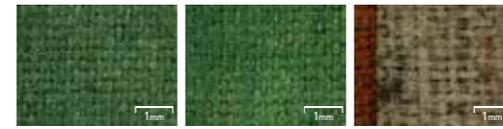
홍협 후배지

외규273 / 외규5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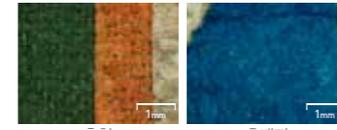
효현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상)  
孝顯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上)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제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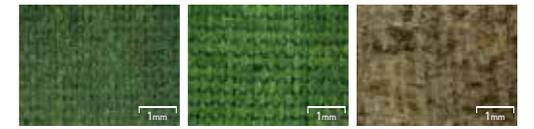
홍협 후배지

외규274 / 외규5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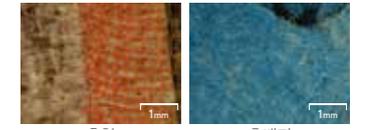
효현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중)  
孝顯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中)



앞 뒤 개장된 책으로 옮겨진 제첩과 홍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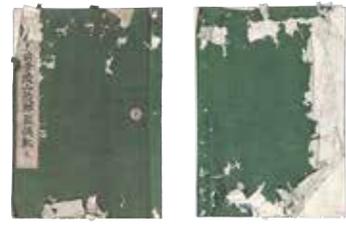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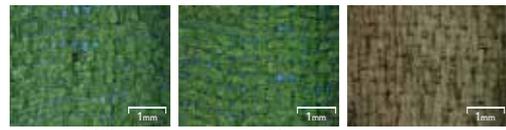
홍협 후배지

외규271 / 외규5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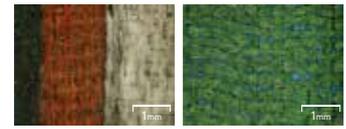
효현왕후경릉산릉도감의궤 (상)  
孝顯王后景陵山陵都監儀軌 (上)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제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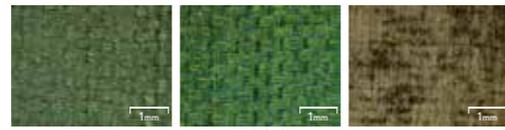
홍협 후배지

외규272 / 외규5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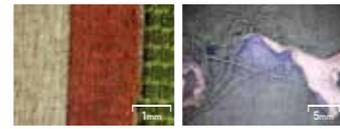
효현왕후경릉산릉도감의궤 (하)  
孝顯王后景陵山陵都監儀軌 (下)



앞 뒤 개장된 책으로 옮겨진 제첩



책의(앞) 책의(뒤) 제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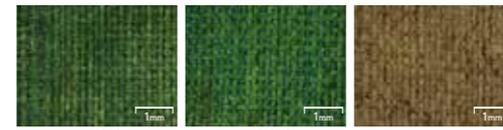
홍협 후배지

외규275 / 외규5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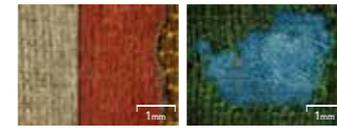
효현왕후국장도감의궤 (1)  
孝顯王后國葬都監儀軌 (一)



앞 뒤 개장된 책으로 옮겨진 제첩과 홍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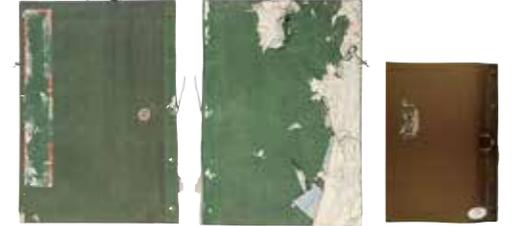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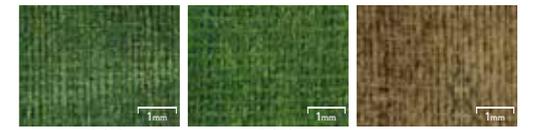
홍협 후배지

외규276 / 외규5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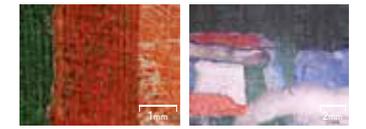
효현왕후국장도감의궤 (2)  
孝顯王后國葬都監儀軌 (二)



앞 뒤 개장된 책으로 옮겨진 제첩과 홍협



책의(앞) 책의(뒤) 제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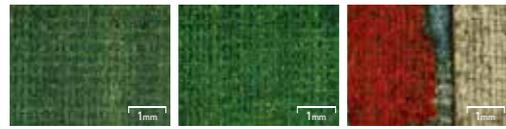
홍협 후배지

외규277 / 외규5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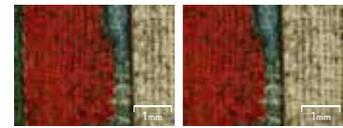
효현왕후국장도감의궤 (3)  
孝顯王后國葬都監儀軌 (三)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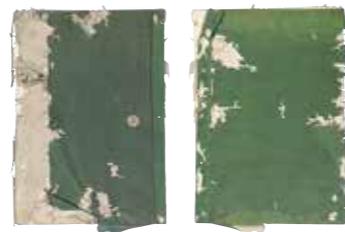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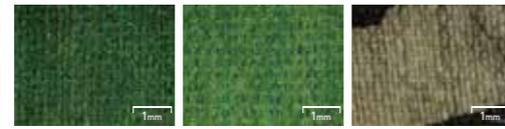
홍협 후배지

외규278 / 외규5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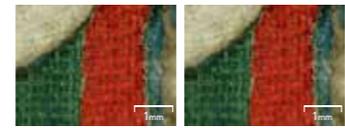
효현왕후국장도감의궤 (4)  
孝顯王后國葬都監儀軌 (四)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제침



홍협 후배지

외규281 / 외규5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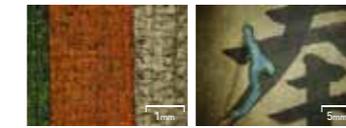
익종수릉천봉도감의궤 (1)  
翼宗綏陵遷奉都監儀軌 (一)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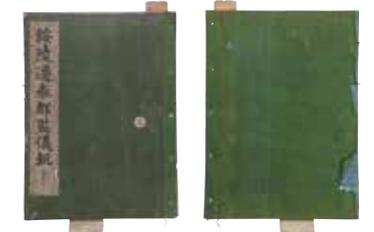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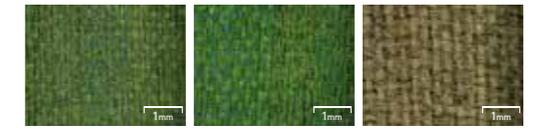
홍협 후배지

외규282 / 외규5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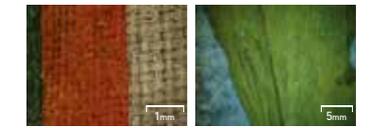
익종수릉천봉도감의궤 (2)  
翼宗綏陵遷奉都監儀軌 (二)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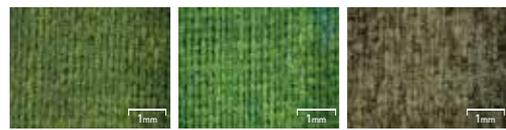
홍협 후배지

외규279 / 외규5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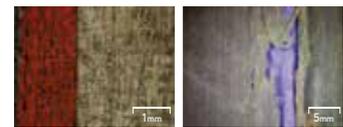
익종수릉천봉산릉도감의궤 (상)  
翼宗綏陵遷奉山陵都監儀軌 (上)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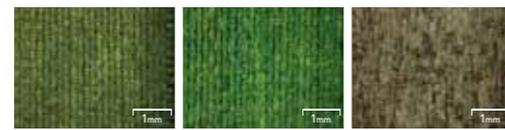
홍협 후배지

외규280 / 외규567

익종수릉천봉산릉도감의궤 (하)  
翼宗綏陵遷奉山陵都監儀軌 (下)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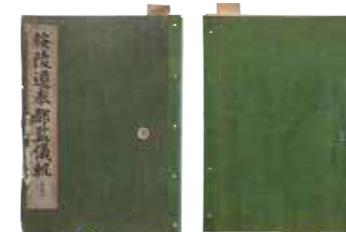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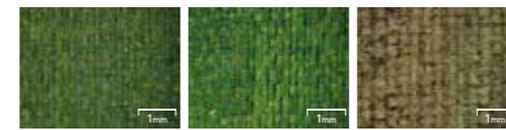
홍협 후배지

외규283 / 외규5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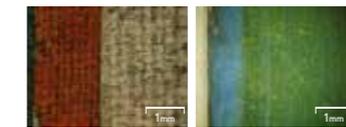
익종수릉천봉도감의궤 (3)  
翼宗綏陵遷奉都監儀軌 (三)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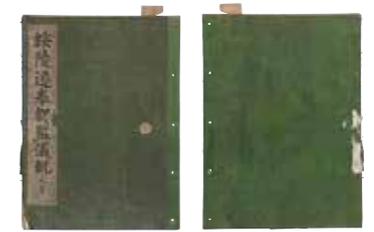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홍협 후배지

외규284 / 외규5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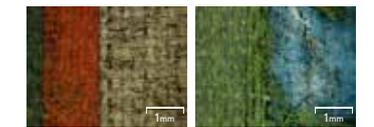
익종수릉천봉도감의궤 (4)  
翼宗綏陵遷奉都監儀軌 (四)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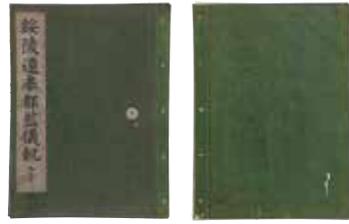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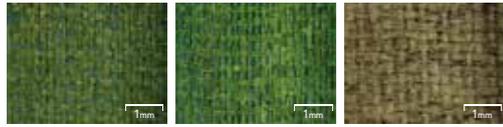
홍협 후배지

외규285 / 외규5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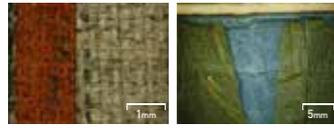
익종수릉친봉도감의궤 (5)  
翼宗綏陵遷奉都監儀軌 (五)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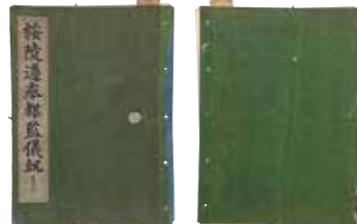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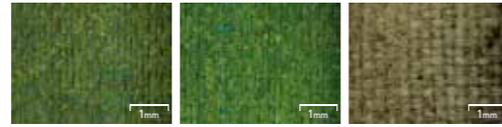
홍협 후배지

외규286 / 외규5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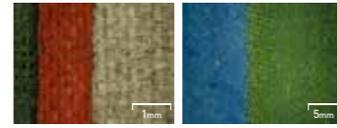
익종수릉친봉도감의궤 (6)  
翼宗綏陵遷奉都監儀軌 (六)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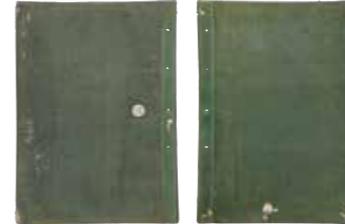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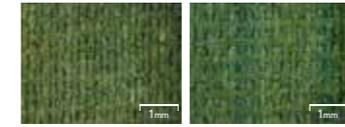
홍협 후배지

외규289 / 외규575

헌종경릉산릉도감의궤 (하)  
憲宗景陵山陵都監儀軌 (下)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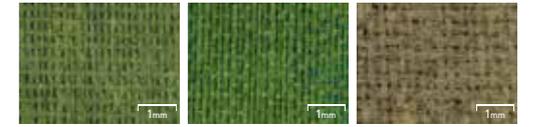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외규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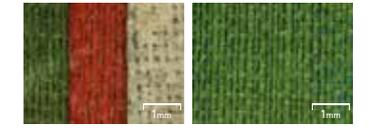
헌종빈전혼전도감의궤 (상)  
憲宗殯殿魂殿都監儀軌 (上)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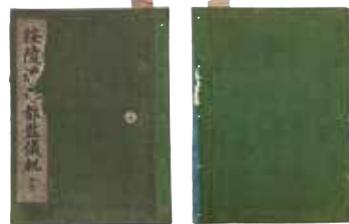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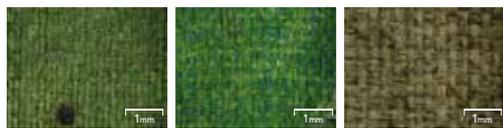
홍협 후배지

외규287 / 외규5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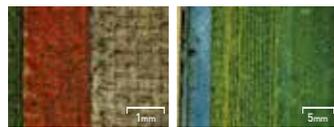
익종수릉친봉도감의궤 (7)  
翼宗綏陵遷奉都監儀軌 (七)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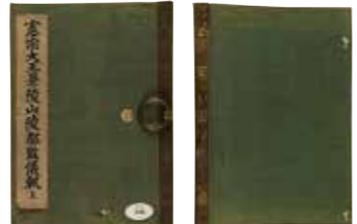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홍협 후배지

외규2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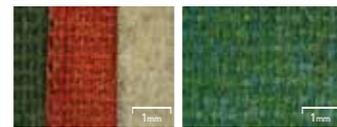
헌종경릉산릉도감의궤 (상)  
憲宗景陵山陵都監儀軌 (上)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제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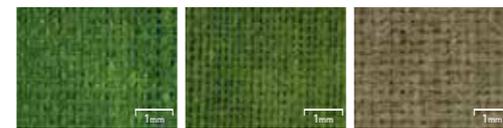
홍협 후배지

외규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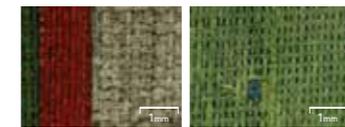
헌종빈전혼전도감의궤 (중)  
憲宗殯殿魂殿都監儀軌 (中)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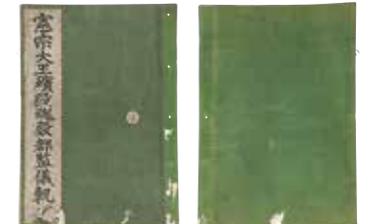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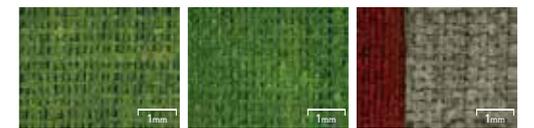
홍협 후배지

외규292 / 외규5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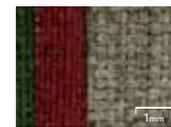
헌종빈전혼전도감의궤 (하)  
憲宗殯殿魂殿都監儀軌 (下)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제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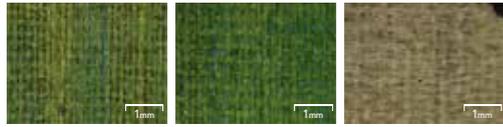
홍협

외규2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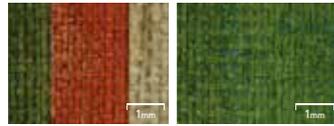
헌종국장도감의궤 (1)  
憲宗國葬都監儀軌 (一)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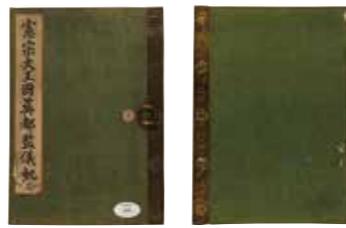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제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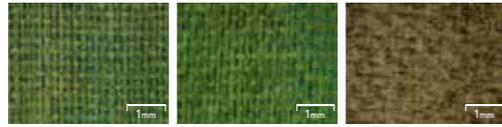
흥협 후배지

외규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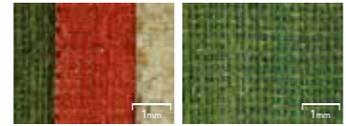
헌종국장도감의궤 (3)  
憲宗國葬都監儀軌 (三)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제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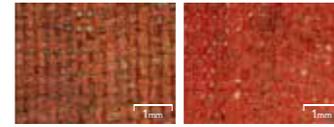
흥협 후배지

외규297 / 외규578

강화부외규장각봉안책보보략어제어필급장치서적형지안  
江華府外奎章閣奉安冊寶譜各御製御筆及藏置書籍形址案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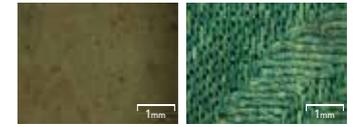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외규579

무번01 책의 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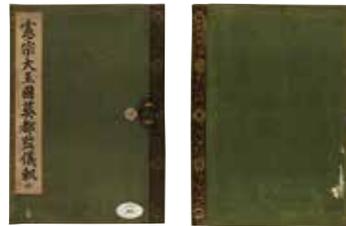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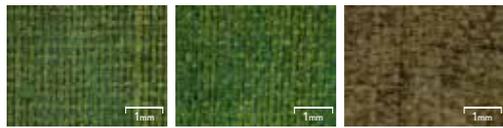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외규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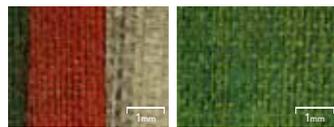
헌종국장도감의궤 (4)  
憲宗國葬都監儀軌 (四)



앞 뒤



책의(앞) 책의(뒤) 제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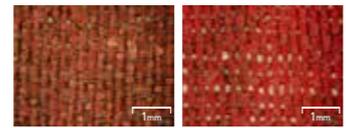
흥협 후배지

외규296 / 외규577

강화부외규장각봉안책보보략어제어필급장치서적형지안  
江華府外奎章閣奉安冊寶譜各御製御筆及藏置書籍形址案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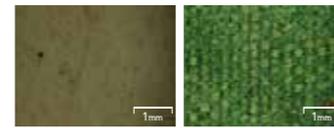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외규580

무번02 책의 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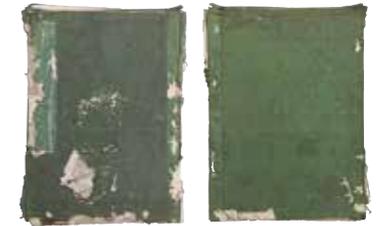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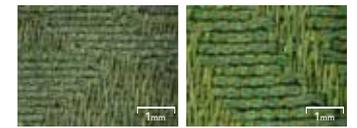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외규581

무번03 책의 직물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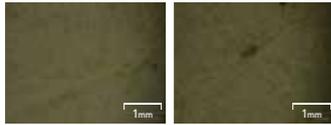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외규582

무늬04 책의 직물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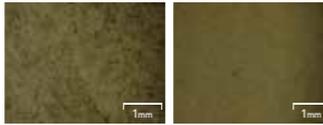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외규583

무늬05 책의 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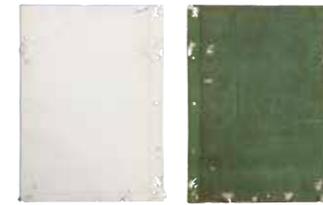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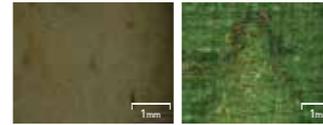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외규588

무늬10 책의 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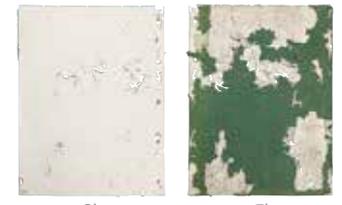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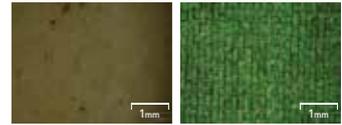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외규589

무늬11 책의 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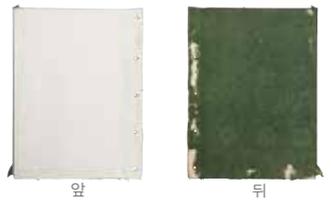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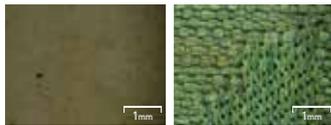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외규584

무늬06 책의 직물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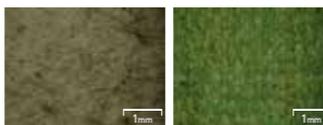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외규585

무늬07 책의 직물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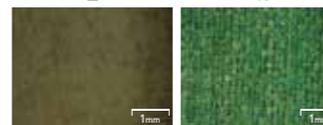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외규590

무늬12 책의 직물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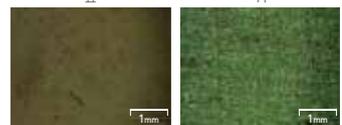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외규591

무늬13 책의 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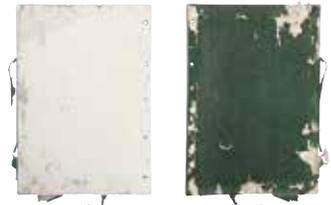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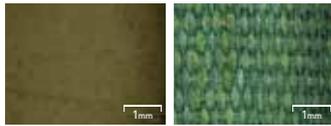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외규586

무늬08 책의 직물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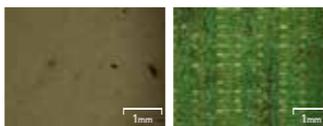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외규587

무늬09 책의 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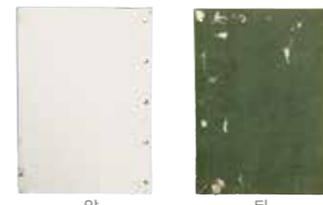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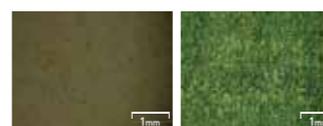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외규592

무늬14 책의 직물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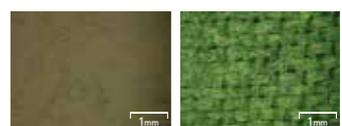
책의(앞) 책의(뒤)

외규593

무늬15 책의 직물



앞 뒤



책의(앞) 책의(뒤)

## 외규장각 의궤의 상황 粧續

Bookbinding of the *Ogyujanggak Uigwe*:

Records of the State Rites of the Joseon Dynasty

---

총괄	송의정
기획	이재정
편집	이재정 이한나
글	조계영 유새롬 박학수 박승원 천주현(수록 순)
조사·정리	유새롬 이한나(의궤 일반) 박승원 황진영(책의 직물)
분석	박학수 김선영(번철) 천주현 김수연 김예인 박미선(책지)
번역	정은선(영문) 이성엽(불문)
영문 감수	Seth Chandler(발간사) Phillip. R. Marher(논고)
교정·교열	이재정 유새롬 박승원 이한나 유시내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  
140-026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T. 02. 2077. 9000  
www.museum.go.kr

**복디자인** 전명철 천진영 최선훈 디자인공방  
**제작·보급** 디자인공방  
100-013 서울시 중구 충무로 3가 57-2 프라임빌딩 4층  
T. 02-2285-4132 F. 02-2266-9821

**인쇄** ㈜ 태웅씨앤피  
**인쇄일** 2014년 12월 18일  
**발행일** 2014년 12월 24일

---

©2014 국립중앙박물관  
이 책의 저작권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담긴 모든 내용 및 자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국립중앙박물관의  
문서를 통한 허가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으로 복사 또는 전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ISBN** 978-89-8164-112-2  
978-89-93773-24-8(세트)